

尊者庵址

濟州道
濟州大學校博物館
1993

발 간 사

성스러운 靈峰 漢拏山은 조국의 남단을 지키는 우리 민족의 기상이요, 제주를 守護하는 강인한 의지입니다. 제주인들은 한라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바람 불고 돌맹이가 구르는 박토를 일구면서 아득한 역사를 영위하고 고유한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제주 역사와 문화의 모태인 한라산은 일찍부터 佛國淨土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한라산 중턱의 불래오름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尊者庵 寺址가 바로 이를 증언하는 佛教遺蹟입니다. 尊者庵은 옛 문헌인 <東國輿地勝覽>과 <耽羅志> 등에도 역사가 오랜 사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찰의 원래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절터만이 숲속에 남아 제주 불교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늘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우리 도에서는 古來로부터 탐라불교의 유명한 古寺로 전해지는 尊者庵터의 文化財的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문화의 전승장과 인문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발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차적인 발굴 조사 결과 건물지, 계단지, 단시설, 탑지추정유구, 浮屠와 적석유구 등이 확인되었고, 분청인화국화문접시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遺物들이 출토되어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탐라 불교의 뿌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93년도에 일차 조사한 成果를 정리하여 集大成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서 尊者庵의 총체적 모습을 밝혀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사보고서가 제주 불교문화의 맥을 잇는 자료로 활용되고, 존자암 사지가 佛心을 닦는 도장으로 이용되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발굴 조사에 애쓰신 제주대학교 李清圭 박물관장님을 비롯한 조사단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3년 10월 일

濟州道知事 禹 謹 敏

머 리 말

존자암 유적은 해발 1200미터가 넘는 한라산 중턱 울창한 삼림 속에 자리잡고 있다. 한라산 영실 주차장에서도 걸어서 30분이상 올라가는 곳에 있으므로, 발굴조사원들이 오르고 내리는 교통이 심하였다.

숙소는 영실 주차장 입구의 한 표고버섯 재배장에 텐트를 설치하여 마련하였는데, 전기는 물론 난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더욱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 발굴기간 중에는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엄청나게 많아 작업을 하지 못한 채, 숙소에 갇혀 있는 날이 많았다.

또한 발굴현장은 잡목이 우거지고, 나무풀뿌리가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표토층이 그리 깊지 않았으면서도 흙을 제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발굴조사의 어려움은 이 뿐만 아니었다. 유적지 한 가운데에는 시신은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무덤을 둘러쌌던 돌담의 돌이 그대로 남아 있어, 순 인력으로만 이를 치우는데 오랜 시일이 걸렸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발굴 작업을 진행해온 제주대 사학과 학생들을 비롯한 발굴조사단원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해마지 않는다.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제주도의 문화체육과와 서귀포시의 관계자 여러분, 서귀포 법륜사 주진아 스님과 신도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앞서 여러 이유로 금번 실시된 발굴작업으로 존자암터의 여러 시기에 걸친 가람배치와 건물의 구조 등을 완전히 밝히지 못하여 부득히 2차 조사를 연장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금번의 조사보고서는 당초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펴낸 것으로, 그 1차 발굴 결과만으로 갖추어진 중간보고의 성격을 띤 것이다. 보다 완전한 가람배치와 건물구조의 보고는 물론, 금번 보고서에 충분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존자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은 다음 최종보고서에서 보완하여 다루고자 한다.

1993년 10월 일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李清圭

* 일러두기

1. 本文圖面の 方向表示는 모두 나침반에 의한 北이다.
2. 모든 도면의 縮小比는 該當圖面 下端에 明示하였다.
3. 본 보고서는 가급적 遺構·遺物에 관한 용어를 한글로 敘述하였다.
4. 本報告書는 李清圭의 總括아래 康昌和가 작성하였다. 기와부분의 원고는 박용범이, 도자기 원고는 김정선이, 도면은 김정주, 방문배, 고정민, 오연숙, 이미자가 맡았다. 유구와 유물의 사진촬영은 康昌和가 하였고, 文獻影印는 金東桢이 도움을 주었다.

尊者庵址

1993年 10月 25日

1993年 10月 30日

編輯：濟州大學校博物館

☎ 54-2242

發行：濟 州 道

☎ 40-1161

印刷：耕 信 印 刷 社

☎ 46-2044, 47-0380

目 次

발간사 / 7

머리말 / 9

제1장 조사 개요 / 19

제1절 조사기간과 조사단 구성 / 19

제2절 조사 경과 / 20

제2장 위치 · 현상 · 발굴방법 / 21

제1절 위치 / 21

제2절 현상과 발굴방법 / 22

제3장 유 구 / 26

제1절 건물지 / 26

제2절 부속시설지 / 38

제3절 기타시설지 / 45

제4절 주변유구 Trench · 지표조사 / 53

제4장 유물 / 54

제1절 기와 / 54

제2절 도자기 / 77

제5장 고 찰 / 115

제1절 유구 / 115

제2절 유물 / 117

제6장 맺음말 / 220

부록 / 121

1. 尊者庵記 / 121

2. 關係文獻影印 / 126

圖版 / 137

圖 面 目 次

圖面	1	유적 위치도	22
圖面	2	유적 위치 및 주변 지형도	22
圖面	3	발굴 구역내 지형도·발굴 구획도	24
圖面	4	발굴유구 전체 실측도	27
圖面	5	제1단 대지내 건물지(1), (2) 실측도	30
圖面	6	건물지(2) 실측도	32
圖面	7	제2단 대지내 건물지(3), (4), (5) 실측도	37
圖面	8	건물지(4), (5) 실측도	36
圖面	9	제3단 대지내 비각지 및 담장지 실측도	40
圖面	10	비각지 및 담장지 실측도	41
圖面	11	제4단 대지내 유구: 부도지 실측도	46
圖面	12	부도 복원 실측도	48
圖面	13	계단지(1)과 제2단 석축 동남편 부분 실측도	43
圖面	14	계단지(3)과 제3단 석축 동남편 부분 실측도	44
圖面	15	비각지 관련 敷石시설 실측도	49
圖面	16	E-W Trench(1)내 적석 시설물 실측도	51
圖面	17	N-S Trench(1)-(3)내 적석 시설과 초석군 실측도	52
圖面	18	尊者庵址 출토 명문암기와(1)	56
圖面	19	尊者庵址 출토 명문암기와(2)	57
圖面	20	尊者庵址 출토 명문암기와(3)	58
圖面	21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1)	59
圖面	22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2)	61
圖面	23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3)	62
圖面	24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4)	63
圖面	25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5)	65
圖面	26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6)	66
圖面	27	尊者庵址 출토 암기와(1)	69

圖面	28	尊者庵址 출토 암기와 (2)	70
圖面	29	尊者庵址 출토 숫기와 (1)	73
圖面	30	尊者庵址 출토 숫기와 (2)	74
圖面	31	尊者庵址 출토 숫기와 (3)	75
圖面	32	尊者庵址 출토 숫기와 (4)	76
圖面	33	尊者庵址 출토 고려청자	78
圖面	34	尊者庵址 출토 인화분청 (1)	84
圖面	35	尊者庵址 출토 인화분청 (2)	85
圖面	36	尊者庵址 출토 인화분청 (3) · 귀얄분청	86
圖面	37	尊者庵址 출토 덩병분청	87
圖面	38	尊者庵址 출토 철화분청장군. 분청주전자	88
圖面	39	尊者庵址 출토 백자 (1)	99
圖面	40	尊者庵址 출토 백자 (2)	100
圖面	41	尊者庵址 출토 백자 (3)	101
圖面	42	尊者庵址 출토 백자 (4)	102
圖面	43	尊者庵址 출토 백자 (5)	103
圖面	44	尊者庵址 출토 백자 (6)	104
圖面	45	尊者庵址 출토 백자 (7)	105
圖面	46	尊者庵址 출토 백자 (8)	106
圖面	47	尊者庵址 출토 백자 (9)	107
圖面	48	尊者庵址 출토 백자 (10)	108
圖面	49	尊者庵址 출토 백자 (11)	109
圖面	50	尊者庵址 출토 명문백자 (1)	112
圖面	51	尊者庵址 출토 명문백자 (2)	113
圖面	52	尊者庵址 출토 靑銅蓋 · 벼루	114

圖版目次

圖版 1 / 137

- ① 尊者庵址 발굴전 상태 (남에서)
- ② 발굴상태 (남에서)

圖版 2 / 138

- ① 유적전경 (남동에서)
- ② 유적전경 (북에서)

圖版 3 / 139

- ① 건물지 (1) 기단석렬 노출상태 (남동에서)
- ② 건물지 (1) 기단석렬 노출상태 (동에서)

圖版 4 / 140

- ① 건물지 (1) 기단석렬 노출상태 (남에서)
- ② 건물지 (1) 기단석렬 노출상태 (서에서)

圖版 5 / 141

- ① 건물지 (1) 기단석렬 노출상태 (동에서)
- ② 건물지 (1) 기단석렬 노출상태 (서에서)

圖版 6 / 142

- ① 건물지 (2) 노출상태 (원경, 남에서)
- ② 건물지 (2) 노출상태 (근경, 동에서)
- ③ 건물지 (2) 북면 노출상태 (서에서)
- ④ 건물지 (2) 내부 테스트핏트 노출상태

圖版 7 / 143

- ① 건물지 (2) 주초석 노출상태 (동에서)
- ② 건물지 (2) 내부 노출상태 (서에서)
- ③ 건물지 (2) 주초석 노출상태 (서에서)

圖版 8 / 144

- ① 건물지 (2) 기단석렬 노출상태 (서에서)
- ② 건물지 (2) 주춧돌 노출상태 (서에서)

圖版 9 / 145

- ① 건물지 (2) 내부 적석시설 (1)
- ② 건물지 (2) 내부 적석시설 (2)
- ③ 건물지 (2) 내부 적석시설내 유물출토상태

圖版 10 / 146

- ① 건물지 (3) 발굴전상태 (묘역담, 원경)
- ② 건물지 (3) 발굴전상태

圖版 11 / 147

- ① 제2단 (축대)내 건물지 (3) 노출상태 (북에서)
- ② 건물지 (3) 기단석렬 노출상태

圖版 12 / 148

- ① 건물지 (3) 기단석렬 노출상태
- ② 기단석렬과 내부 상태

圖版 13 / 149

- ① 건물지 (3) 기단석렬 노출상태 (동에서)
- ② 건물지 (3) 서편 테스트핏트내부 적석상태

圖版 14 / 150

- ① 건물지 (4) 기단석렬 노출상태 (남동에서)
- ② 건물지 (4) 기단석렬 노출상태 (남에서)

圖版 15 / 151

- ① 건물지 (4) 남쪽 기단석렬 축조상태
- ② 건물지 (4) 기단석렬의 상면 상태

圖版 16 / 152

- ① 건물지 (4) 내부 및 중북유구 조사광경
- ② 건물지 (4) 동쪽 측면석렬과 계단시설 (2) (동에서)

圖版 17 / 153

- ① 건물지 (5) 기단석렬 일부
- ② 건물지 (4)와 건물지 (5)의 기단석렬 중북상태

圖版 18 / 154

- ① 제2단 (축대) 노출상태 (원경, 남동에서)
- ② 제2단 (축대)와 계단시설 노출상태

圖版 19 / 155

- ① 제2단 (축대) 축조상태 (남동에서)
- ② 제2단 (축대)와 주변유구 노출상태 (남에서)

圖版 20 / 156

- ① 제2단 (축대) 축조상태 (1)
- ② 제2단 (축대) 축조상태 (2)
- ③ 제2단 (축대) 축조상태 (3)

圖版 21 / 157

- ① 계단시설 (1) 노출상태 (남동에서)
- ② 계단시설 (1) 축조상태 세부

圖版 22 / 158

- ① 계단시설 (1)의 아랫부분 평면토층
- ② 계단시설 (1)의 1단과 디딤돌

圖版 23 / 159

- ① 계단시설 (3) 노출상태
- ② 步道 敷石施設 노출상태

圖版 24 / 160

- ① 비각지 발굴전 상태 (현대 제사장소와 계단, 남에서)
- ② 비각지 발굴과정 (敷石遺構)

圖版 25 / 161

- ① 비각지 발굴과정 (敷石遺構 노출상태)
- ② 비각지 발굴과정 (敷石遺構 세부)

圖版 26 / 162

- ① 비각지 노출상태 (위에서)
- ② 비각지 노출상태 (동에서)

圖版 27 / 163

- ① 비각지 정면 주춧돌 배치상태 (서에서)
- ② 비각지 노출상태

圖版 28 / 164

- ① 비각지내부 부석시설 노출상태
- ② 부석시설내부 碑下部자리

圖版 29 / 165

- ① 건물지 (3) 동북면 敷石施設 노출상태
- ② 敷石施設 노출상태

圖版 30 / 166

- ① 남북트렌치 (1), (2) 조사광경
- ② 추정柱孔石 노출상태

圖版 31 / 167

- ① 추정柱孔石하부 축조상태 (1)
- ② 추정柱孔石하부 축조상태 (2)

圖版 32 / 168

- ① 남북트렌치 (1)-(3) 부분 확장 조사
-中心柱孔石 주변유구와 적석시설, 주춧돌군 노출상태

圖版 33 / 169

- ① 추정柱孔石주변유구 노출상태
- ② 주춧돌군과 적석시설 노출상태

圖版 34 / 170

- ① 남북트렌치 (1) 내부 층위상태 (1)
- ② 남북트렌치 (1) 내부 층위상태 (2)
- ③ 남북트렌치 (1) 내부 층위상태 (3)

圖版 35 / 171

- ① 남북트렌치 (3) 내부 상태
- ② 남북트렌치 (3) 내부 층위상태

圖版 36 / 172

- ① 제4단 (축대) 내 부도지 원경 (북서에서)
- ② 부도지 근경

圖版 37 / 173

- ① 石鍾形浮屠의 身部
- ② 下臺石과 中臺石

圖版 38 / 174

- ① 동서트렌치 (1) 내부 제1단 적석시설 노출상태
- ② 유적 동남편의 小川과 貯水施設

圖版 39 / 175

- ① 小川과 小瀑布

圖版 40 尊者庵址 출토 명문암기와 (1) / 176

圖版 41 尊者庵址 출토 명문암기와 (2) / 177

圖版 42 尊者庵址 출토 명문암기와 (3) / 178

圖版 43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 (1) / 179

圖版 44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 (2) / 180

圖版 45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 (3) / 181

圖版 46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 (4) / 182

圖版 47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 (5) / 183

圖版 48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 (6) / 184

圖版 49 尊者庵址 출토 암기와 (1) / 185

圖版 50 尊者庵址 출토 암기와 (2) / 186

圖版 51 尊者庵址 출토 숫기와 (1) / 187

圖版 52 尊者庵址 출토 숫기와 (2) / 188

圖版 53 尊者庵址 출토 숫기와 (3) / 189

圖版 54 尊者庵址 출토 숫기와 (4) / 190

圖版 55 尊者庵址 출토 고려청자 / 191

圖版 56 尊者庵址 출토 인화분청 (1) / 192

圖版 57 尊者庵址 출토 인화분청 (2) / 193

圖版 58 尊者庵址 출토 인화분청 (3) · 귀얄분청 / 194

圖版 59 尊者庵址 출토 덩병분청 / 195

圖版 60 尊者庵址 출토 철화분청 장군·분청주전자 / 196

圖版 61 尊者庵址 출토 백자 (1) / 197

圖版	62	尊者庵址	출토 백자 (2)	/ 198
圖版	63	尊者庵址	출토 백자 (3)	/ 199
圖版	64	尊者庵址	출토 백자 (4)	/ 200
圖版	65	尊者庵址	출토 백자 (5)	/ 201
圖版	66	尊者庵址	출토 백자 (6)	/ 202
圖版	67	尊者庵址	출토 백자 (7)	/ 203
圖版	68	尊者庵址	출토 백자 (8)	/ 204

圖版	69	尊者庵址	출토 백자 (9)	/ 205
圖版	70	尊者庵址	출토 백자 (10)	/ 206
圖版	71	尊者庵址	출토 백자 (11)	/ 207
圖版	72	尊者庵址	출토 명문백자 (1)	/ 208
圖版	73	尊者庵址	출토 명문백자 (2)	/ 209
圖版	74	尊者庵址	출토 靑銅蓋, 벼루	/ 210

插圖目次

插圖	1)	尊者庵址	出土 銘文瓦의 銘文	/ 116
插圖	2)	尊者庵址	出土 粉靑沙器의 文樣	/ 117
插圖	3)	尊者庵址	出土 白磁의 銘文	/ 118
插圖	4)	尊者庵址	出土 白磁의 銘文 寫眞細部	/ 119

제1장 조사 개요

이 調査報告書는 1993년 3월부터 7개월간 실시된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1번지내 영실 동북편의 '불래오름' 아래에 자리한 尊者庵址를 발굴조사한 내용을 정리보고한 것이다. 이 발굴보고서는 1차 조사보고의 성격을 띠고 기술하였다. 1차조사에서 확인된 遺構는 建物址 5個所, 階段址 3個所, 壇施設(築臺施設), 碑閣址, 浮屠와 浮屠址, 排水施設, 積石施設 등이다.

이 유적은 海拔 1200m 高地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생토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重複遺構·文化層이 그리 깊지 않을 것으로 여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遺構의 중복상태가 복잡하고 文化層이 예상외로 깊게 형성되어 있어 일단 上層遺構만을 조사하는 데 그쳤다. 차후 2, 3차 조사가 진행된 연후에 이 寺址의 성격이 명확해 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1차 발굴에 대한 조사기간과 조사단구성, 조사경과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간과 조사단 구성

1) 조사기간

1993년 3월 16일~10월 31일

2) 조사비

48,000,000원(보고서 발간비 포함)

3) 조사단구성

지도위원 : 황수영(전 동국대학교총장)

정영호(교원대학교교수)

장경호(문화재연구소장)

자문위원 : 김봉옥(제주도문화재위원)

조사단장 : 이청규(제주대학교 박물관장)

조사위원 : 고창석(제주대학교 사학과교수)

조 사 원 : 고광민(제주대학교박물관학예사)

강창화(제주대학교박물관연구원)

강창언(제주대학교박물관연구원)

김인한(교원대학교박물관)

행정담당 : 박경홍(제주대박물관)

보 조 원 : 양윤호(제주대학교사학과 졸업생)

김정선(제주대학교 사학과4년)

김경주(제주대학교 사학과3년)

방문배(제주대학교 사학과3년)

박용범(제주대학교 사학과3년)

김종찬(제주대학교 사학과3년)
고정민(제주대학교 사학과3년)
오연숙(제주대학교 사학과3년)
이미자(제주대학교 사학과2년)
김영심(제주대학교 사학과2년)
서신아(제주대학교 사학과1년)
김경아(제주대학교 사학과1년)
강정원(제주대학교 사학과1년)

2. 조사 경과

1) 발굴용역계약 : 1992년 10월

금번 1차 발굴의 용역은 1992년 10월 31일에 계약되어 졌고 문화재관리국으로 부터의 발굴허가는 11월 15일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발굴용역이 체결된 후 발굴에 바로 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유적이 자리한 높이가 해발1200m고지로 한설과 폭우가 계속되고 12월이 되면서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인근 일대가 산행이 통제되는 상황이었어서 발굴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발굴지내 잡목·잡초제거 : 1993년 3월 15일~4월 15일

발굴구역중 유구가 지상에 노출된 부분에 한해 잡목을 제거하고 유적주변 정리작업을 실시하였다. 고산지대 식물이 무성히 자라나 유구상층을 빈틈없이 덮고 있었고 잡목의 뿌리가 지표하 30cm까지 완전히 뒤편에 있어서 지표제거시 어려움이 있었다.

3) 트렌치 조사 : 1993년 4월 16일~1993년 7월 1일

발굴구역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에 해당한다. 남쪽과 북쪽의 높이차는 12m정도이고 완만하게 내려오는 산허리부분이다. 원상의 경사진 지면을 수평으로 平削하여 건물지와 시설물을 축조한 흔적이 보이는 데 크게 이러한 단시설이 4개소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폭 2m, 길이 50m의 중앙 트렌치를 설정하고 난 후 기 노출된 유구의 주변을 폭 2m의 트렌치를 넣어 유구를 노출시켜 나갔다.

4) 유구노출 및 실측작업 : 1993년 7월 1일~10월 30일

트렌치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의 노출작업을 실시하였다. 노출작업을 집중한 곳은 건물지(1), 건물지(2)가 노출된 제1단과 碑閣址, 담장지가 노출된 제3단, 그 중간지점인 제2단내 건물지와 기타시설물, 제4단의 浮屠址와 그 주변이다. 제2단과 제3단(축대)을 1m이상 쌓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층유구만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유구 실측작업을 한달간 실시하였다.

제2장 위치 · 현상 · 발굴방법

1. 유적의 위치

유적은 서귀포시 하원동 1번지내에 소재한다. 영실 북편에 자리한 불래오름의 남사면 능선에 자리잡고 있다.

불래오름은 천백도로(제2횡단도로)의 해발 1100m지점에서 볼 때 靈室의 기암절벽 너머 멀리 漢拏山 정상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타고 가까이 좌우로 세 독립봉이 버티고 있는데 그 제일 오른쪽의 봉우리다. 거리 약 2km, 완만하고 길게 비탈져 내린 서사면의 수림대까지는 기암괴석이 어우러지는 濕原이 벌어지고 여기에는 군데군데 水草가 자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하나의 자연정원을 이루는 이 습원은 불래오름이 가진 특색의 하나이며 1100고지 자체가 그 서녘 자락인 셈이다. 북군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불래오름은 행정구역상 西歸浦市 中文(河源)洞관할이나 북동쪽 사면 일부가 涯月邑과의 경계에 걸쳐져 있다. 남쪽의 주봉이 표고 1362m, 북동쪽 봉우리가 1351m로 그 사이 평평한 등성마루는 북서향으로 넓게 벌어진 말굽형을 이룬다.¹⁾

존자암지로 들어서는 등산로는 현 국립공원 영실사무소의 주차장 한쪽에 숲 속으로 나 있는 오솔길이 있다. 죽죽 뻗어오른 교목림에 무성한 조릿대밭을 가르는 외줄기 숲길을 1km 남짓, 도중에 옛 표고재배장이던 물통(못)을 두군데 거치고 물이 흐르는 작은 골짜기를 건너면 숲이 트인 산허리에 尊者庵엿터가 나타난다. 시간상으로는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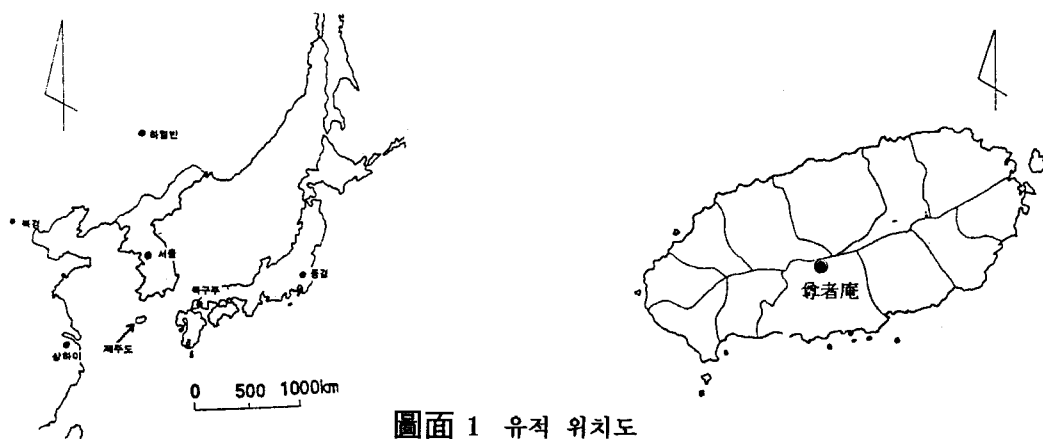
2. 발굴전 현상

發掘區域은 漢拏山國立公園 區域內에 자리하고 있고 海拔高度 1200m인 高地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울창한 숲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며 인적 또한 드물어 자연이 原狀대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처음 지표조사 당시 浮屠址와 石鍾形浮屠의 身部가 확인되었다. 또한 본보고서에서 건물지(2)의 주춧돌과 석재, 그리고 남북트렌치(1)에서의 조사된 柱孔柱礎石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미 노출된 유구 주변으로 상당량의 잡목과 풀이 자라나 있었고 부도의 下臺石은 이미 중간부분에 큰 나무가 자라나 유구의 원상을 크게 훼손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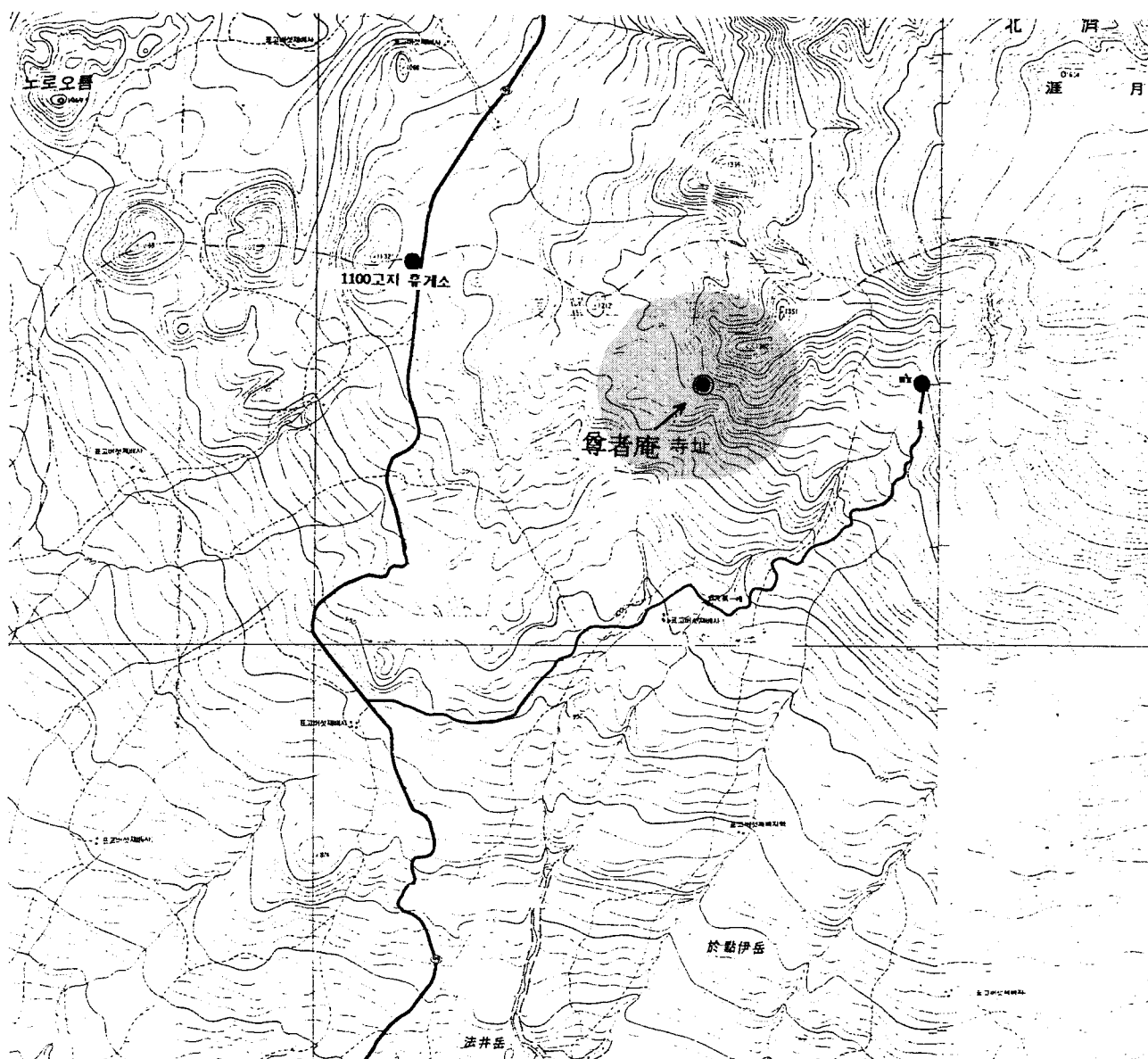
유적중앙부인 第2壇(築臺) 상면에는 최근의 돌담과 잡석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이 잡석무더기는 대지상면을 완전히 덮고 있었고 잡석무더기 틈새로 제주도 방언으로 '새죽'이라 불리는 잡풀이 많이 자라나 있었다. 대나무와 뿌리내림이 비슷한 것으로 번식력과 생명력이 질기며 濕地에 잘 자라는 植物이다. 발굴과정에서, 이 잡풀을 제거하는 작업은 예상보다 상당히 힘든 작업중 하나였다.

遺蹟內 第1壇(築臺) 상단은 흙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와 심하게 퇴적되어 있는 상태였다. 특히 동편은 그 퇴적량이 심하여 노면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퇴적량이 많았다. 발굴당시 이러한 퇴적

1) 金鍾喆, 「오름나그네(143) 불래오름」, 濟民日報 1993年 6月 2日字



圖面 1 유적 위치도



圖面 2 유적 위치 및 주변 지형도

상황은 트렌치조사와 테스트핏트조사를 통해 약 70cm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적의 바로 동편으로 흐르는 소천은 개울폭이 2.5~3.5m 정도이고 불래오름 어귀에서 솟아나 계속해서 흐르는 용천수의 일종이다. 이 물은 유적동남편을 감아돌아 500미터쯤 내려간 지점에서 갑자기 지하로 스며든다. 제1단 대지의 동편부분에 이 소천의 물줄기가 떨어지는 작은 瀑布가 있다. 이 폭포의 낙수는 완형숫기와를 사용해서 한곳으로 흐르게 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물을 받아 마시기에 용이하도록 시설되어 있다.

이 유적은 깊은 산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어 왔다. 또한 이곳이 산신제사, 민간신앙차원의 불공을 올리는 장소로 널리 이용되어져 왔음을 비각지가 발견된 第4壇大地的 제단이라든가 건물지(2) 상면에 남아있는 數石施設과 제단에서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제1단 대지의 서편에는 1950~60년대 집터가 남아 있다. 유적에 대한 踏査도 다소간 진행되어 왔다. 信徒들과 佛供者, 그리고 踏査者²⁾들은 현장의 도자기편과 기와편을 모아 건물지(2)의 주춧돌무리 위에 모아둔 것이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3. 발굴방법 (圖面3, 圖版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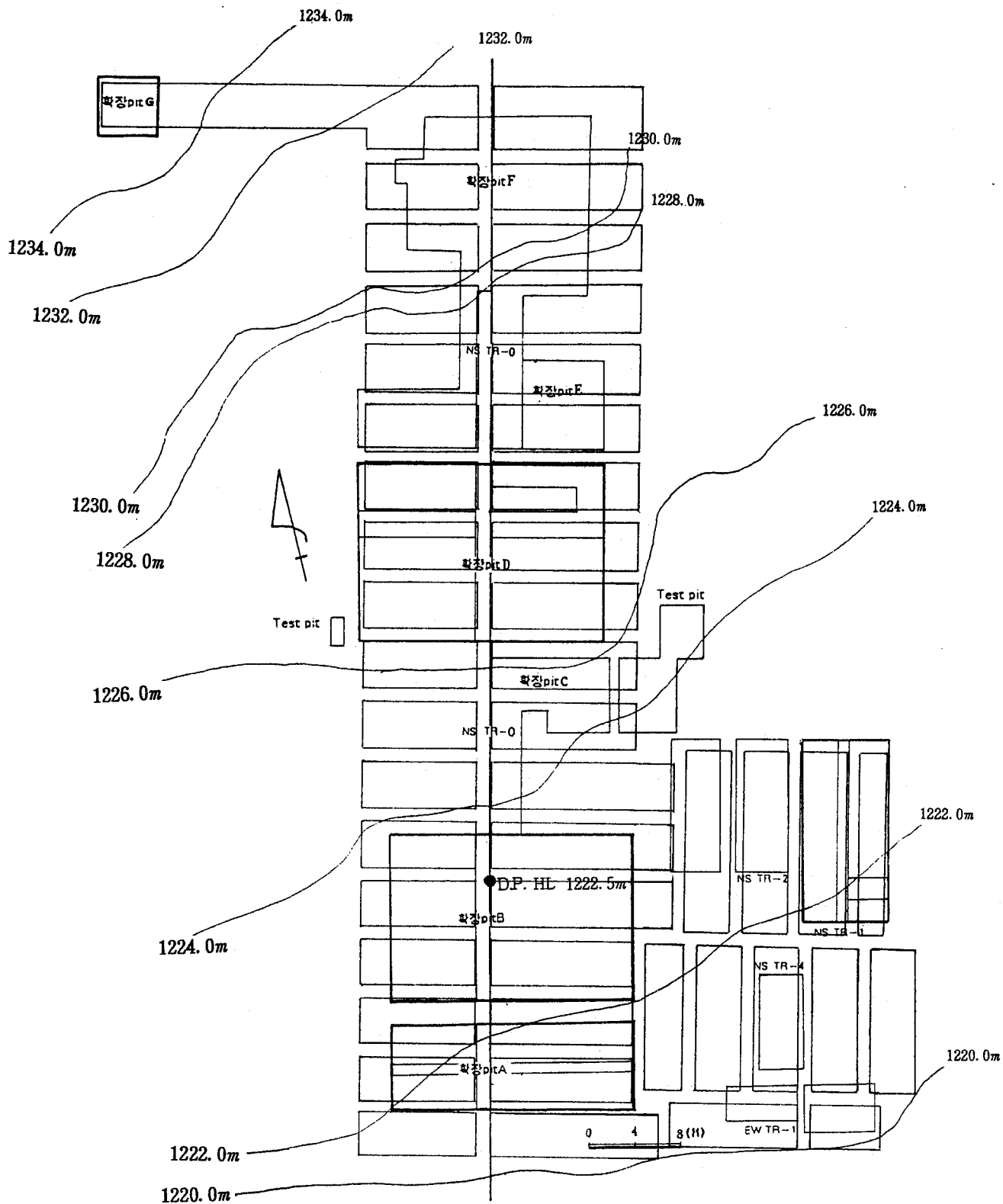
발굴방법은 트렌치발굴방법(Trench Excavation Method)를 前提로 하고 유구 노출부분은 확장핏트(Extended Pit)를 두어 조사에 임했다. 또한 유구내부 토층조사와 일부 부분적인 문화층 조사는 시험발굴구덩이(Test Pit)에 의존했다.

1) 잡풀과 산목을 제거한 결과, 이 유적이 자리한 지형은 북에서 부터 남으로 내려오면서 경사진 지형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부도지에서 건물지(1)까지 4개의 평탄한 대지가 계단상으로 크거나 작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지는 북에서 동으로 약 20도 가량 기울어져 연결되었다(圖版1-①, ②). 이 대지는 인위적으로 석축하여 만든 것으로 감안, 중심트렌치의 방향도 유적의 중심을 지나는 N20E 방향으로 설정하였다(圖版1-③). 기준점(D.P.)은 第1壇(遺蹟中央下端) 건물지(2) 내부에 두었다(圖面3).

2) 基準트렌치를 NS Tr. (0)로 명칭을 부여하고 난후 좌우 동서트렌치를(EW Trench) 구획하였다. 각 트렌치 사이에는 1m폭의 Balk를 두었으나 지면이 고르지 못하고 곳곳에 나무가 있으며, 특히 단시설이 급격히 경사져 내려와 각단의 평탄면을 일단 구획하였다. 각 트렌치에 명명된 번호는 다음의 구획도를 참조해 볼 수 있다.

3) 다시, 유구가 절린 지점에 한해 기본이 되는 남북 Balk를 남기고 확장핏트(Extended Pit)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지점을 圖面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에서 북으로 일련번호를 주었다. 각 確張핏트(Extended Pit)별 발굴방법은 다음과 같다.

2) 金奉玉, 「尊者庵의 位置」, 『濟州島史研究』 創刊號, 1991, pp. 33~34.
姜彰彦, 「尊者庵址」, 『月刊濟州』 154號, 1991, pp. 82~89.
姜彰彦, 「濟州島의 佛跡」, 『耽羅文化』 12號, 1992, p. 150.



圖面 3 발굴 구역내 지형도·발굴 구획도

Extended Pit名	發掘 方法	調査 遺構
확장핏트(Extended Pit)-A	Test Pit 조사	건물지 (1)
확장핏트(Extended Pit)-B	Test Pit 조사	건물지 (2)
확장핏트(Extended Pit)-C	트렌치 및 Test Pit 조사	제2단석축
확장핏트(Extended Pit)-D	Test Pit 조사 트렌치조사	건물지 (3) 건물지 (4), (5) 數石遺構
확장핏트(Extended Pit)-E	트렌치조사	제3단석축
확장핏트(Extended Pit)-F	Test Pit 조사	碑閣址, 담장지
확장핏트(Extended Pit)-G	토층절단트렌치	浮屠址

발굴전 상태



발굴상태

제3장 遺 構

지금까지 조사에서 확인된 遺構는 建物址 3個所, 壇施設(案臺施設), 碑閣址, 浮屠와 浮屠址, 排水施設, 積石施設 등이다.

제1절 建 物 址³⁾

건물지는 총 5동이 확인되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건물지 및 기타 부속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경사진 산능선을 평면삭토하고 흩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단을 만든 시설이 확인된다. 건물지가 시설된 부분은 건물지보다 넓게 대지를 평면으로 정리하였다. 제1단과 제2단이 제3단과 제4단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건물지도 이 구역에서 확인된다. 또한 유적의 중앙지점인 제2단이 가장 높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발굴 결과, 정교하게 만들어진 동 사찰의 초기건물지가 확인되었다.

1. 건물지(1)(圖面5, 圖版3-5)⁴⁾

건물지가 시설된 방향은 N35E 방향이고 현재 노출된 건물지는 남쪽부분인 남쪽 기단석렬 부분으로 20m이상 확인되었다. 기단은 직경 40cm이상의 부정형 할석과 괴석을 사용하여 기단렬을 만들고 기단내부 안쪽을 잡석을 사용하여 폭 1m이상 채워 다졌다.⁵⁾ 채워 다진 잡석군 일부중 원형 형태의 잡석군이 확인되는 데 심초석군일 가능성도 있다. 남쪽기단부의 중앙에 다공질현무암을 다듬어 만든 길이 80cm, 폭 50cm의 판석이 가로로 놓여 있다. 아마도 건물지 입구 계단석으로 판단된다. 건물지 기단석렬 안쪽의 잡석틈새에서 16세기 이후의 백자항아리편과 기와 등이 확인되며 일부 분청사기편도 출토된다.

건물지의 중앙부분에 대한 1m×1m의 테스트펫트 조사에서, 건물지 성토층은 크게 두개의 층위로 확인되었다. 下層은 자연석과 기와 등이 섞인 흑갈색점토층으로 그 두께가 30~37cm에 이르고 그 上層은 10~15cm가량의 황갈색점토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재 건물지의 서편은 1960年代 建物로 인해 교란이 심하게 나타났고, 동편은 아직 노출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단계이다.

건물지의 북편기단석렬은 완전하게 조사하지 못한 단계라 단언하기 어려우나 건물지(2)가 후대에 만들어 지면서 이 건물지의 北便基壇石列部分을 파괴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3) 본 보고서의 건물지에 대한 서술은 편의상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술하였고 건물지 관련 용어도 가급적 한글로 사용하였다. 또한 건물지(2)를 제외하고 모든 유구가 아직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아 간략하게 현상만을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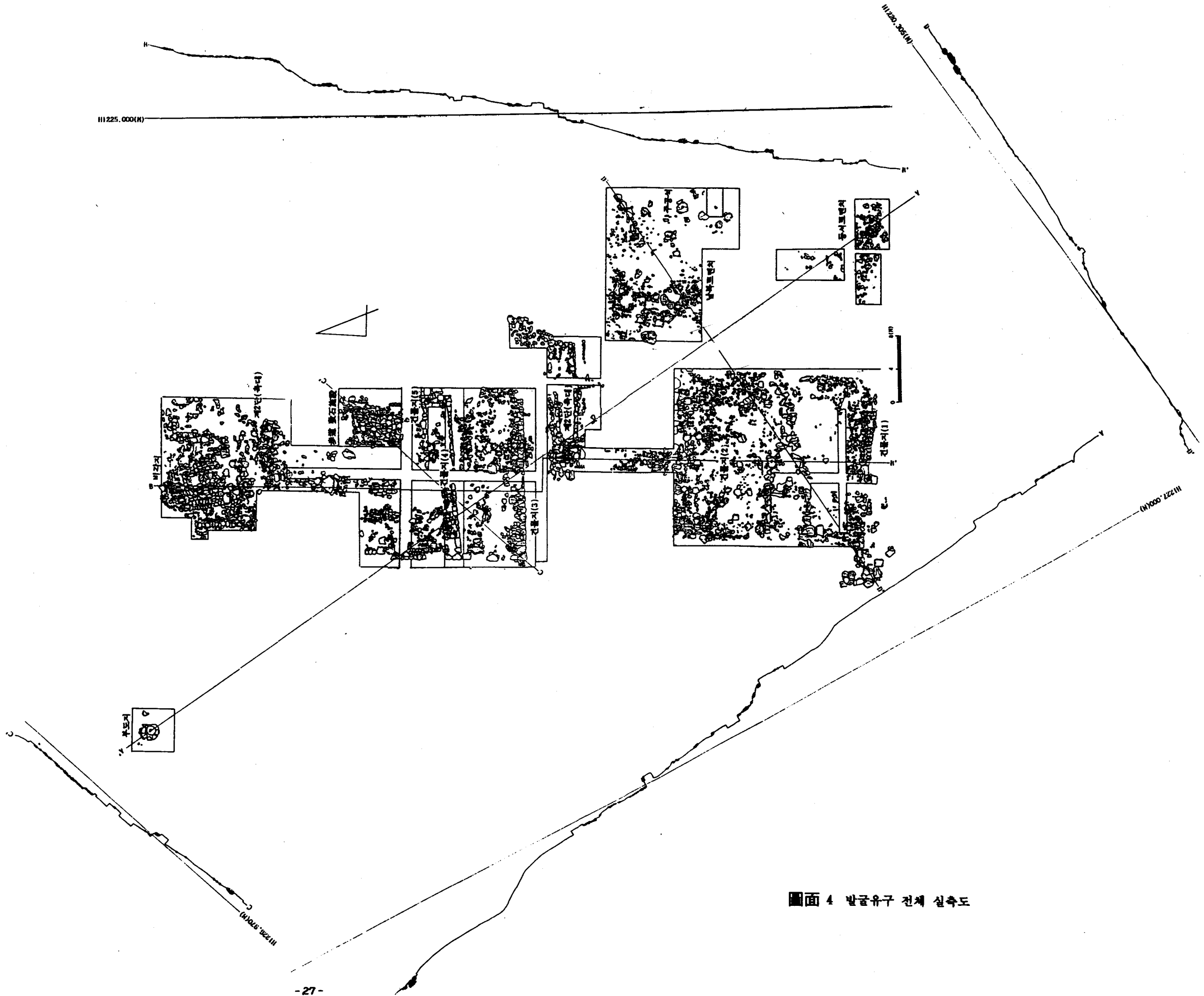
4) 현재 노출된 상태로는 건물지로 판단되어 일단, 이번 보고서에서는 건물지 부분에 포함 기술하였다. 아직 발굴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며 또한 건물지내에 주춧돌이나 기타 심초석군, 온돌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좀더 조사를 한 후에야 확실할 듯 싶다.

5) 기단 석렬 안쪽으로 잡석을 일정하게 채워 다지는 형태는 제주도의 조선시대 건물지 발굴에서 확인된다.

① 濟州大學校博物館, 1993, 「濟州牧官衙址」,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 보고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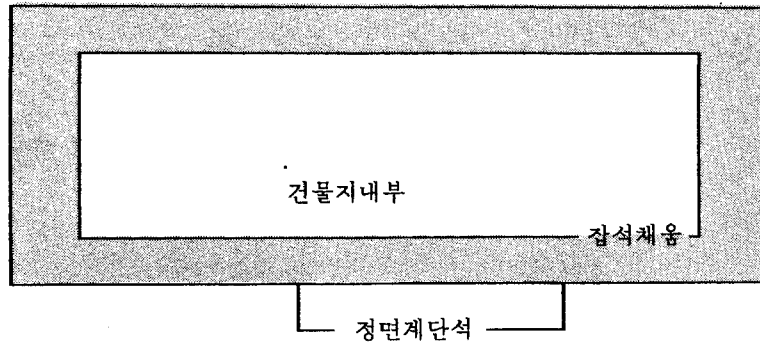
② 濟州大學校博物館, 1992, 「法華寺址」,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 보고10.

③ 현재 조사중인 성읍정의현성내 개사지 유구도 이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후술할 동유적내의 건물지(3)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축조되어 있다.



圖面 4 발굴유구 전체 실측도

圖1. 건물지(1) 추정복원도



2. 건물지(2) (圖面6 圖版6-9)

이 건물지는 앞서 건물지(1)의 북편에 위치한다. 건물지의 시설방향은 정남에서 약 15~20°가량 편동향하고 있다. 기단과 주춧돌의 놓임상태는 비교적 원상에 가깝게 남아 있다.

(1) 내부 층위는 크게 4개의 층위, 두께 47~52cm로, 표토층-점토층-적석층-생토암반층으로 연결된다. 표토층은 同寺刹이 廢棄된 이후에 형성된 흑갈색부식토층으로, 잔디와 고산식물이 두께 10~15cm가량 덮혀 있는 층위다. 이 표토층 밑으로 점토층이 연결되는 데 주춧돌과 기단석렬 등이 층위내부 혹은 상면에 놓여 있다. 이 층위는 건물지 主成土層으로 판단되며 두께는 20~22cm이고 건물지내부에 균일하게 깔려있다. 다만, 이 土層은 건물지 동편 내부에 가서 매우 얇게 깔리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적석층은 황색점토와 적석 그리고 기와, 도자기편이 혼합된 매립층(건물의 最初成土層)의 성격을 띤다. 이 적석층은 건물지 築造時, 원래 지반이 남고북저 형태이고 동쪽이 서쪽보다 높은 지형을 동일한 높이로 만들기 위해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

(2) 기단과 주춧돌의 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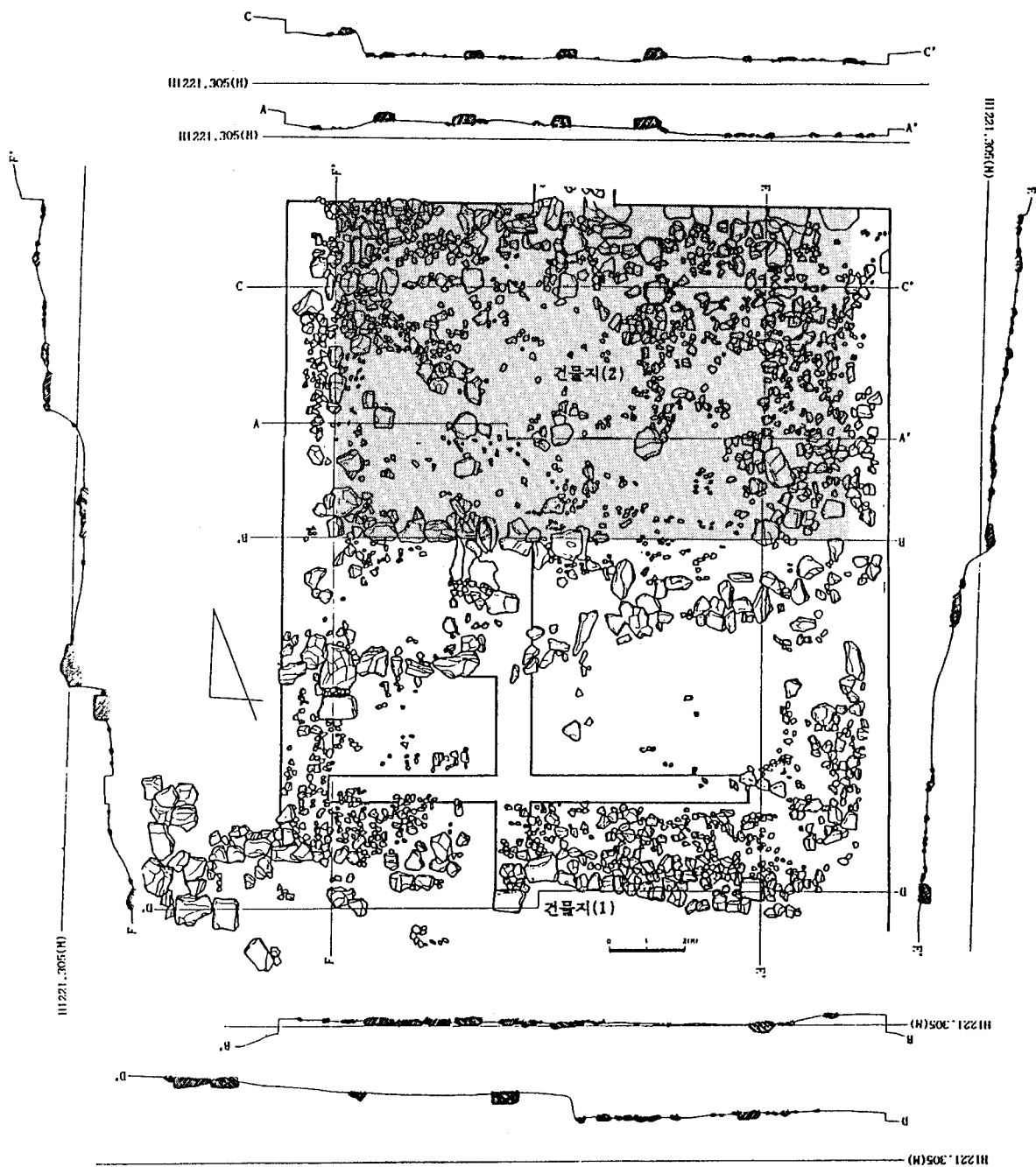
① 기단석렬 (圖面6, 圖版6-9)

기단석렬의 맞물림 상태는 모두 정연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축조되었으며 건물지 외곽으로 돌아가며 모든 면을 만든 것이 아니라 레벨이 높은 북쪽과 낮은 남쪽부분은 길이 50cm이상되는 대형의 자연석을 가지런히 잇대어 배열하였다. 때문에 이 기단석렬은 건물 외곽 테두리를 두르는 역할보다 성토흙이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동편기단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며 남쪽기단부의 동쪽부분도 확인되지 않는다. 주춧돌군과 현재의 기단석렬로 확인되는 이 건물지는 장방형꼴로, 동서 11.6m, 남북 4.0m이상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② 주춧돌 (圖面6 圖版7-8)

주춧돌의 방향은 동서로 2열씩, 측면 1칸 건물로 배치되어 있다. 북편의 2열 주춧돌열은 모두 9개가 노출되었다. 이 부분의 주춧돌간 남북 폭은 120cm이고 주춧돌간의 간격은 240~320cm인데, 동쪽에서 부터 礎石間隔은 다음과 같다.

各種間隔	第 1 間	第 2 間	第 3 間	第 4 間
길이(cm)	320	240	260	240



圖面 5 제1단 대지내 건물지(1), (2) 실측도

이와 같이 동쪽부분의 第 1間이 제 2, 3, 4間에 비해 넓게 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춧돌의 상면시설 높이가 제 2칸 동편 주춧돌보다 30cm가량 내려와 있으며 후술할 남쪽의 2열초석은 이 부분에 한해 발견되지 않는다. 건물지의 성토층(황갈색점토층)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건물지의 동편부분은 추가로 덧붙여 방의 용도가 아닌 부엌 등의 시설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짙다.

건물지 뒷편의 2열 초석렬과 대칭되는 아래쪽의 2열 柱礎石은 모두 5개가 노출되었다. 주춧돌 간 남북 幅은 120~125cm이다. 주초간의 간격은 240~260cm인데 各間 間隔은 다음과 같다.

各間間隔	第 1 間	第 2 間	第 3 間	第 4 間
길이(cm)	?	240	260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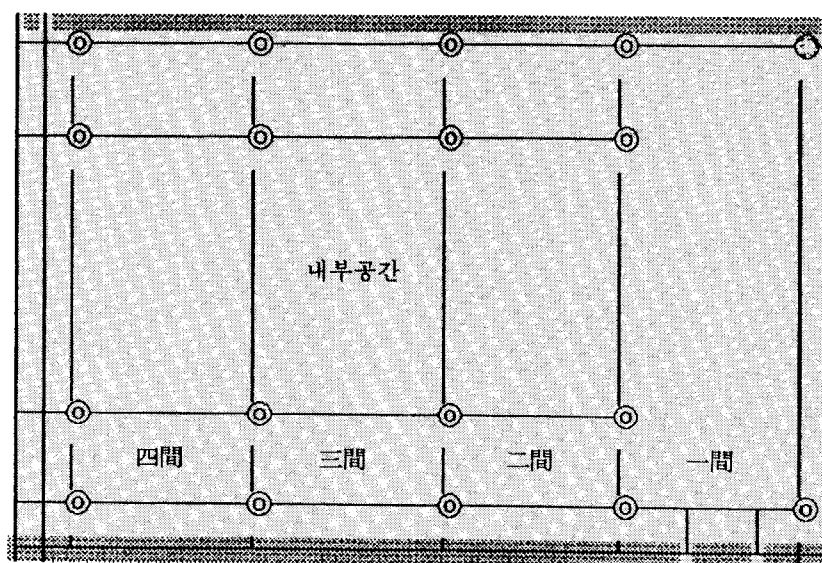
이들 주춧돌은 모두 현무암제로 말각방향에 가깝게 치석하여 사용하였다. 심초없이 막바로 점토층 상면에 놓여 있고 초석주변으로 잡석이 등글게 돌아간다.

이러한 주춧돌의 배치상태 및 기단석렬의 축조상태로 보아, 이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건물 하부로 판단되며 정면3칸, 측면1칸 건물의 동편에 정면 1칸 측면 1칸의 시설을 덧붙여 연결하였을 가능성이 짙다. 또한 2열의 南北 對稱 柱礎列은 툇마루 시설이라기 보다 외곽 초석렬은 외벽, 내부 초석렬은 내벽이 올라간 형태⁶⁾일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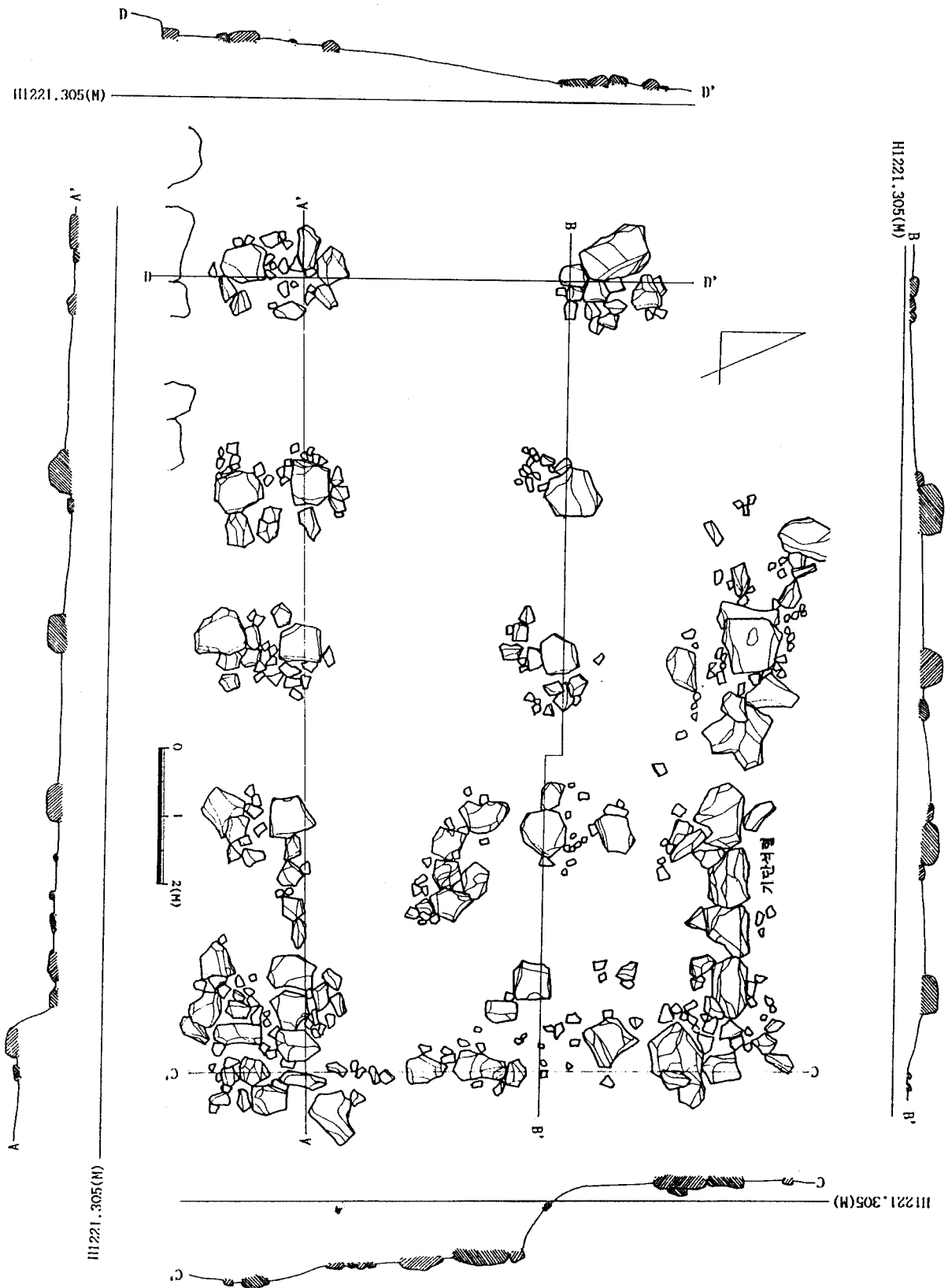
(3) 내부시설

내부시설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遺構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건물지 서편에 일련의 내부 적석렬이 나타나며 西便基壇石列 밖으로 배수로가 확인되며 동편석렬자리에는 자갈한 잡석이 집중되어 깔려 있다.

圖2. 건물지 (2) 推定복원도



6) 바람이 많고 추운 겨울에 1m이상의 눈이 장기적으로 쌓여 있는 1200m의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중 벽을 둘 가능성이 짙다. 이러한 예가 濟州의 草家에서 확인된다.



圖面 6 건물지 (2) 실측도

3. 건물지 (3) (圖面7, 圖版10-13)

이 건물지는 앞서 건물지(2)의 정북편 15.2m에서 확인되었다. 건물지 (2)와 이 건물지의 내부에는 여러시기에 걸쳐 건물지 및 기타시설물이 중복되어 나타났다. 이 건물지는 황색점토 상층인 흑갈색부식토층 위에 시설되어 있으며 기단석렬 하단부 레벨과 제 2단 석축의 下端部石列과의 레벨차는 2.0m이고 황색점토 상면에 축조된 건물지(3), (4)의 基壇石列 下端 레벨보다 80cm이상 올라와 있어, 前代에 이미 만들어진 壇 위에 그대로 건물지를 시설한 것으로 보아진다.

(1) 내부층위와 성토(圖版13-②)

이 부분의 내부 층위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핏트조사와 築臺(第2壇)부분 층위조사에서, 이 부분의 층위는 지표층-흑갈색부식토층-황갈색점토층-적석층-생토암반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건물지와 관련된 성토층은 흑갈색부식토층과 황갈색점토층이다. 다만, 황갈색점토층은 이미 전대의 건물지인 건물지 (4)를 시설하면서 다져진 점토층을 재 이용하거나 시설된 위로 잡석을 혼합한 흑갈색부식토를 채워 기단석렬과 일부 내부 적석을 맞추거나 채운 것으로 판단된다. 황갈색점토층 밑으로는 생토암반층위에 築臺를 만들면서 불규칙하게 채운 적석층이 연결된다.

(2) 기단과 주춧돌

① 기단(圖版12)

基壇은 건물지(1)의 기단 축조 방식과 동일하게 만들어졌다. 기단은 직경 60cm이상의 대형 割石과 塊石을 사용하여 기단렬을 만들고 기단석렬 안으로 잡석을 사용하여 幅 1m이상의 범위를 팍 채워 놓았다. 채워 다진 잡석군 일부중 원형 형태의 잡석군이 확인되는데 心礎石群일 가능성도 있으나 불확실한 상태이다. 비교적 건물지의 正面基壇石列은 잘 남아있는 편이며 동쪽 부분의 기단석렬은 아직 조사하지 못한 단계이고 동북편의 기단과 뒷편(북편)기단석렬은 後代에 만들어진 施設物에 의해 거의 파괴되었다. 현재의 상태로 추정되는 건물지 규모는 동서 15.2m, 남북 5.8m로, 장방형 건물로 판단된다.

② 주춧돌

건물지 내부 주춧돌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건물지에서 주춧돌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조사 당시, 건물지 상부에 제주도에서 흔히 사용되는 묘제 양식중 봉토주위를 사각으로 돌리는 여장 즉, 묘담(산담)⁷⁾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 담을 만들면서 건물지의 주춧돌과 석재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현 지표를 걷어내자마자 동 건물지의 기단석렬 등이 나타났을 정도로 지표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 건물지보다 후대의 시설물이 건물지 내부 상면에 자리하고 있어 동 건물지의 석재가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3) 내부시설과 외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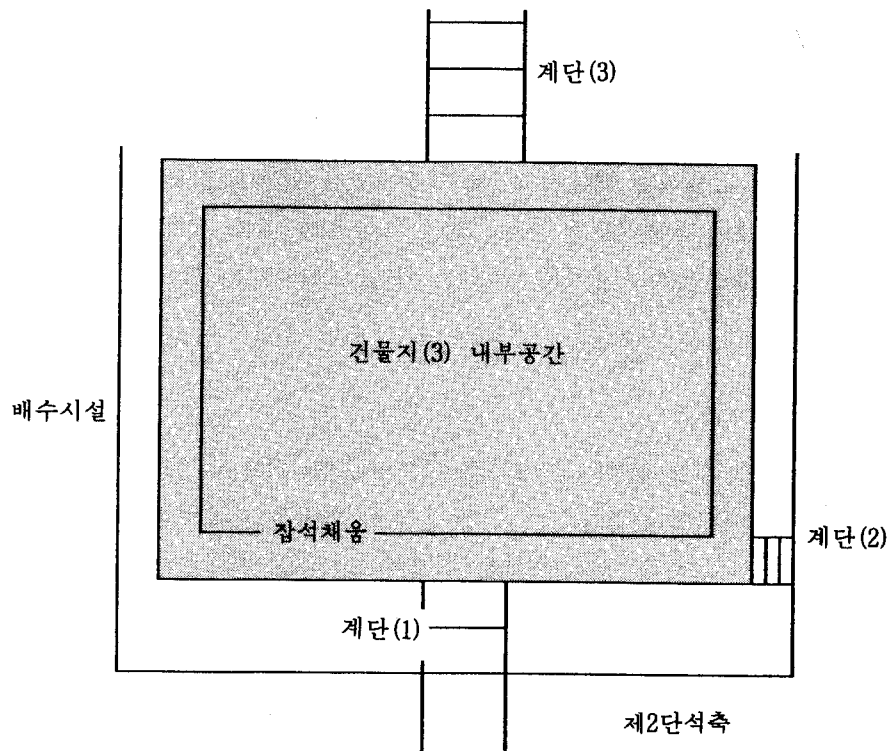
이 건물지의 내부시설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외부시설로 동편에서 확인된 수로시설과 각 계

7) 산담 주변에는 상당량의 석재가 흩어져 있었고 산담으로 사용된 높이는 1m 이고 길이는 4m의 담이 4면으로 둘러져 있었고 이 담을 치우는 데 있어 인부 20인이 하루(8시간)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 돌담 제거작업은 西歸浦市 法輪寺 佛者(信徒)들이 도움을 주었다.

단시설 3개소가 확인되었다. 수로시설은 산능선의 완만한 경사부분을 다듬어 그 위에 만든 건물지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밑으로 쉽게 흘려 보내기 위한 처리시설로 판단된다. 현재 완전하게 노출조사를 못한 단계이다.

또한 건물지 주변의 계단시설은 건물지 남서편과 남쪽(정면)중앙부, 북편(후면) 중앙부에서 확인된다.

圖3) 건물지(3) 추정 복원도와 주변유구 배치



4. 건물지(4) (圖面7, 8, 圖版1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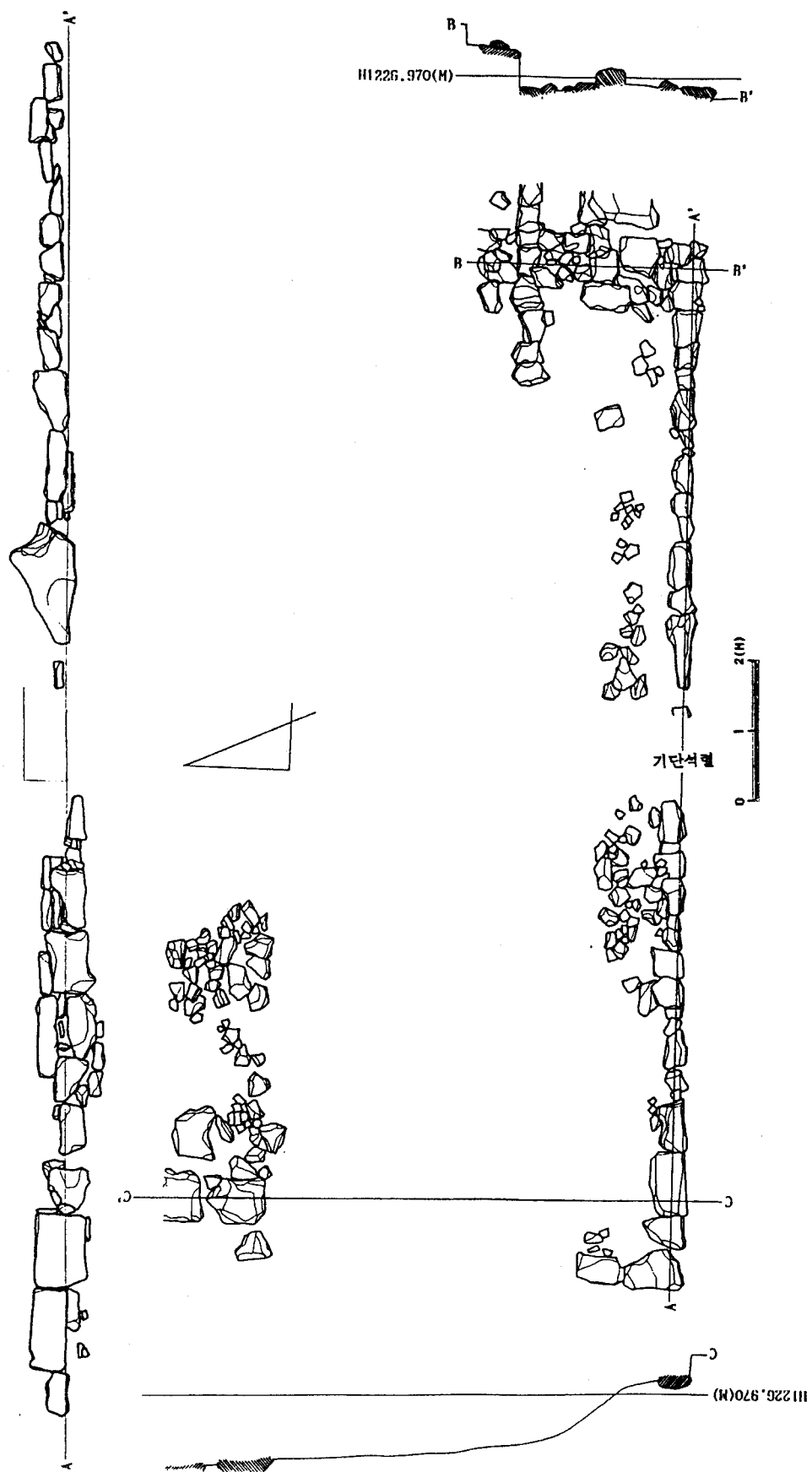
이 건물지는 앞서 건물지(3)의 내부에 자리한 前代建物址이다. 이곳 사찰 건물지 중 뚜렷한 판석으로 이중 기단을 둔 형식으로 동사지의 건물지중에 이른 시기(분청시기)의 건물지로 판단된다. 현재 발굴중인 관계로 건물지의 전체 규모 및 성격을 거론하기엔 힘들다.

현재까지의 발굴결과, 건물지의 성토층은 황갈색 점토층으로 기와와 자기편 그리고 자갈한 잡석을 섞어 다진 층으로, 그 두께는 40~47c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을 시설할 당시, 성토층위에 황갈색 고운점토층을 10cm정도 깎후 잘 다듬은 판석을 서로 맞물려 정연하게 배치하여 基壇石列을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단석렬의 상면을 거의 수평으로 만들고자 하였는데, 수평이 되지않는 석렬 상면은 얇은 점판암제 판석을 사용하여 동일 높이로 만들었다. 현재 건물지의 정면(남쪽부분)이 완전 노출된 상태로, 그 길이는 15.4m이고 높이는 0.8m이다. 기단석렬의 남동쪽 모서리부분에서 이중으로 기단이 올려져 북쪽으로 이어지

圖面 7 제2단 대지내 건물지(3), (4), (5) 실측도





圖面 8 건물지(4), (5) 실측도



건물지(4) 동쪽 측면석렬과 계단시설(2) (동에서)

는 동편기단부분을 일부 노출시키는데 그쳤다.

건물지(4)의 남동쪽 모서리부분에서 북으로 1.8m에 일련의 석렬이 확인되었다(圖面8 圖版17-②). 이 석렬은 건물지(4) 이전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건물지(4)의 하단기단석렬보다 밑으로 내려간 층에서 확인된다. 또한 석렬이 나아가는 방향도 건물지(4)의 동편기단석렬보다 동편으로 길게 연결되고 있다. 아직 일부 석렬만이 노출되어 있어 현재상태로는 유구의 규모 및 성격을 거론하기 힘들다.



건물지(4)와 건물지(5)의 기단석렬 중첩상태

제2절 附屬施設址

1. 碑閣址(圖面9, 10, 圖版24-28)

금번 발굴구역에서 조선중기이후까지 존속했던 건물중에서 가장 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굴당시 지표에는 비석상면에 얹는 옥개석 즉 가침석과 지대석이 놓여 있었고, 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최근 사용되었다는 증거로 돌담과 祭壇이 남아 있었다. 돌담은 남쪽을 제외한 남, 북, 서에 둘러져 있었고 돌담의 직경은 4.5m, 폭 3.2m, 높이 0.8m이고 제단은 남북이 긴 四角形態로, 동서 2.2m 남북 3.2m, 높이 0.6m의 규모였다.

현재 사용중인 돌담과 제단을 제거하고 표토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작업 과정에서 10~30cm가량의 잡석매립층이 확인되었다. 아마도 이러한 잡석이 하단의 비각건물의 석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흑갈색부식토층과 잡석층을 완전 제거한 지표하 27~32cm지점에서 유구가 노출되었다. 아직 완전하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주변 유구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단계이나, 정면1칸 측면1칸의 기와지붕 건물로 그 안에 판석으로 數石시설을 만들고 碑를 북단중앙에 세운 碑閣 건물 형태로 推測된다.

제3단 축대를 만들면서 마지막 석렬을 동서로 길게 축조한 上面과 계단지(3)이 만나는 지점에서 북으로 1.8m에 주춧돌이 동서로 배치되어 있다. 노출된 주춧돌은 모두 현무암제로 치석하여 다듬은 상태로 원형과 말각방형꼴이다. 주춧돌간의 간격은 중앙초석에서 서단초석간 2.4m, 중앙초석에서 동단초석간 2.2m이다. 정면의 동, 서단초석과 대칭되는 뒷편의 초석은 현재 남아 있지 않으나 원래는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상되는 측면초석간의 간격은 4.0m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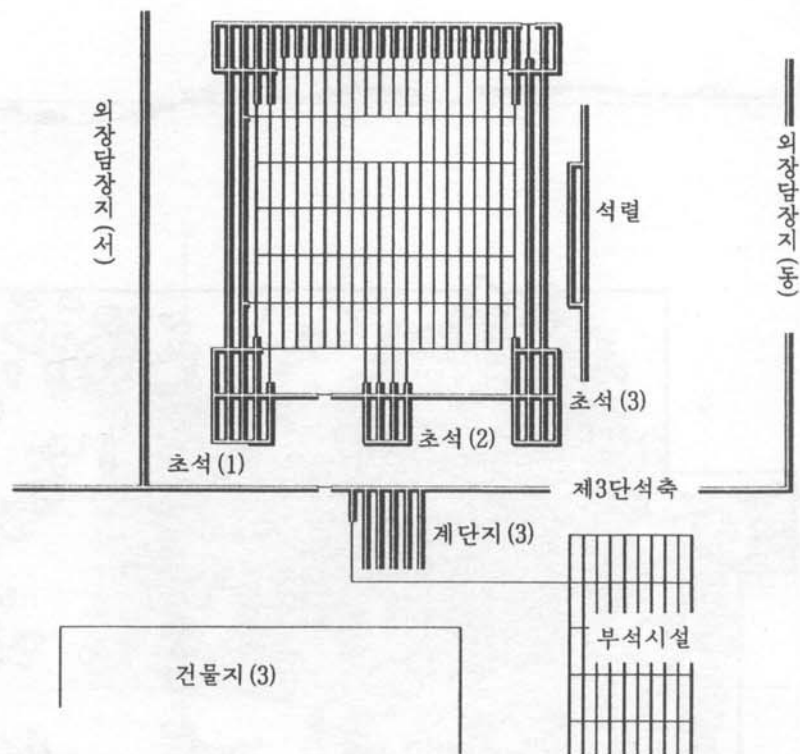
이 사각형의 초석군 안에는 동서길이 4.6m, 남북길이 3.0m의 동서장축의 장방형 數石施設이 만들어져 있다. 모두 얇은 판석을 동일높이로 깔아놓았다. 이 부석시설의 북단 중앙에 장방형의 공간이 확인된다. 돌이 깔리지 않고 빈칸은 광형태의 공간은 그 크기가 동서길이 80cm, 폭 72cm이다. 이 광내부 토층 조사시, 18~21cm가량 파들어진 부분이 확인되었고 바닥은 단단하게 다진 점토층이 확인되었다. 아마도 비를 세웠던 광으로 판단된다.

측면 주춧돌간에는 2열의 석렬이 놓여 있다. 이 2열의 석렬은 외벽담으로 생각된다. 건물지서편의 주춧돌 밖으로 휘어져 돌아가는 1열 담장지가 확인된다. 담장지와 건물지 외벽선과의 간격은 1.6m이다. 외벽과 이 담장지 사이에는 상당량의 기와가 확인된다. 거의 완형에 가까운 16세기 이후의 기와들이 집적된 채 출토되었다.

서편 초석간 측면외벽석렬 동편으로 바로 잇대어, 층위를 달리하는 일련의 석렬이 동서로 길게 확인되었다. 석렬의 상면에는 판석 2매가 확인된다. 현재 조사중이므로 차후 발굴시 이 碑閣址와의 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듯 싶다.

同遺構와 관련있는 동일시기의 유구는 건물지(3)과 건물지(4)의 상면에서 남북으로 연결되는 數石施設(圖面7, 15 圖版29), 계단지(3)(圖面13, 圖版23) 遺構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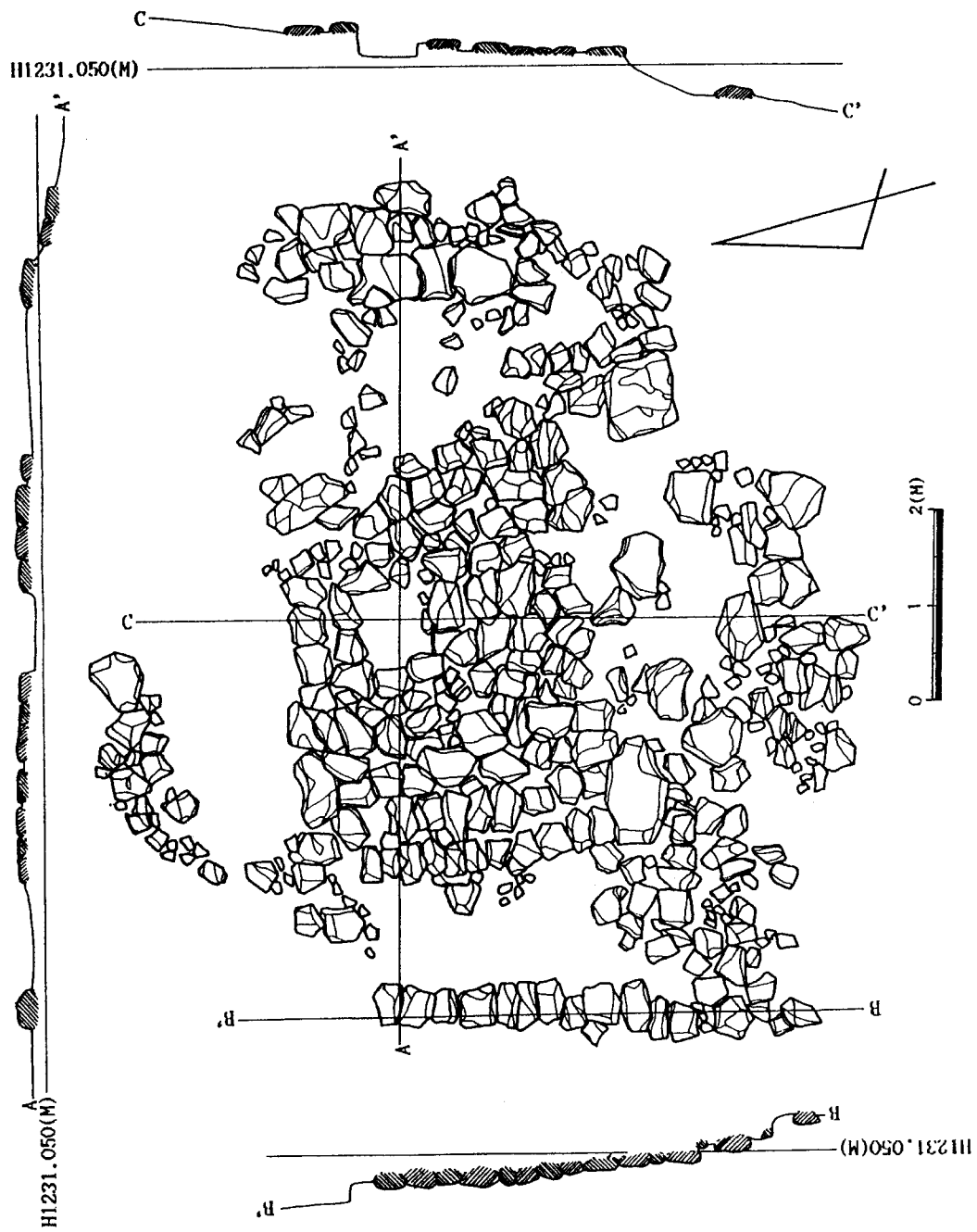
圖4) 碑閣址 추정 복원도



비각지 노출상태



圖面 9 제3단 대지내 비각지 및 담장지 실측도



圖面 10 비각지 및 담장지 실측도

2. 浮屠址 (圖面11, 12, 圖版36, 37)

이 부도지는 제4단(축대)위에 만들어져 있다. 발굴당시부터 이 부도지의 하대석과 중대석이 노출된 상태였다. 표토층의 두께는 30~35cm가량에 이르고 이 지표층밑으로 문화층없이 막바로 생토층이 연결되었다. 생토면 막바로 지대석없이 높이 47cm의 하대석을 축조하였다.

下臺石은 모두 8개의 크고작은 현무암제 할석을 접합하여 八角형태로 만들었다. 下臺石의 복원 직경은 144cm이다. 하대석하단은 주위를 돌아가면서 직경 20cm미만의 할석을 고이거나 겹쳐 세워 하대석의 접합된 부분의 이탈을 방지하게 되어있다. 하대석의 접합된 중앙에 나무가 자라면서 현재는 접합된 부분이 와해된 상태이다.

下臺石 상면으로 中臺石이 올려져 있다. 中臺石은 濟州玄武岩製를 齒石한, 직경 134cm, 높이 47cm의 크기로 둥근 원형이다. 원래는 하대석의 중앙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나무가 자라면서 이탈되어 있다. 中臺石의 중앙에는 원형의 돌출부가 만들어져 있다. 사리공의 일부로 생각되는 이 턱은 직경 18cm, 깊이 13cm로, 패인 구멍은 등글게 'U'字形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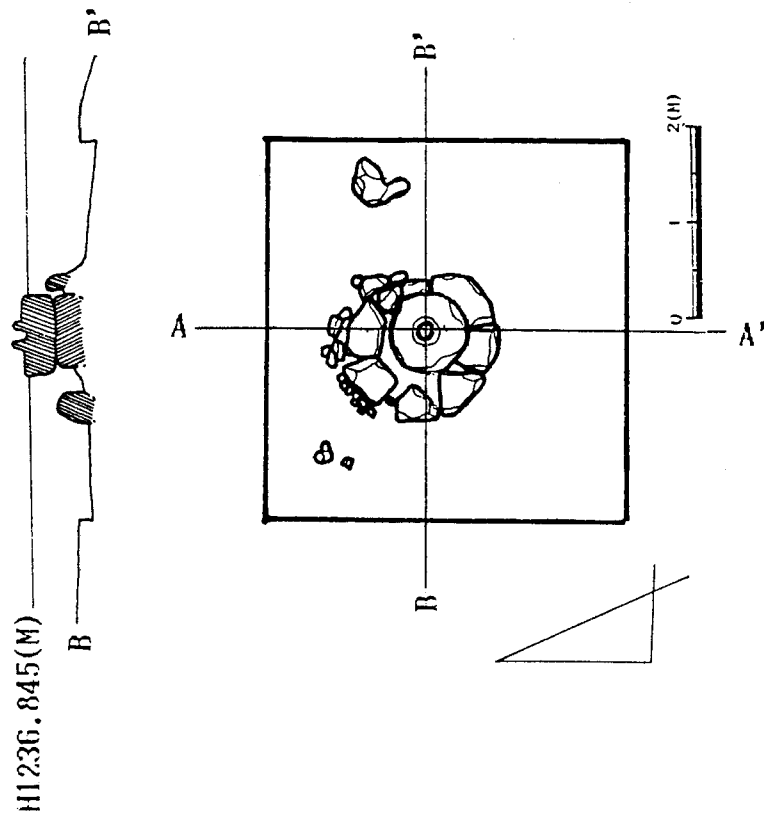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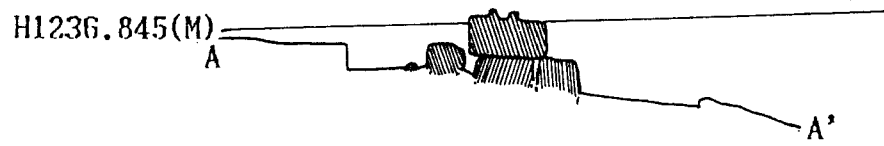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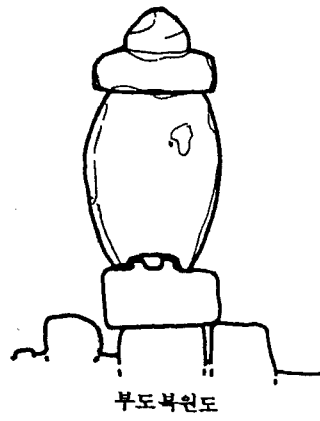
中臺石 상면에 얹은 塔身部는 이탈된 채 제2단 대지에 세워져 있었다. 건물지(3)의 남서편 기단석렬 모서리에서 서쪽으로 3.0m지점에 굴러 내려와 塔身上下面이 뒤집힌 채 屋蓋石이 얹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浮屠의 塔身の 모양은 鍾形이며 높이 92cm, 최대폭 74cm, 최저폭 38cm이다. 최대폭을 중간에 두고 최저폭은 하단에 둔 형태이다. 제주도 현무암제를 정으로 정교하게 치석하여 면을 잘 다듬어 놓았다. 身의 밑부분 중앙에는 중대석의 상단 돌출턱에 끼울수 있도록 홈이 패여 있다. 원형홈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은 직경21cm, 깊이 15cm이다. 결국, 이 홈은 아래 중대석 돌출턱과 凹凸形態로 접합하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 공간의 크기는 격경 17.5cm 높이12.5cm정도이다. 이 공간에 사리를 봉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凹凸형태로 맞물린 것은 아마도 浮屠身이 이탈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발상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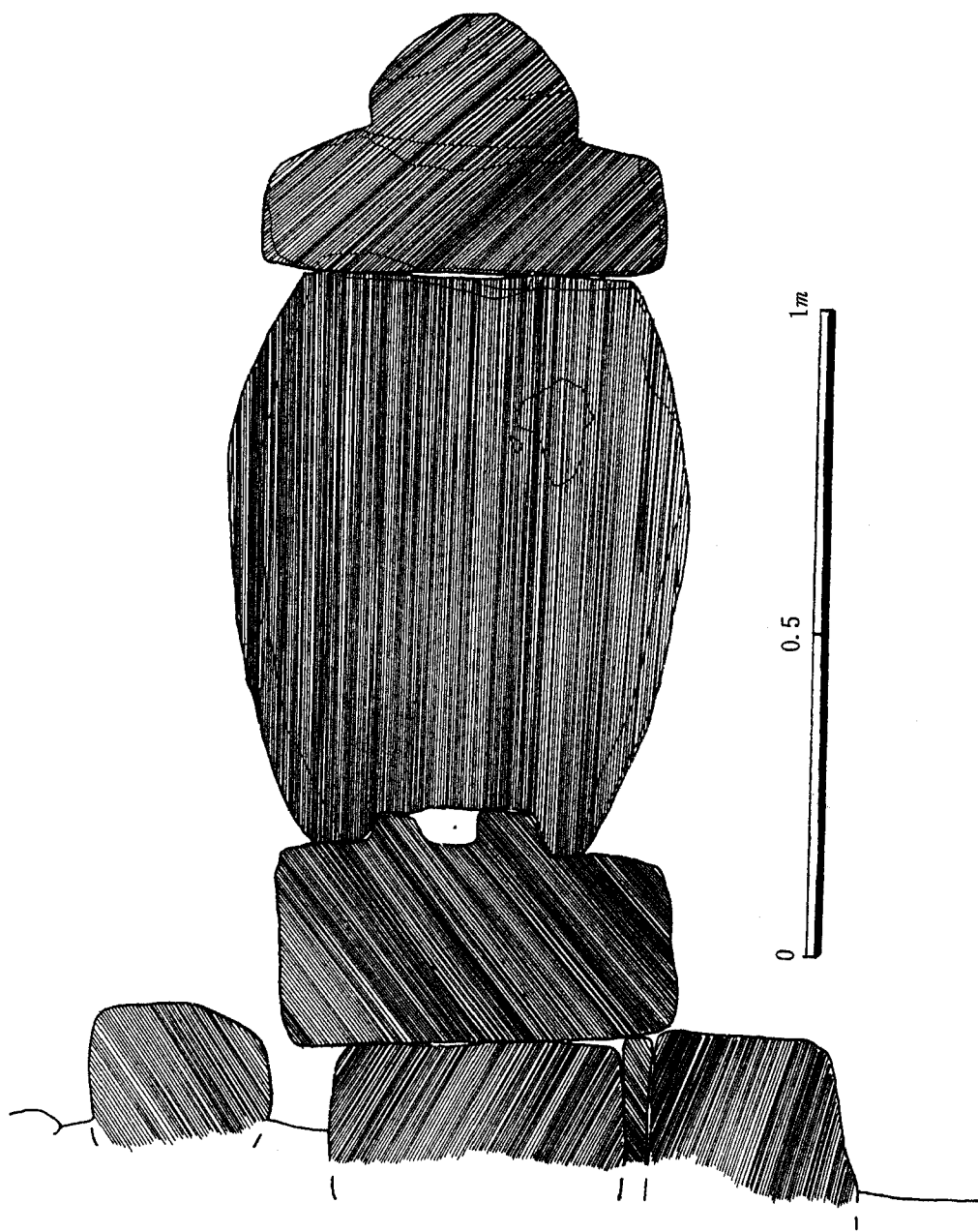
石鍾形浮屠의 身部



下臺石과 中臺石



圖面 11 제4단 대지내 유구 : 부도지 실측도



圖面 12 부도 복원 실측도

제3절 기타시설지

1. 階段址

현재까지 계단지는 3개가 확인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尊者庵址는 크게 4개의 축대위에 유구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곳에 시설물 중, 특히 건물지간에 높이차를 감안한다면, 계단시설은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계단시설(1)(圖面 7, 圖版 21)

건물지(3)의 남쪽면 기단석렬 중앙에서 발견된 건물지 앞계단이다. 이 계단시설은 기단석렬 레벨과 계단의 맨상층 段 레벨이 동일 높이로 이어지며 30cm 높이차로 各段이 내려간다. 제1단 앞에 길이 100cm, 폭 40cm, 두께 20cm 크기의 디딤돌이 놓여 있다. 이 디딤돌은 얇은 판석으로 황갈색점토에 수평으로 놓여 있다. 제1단은 현무암제 大型板石(80×44cm)이 동서로 놓여 있으며 앞 디딤돌과의 높이차는 20cm이다. 이 계단석동편에 직각방으로 판석이 남북으로 놓여 있다(圖版21-③). 이 판석은 이 계단시설의 동쪽 부분 마감석으로 판단된다. 제3단은 제1단의 계단석과 동일한 크기의 판석(80×44cm)이 동서방향으로 놓여 있다. 제1단과 제3단사이에는 잡석을 채워 또 하나의 段을 만들었다. 각 段의 높이차는 30cm이고 크게 3단이상의 계단시설물이다.

건물지(2)와 이 계단시설물 사이에 남북 중심트렌치를 넣어 지표를 제거한 결과 동서로 이어지는 굴광선들이 일정하게 잡혔다. 掘塲線의 사이 간격은 45cm정도로 이 계단시설과 관련된 선으로 여겨진다. 이 굴광선의 바닥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단계이다.

2) 계단시설(2)(圖面 7, 8)

건물지(3)의 동남편 모서리에서 확인된 계단시설로 축담(제2단)의 남서편 직각모서리에서 2m 가량 북편지점에서 확인된다. 길이 280cm, 폭 160cm의 대형판석을 윗단에 넣고 30cm가량 아래에 할석열을 만들어 계단으로 이용한 1단 계단시설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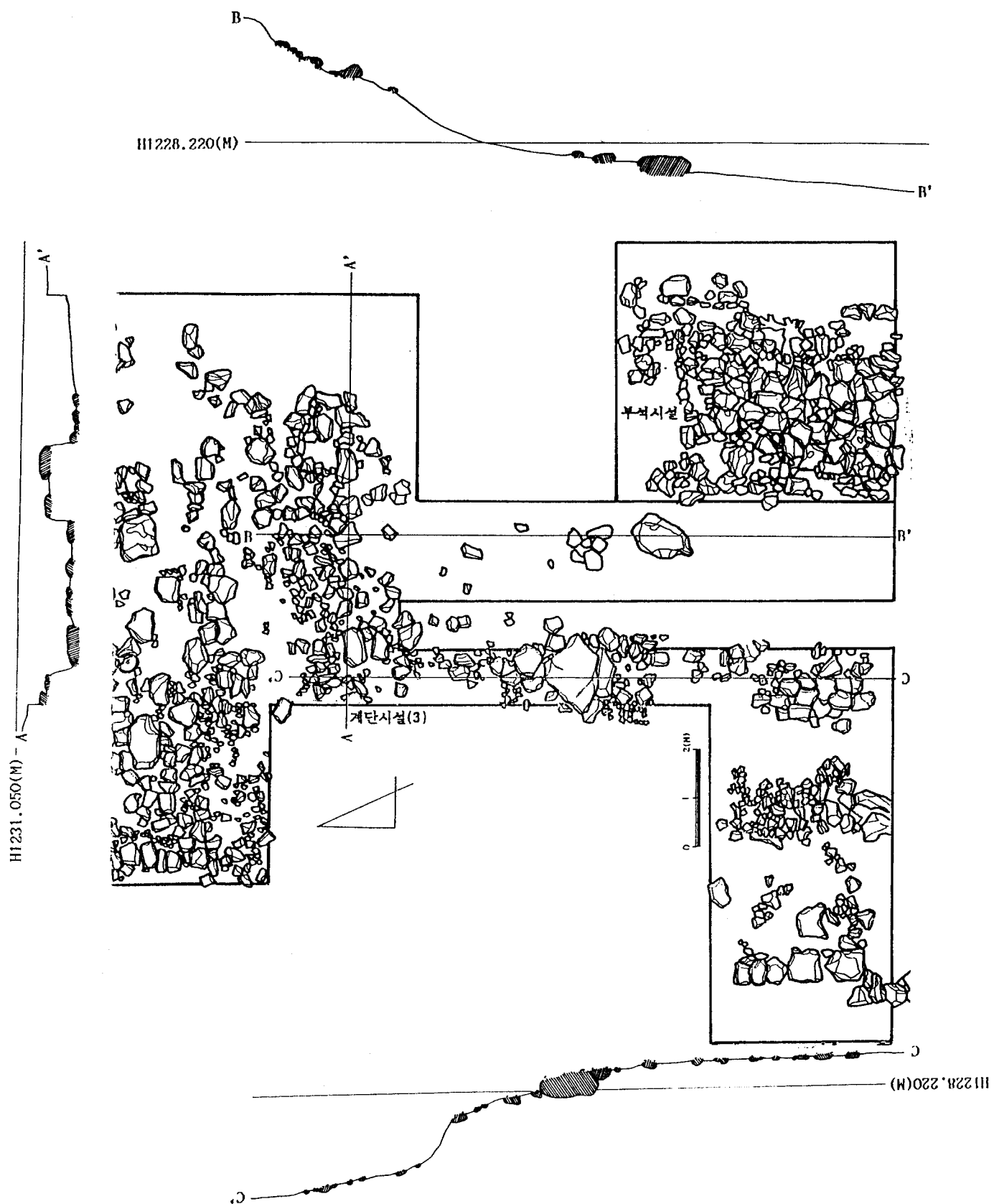
3) 계단시설(3)(圖面13, 圖版23)

건물지(3)의 북편에 만들어진 이 계단시설물은 碑閣址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데, 아마도 건물지(3)과 동일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물지의 뒷편으로 往來했던 계단지로 판단된다. 이 계단지는 현재 파괴가 심하여 원래 축조시 상태를 정확히 기술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5단 이상의 계단지로 판단되며 각단의 간격은 45cm, 폭은 1m정도이고 총길이는 2.5m정도로 여겨진다. 이 계단지 아래로 얇은 점판암제 판석을 數石한 보도형식의 유구가 확인된다.

2. 壇(築臺施設-第2壇)(圖面14, 圖版8-20)

이 시설은 이곳 尊者庵寺가 만들어지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사져 내려오는 자연적인 산능선에 막바로 건물 시설을 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지면정리작업을 행했던 것으로

8) 아직 이 부분에 주변확장발굴이 안된 상태라 차후 발굴조사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圖面 13 계단지(1)과 제2단 석축 동남면 부분 실측도



제2단(축대) 축조상태(남동에서)

판단된다. 따라서 높은 북쪽의 흙을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남쪽으로 이동된 흙을 북쪽지면과 동일 레벨로 만들기 위해 축대를 쌓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노출된 築臺下端石列의 길이는 1.6m이고 예상되는 규모는 남쪽부분의 동서길이가 5m이상 될 것으로 여겨진다. 동·서편의 축대부분은 모서리부분을 차츰 남에서 북으로 경사지게 올라가면서 원래 지면을 약간 깎아서 시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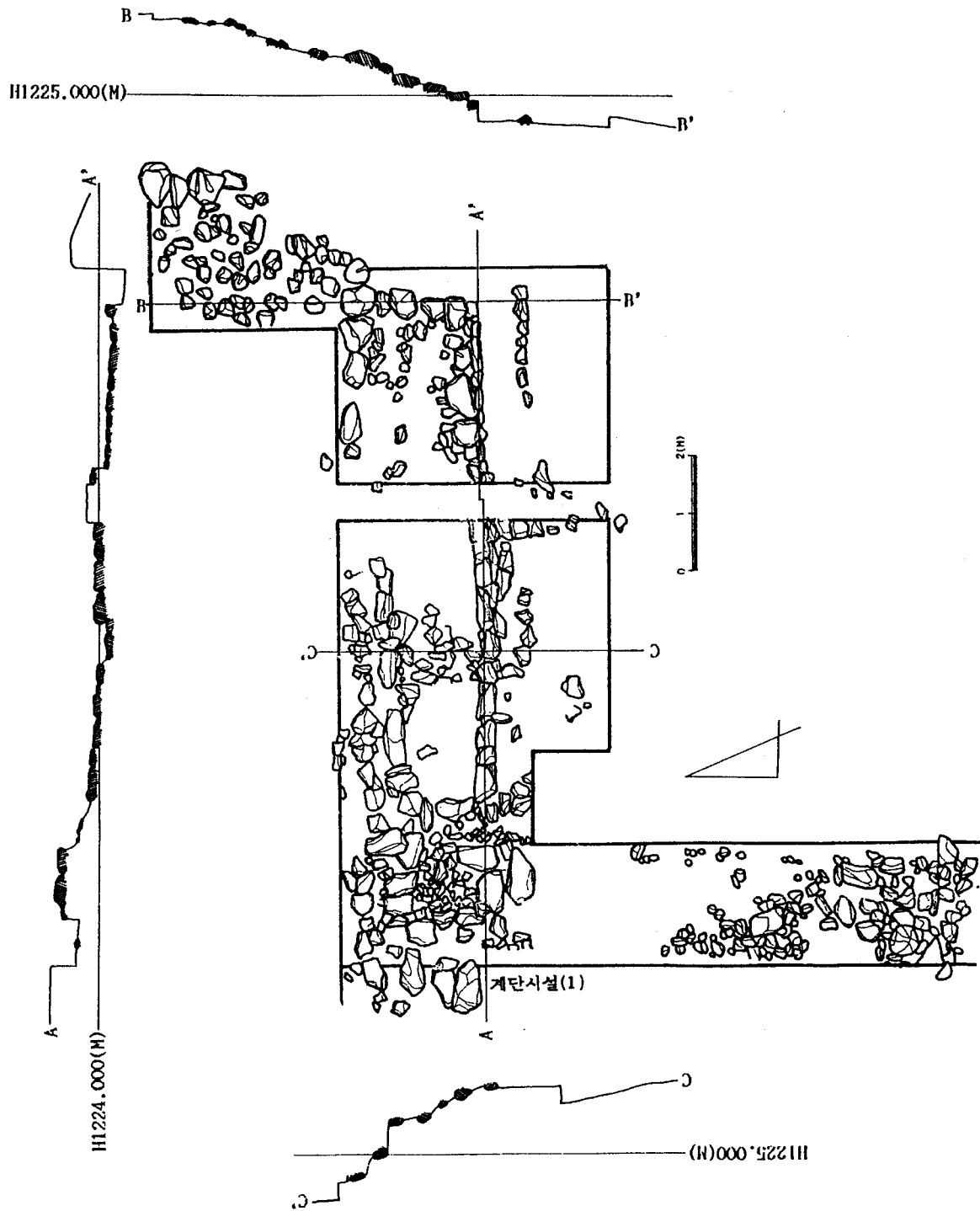
壇의 築造方法은 생토암반층위에 황색점토를 10~20cm가량 수평으로 깔아 놓은후 상면을 고르게 치석한 할석과 판석을 남쪽 방향으로 맞춰 下段石列을 구축하였다. 다시 맨 下段石列 위로 40×30×30cm 이상의 자연석과 할석을 밑 석렬보다 15~17cm정도 안으로 들어와 남쪽방향으로 맞춰 동서로 길게 배치하였다. 이 석렬의 상면을 수평으로 맞추기 위해 맨 하단석렬은 크고작은 돌이 받쳐 있다(圖版20-3). 다시 이 석렬위로 잡석이 채워지고 맨 상단(생토암반에서 1.5m 위)에 자연석을 불규칙하게 동서로 배치하였다.

이 단시설은 단위 대지에 시설된 건물의 기단석렬 하단과 수평으로 만들어 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하단석렬과 그위의 석렬은 건물지(4), (5)를 시설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단의 불규칙한 마지막 석렬을 만들때는 건물지(3)과 관련된 조선중기로 판단된다.

3. 排水施設(圖面 7, 8)

지형상, 존자암사지는 크게 경사진 지형을 삭토하여 단(축대)를 만들고 그위에 건물지 등을 시설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과 건물 지붕에서 흘러내린 물을 일정한 배수시설을 통해 아래로 내려보내야 했을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排水施設은 건물지(3)의 서, 동편과 건물지(1), (2)의 서편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아직 노출작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려우나, 30~50cm정도의 폭으로 양 벽



圖面 14 계단지(3) 과 제3단 석축 동남편 부분 실측도

에 할석을 세워 남북으로 이어지는 배수시설일 가능성이 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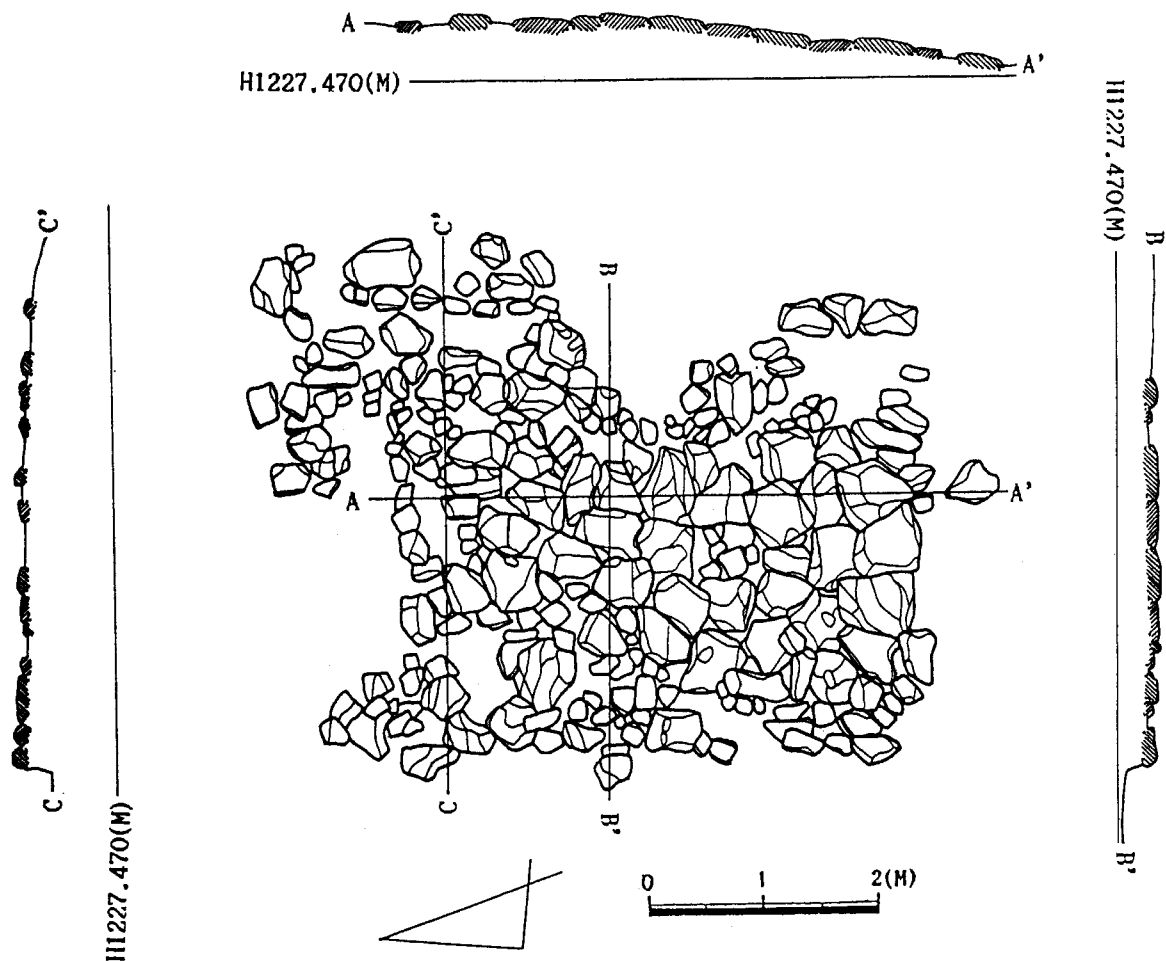
4. 敷石・積石 施設(圖面7, 15, 圖版29)

① 敷石施設(圖面15)

건물지(4)의 上層에서 확인되었다. 흑갈색부식토층내에 敷石되어 있다. 그 아래로 황갈색점토층(건물지 성토층)이 이어진다. 부석시설의 방향은 남북방향으로 동서로 짧고 남북이 긴 장방형 끝이다. 부석된 범위는 남북 4.4m, 동서 3.0m이다. 얇은 판석을 동일한 높이로 깔아 놓았으며 부석틈새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백자편과 복합문 숟기와편들이다. 부석시설의 놓인 방향과 비각지의 부석깔림상태, 동유구내 출토유물의 소속시기를 비교해 볼 때 제3단에서 시설된 비각건물과 관련하여 만든 보도일 가능성이 짙으며, 그 이후의 시설물로 판단된다.

② 積石施設(圖面16, 17 圖版38)

적석시설은 각단(축대)시설의 동서편에 나타난다. 조사 중인 상태라 단언하기 어려우나 각단의 축단을 정교하게 만들고 나서 양옆단을 보완하기 위해 불규칙하게 쌓아 놓은 시설로 판단된다.



圖面 15 비각지 관련 敷石시설 실측도

제4절 周邊遺構 Trench 地表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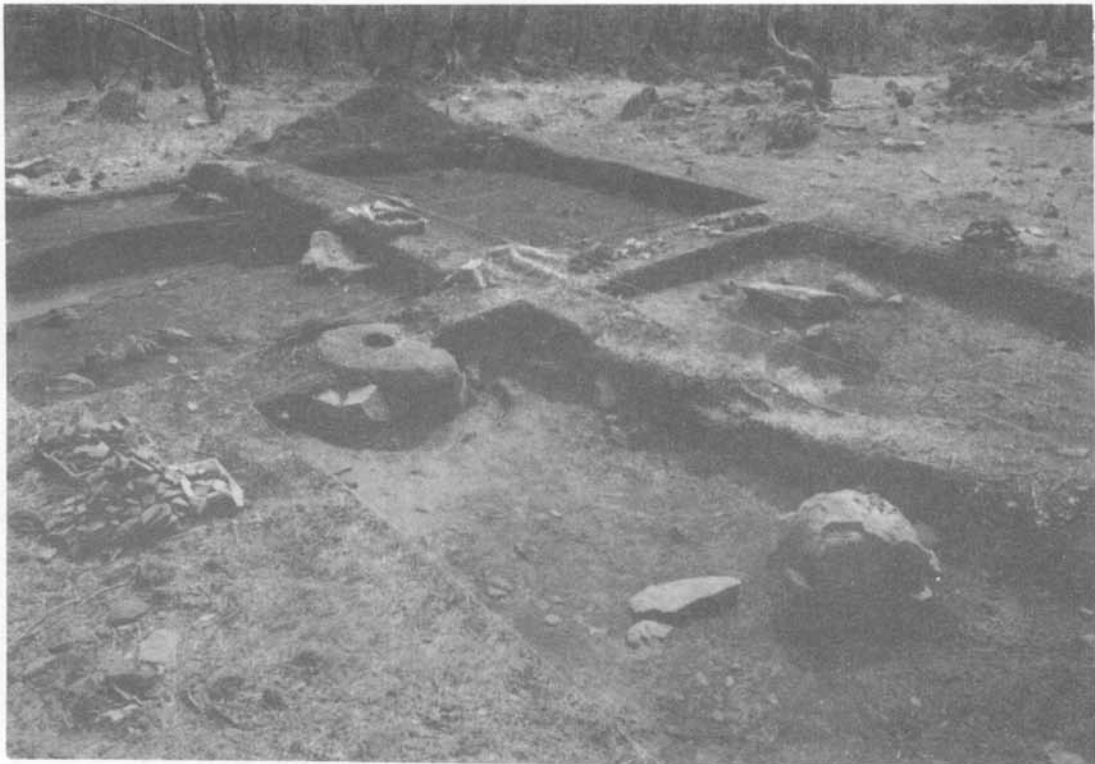
1. Trench 조사(圖面3, 圖版1-②)

각 트렌치조사를 통해 유구가 확인된 곳은 전면확장 발굴을 前提로 하였으나 시간상 확장발굴을 실시하지 못하고 1차조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그 조사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① N-S Trench(1)-(3)과 Extended Pit(圖面16, 圖版30-35)

이 부분은 原狀의 柱孔石이 1기 자리하고 있고 남쪽으로 배치된 2기의 주춧돌군이 확인되며 적석시설의 일부도 확인된다. 토층조사 결과 이곳은 최근까지 교란 흔적이 뚜렷하며 소토층이 다량으로 포함된 구덩이들이 여기저기 확인된다(도판34-①②③, 35-①②). 이 구덩이에서 사슴뼈들이 확인되어 이들 구덩이는 산에서 짐승을 잡아 먹었던 행위 장소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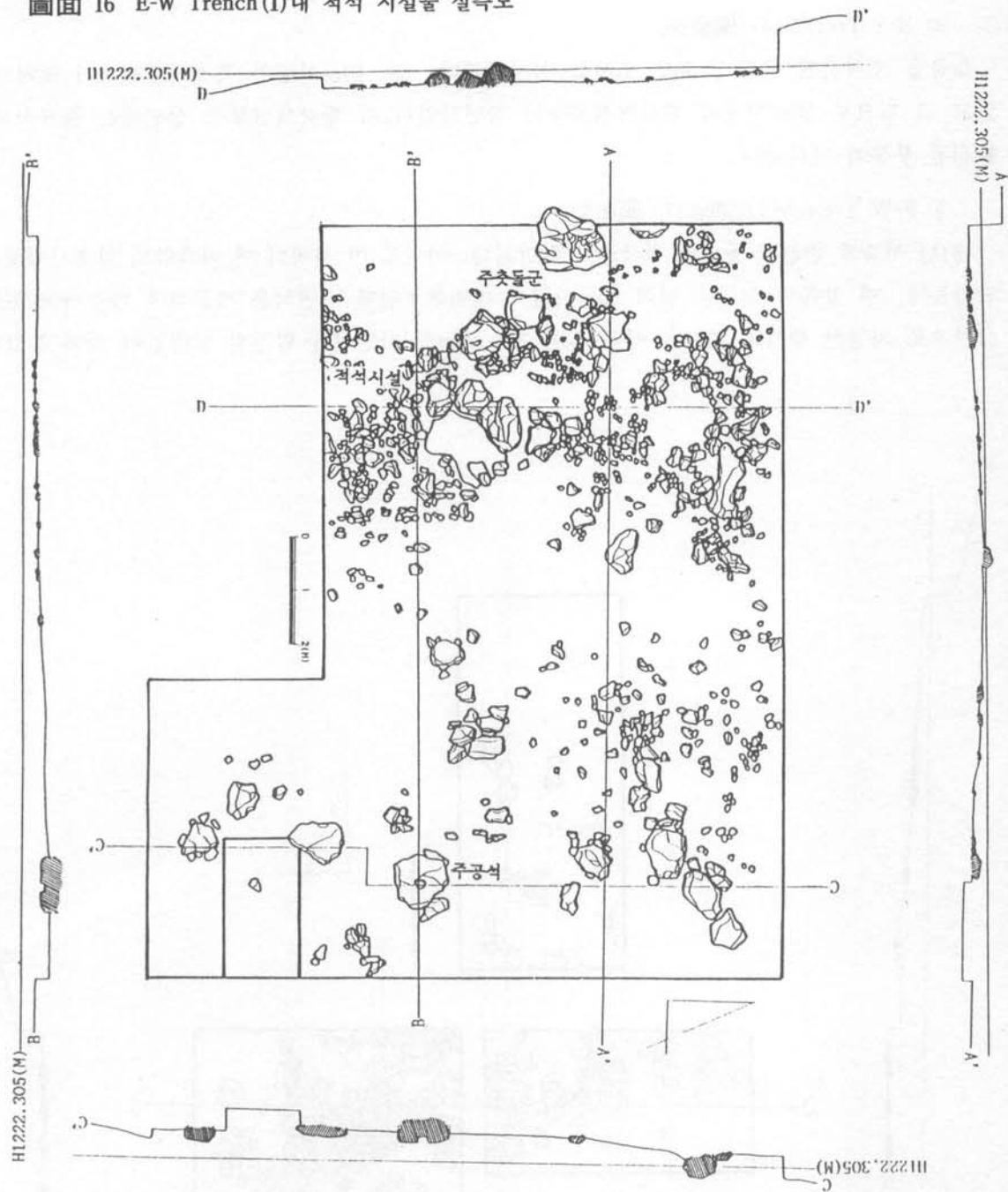
柱孔石은 수평을 맞추기 위해 주변을 돌아가면서 積心石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주공석과 관련한 유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어떤 성격의 유구인지는 단언하기 힘들다.⁹⁾ 또한 주춧돌군이 확인되는 곳은 주변 적석시설과 관련한 유구로 판단되는 데, 이들 유구는 모두 차후 조사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북트렌치(1), (2) 조사광경

9) 이 지점은 탐지가 있었으리라 추정되는 곳이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중간 단계에 있고 탐지관련 유구가 노출되지 않아 일단 트렌치 조사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圖面 16 E-W Trench(1)내 적석 시설물 실측도



주춧돌군과 적석시설 노출상태

② N-S Trench(4) (圖面16)

토층을 조사하기 위한 소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30~40cm가량의 흑갈색부식토가 퇴적되어 있고 그 밑으로 50cm이상의 황갈색점토층이 확인되었다. 이 황갈색점토층 상면에는 불규칙하게 敷石된 부분이 나타난다.

③ E-W Trench(1) (圖面17, 圖版38)

제1단 석축과 관련된 동편의 적석군이 확인된다. 아마도 이 사지의 맨 아래쪽의 석축시설로 판단되는데, 맨 앞쪽의 석렬은 길이 60cm이상의 대형현무암제 자연석을 사용하여 마감하고 있다. 그안으로 자잘한 할석과 괴석을 섞은 길이 30~40cm의 자연석을 일정한 규칙없이 쌓아 놓았다.



圖面 17 N-S Trench(1)-(3)내 적석 시설과 초석군 실측도

2. 周邊遺構 地表調査

① 少川溪谷(圖版39)

유적의 동편으로 굽이쳐 흐르는 小川이 형성되어 있다. 이 소천은 유적지 위편 불래오름근처에서 勇川(發源)하여 유적 동편을 지나 남으로 500m지점까지 흐르다 지하로 스며들어 흔적을 감춘다. 이 용천수는 존자암사가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식수원으로 활용되어 졌을 것이고, 이러한 높고 깊은 산중에 절이 자리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② 貯水施設(圖版38)

물이 떨어지는 작은 계곡과 현진입로 중간에 저수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아직 조사를 행하지는 못했으나 제주도 현무암 자연석과 할석을 쌓아 흐르는 물을 막기위해 석벽을 쌓은 시설이 남쪽부분에서 확인된다. 벽은 4단이상 확인되었다.

③ 進入路

유적의 진입로가 소로 형식으로 만들어 졌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천을 건너야 만이 이 절에 들어 올수 있는 까닭에, 유적 지형상 현재 이용중인 소로진입로가 당시의 진입로로 판단된다.

제4장 遺 物

제1절 기와류 (圖面18-32, 圖版40-54)

금번 발굴에서 조사된 존자암지의 기와는 막새류를 제외한 명문기와와 평기와(암, 수기와)가 다수 출토되었다. 부도지를 제외한 발굴구역 전역에서 고르게 출토된 기와는 출토위치에 따라서 상이한 형태로 출토되었다. 금번 보고서는 약 천여편의 출토기와중에서 명문기와와 형식이 독특한 기와, 가장 출토량이 많은 기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명문기와류

① “万戸兼牧使” 銘文瓦 (圖面18-21, 圖版40-43)

존자암에서 출토된 명문와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기와이다. 기와 전면에 걸쳐 명문만을 시문한 기와로 암기와에서만 확인되었다. 전체 명문은 「??二月修正禪師大夫冲光, 万戸兼牧使奉?」으로 두께 약 0.1cm의 세선을 사용하여 정교한 서체로 시문되었다. 명문은 右書로 陽刻되었다. 명문은 도합 24자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12字씩 배치되었다. 명문 주위로는 너비 1.3cm의 명문의곽 테두리를 구획하고 내부에는 사찰기와에서 흔히 보이는 당초문을 시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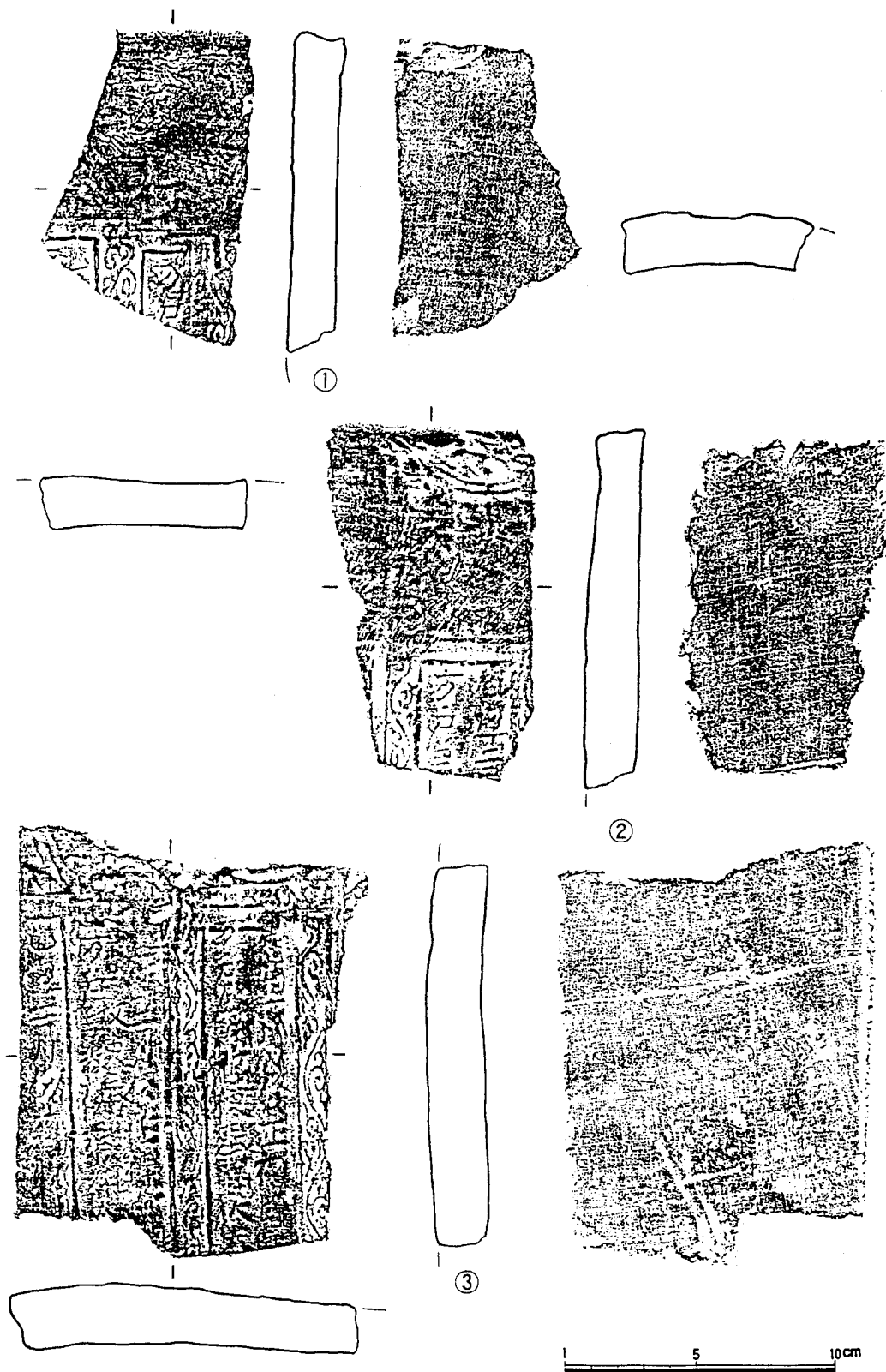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18-1	40-1	암기와. 회청색. 전면 상부의 물손질 수법. 후면 미세포흔. 경질. 소성도 높음.	1.8	지 표
18-2	40-2	암기와. 회청색. 전면 상부의 짓눌림 흔적. 후면 미세포흔. 경질. 소성도 높음.	2.2	지 표
18-3	40-3	암기와. 회청색. 전면 부분적인 균열. 측면 일부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횡방향의 주름. 연질.	1.9	지 표
19-1	41-1	암기와. 회색. 전면 심한 마모. 후면 미세포흔. 연질.	1.7	지 표
19-2	41-2	암기와. 회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일부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연질.	2.0	지 표

19-3	41-3	암기와. 회색+회청색. 전면 중앙부를 경계로 색조 변화.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횡방향의 주름.	2.2	지 표
20-1	42-1	경질. 소성도 높음. 암기와. 회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횡방향의 주름.	2.0	지 표
20-2	42-2	경질. 소성도 높음. 암기와. 회청색. 전면 중앙부의 빗질 흔적.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2.0	지 표
20-3	42-3	경질. 소성도 높음. 암기와. 회청색. 전면 하부의 물손질 수법. 후면 미세포흔. 횡방향의 주름.	2.0	지 표
21-1	43-1	경질. 소성도 높음. 암기와. 회갈색. 후면 미세포흔. 연질.	1.8	지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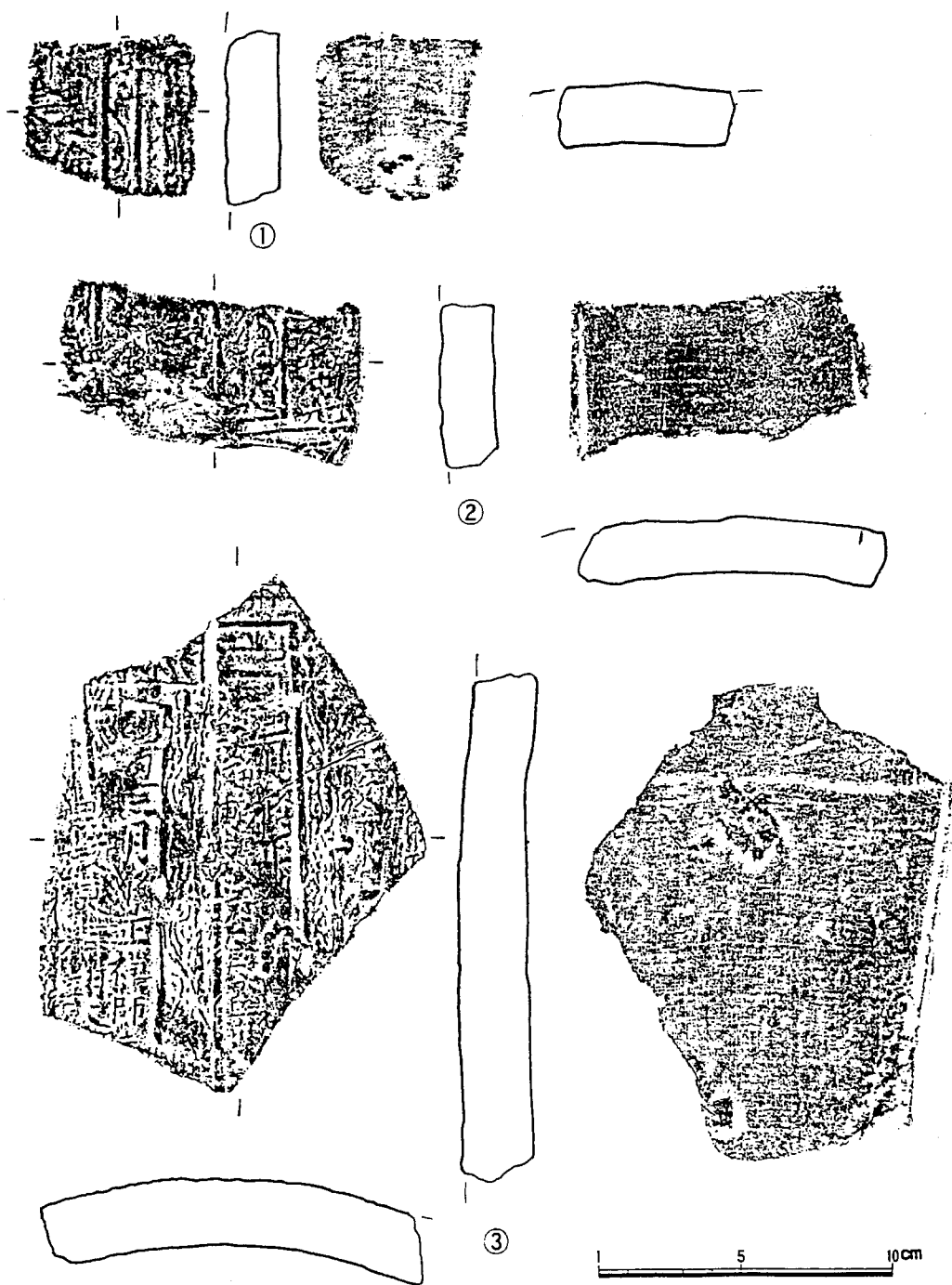
② “千戶夫承碩” 銘文瓦 (圖面21-2, 3, 4, 22-1, 圖版43-2, 43-3, 43-4, 44-1)

기와 전면에 걸쳐 명문만을 시문한 기와이며 숫기와에서만 확인되었다. 전체 명문은 “千戶夫承碩瓦, 近無閑嫗師呂介丁字”로 몇자가 더 시문되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명문은 두께 약 0.1cm의 세선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시문되었다. 또한 명문은 위에서 아래로 일렬로 시문되어서 한 문장을 이루며, 右書로 陽刻되었다. 명문 주위를 돌아가는 외곽테두리선 내부에는 과대문이 시문되었으나 간혹 제선문으로 시문된 것도 확인되었다. 명문부의 규격은 가로가 3.2cm이며 세로방향의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동일 명문기와는 전반적으로 회청색 색조를 띠나 소성도 면에서는 차이가 심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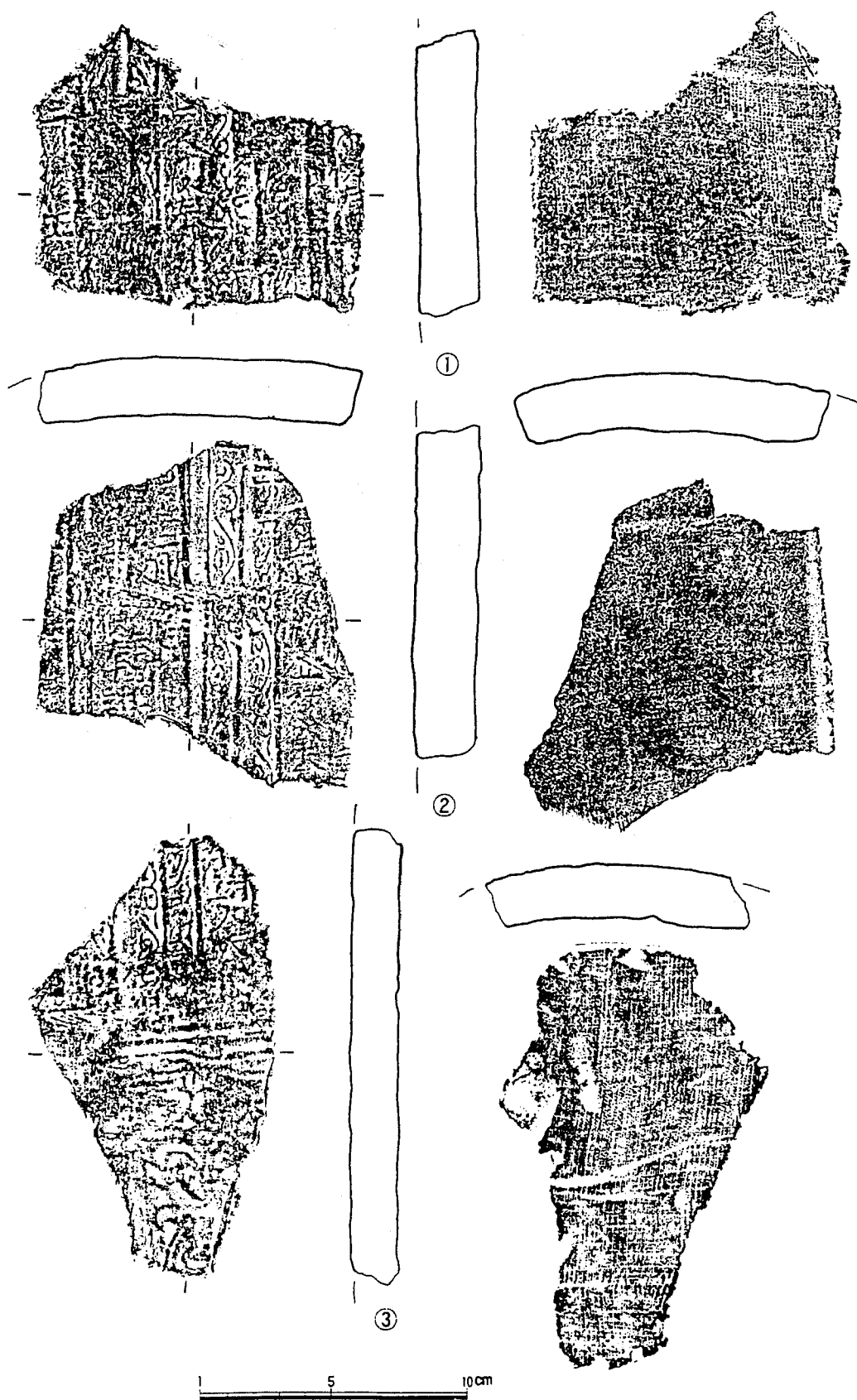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21-2	43-2	숫기와. 흑회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절단흔 마모. 후면 미세포흔. 종방향의 와도흔. 연질.	1.6	지 표
21-3	43-3	숫기와. 회청색. 후면 미세포흔. 경질. 소성도 높음.	2.0	지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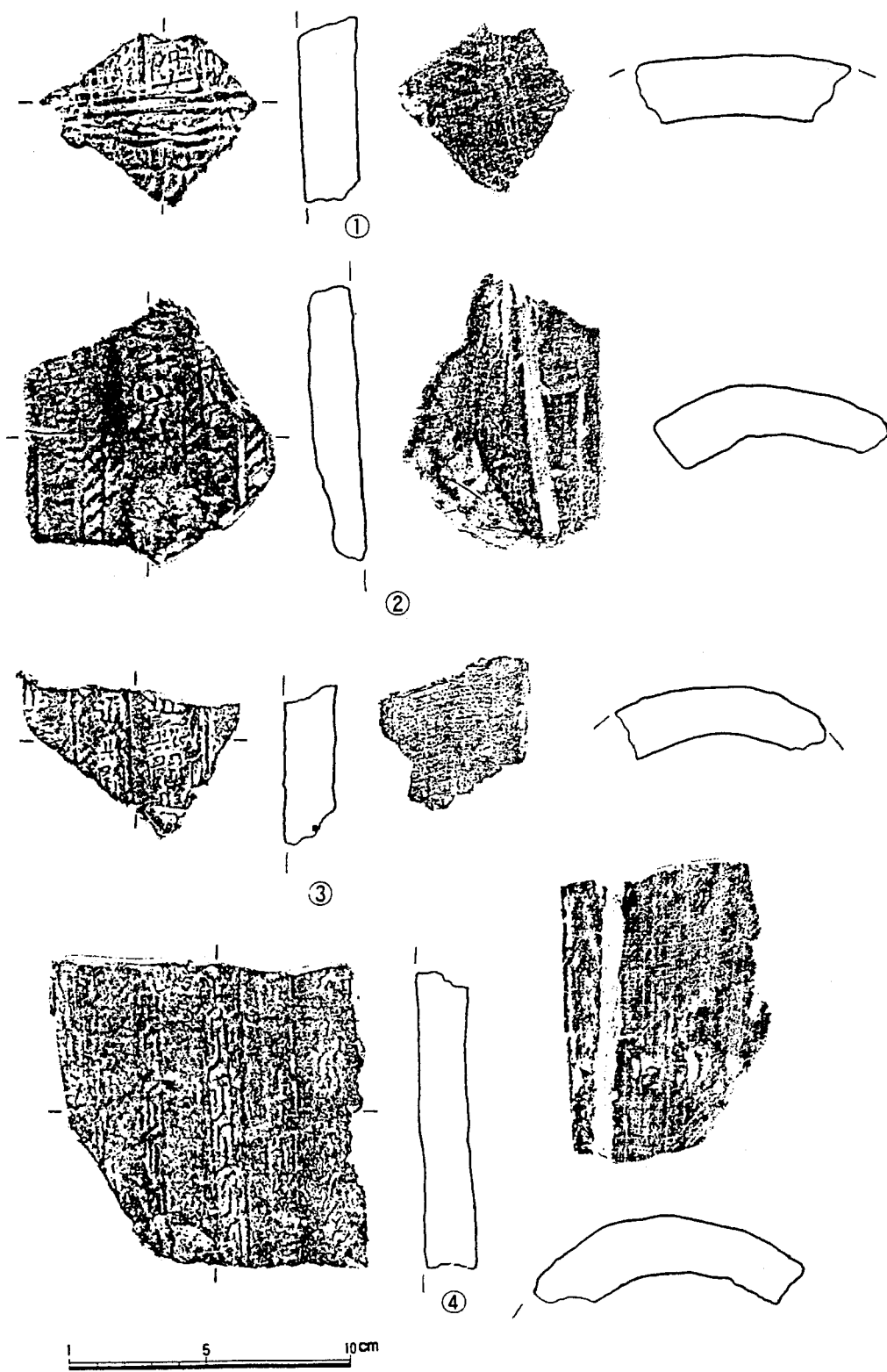
圖面 18 尊者庵址 출토 명문암기와(1)



圖面 19 尊者庵址 출토 명문암기와 (2)



圖面 20 尊者庵址 출토 명문암기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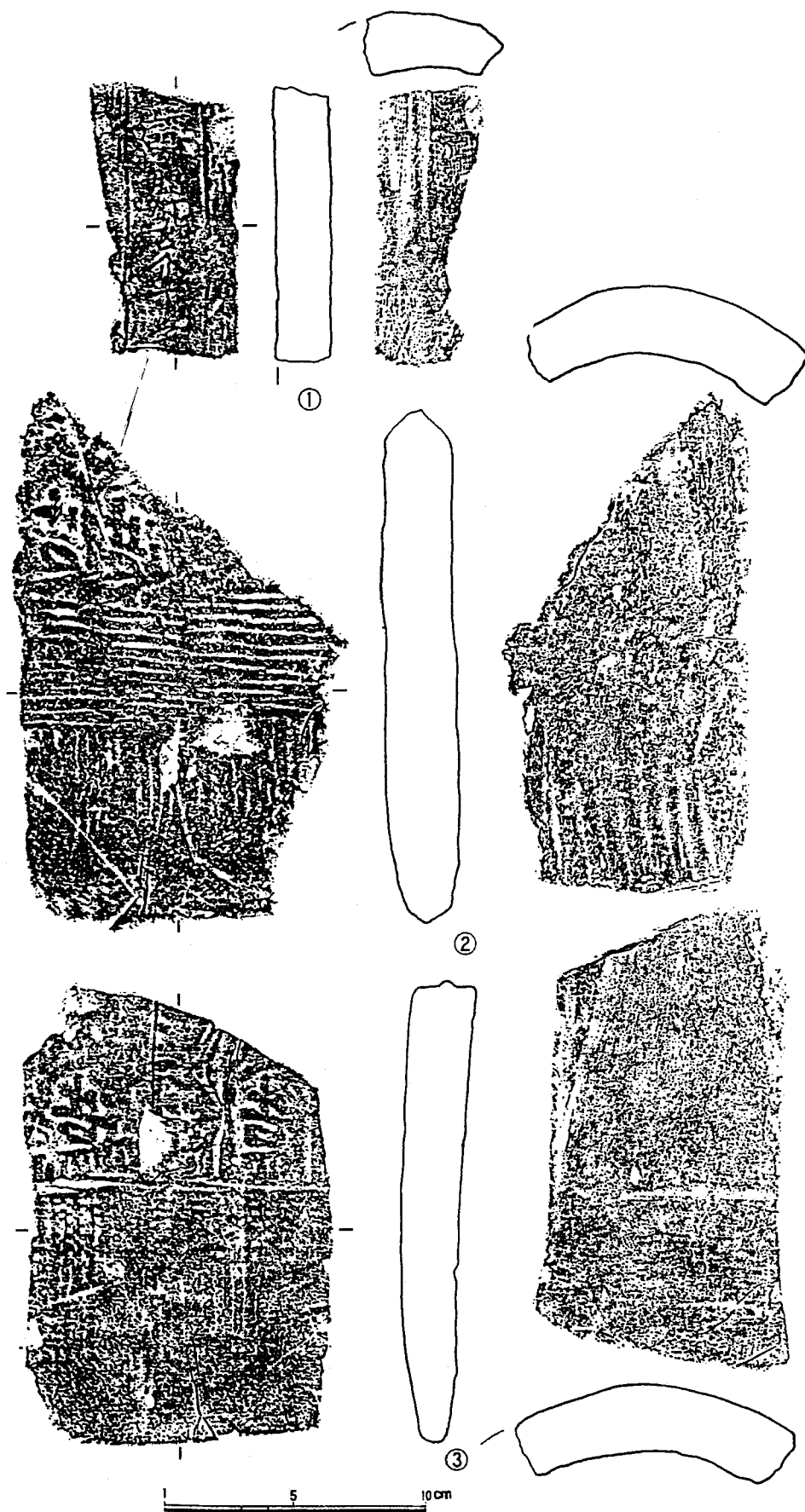
圖面 21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1)

21-4	43-4	숫기와. 회갈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종방향의 와도흔. 손톱누름흔적. 연질.	1.8	지 표
22-1	44-1	숫기와. 갈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굵은 포흔. 종방향의 주름. 연질.	2.1	지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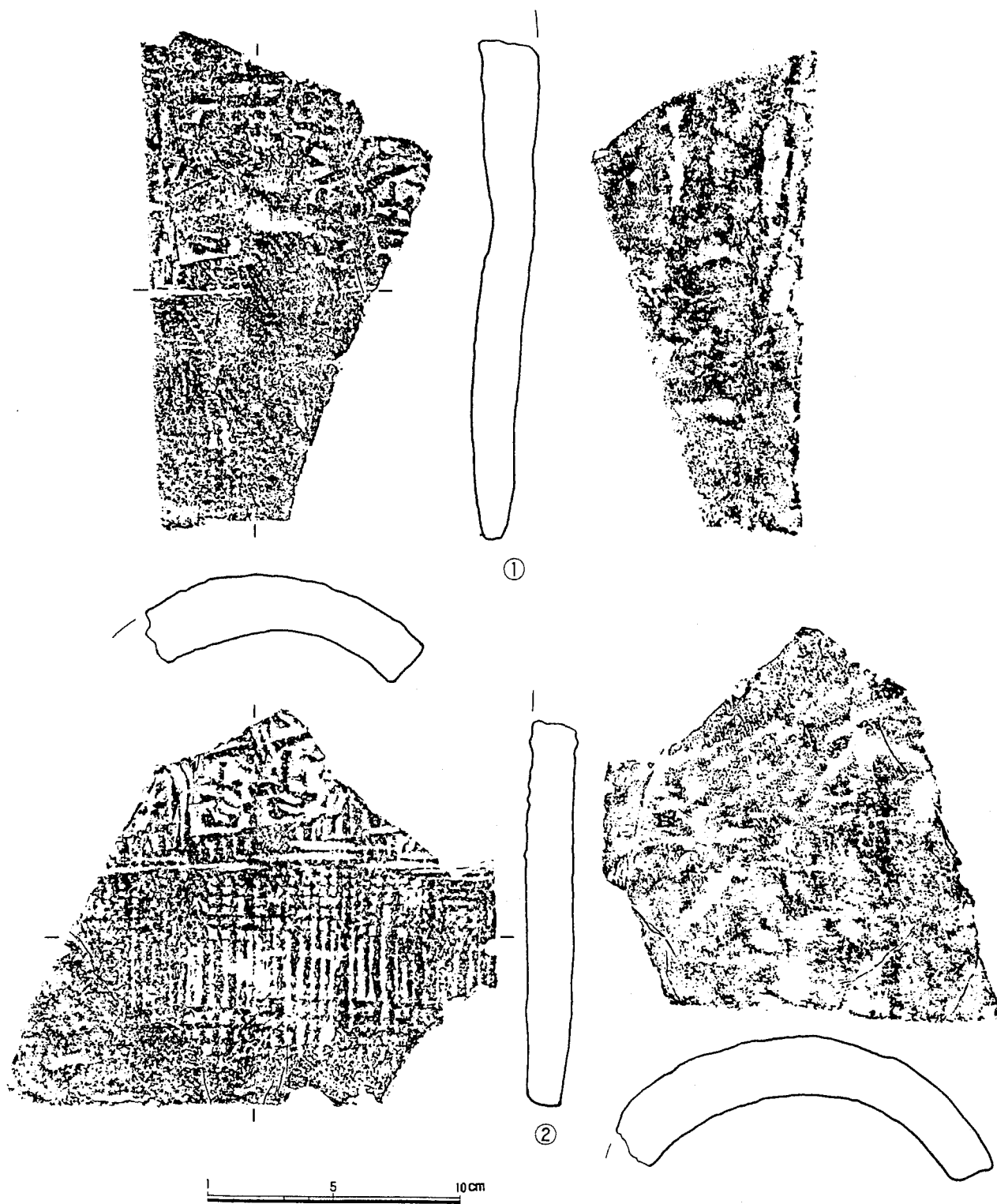
③ “造” 銘文瓦(圖面22-2, 23, 24, 圖版44-2, 45, 46)

숫기와에서만 확인되는 명문와이다. 명문은 좌서로 양각되었으며 0.2~0.5cm의 두께로 불규칙하게 시문되었다. 명문 하부의 문양은 선조문이 시문된 것과 정격자문이 시문된 것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시문된 선의 두께는 0.5cm이다. “造” 명문와류는 동일 명문와중에서 소성도와 태토면에서 각각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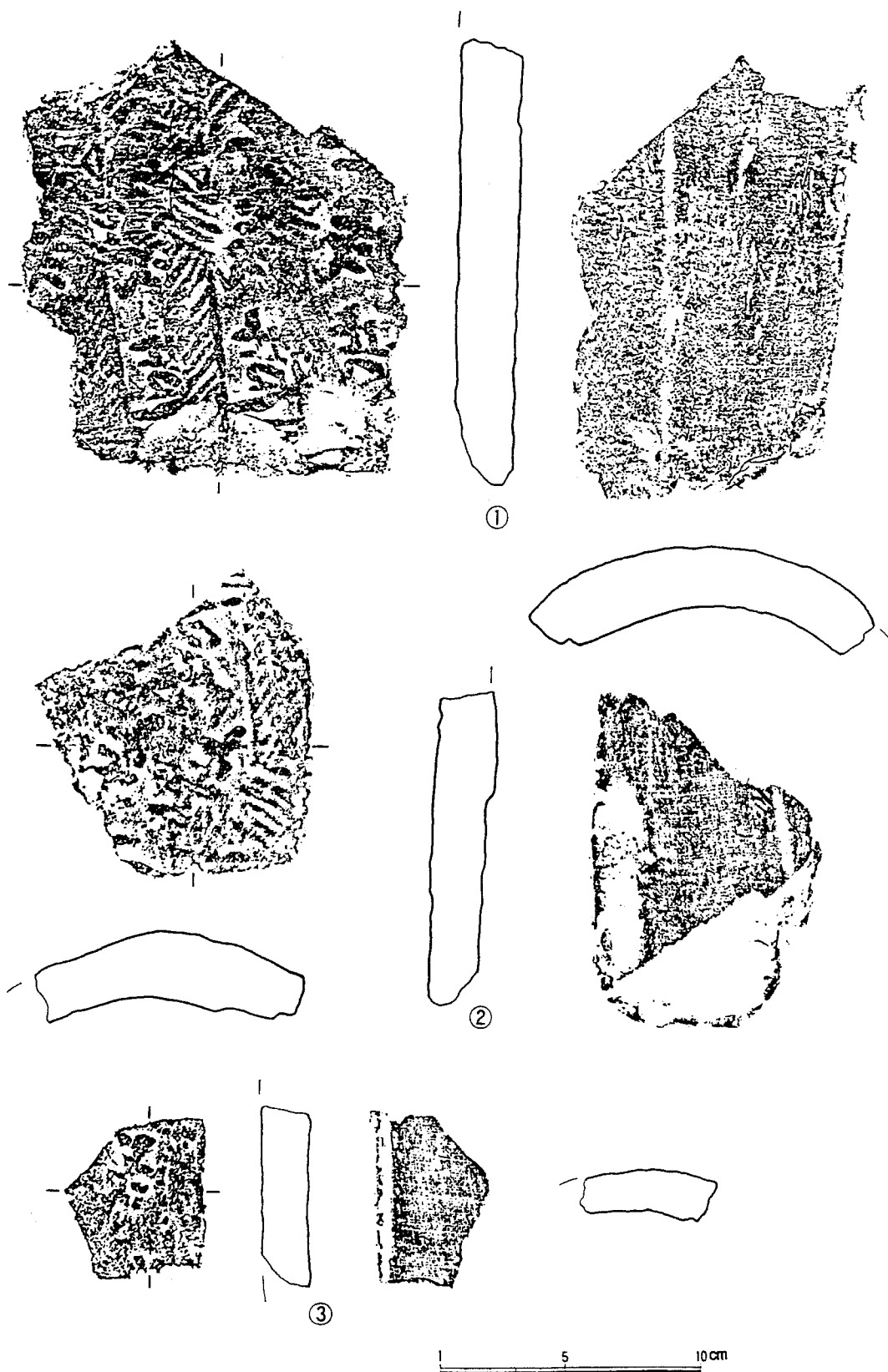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22-2	④44-2	숫기와. 회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포흔 사라짐. 연질. 소성도 매우 낮음.	2.4	건물지4
22-3	44-3	숫기와. 회흑색+회청색. 전면 부분적인 색조 변화.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종방향의 와도흔. 경질. 소성도 높음.	1.8	건물지4
23-1	45-1	숫기와. 회청색. 전면 일부 짓눌림 흔적.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물손질 수법. 경질. 소성도 높음.	2.0	건물지4
23-2	45-2	숫기와. 회청색. 전면 부분적인 균열.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2.0	건물지4



圖面 22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 (2)



圖面 23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 (3)



圖面 24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4)

24-1	46-1	부분적인 균열. 경질. 소성도 높음. 숫기와. 회청색. 전면 일부 물손질 수법. 측면 불규칙한 절단흔. 후면 일부 미세포흔. 종방향의 와도흔.	2.2	건물지4
24-2	46-2	경질. 소성도 높음. 숫기와. 회청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불규칙한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종방향의 주름.	2.3	건물지4
24-3	46-3	연질. 숫기와. 흑색. 전면 흑색의 자연유 시유.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경질. 소성도 높음.	1.7	건물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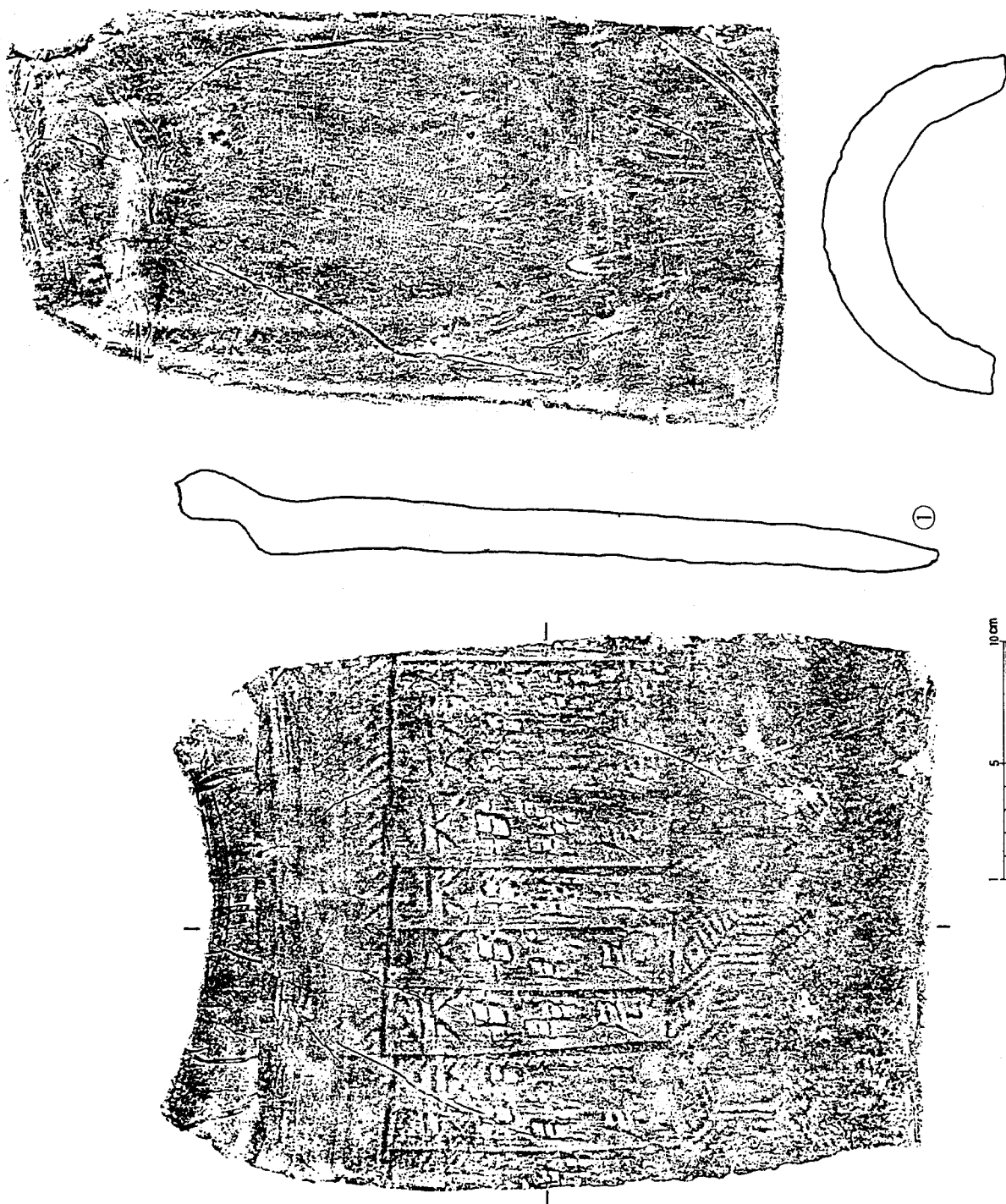
④ “天母開啓” 銘文瓦(圖面25, 圖版47)

「天母開啓」명문와는 완형인 상태로 단 1점 만이 출토되었다. 언강이 부착된 유단식기와로 언강부의 길이 3.5cm, 기와몸체의 길이는 30cm이다. 명문부의 외곽테두리선은 기와상부 5.7cm에서부터 기와하부 11.5cm지점까지 구획되었고 그 내부에 명문이 시문되었다. 명문은 위에서 아래로 일렬에 걸쳐 右書로 陽刻되었다. 또한 명문은 기와몸체를 따라 띠를 두르듯 반복시문되었다. 명문은 0.1~0.4cm 두께의 불규칙한 선으로 시문되었다. 또한 명문과 명문은 0.2~0.4cm의 양각돌출선으로 구분되었다. 명문부 밑으로는 제선문과 격자문이 중복되어 시문되었으나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마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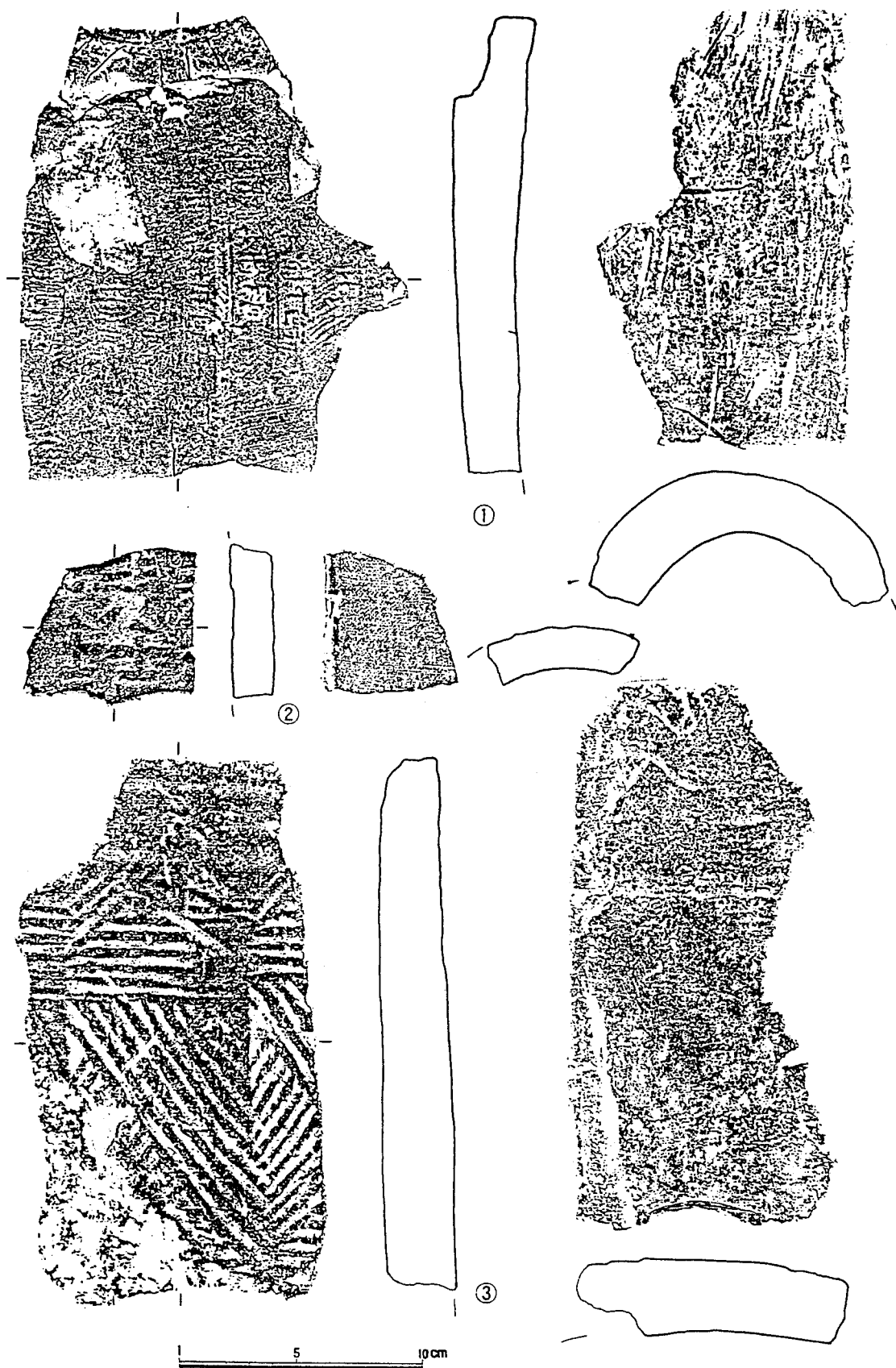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25-1	47-1	숫기와. 회청색. 전면 기와 상부의 와도 절단흔.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경질. 소성도 높음.	1.8	碑閣址

⑤ “高” 銘文瓦(圖面26-1, 圖版48-1)

숫기와에서 단 1점이 확인되었다. 언강이 부착된 상태이다. 선조문이 횡방향으로 시문된 기와의 중앙부에 조잡한 서체로 명문을 시문하였다. 명문이 시문된 선의 두께는 0.2cm이다. 명문은



圖面 25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 (5)



圖面 26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6)

右書로 陽刻되었으며, 기와가 굽은 면을 따라 띠를 두르듯 시문되었다. 명문상단과 하단에도 다른 명문이 시문되었으나 마모가 심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기와 등에는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빗질한 수법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26-1	48-1	숫기와. 회청색. 전면 심한 마모. 일부 파열·균열.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종방향의 불규칙한 와도흔·예세흔. 경질. 소성도 높음.	2.2	건물지

⑥ “壬” 銘文瓦(圖面26-2, 圖版48-2)

형태가 극히 미미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명문은 左書로 양각되었고, 명문의 두께는 0.4~0.5cm이다. 명문의 상단과 하단에도 다른 명문이 시문되었으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26-2	48-2	숫기와. 흑색. 전면 흑색의 자연유 시유. 측면 불규칙한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경질. 소성도 높음.	1.8	건물지3

2. 평기와류

금번 보고서에 수록된 평기와는 크기가 비교적 크고 완형에 가까운 것으로 한정하였다. 그러한 관계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인 수지문 기와가 생략되었고 기타 각종의 평기와의 소개가 생략되었다.

1) 암기와(圖面26-3, 27, 28, 圖版48-3, 49, 50)

암기와류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는 기와는 수지문계열이고, 무문계열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① 선조문 암기와(圖面26-3, 27-1, 27-2, 圖版48-3, 49-1, 49-2)

기와 상부 약 4.0cm 지점에서 부터 0.4~0.6cm 두께의 굽은 태선을 사용하여 기와 등 전면에 걸쳐 기하학적인 문양을 시문한 기와이다. 선사이의 간격은 0.2~0.3cm이다. 동일기와류는 대부분 마모정도가 심하고 연질임이 특징적이었는데 기와의 태토에 모래와 석회성분의 혼입은 거의 없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26-3	48-3	암기와. 황갈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포흔 사라짐. 불규칙한 주름. 연질. 소성도 낮음.	2.3	碑閣址
27-1	49-1	암기와. 갈색. 후면 포흔 사라짐. 연질. 소성도 낮음.	2.3	碑閣址
27-2	49-2	암기와. 흑청색. 전면 심한 마모.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종방향의 와도흔. 연질. 소성도 낮음.	2.2	碑閣址

② 파상문 암기와(圖面27-3, 圖版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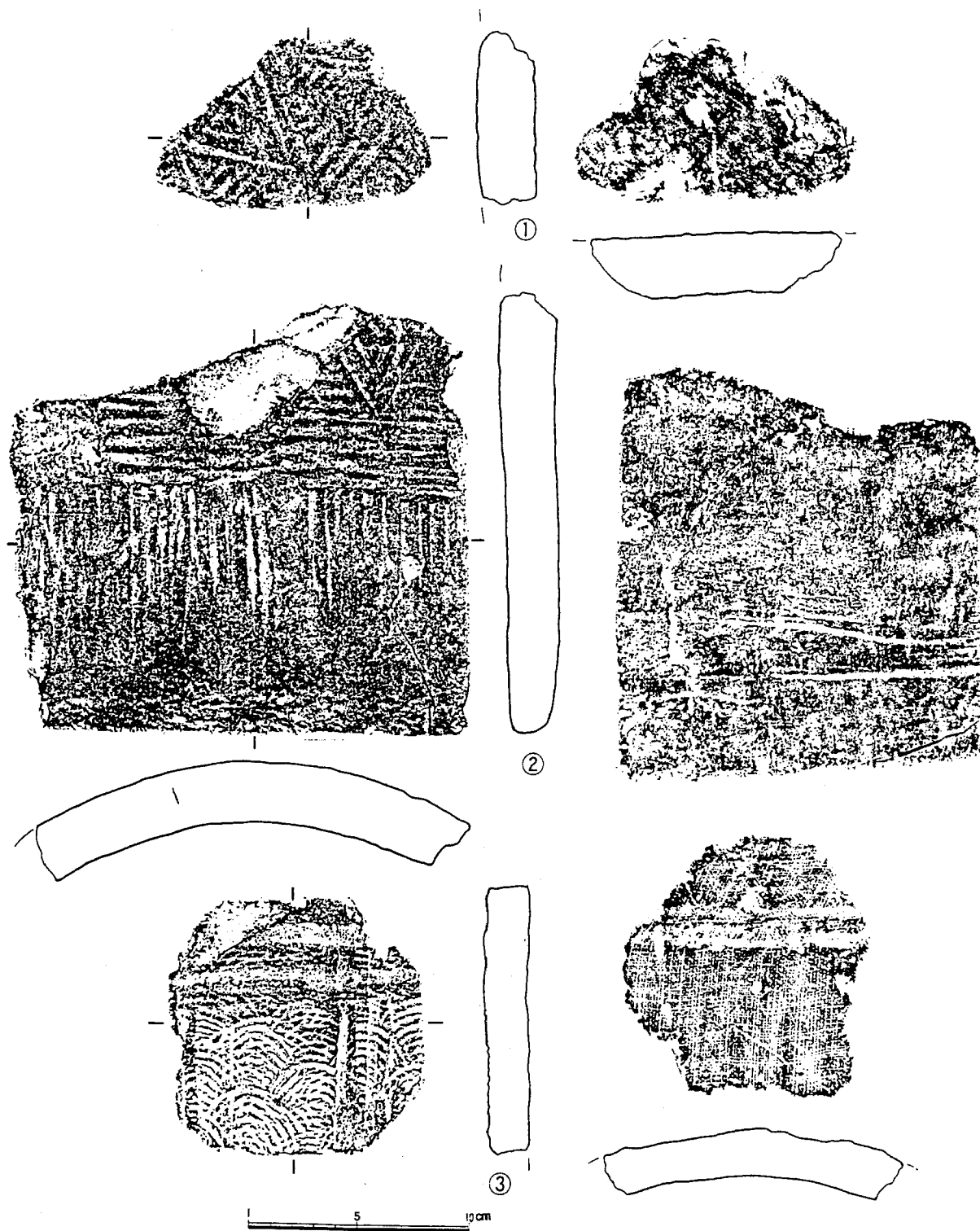
기와 상부 약 4.0cm지점에서 부터 파상문이 전면에 시문되었다. 기와의 상부에는 손으로 눌러서 돌린 너비 1.0cm의 음각띠가 2줄 있다. 파상문 선의 굵기는 0.2~0.3cm이고 선사이의 간격은 0.2cm이다. 기와중앙에는 기와를 종방향으로 관통하여 파상문 문양을 자르는 폭 0.4cm의 음각선이 한 줄 시문되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27-3	49-3	암기와. 회갈색. 전면 상부 2줄의 함몰띠. 후면 굵은 포흔. 횡방향의 주름. 연질. 소성도 낮음.	1.7	건물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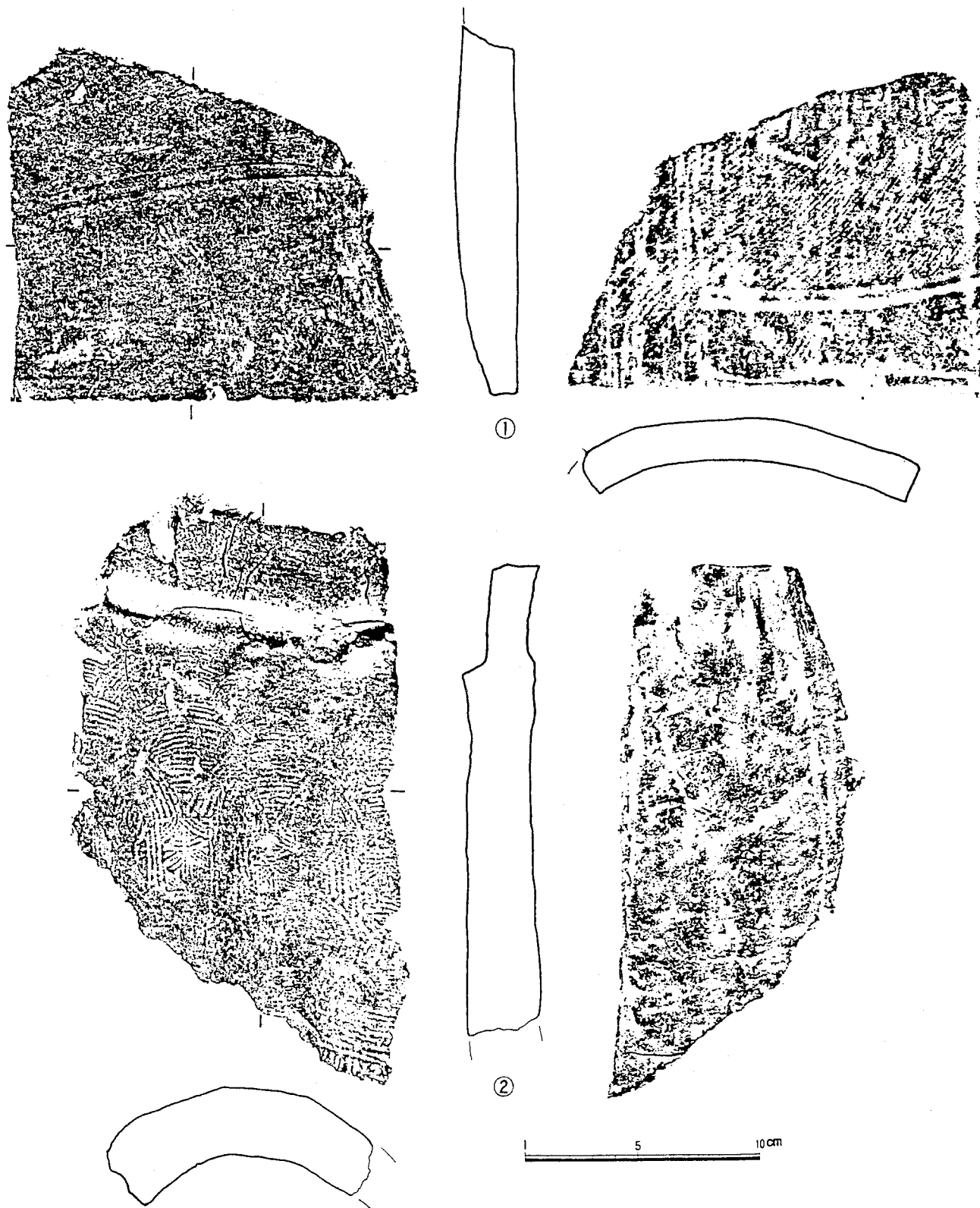
③ 무문 암기와(圖面28-1, 圖版50-1)

별다른 문양이 시문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기와 표면의 처리수법만이 확인되었다. 기와 전면에 걸쳐 예세처리된 흔적이 뚜렷하고, 종방향의 솔질흔적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회성분이 많이 혼입되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28-1	50-1	암기와. 흑청색. 전면 일부의 빗질흔. 일정방향의 예세흔. 측면 절반의 절단흔.	1.6	건물지1



圖面 27 尊者庵址 출토 암기와(1)



圖面 28 尊者庵址 출토 암기와 (2)

		후면 일정방향의 예세흔. 일부 와도흔. 경질. 소성도 높음.		
--	--	---	--	--

2) 숫기와(圖面28-2, 29, 30, 31, 32, 圖版 50-2, 51, 52, 53, 54)

숫기와는 완형으로 출토된 예가 가장 많았던 복합문숫기와가 압도적인 출토량을 보이며 수지문 계열과 무문계열이 그 다음으로 많은 출토량을 보인다.

① 복합문 숫기와(圖面28-2, 29, 30, 31, 圖版50-2, 51, 52, 53)

언강이 달린 유단식 숫기와이다. 同種의 기와에서는 언강과 숫기와와의 접합이 따로 이루어진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기와의 등에는 횡방향과 사선방향으로의 불규칙한 방향성을 갖는 선문이 조밀하게 시문되었다. 선의 두께는 0.1~0.2cm의 세선으로 되었고, 선사이의 간격은 0.2~0.3cm이다. 同種 기와의 또 다른 특징은 기와제작 당시부터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균열흔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태토의 성분과 소성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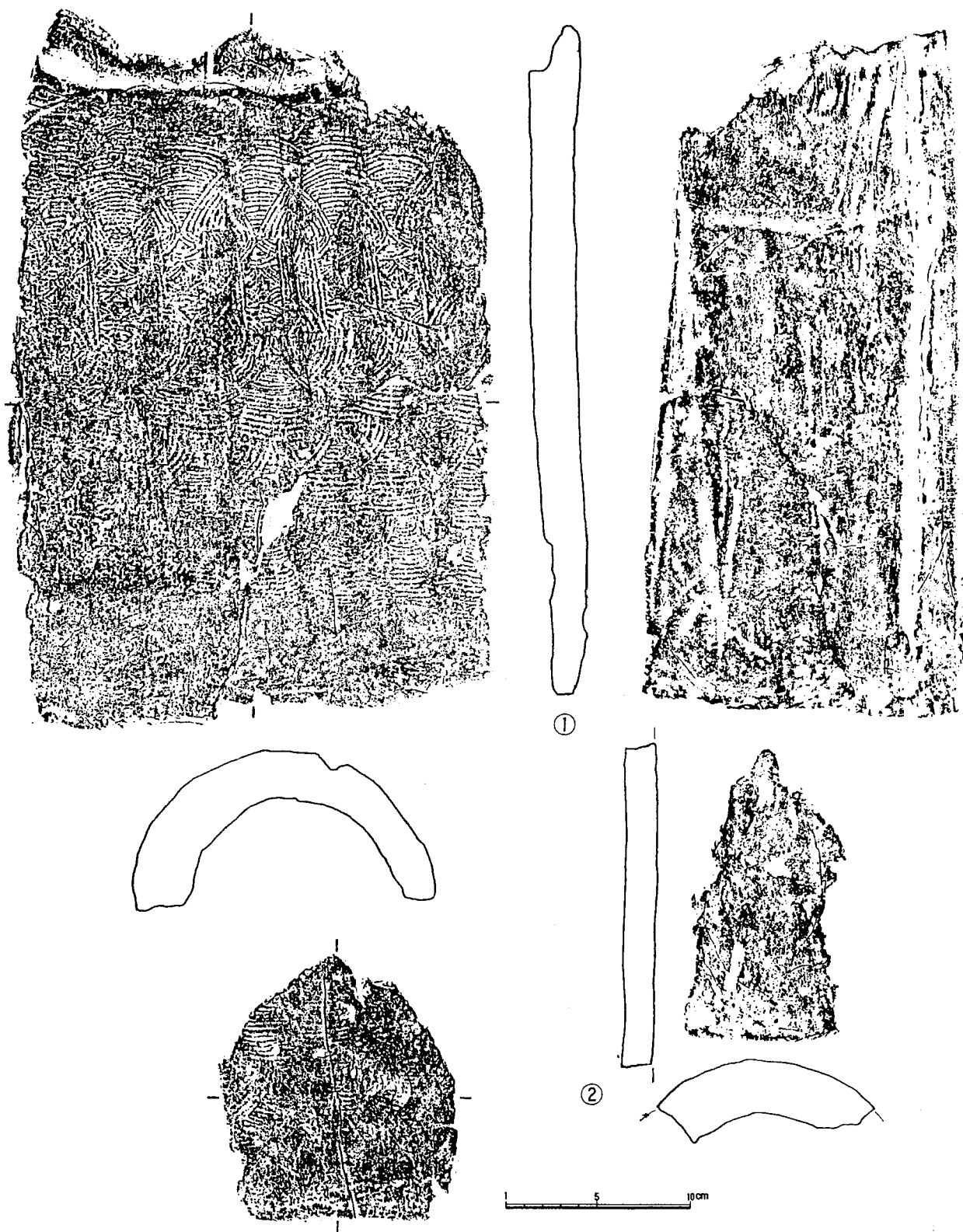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28-2	50-2	숫기와. 회청색. 전면 상부의 짓눌림. 일부 손누름 흔적. 측면 일부의 절단흔. 후면 포흔 사라짐. 부분적인 균열. 경질. 소성도 높음.	2.6	건물지3
29-1	51-1	숫기와. 흑청색. 전면 흑색의 자연유 시유. 측면 불규칙한 절단흔. 후면 포흔 사라짐. 종방향의 와도흔. 경질. 소성도 높음.	2.7	碑閣址
29-2	51-2	숫기와. 적갈색. 전면 심한 마모. 부분적인 균열. 측면 불규칙한 절단흔. 후면 부분적인 균열. 경질. 소성도 낮음.	2.8	碑閣址
30-1	52-1	숫기와. 갈색. 전면 일부 마모. 짓눌림 흔적. 측면 불규칙한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종방향의 와도흔.	2.7	碑閣址
30-2	52-2	숫기와. 적갈색. 전면 심한 마모.	3.2	碑閣址

31-1	53-1	부분적인 균열. 측면 불규칙한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부분적인 균열. 경질이나 소성도는 낮음. 숫기와, 적갈색. 전면 일부 회청색. 부분적인 균열. 측면 불규칙한 절단흔. 후면 굵은 포흔. 종방향의 와도흔. 균열. 전면 일부의 균열. 후면 포흔 사라짐. 부분적인 균열. 경질이나 소성도는 낮음.	3.2	碑閣址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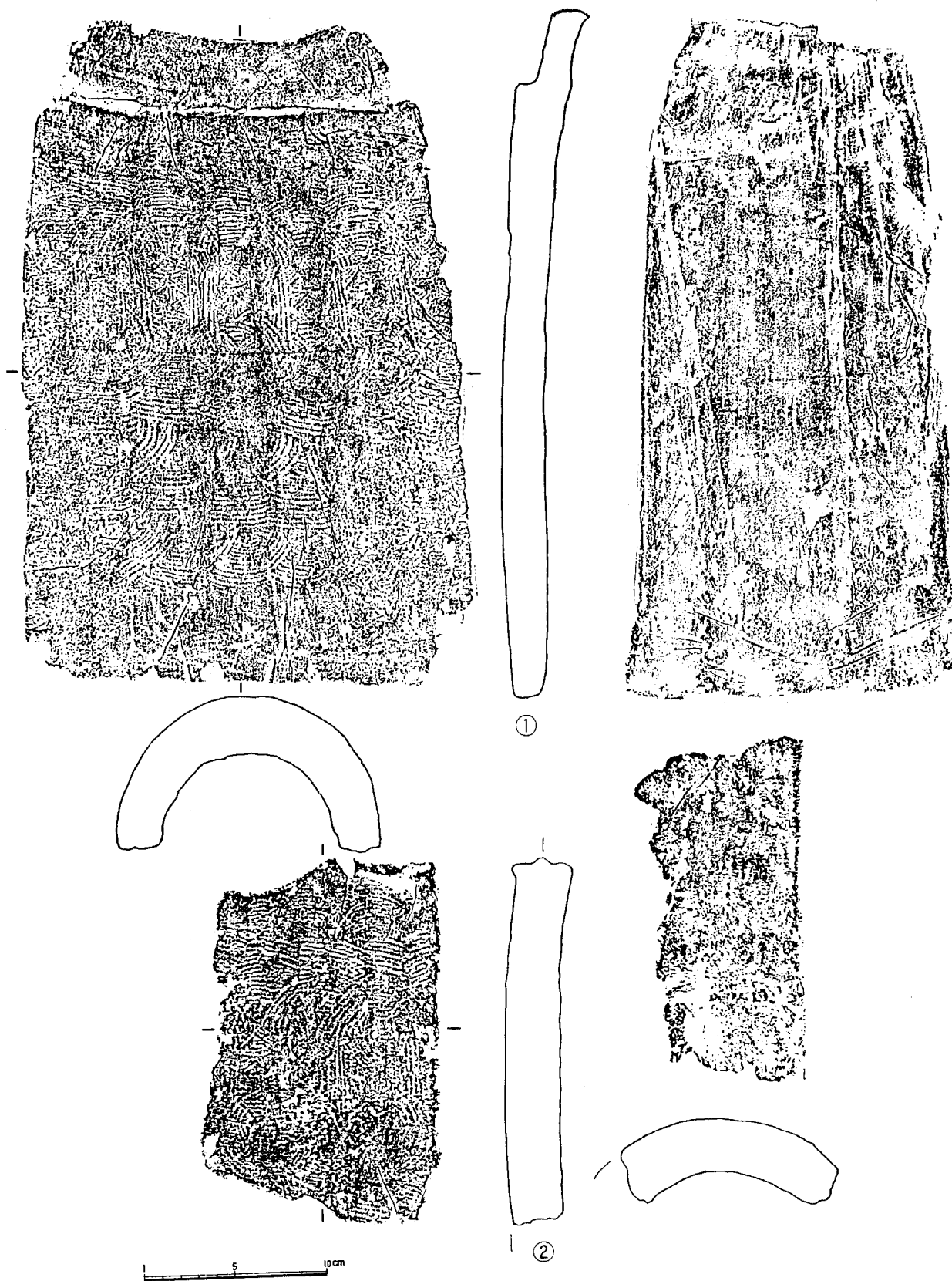
② 수지문 숫기와(圖面32-1, 圖版54-1)

언강이 달린 유단식 숫기와이다. 기와 상부 5.4cm지점서부터 굵은 태선으로 수지문이 시문되었다. 수지문 선의 굵기는 0.4cm이고, 선사이의 간격은 0.2cm이다. 기와 상부의 문양이 시문되지 못한 부분에는 횡방향의 세장한 주름이 여러 줄 존재한다. 수지문 가지가 유선형으로 휘어지는 것으로 보아 수지문이 파상문으로 변화하는 단계에 있는 퇴화형 수지문으로 여겨진다. 이 기와는 소성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기와등에 균열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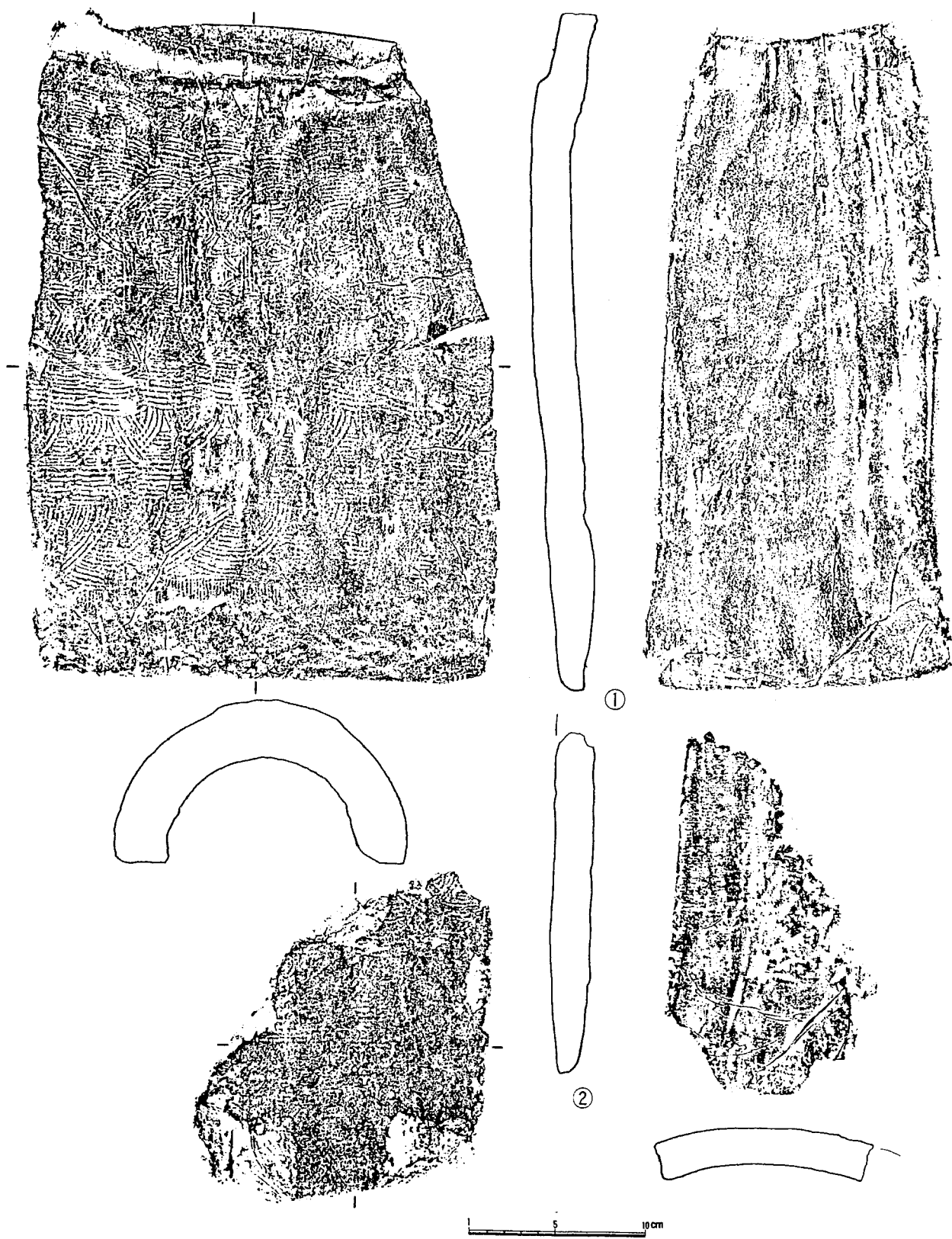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32-1	54-1	숫기와. 회청색 전면 상부 손누름. 물손질 흔적. 부분적인 균열. 측면 절반의 절단흔. 후면 미세포흔. 부분적인 균열. 경질. 소성도 높음.	2.4	건물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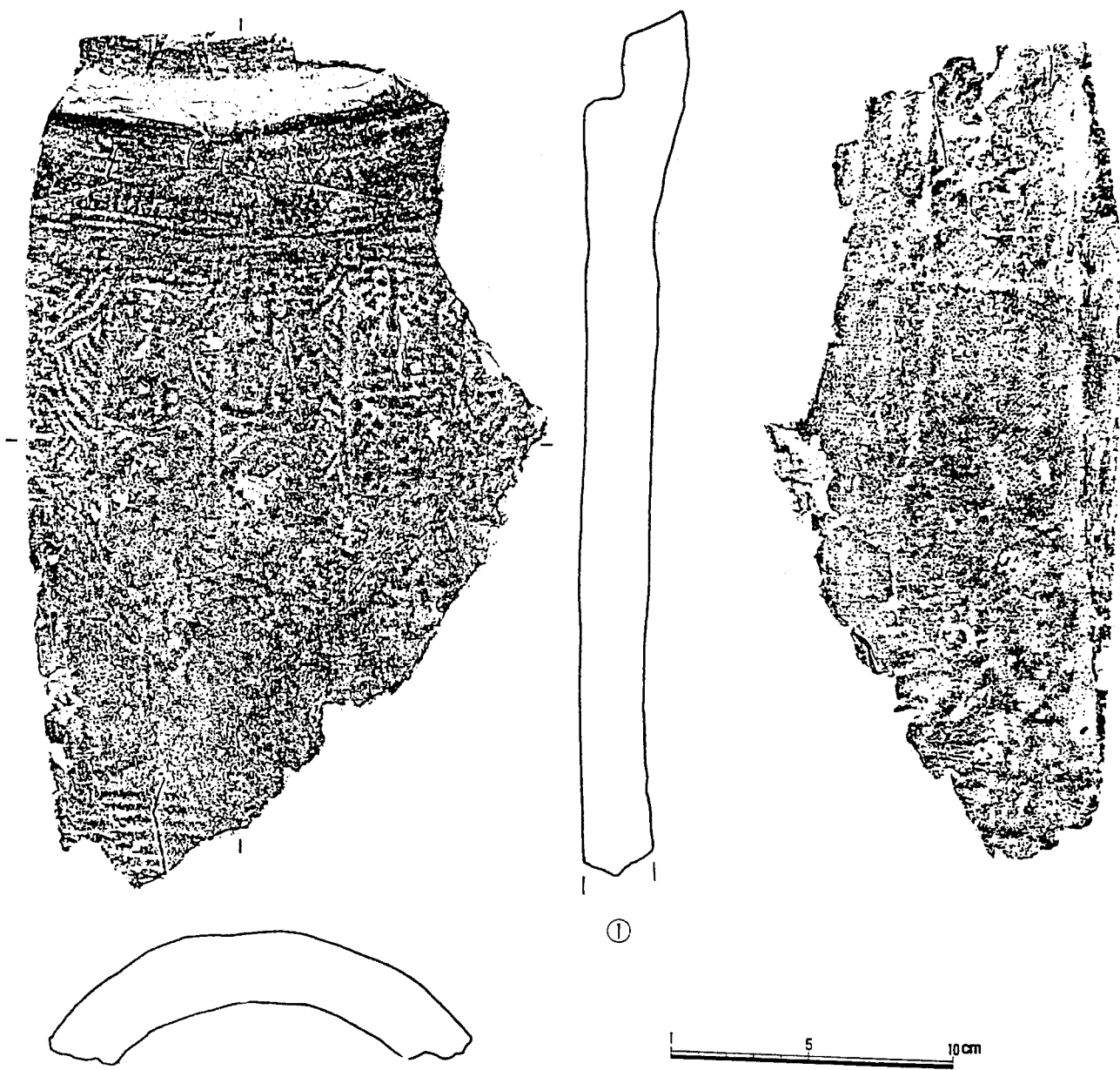
圖面 29 尊者庵址 출토 솥기와(1)



圖面 30 尊者庵址 출토 솥기와 (2)



圖面 31 尊者庵址 출토 숫기와 (3)



圖面 32 尊者庵址 출토 솥기와(4)

제2절 도 자 기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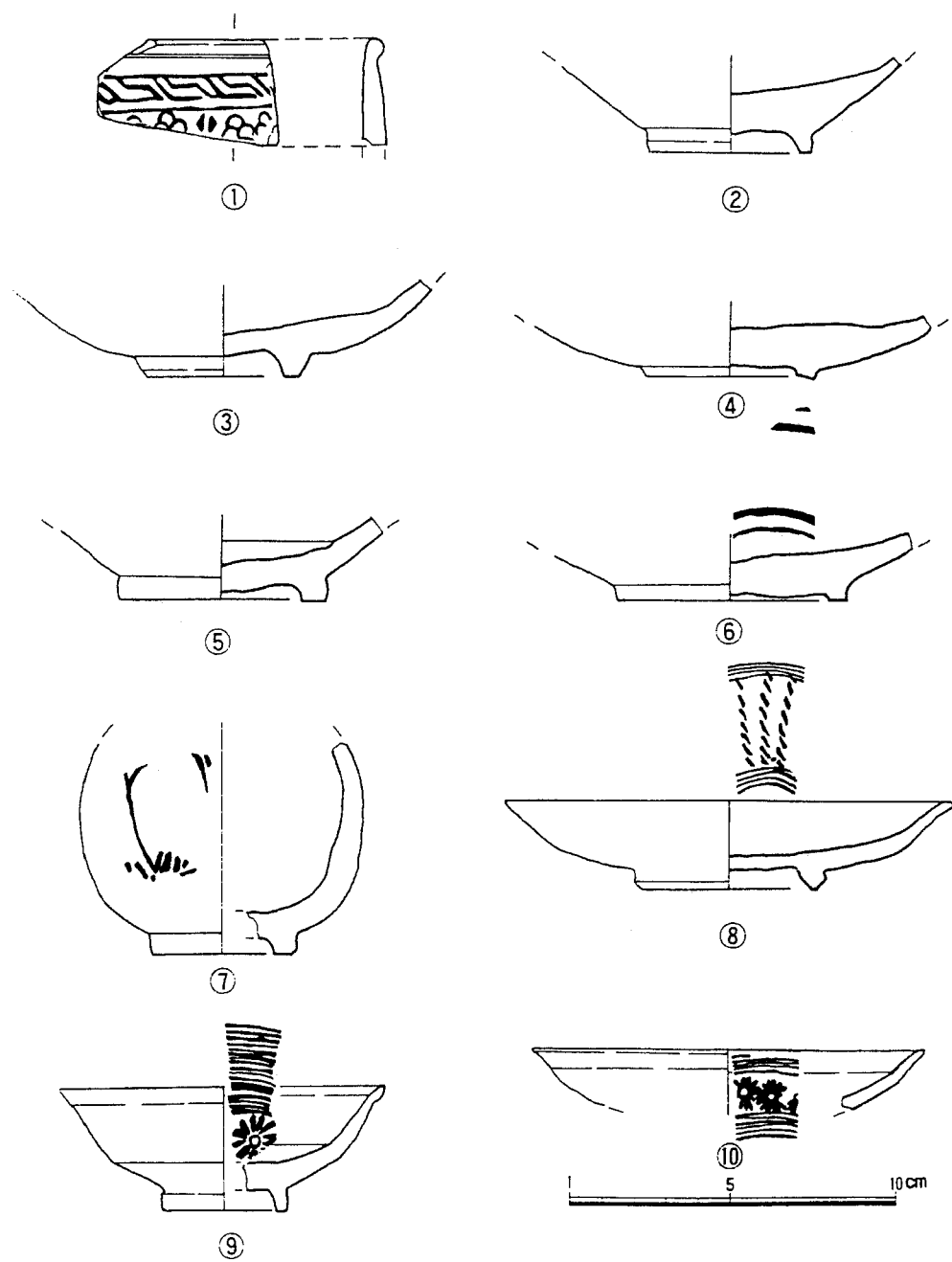
1. 청자(圖面33, 圖版55)

소량이 출토되었다. 정확한 출토지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거의 지표채집을 통해 수습된 것들이다. 대부분이 순청자편이며 상감청자편도 일부 있으나 무늬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33-1	55-1	상감청자편. 암록색. 구연부의 작은 파편. 무늬가 흑백 상감됨. 표면에 빙렬. 백토감입 상태 양호.	현고 : 3.3	건물지(1) 내부남동편
33-2	55-2	청자편. 연녹색. 굽연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내면 에 태토빛음받침 흔적. 태토에 기포 형성.	현고 : 2.7 저경 : 5.0 굽고 : 0.6	
33-3	5-3	청자편. 녹색. 유약 고르게 시유됨. 태토에 약간의 기포 형성. 굽안에는 시유되지 않음. 내면 에 빙렬.	현고 : 2.7 저경 : 5.0 굽고 : 0.7	
33-4	55-4	청자편. 암록색. 내면은 황색을 띠. 표면에 가는 빙 렬. 비교적 낮은 굽으로 접지면이 곱름. 굽 안에 지저분하게 모래가 붙음.	현고 : 1.6 저경 : 5.4 굽고 : 0.3	
33-5	55-5	청자편. 표면 탈유되어 황색을 띠. 태토에 가는 모 래받침흔적. 표면에 기포 형성. 굽둘레 정 도의 내저원.	현고 : 2.2 저경 : 6.6 굽고 : 0.8	
33-6	55-6	상감청자편. 녹색. 내면에 몇개의 선이 백상감됨. 유약 이 얇게 시유되어 물레자국이 뚜렷하게 남 음. 굽에 모래받침흔적. 내면에 빙렬.	현고 : 1.7 저경 : 7.4 굽고 : 0.5	
33-7	55-7	상감청자편. 내면에 시유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병의 저 부편으로 보임. 굽에 모래받침흔적.	현고 : 6.5 저경 : 4.6 굽고 : 0.7	

2. 분청사기(圖面34-38, 圖版56-60)

인화, 철화, 귀얄, 덩병분장분청 등이 출토되었다. 인화분청과 덩병분장분청이 많으며, 철화
와 귀얄분청은 소량이 출토되었다. 인화분청편은 우정문이 시문된 것이 많은 데 대개 백토의 감
입이 깨끗하지 못하며, 덩병분장분청편은 분장된 백토가 벗겨진 것들이 많다.



圖面 33 尊者庵址 출토 고려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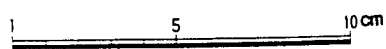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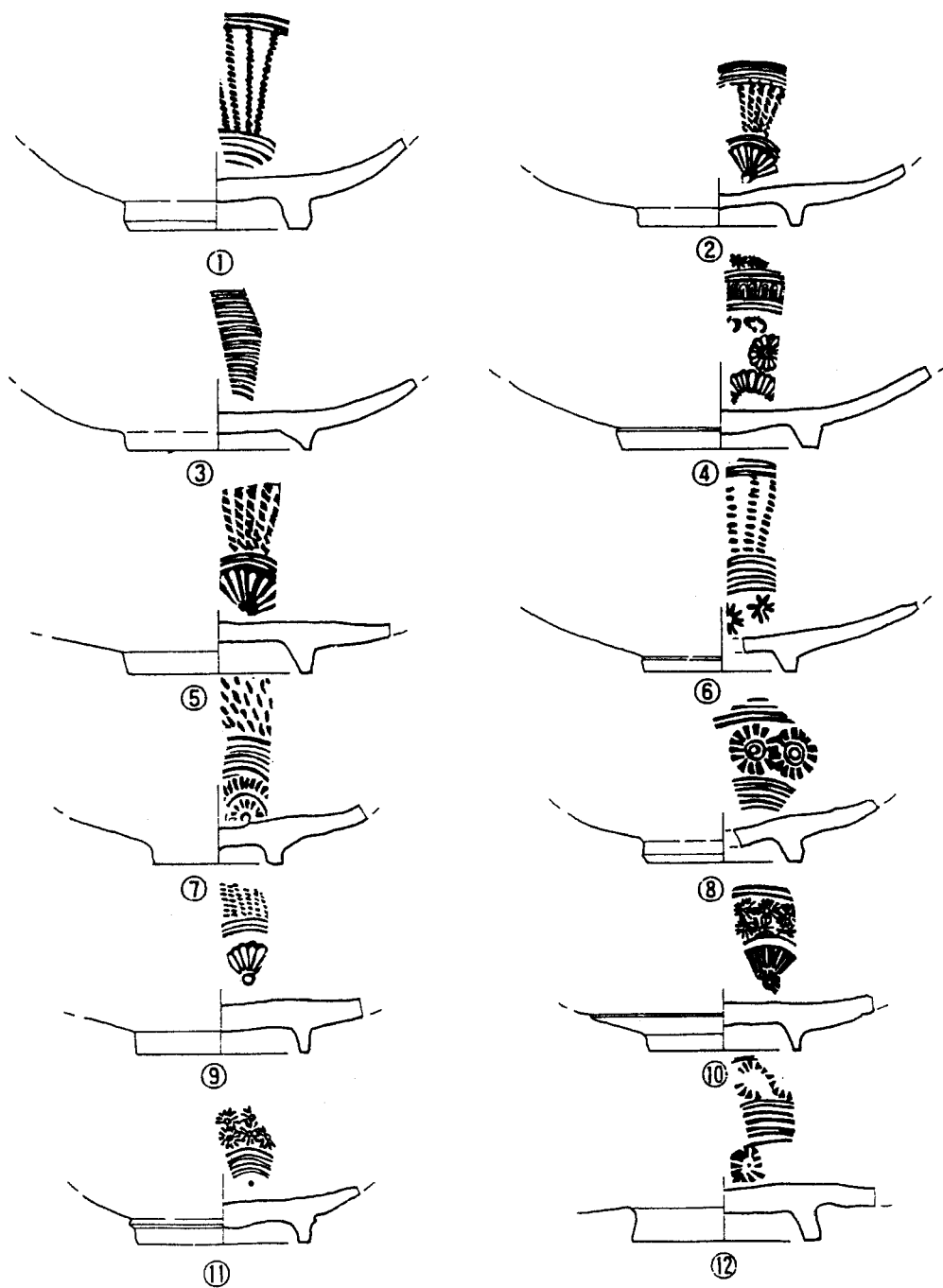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33-8	55-8	분청인화우점문접시편. 내면에만 시문됨. 표면은 회색을 띠며 거의 탈유되어 표면이 거침.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대마디굽구연부 약간 외반. 내면중앙에 번조받침 흔적.	구경 : 14.2 저경 : 5.6 굽고 : 0.6	건물지(3) 서북편
33-9	55-9	분청인화문접시편. 내면에만 시문됨. 내면바닥에서 동체부로 약간 급하게 꺾인 형태. 구연 약간 외반. 내면에 물레자국. 표면에 기포 형성.	고 : 3.8 구경 : 10.4 저경 : 4.0 굽고 : 0.8	NS Tr. (1)
33-10	55-10	분청인화문접시편. 회청색. 구연 약간 외반됨. 구연부쪽으로 국화문이 압인됨. 표면에 빙렬.	현고 : 1.9 구경 : 12.4	
34-1	56-1	분청인화우점문접시편. 내면에만 시문됨. 표면에 기포형성. 태토는 붉은 빛을 띰. 대마디굽 내면에 번조받침 흔적	현고 : 2.8 저경 : 5.8 굽고 : 1.0	계단지(1)
34-2	56-2	분청인화우정문접시편. 내면 중앙에 큰 국화무늬를 중심에 두고 그 둘레에 우정문시문. 표면은 황색을 띠며 가는 빙렬. 내면에 네 군데의 보조받침 흔적. 백토감입상태 비교적 양호.	현고 : 1.9 저경 : 5.2 굽고 : 0.6	계단지(1)
34-3	56-3	분청인화우정문접시편. 내면에만 가는 와선문 시문됨. 표면이 산화되어 드문드문 황백색을 띠고 기포형성. 내면에 네군데의 보조받침 흔적.	현고 : 2.0 저경 : 5.8 굽고 : 0.6	NS Tr. (1)
34-4	56-4	인화분청편. 내면에만 뾰뾰하게 시문됨. 백토감입상태 양호. 내면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표면 회백색. 접지면 고름. 태토양호.	현고 : 2.2 저경 : 6.4 굽고 : 0.7	
34-5	56-5	분청인화우정문접시편 내면의 큰 국화무늬를 중심으로 우정문 시문됨. 내면에 번조받침 흔적. 빙렬.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1.1 저경 : 6.0 굽고 : 0.5	NS Tr. (1)
34-6	56-6	분청인화우정문접시편 회청색. 내면에만 시문. 표면에 기포 형성. 내면바닥에 번조 받침 흔적.	현고 : 2.0 저경 : 5.0 굽고 : 0.5	NS Tr. (1) 서편
34-7	56-7	분청인화 우정문 접시편 내면에만 시문됨. 태토에 모래 알갱이가 섞여 있으며 기포 형성됨.	현고 : 2.0 저경 : 5.0 굽고 : 0.5	NS Tr. (1) 서편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34-8	56-8	분청인화국화문접시편. 내면에만 시문됨. 백토 감입상태 양호. 외면에 물레자국. 대마디굽. 내면에 보조받침 흔적	현고 : 1.7 저경 : 5.0 굽고 : 0.8	NS Tr. (1)
34-9	56-9	분청인화우점문접시편 내면 중앙에 큰 국화문이 있고 그 주위에 우점문을 시문함. 희미한 빙렬. 태토 비교적 양호.	굽고 : 0.7	
34-10	56-10	분청인화국화문접시편. 회청색. 내면에만 시문됨. 시문이 얇게 되어 백토감입 불량. 내면에 번조받침 흔적.	현고 : 1.2 저경 : 5.0 굽고 : 0.8	
34-11	56-11	분청인화문접시편. 회백색. 내면에만 시문됨. 태토양호. 내면에 번조받침 흔적. 무늬는 도식화되어 압인됨	현고 : 1.0 저경 : 6.2 굽고 : 1.1	
35-1	57-1	인화분청편. 전면에 심하게 탈유됨. 표면에 기포 형성. 태토불량. 굽에 번조받침 흔적.	현고 : 2.4 저경 : 5.2 굽고 : 0.5	NS Tr. (1) 동편
35-2	57-2	인화분청편. 내면에만 시문됨. 표면은 회색을 띠며 빙렬 없음. 굽다리 부분에 손자국이 보임.	현고 : 2.4 저경 : 6.0 굽고 : 0.8	
35-3	57-3	인화분청편. 내면에만 국화문이 시문됨. 전면에 심하게 탈유되어 감입된 백토가 이탈되거나 그대로 드러남.	현고 : 1.9 저경 : 5.0 굽고 : 0.8	
35-4	57-4	분청인화문접시편. 표면 암회색. 가는빙렬. 내면에만 시문됨. 굽속은 유약을 닦아냄. 굽은 비교적 낮은 굽.	현고 : 1.8 저경 : 4.6 굽고 : 0.3	
35-5	57-5	인화분청편. 내면에만 시문됨. 태토에 기포형성. 굽속의 유약을 닦아냄.	현고 : 2.5 저경 : 5.6 굽고 : 0.6	NS Tr. (1) 동편
35-6	57-6	인화분청편. 암회색. 내면에만 시문됨. 시유상태 양호. 내면에 번조시 잡티 불음. 굽정리 양호. 태토양호.	현고 : 1.9 저경 : 4.4 굽고 : 0.5	
35-7	57-7	인화분청편. 내면에만 시문됨. 무늬가 얇게 압인되어 뚜렷하지 않음. 표면 회색. 가는 빙렬. 접지면이 고르지 못함. 태토에 모래알갱이 섞임.	현고 : 2.0 저경 : 5.0 굽고 :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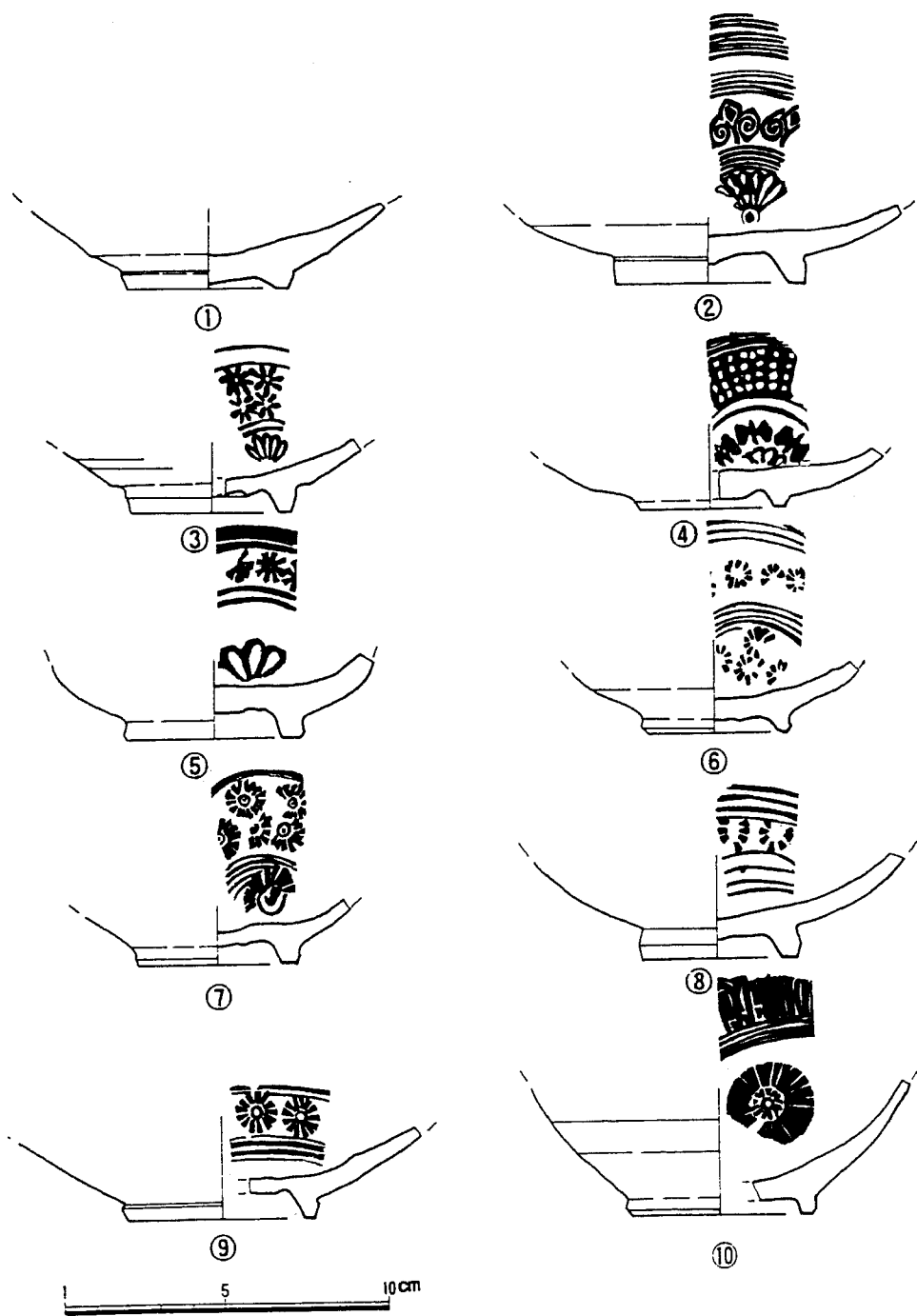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35-8	57-8	인화분청편. 내면에만 성글게 시문. 표면 황백색. 내면에 희미한 번조받침 흔적. 굽은 대마디굽.	현고 : 3.0 저경 : 5.0 굽고 : 1.0	NS Tr. (1)
35-9	57-9	인화분청편. 회백색. 내면바닥에 번조받침 흔적. 표면에 물레자국. 가는 빙렬.	현고 : 1.5 저경 : 6.0 굽고 : 0.6	NS Tr. (1)
35-11	57-10	분청인화문대접편. 내면에만 시문됨. 태토 비교적 양호. 대마디굽. 표면 암회색. 백토감입상태 양호.	현고 : 4.2 저경 : 5.6 굽고 : 0.7	
36-1	58-1	분청인화문접시편. 내면바닥에 시문한 듯한 흔적이 있으나 백토가 감입되지 않음. 가는 빙렬. 굽은 정리가 잘된 대마디굽.	현고 : 2.3 저경 : 5.6 굽고 : 0.7	
36-2	58-2	인화분청편. 내면에 와선문이 시문됨. 표면 탈유로 황백색을 띠.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 양호.	현고 : 2.5 저경 : 4.6 굽고 : 0.3	석축 서편 건물지 (3)
36-3	58-3	인화분청편. 암흑색. 내면바닥에 다섯군데의 번조 저경 : 받침흔적.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에 모래알갱이 섞임.	현고 : 2.6 저경 : 6.0 굽고 : 1.0	C건물지 앞
36-4	58-4	분청인화문대접편. 회색. 내면 동체부에 와선문 시문. 유약이 얇아서 물레자국 뚜렷. 태토 양호.	현고 : 3.2 저경 : 7.4 굽고 : 0.9	
36-5	58-5	분청인화우점문대접편. 내면 동체부에만 시문됨. 내면에 번조받침 흔적. 가는 빙렬.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에 불순물.	현고 : 3.3 저경 : 6.3 굽고 : 0.8	NS Tr. (1)
36-6	58-6	분청인화국화문접시편. 내외면에 정교하게 시문됨. 백토감입 양호. 태토양호. 표면 회색.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고 : 3.3 구경 : 15.6 저경 : 5.0	계단지
36-7	58-7	인화분청편. 내외면의 주무늬대에 각각 국화문, 우점문 시문됨. 백토감입 양호. 빙렬 보임. 표면 회색.	현고 : 2.3 저경 : 6.4 굽고 : 0.7	NS Tr. (1) 동편
36-8	58-8	인화분청편. 전면에 시문되었으나 시문깊이가 얇아 백토감입이 적고 무늬가 뚜렷하지 않음. 태토양호. 접지면 넓음.	현고 : 2.3 저경 : 6.6 굽고 : 1.0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36-9	58-9	인화분청편. 내면중앙에 큰국화문을 두고 삼중원을 그린 후 주변에 작은 국화문을 압인. 외면에 물레자국 뚜렷. 전면이 거의 탈유되었고 표면에 기포형성.	현고 : 2.0 저경 : 5.2 굽고 : 0.5	계단지(1)
36-10	58-10	분청귀얄접시편. 내외면에 얇게 귀얄칠 됨. 표면은 황백색을 띠. 굽과 내면바닥에 번조받침 흔적. 태토에 모래알갱이 섞임.	고 : 2.8 구경 : 11.6 저경 : 4.6 굽고 : 0.7	NS Tr. (1) 서편
36-11	58-11	분청귀얄접시편. 내외면에 귀얄자국 뚜렷. 굽에 번조받침 흔적. 태토에 굵은 모래알갱이 섞임. 빙렬 보임.	고 : 3.0 구경 : 13.3 저경 : 6.2 굽고 : 0.6	내부 건물지(1)
37-1	59-1	분청덤병분장대접편. 구연부의 파편. 외면동체부의 중간까지 두 겹게 백토분장됨. 구연외반.	현고 : 6.6 구경 : 18.6	건물지(3) 동편
37-2	59-1	덤병분장분청편. 내외면에 두겹게 굽속에까지 분장됨. 내면바닥과 굽에 7군데 이상의 번조받침 흔적. 전면에 빙렬.	현고 : 2.4 저경 : 6.0 굽고 : 0.8	
37-3	59-3	분청덤병분장접시편. 내면과 외면동체부까지 백토분장됨.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구연은 거의 직립에 가까움. 시유상태 양호.	고 : 3.2 구경 : 15.0 저경 : 5.4 굽고 : 0.8	건물지(3) 동편
37-4	59-4	덤병분장분청편. 내면과 외면 굽언저리까지 분장됨. 내면바닥에 다섯군데의 번조받침 흔적. 부분부분 백토가 벗겨짐. 성긴 빙렬. 태토는 붉은색을 띠. 표면에 기포형성.	현고 : 2.4 저경 : 5.4 굽고 : 0.8	건물지(3) 앞
37-5	59-5	덤병분장분청편. 내면에 두겹게 백토분장됨.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표면에 기포형성.	현고 : 1.8 저경 : 4.9 굽고 : 0.8	건물지(3) 서쪽
37-6	59-6	덤병분장분청편. 내면에 백토분장됨. 내외면에 각각 7군데의 번조받침흔적. 가는 빙렬. 분장된 백토가 벗겨짐.	현고 : 1.5 저경 : 6.6 굽고 : 0.8	
37-7	59-7	덤병분장분청편. 내면에 백토분장됨. 굽둘레보다 약간 넓은 내저원.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표면에 기포형성.	현고 : 1.8 저경 : 7.3 굽고 : 0.7	건물지(1)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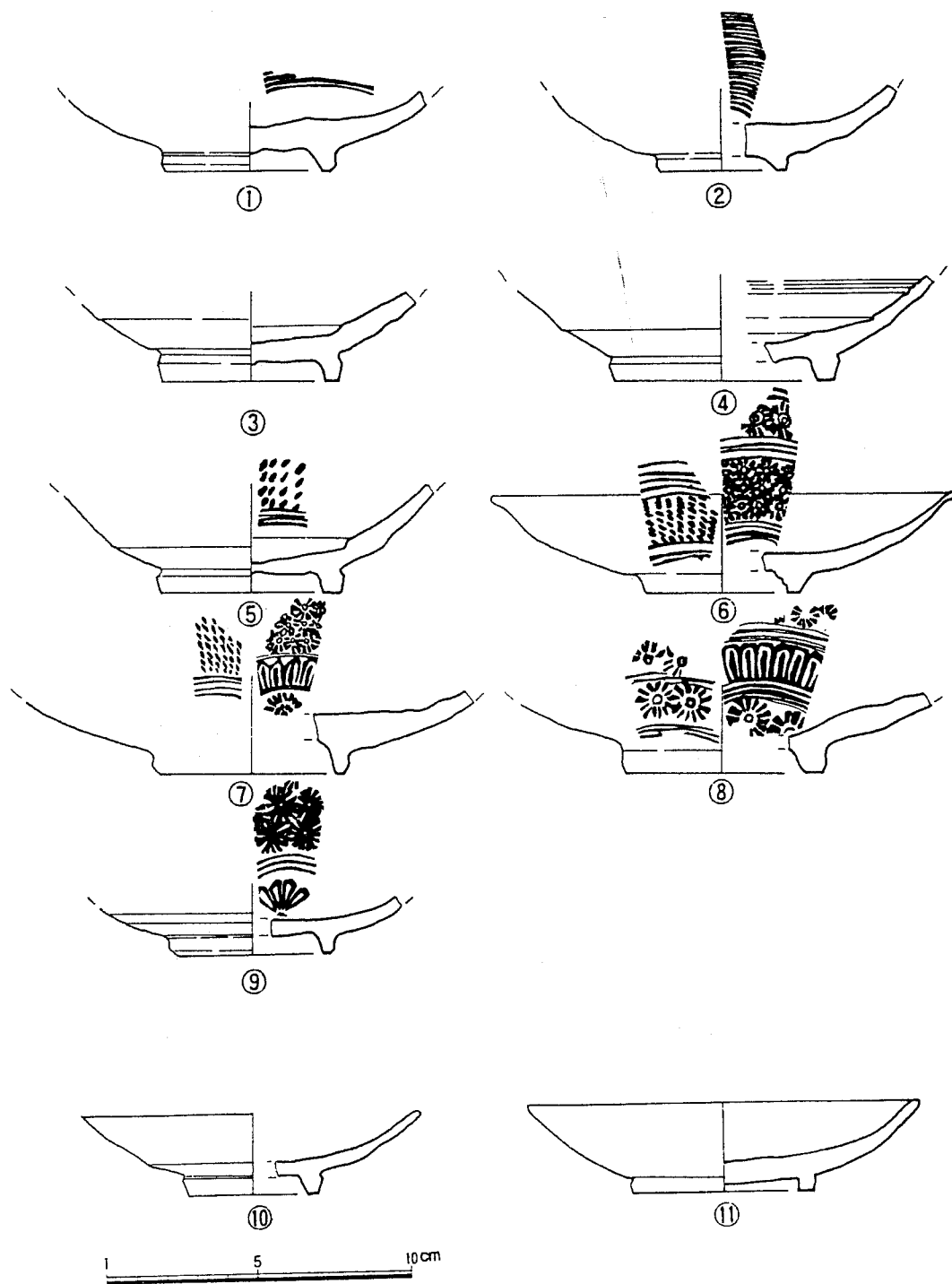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37-8	59-8	덤병분장분청편. 내면에 백토분장됨.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 받침 흔적. 태토 비교적 양호.	현고 : 2.0 저경 : 5.3 굽고 : 0.7	건물지 (3) 동편
37-9	59-9	덤병분장분청편. 내면에 백토분장됨.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 받침 흔적. 가는 빙렬. 태토 양호.	현고 : 2.5 저경 : 4.7 굽고 : 1.0	NS Tr. (1)
37-11	59-10	덤병분장분청편. 내면에 백토분장됨. 태토는 붉은색을 띰. 내외면에 심하게 탈유됨. 내면과 굽에 번조 받침 흔적.	현고 : 1.7 저경 : 6.4 굽고 : 0.8	NS Tr. (1)
37-11	59-11	덤병분장분청편. 분장된 백토가 거의 벗겨져 내면에 약간 남음. 물레자국 뚜렷. 태토는 붉은색을 띰.	현고 : 2.5 저경 : 5.0 굽고 : 0.7	
37-1	59-12	덤병분장분청편. 외면에만 분장되었고 내면은 시유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병의 저부편으로 보임. 굽에 번조받침 흔적.	현고 : 2.1 저경 : 7.4 굽고 : 0.8	
38-1	60-1	분청철화당초문장군편.	고 :	건물지 (3)서편
38-2	60-2	분청대접편. 태토위에 암록색의 투명유가 시유됨. 가는 빙렬. 외반구연.	구경 : 19.6 현고 : 3.6	
38-3	60-3	분청주전자편. 구연과 수구부분이 남아있는 파편. 남아있는 구연으로 봐서 구경이 아주 좁은 것으로 보임. 구연 외반. 수구.	현고 : 5.2 수구지름 : 1.2	제1단 석축 계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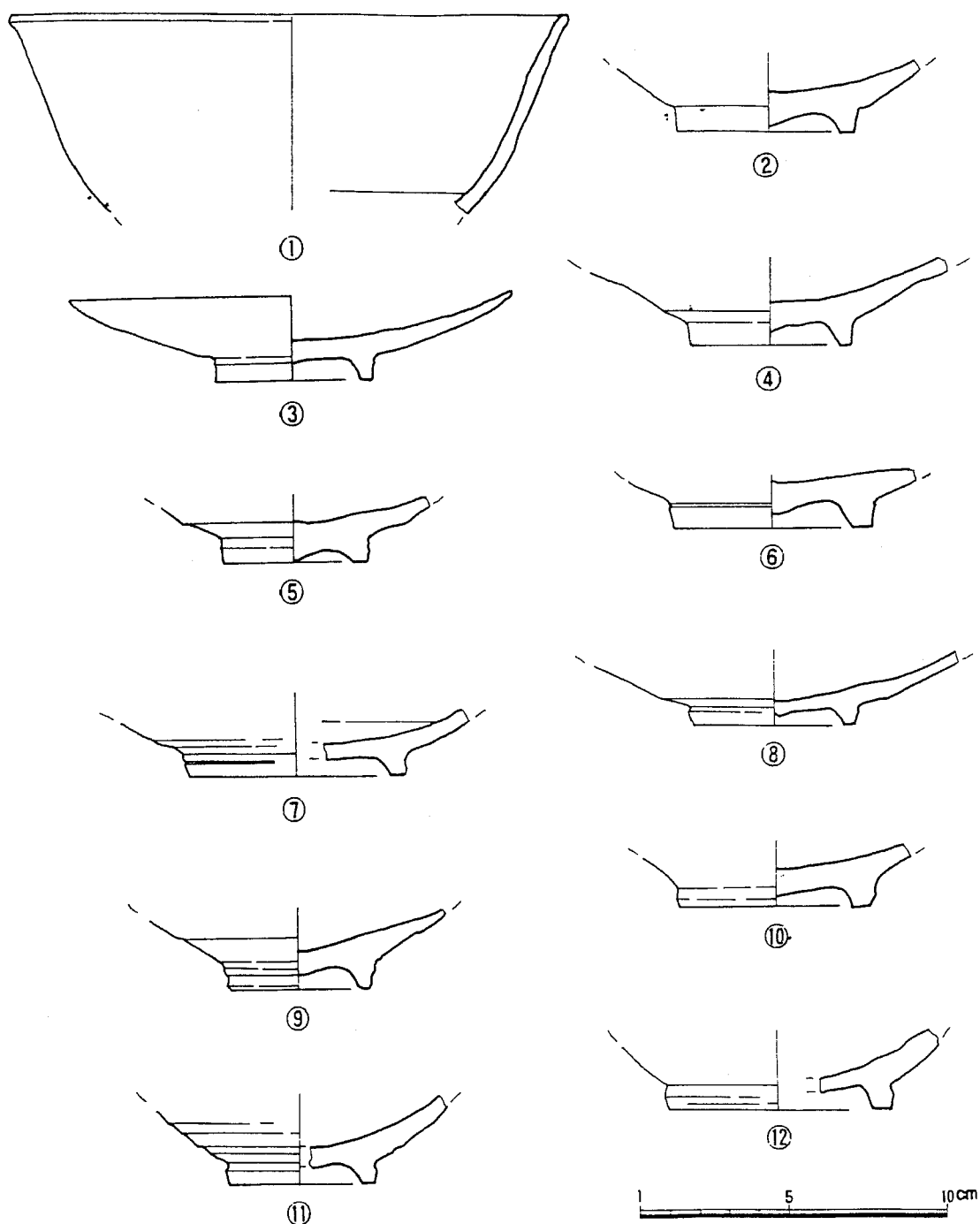
圖面 34 尊者庵址 출토 인화분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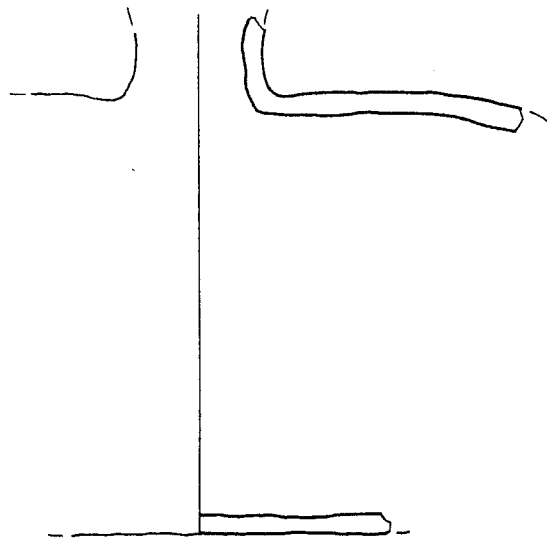
圖面 35 尊者庵址 출토 인화분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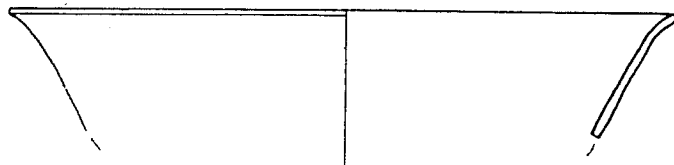
圖面 36 尊者庵址 출토 인화분청 (3) · 귀얄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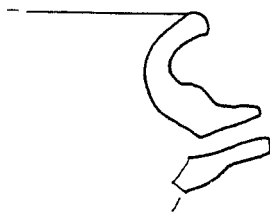
圖面 37 尊者庵址 출토 덩벙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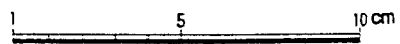
①



②



③



圖面 38 尊者庵址 출토 철화분청장군. 분청주전자

3. 백자(圖面39-49, 圖版61-71)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태토가 백색의 치밀이며, 시유상태가 좋고 기형의 정리가 잘된 백자편도 일부 보인다. 남아있는 분은 점시류와 대점류의 저부편들이 많으며 구연부가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구연이 외반된 형태를 하고 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39-1	61-1	백자접시편. 회백색. 외반구연. 외면에는 유약의 두께가 고르지 않음. 넓은 내저원. 태토 양호. 외면에 물레자국.	구경 : 17.0 현고 : 3.6	제1단 석축 계단지
39-2	61-2	백자접시편. 회백색. 외반구연. 태토 양호. 유약이 고르게 시유됨.	구경 : 15.0 현고 : 3.0	NS Tr. (1)
39-3	61-3	백자접시편. 회백색. 외면에 뚜렷한 물레자국. 외반구연. 태토 양호. 표면에 드문드문 기포형성.	구경 : 14.4 현고 : 2.7	
39-4	61-4	백자접시편. 회색과 황색을 띠. 넓은 내저원. 외반구연. 내면에 다섯군데의 번조받침 흔적. 미세한 빙렬. 기형이 깨끗하게 정리됨.	고 : 3.8 구경 : 15.8 저경 : 5.2 굽고 : 0.5	건물지(2)
39-5	61-5	백자접시편. 암회색. 외반구연. 희미한 넓은 내저원. 내면바닥과 굽에 굵은 모래받침 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 양호.	고 : 4.0 구경 : 17.6 저경 : 5.4 굽고 : 1.0	건물지(2)
39-6	61-6	백자접시편. 회색. 넓은 음각원. 외면에 물레자국 뚜렷. 태토에 작은 기포형성. 직립 구연.	고 : 3.1 구경 : 13.6 저경 : 5.8 굽고 : 0.7	
39-7	61-7	백자접시편. 회색. 구연 약간 외반. 유약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음. 내외면에 모래받침 흔적. 태토 양호. 굽둘레 정도의 희미한 내저원.	고 : 3.1 구경 : 14.8 저경 : 6.0 굽고 : 0.4	
39-8	61-8	백자접시편. 황색빛이 도는 백색. 직립구연. 내면 동체부에 음각원.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시유상태 양호. 태토 양호.	고 : 3.9 구경 : 17.2 저경 : 7.8 굽고 : 0.6	
39-9	61-9	백자접시편. 회청색. 구연은 약간 내반된 듯한 형태. 내면바닥에 음각원. 약간의 빙렬.	고 : 2.6 구경 : 10.6 저경 : 5.3 굽고 : 0.5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39-1	61-10	백자접시편. 회색. 넓고 희미한 내저원.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표면에 물레자국. 외면의 시유상태 불량. 태토 양호.	현고 : 2.2 저경 : 6.2 굽고 : 0.6	건물지 (1) 내부 남동편
40-1	62-1	백자접시편. 암회색. 넓은 내저원. 내면바닥과 굽에 굽은 모래받침 흔적. 태토에 기포가 생겨 내면바닥이 부풀어 오름.	현고 : 1.6 저경 : 4.7 굽고 : 0.4	NS Tr. (1) 서편
40-2	62-2	백자접시편. 청백색. 내면바닥과 굽에 각각 5군데의 굽고 거친 모래받침 흔적. 태토 양호. 시유상태 양호.	현고 : 2.5 저경 : 5.6 굽고 : 0.5	제1단 석축 계단지
40-3	62-3	백자접시편. 황백색. 심하게 탈유되었고 표면에 기포 형성.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굽과 동체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태토는 붉은색을 띰.	현고 : 2.0 저경 : 6.5	건물지 (3) 동편
40-4	62-4	백자접시편. 청백색.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태토 양호. 굽과 동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현고 : 1.8 저경 : 5.7	NS Tr. (1)
40-5	62-5	백자접시편. 전면에 심하게 탈유됨. 넓은 내저원. 뚜렷한 물레자국. 굽에 번조받침 흔적.	현고 : 2.7 저경 : 6.0 굽고 : 0.6	
40-6	62-6	백자접시편. 녹회색. 뚜렷한 내저원.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굽안까지 시유됨. 태토 비교적 양호.	현고 : 1.3 저경 : 5.5 굽고 : 0.1	NS Tr. (1)
40-7	62-7	백자접시편. 암회색. 뚜렷한 내저원. 굽과 동체가 뚜렷한 구분없이 부드럽게 이어짐. 태토 양호. 내면바닥에 번조받침 흔적.	현고 : 1.9 저경 : 5.0	NS Tr. (1)
40-8	62-8	백자접시편. 황색빛이 도는 회색. 내면에 두줄의 음각원.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시유상태 양호. 미세한 빙렬. 태토양호.	현고 : 2.1 저경 : 5.8 굽고 : 0.3	건물지 (3) 앞
40-9	62-9	백자접시편. 탈 유심함. 표면에 불순물. 태토는 붉은색을 띰. 굽과 동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현고 : 1.6 저경 : 6.5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40-1	62-10	백자접시편. 어두운 황색빛이 도는 회색. 굽둘레 보다 넓은 내저원.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대마디굽.	현고 : 1.7 저경 : 5.1 굽고 : 0.6	건물지 (3) 서편
41-1	63-1	백자대접편. 암회색. 외반구연. 태토 양호. 기형이 매끄럽게 정리가 잘됨.	구경 : 17.2 현고 : 5.2	건물지 (3) 앞
41-3	63-3	백자대접편. 회백색. 내면 구연부쪽에 가는 음각원. 외면에 물레자국. 외반 구연. 태토 양호.	구경 : 14.4 현고 : 7.0	
41-4	63-4	백자대접편. 암회색. 부분부분 황색을 띠. 시유상태 양호. 태토 양호. 외반구연. 기형이 깨끗하고 정리가 잘됨.	구경 : 18.0 현고 : 8.3	
41-5	63-5	백자대접편. 회백색. 표면에 부분부분 기포 형성. 외반구연. 태토 양호. 외면에 물레자국.	구경 : 15.2 현고 : 5.9	
41-6	63-6	백자대접편. 표면에 드문드문 기포 형성. 구연은 약간 외반됨. 태토에 기포 형성. 동체부의 아랫부분은 탈유되어 황백색을 띠.	구경 : 19.3 현고 : 6.2	건물지 (3) 앞
41-7	63-7	백자대접편. 회색. 외반구연. 시유상태 양호. 태토 양호. 기벽이 얇고 정리가 잘됨.	구경 : 16.1 현고 : 5.0	건물지 (3)
42-1	64-1	백자대접편. 청백색. 성긴 빙렬. 외반구연. 시유 상태 양호.	구경 : 16.6 현고 : 3.9	NS Tr. (1) 서편
42-2	64-2	백자대접편. 암회색. 내면에 기포 형성. 내면바닥에 번조받침 흔적. 외반구연. 외면에 물레자국. 굽은 약간 밖으로 퍼진 형태.	고 : 8.2 구경 : 16.9 저경 : 5.5 굽고 : 0.7	
42-3	64-3	백자대접편. 회청색. 외반구연. 내면바닥의 음각원에서 깎여 동체부로 올라감. 내면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성긴 빙렬.	고 : 5.6 구경 : 14.1 저경 : 6.6 굽고 : 0.8	제1단 석축 계단지
42-4	64-4	백자대접편. 청백색. 굽둘레보다 넓은 내저원. 표면이 탈유되었고 기포 형성. 내면바닥에 굽은 모래받침 흔적.	현고 : 4.5 저경 : 6.2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42-5	64-5	백자대접편. 녹회색. 굽둘레보다 약간 넓은 내저원. 내 면바닥과 굽에 각각 7군데의 번조받침 흔 적. 태토 양호.	현고 : 2.6 저경 : 6.2 굽고 : 0.8	
42-6	64-6	백자대접편. 푸른빛이 약간 도는 회색. 내저원. 내면바닥 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태토 양호.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5.0 저경 : 6.4 굽고 : 1.0	NS Tr. (1)
42-7	64-7	백자대접편. 청백색. 희미한 내저원. 내면바닥과 굽에 각각 5군데의 태토빛음받침 흔적. 태토 양 호.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5.0 저경 : 6.5 굽고 : 1.0	제1단 석축 계단지(1)
42-8	64-8	백자대접편. 암회색. 유약이 얇고 소성시의 온도에 의해 내면바닥과 굽언저리에는 붉은색을 띠. 가 는 물레자국.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 적. 굽둘레보다 약간 넓은 내저원.	현고 : 6.9 저경 : 6.8 굽고 : 1.3	계단지(1)
42-9	64-9	백자대접편. 암회색. 뚜렷한 내저원. 내면바닥에 태토빛 음받침 흔적. 태토 비교적 양호. 외면은 드 문드문 탈유됨.	현고 : 5.0 저경 : 7.0	NS Tr. (1) 동편
42-10	64-10	백자대접편. 회색. 뚜렷한 내저원. 내면에 번조받침 흔 적. 태토에 기포 형성. 유약이 엉킴. 굽에 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4.8 저경 : 6.4	건물지(3) 앞
43-1	65-1	백자대접편. 암회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희미한 내저원.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3.9 저경 : 6.0	
43-2	65-2	백자대접편. 암회색. 내면바닥과 굽에 각각 4군데의 번 조받침 흔적. 희미한 내저원. 시유상태 양 호.	현고 : 3.9 저경 : 6.0 굽고 : 1.0	건물지(1)
43-3	65-3	백자대접편. 암회색. 부분적으로 붉은색을 띠. 외면에 뚜렷한 물레자국.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 침 흔적. 대마디굽. 내저원.	현고 : 5.1 저경 : 6.1 굽고 : 1.1	
43-4	65-4	백자대접편. 시유상태 양호. 희미하고 넓은 내저원. 내 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성긴 빙렬.	현고 : 3.0 저경 : 6.2 굽고 : 1.0	건물지(3) 앞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43-5	65-5	백자대접편. 황색빛이 도는 회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 받침 흔적. 넓은 내저원. 태토에 약간의 기 포 형성. 시유상태 양호.	현고 : 3.7 저경 : 7.2 굽고 : 0.9	계단지 (1)
43-6	65-6	백자대접편. 암회색. 내면바닥에 번조받침 흔적. 태토에 약간의 기포형성. 가는 빙렬.	현고 : 4.1 저경 : 6.6 굽고 : 0.7	건물지 (4)
43-7	65-7	백자대접편. 암회색. 좁은 내저원. 내면바닥과 굽에 굵 은 모래받침 흔적.	현고 : 3.3 저경 : 6.2 굽고 : 1.0	제1단 석축
43-8	65-8	백자대접편. 황백색. 넓은 내저원. 내면바닥과 굽에 번 조받침 흔적. 태토는 황색을 띠며 기포 형 성.	현고 : 3.0 저경 : 8.0 굽고 : 0.9	
43-9	65-9	백자대접편. 회백색. 시유상태 양호. 희미한 내저원. 내 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태토 양호.	현고 : 2.6 저경 : 6.2 굽고 : 1.0	NS Tr. (1)
43-10	65-10	백자대접편. 황색빛이 도는 회색. 가는 빙렬. 내면바닥 에 번조받침 흔적. 내저원 굽언저리에는 시 유되지 않음. 태토 양호	현고 : 3.4 저경 : 5.8 굽고 : 0.8	계단지 (1)
44-1	66-1	백자대접편. 암회색. 굽둘레 정도의 내저원. 내면 바닥 에 태토빛옴받침 흔적. 표면에 기포 형성.	현고 : 3.5 저경 : 7.0 굽고 : 0.8	건물지 (3) 앞
44-2	66-2	백자대접편. 암회색. 탈유됨.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희미한 내저원.	현고 : 2.9 저경 : 6.8 굽고 : 1.0	
44-3	66-3	백자대접편. 암회색. 전면에 시유됨. 내면바닥에 네군데 의 번조받침 흔적. 가는 빙렬.	현고 : 2.9 저경 : 5.0 굽고 : 1.0	
44-4	66-4	백자대접편. 암회색. 심하게 탈유됨. 내면바닥에 번조받 침 흔적. 내저원.	현고 : 4.0 저경 : 6.5 굽고 : 0.5	NS Tr. (1)
44-5	56-5	백자대접편. 회백색. 전면에 시유됨. 굽둘레 정도의 내 저원. 비교적 높은굽으로 정리가 잘됨.	현고 : 3.4 저경 : 8.0 굽고 : 1.6	건물지 (3) 앞
44-6	66-6	백자대접편. 회백색. 전면에 시유됨. 시유상태 양호.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 높은굽으로 굽다리의 하단부에 일조의 선이 움각됨. 굽에 번조받 침 흔적.	현고 : 3.4 저경 : 8.0 굽고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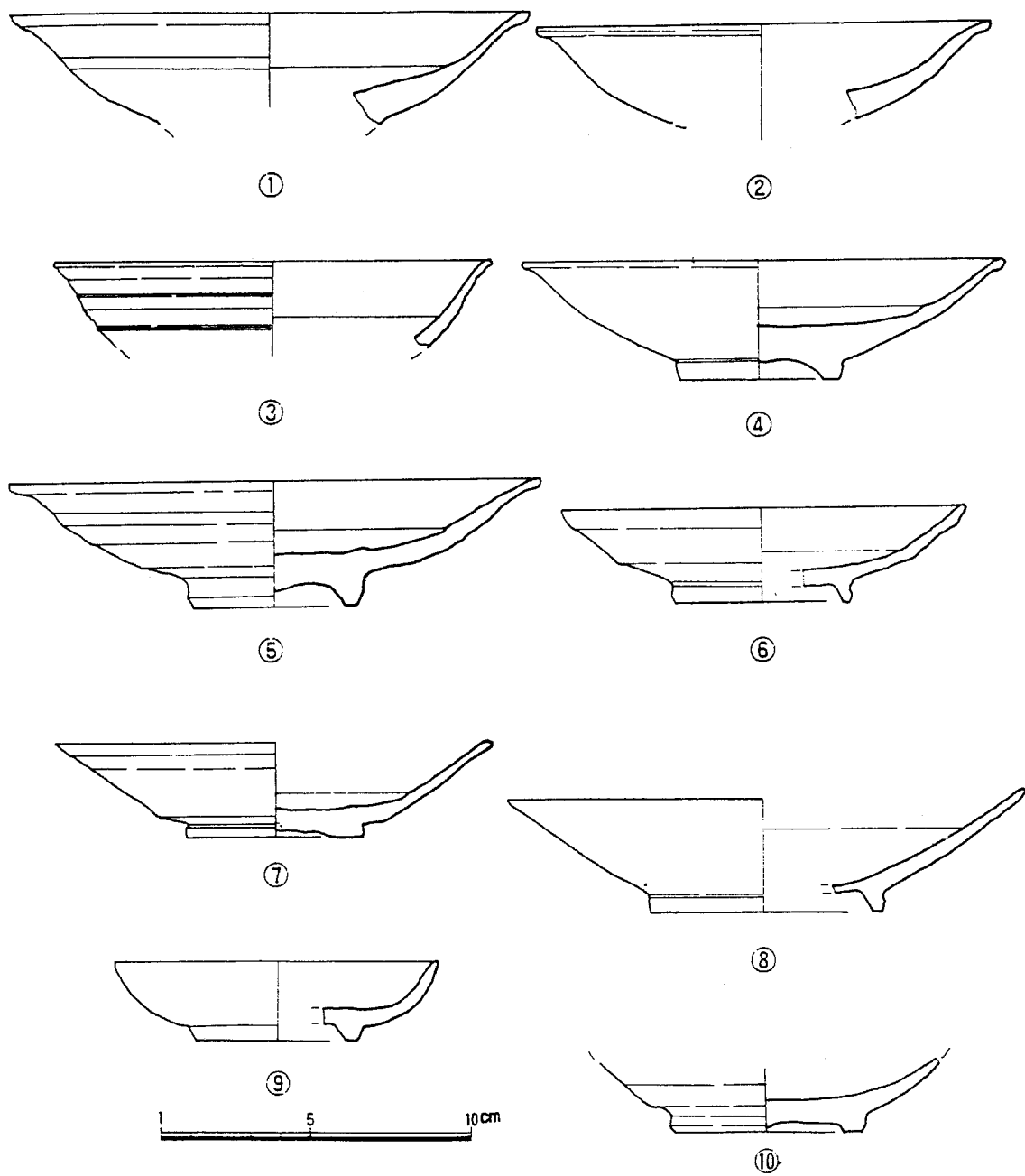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44-7	66-7	백자대접편. 청색빛이 도는 회색. 유약의 두께가 고르지 못함. 표면에 기포 형성. 굽들레 정도의 내 저원. 내면에 번조받침 흔적.	현고 : 4.0 저경 : 6.6 굽고 : 1.0	건물지 (3) 앞
44-8	66-8	백자대접편. 전면에 시유됨. 굽들레 정도의 내저원. 굽 정리 잘됨. 태토 양호.	현고 : 2.3 저경 : 5.4 굽고 : 1.1	
44-9	66-9	백자대접편. 회백색. 희미한 내저원. 내면바닥에 번조받 침 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3.8 저경 : 5.7 굽고 : 1.1	
44-10	66-10	백자대접편. 황청색. 태토에 모래알갱이 섞임. 내저원. 내면바닥에 번조받침 흔적. 대마디굽.	현고 : 3.7 저경 : 5.6 굽고 : 0.7	NS Tr. (1)
45-1	67-1	백자대접편. 회백색. 전면에 시유됨. 성긴 빙렬. 희미한 내저원. 굽에 번조받침 흔적. 높은 굽.	현고 : 3.7 저경 : 8.3 굽고 : 1.5	건물지 (1) 내부 남동편
45-2	67-2	백자대접편. 회청색. 굽들레 정도의 내저원. 내면에 번 조받침 흔적. 유약의 두께가 고르지 못함. 태토는 붉은색을 띰.	현고 : 2.3 저경 : 7.2 굽고 : 0.8	
45-3	67-3	백자대접편. 회색. 전면에 시유됨. 시유상태 양호. 굽들 레 정도의 내저원. 내면에 번조받침 흔적. 태토 양호.	현고 : 3.0 저경 : 6.8 굽고 : 1.1	건물지 (3) 서편
45-4	67-4	백자대접편. 갈색을 띠는 회색. 전면 시유. 좁은 내저 원. 내면바닥과 굽에 굵은 모래받침 흔적.	현고 : 3.2 저경 : 6.2 굽고 : 0.8	건물지 (3) 앞
45-5	67-5	백자대접편. 황색. 가는 빙렬. 희미한 음각원. 내면바닥 에 번조받침 흔적. 대마디굽. 태토는 황색 을 띰.	현고 : 2.3 저경 : 6.6 굽고 : 0.9	NS Tr. (1)
45-6	67-6	백자대접편. 황색. 표면에 기포 형성. 태토는 황갈색을 띠며 불순물이 섞임.	현고 : 2.3 저경 : 5.4 굽고 : 0.5	NS Tr. (1)
45-7	67-7	백자종지편. 회백색. 내면바닥에 번조받침 흔적. 내저 원. 표면에 기포 형성.	현고 : 3.2 저경 : 5.0 굽고 : 0.8	NS Tr. (1)
45-8	67-8	백자종지편. 암회색. 전면 시유. 시유상태 양호. 굽에 번조받침 흔적. 태토 양호.	현고 : 3.2 저경 : 6.8 굽고 : 0.6	NS Tr. (1) 동편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45-9	67-9	백자종지편. 회색. 전면 시유. 시유상태 양호. 태토 양호. 접지면이 좁음.	현고 : 2.5 저경 : 4.4 굽고 : 0.9	NS Tr. (1) 서편
45-10	67-11	백자종지편. 녹색빛이 약간 도는 백색. 성긴 빙렬. 태토에 기포 형성. 접지면이 곱름.	현고 : 2.5 저경 : 4.4 굽고 : 0.9	NS Tr. (1) 서편
45-11	67-11	백자종지편. 녹색빛이 약간 도는 백색. 성긴 빙렬. 태토에 기포 형성. 접지면이 곱름.	현고 : 2.4 저경 : 4.3 굽고 : 0.7	건물지(1) 내부
46-1	68-1	백자편. 전면 시유. 굽언저리와 굽속에는 균열됨.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내저원. 태토는 황색을 띠. 표면에 기포 형성.	현고 : 2.6 저경 : 6.4 굽고 : 0.7	건물지(1)
46-2	68-2	백자편. 황갈색. 뚜렷한 빙렬. 내면바닥과 굽에 각각 6군데의 번조받침 흔적. 태토는 황색을 띠. 낮은굽.	현고 : 2.3 저경 : 5.8 굽고 : 0.3	NS Tr. (1)
46-3	68-3	백자편. 회백색. 내면바닥에 6군데의 번조받침 흔적. 굽언저리에 기포 형성.	현고 : 2.4 저경 : 5.4 굽고 : 0.8	건물지(2)
46-4	68-4	백자편. 회색. 내면바닥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물레자국 보임. 내면에 번조받침 흔적. 태토에 기포 형성.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2.4 저경 : 5.7 굽고 : 0.5	NS Tr. (1) 서편
46-5	68-5	백자편. 회색. 부분부분 붉은색을 띠.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가는 빙렬.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3.0 저경 : 6.0 굽고 : 1.1	건물지(3) 앞
46-6	68-6	백자편. 회색. 성긴 빙렬. 넓은 내저원. 내면 바닥에 6군데의 번조받침 흔적. 굽과 동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짐.	현고 : 3.0 저경 : 6.0 굽고 : 1.1	
46-7	68-7	백자편. 회백색. 넓은 내저원. 굽언저리에 기포 형성. 내면바닥에 5군데의 번조받침 흔적. 태토 양호.	현고 : 3.1 저경 : 4.6 굽고 : 0.8	건물지(1) 내부
46-8	68-8	백자편. 회청색. 유약의 두께가 고르지 않음. 넓고 희미한 음각원. 표면에 기포 형성. 내면에 네군데의 번조받침 흔적.	현고 : 2.3 저경 : 5.3 굽고 : 0.8	NS Tr. (1) 동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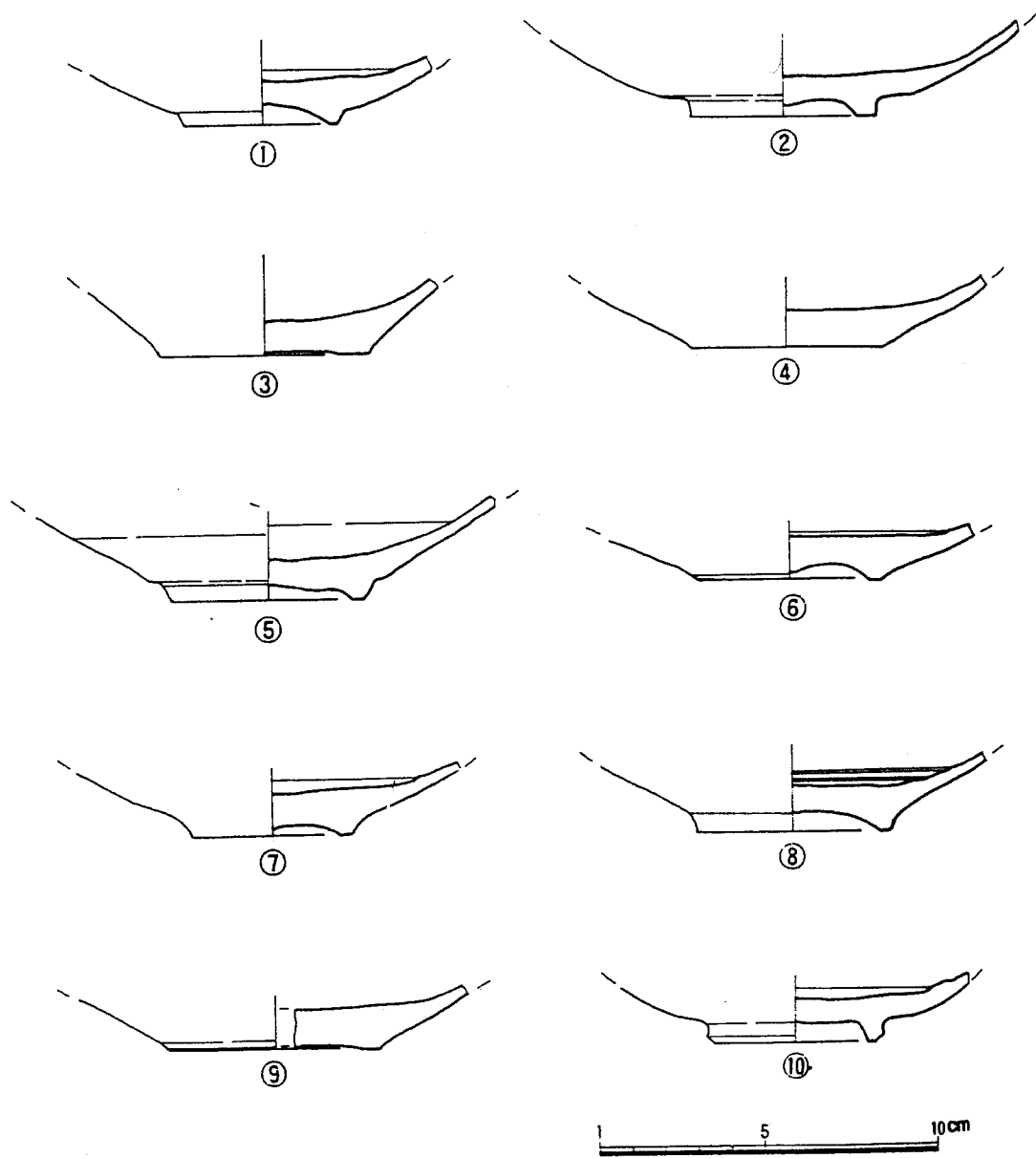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46-9	68-9	백자편. 황색. 넓은 내저원. 내면바닥에 번조받침 흔적. 미세한 빙렬. 접지면 일정. 태토에 기포형성.	현고 : 2.6 저경 : 7.0 굽고 : 0.8	
46-10	68-10	백자편. 회색. 부분부분 붉은 색을 띠. 희미한 내저 원.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굽에 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2.6 저경 : 6.5 굽고 : 1.2	NS Tr. (1)
46-11	68-11	백자편. 청회색. 넓은 음각원. 내면바닥에 네군데의 번조받침 흔적. 시유가 고르지 못함. 외면 은 부분적으로 탈유됨.	현고 : 2.4 저경 : 5.6 굽고 : 0.9	건물지 (1)
46-12	68-12	백자편. 회백색. 넓은 내저원. 내면 바닥에 네군데의 번조받침 흔적. 전면 시유. 외면에 물레자국. 태토 양호.	현고 : 2.0 저경 : 4.9 굽고 : 0.9	NS Tr. (1) 서편
47-1	69-1	백자편. 회청색. 가는 빙렬. 내면바닥에 번조받침 흔적. 태토에 모래알갱이 섞임. 굽에는 시 유되지 않음.	현고 : 2.2 저경 : 5.4 굽고 : 0.9	
47-2	69-2	백자편. 표면에 기포 형성. 태토는 붉은색을 띠. 내 면에 형식적인 음각원. 내면바닥에 번조받 침 흔적.	현고 : 2.5 저경 : 7.0 굽고 : 1.3	건물지 (3) 동편
47-3	69-3	백자편. 회청색. 내면바닥에 번조받침 흔적. 태토 양호.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1.6 저경 : 5.6 굽고 : 1.0	NS Tr. (1)
47-4	69-4	백자편. 회청색. 태토에 기포 형성. 내면바닥에 번 조받침 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1.9 저경 : 5.3 굽고 : 0.8	건물지 (3) 앞
47-5	69-5	백자편. 청색빛이 도는 백색. 굽둘레 정도의 내저 원.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태토 양호. 전면 시유. 성긴 빙렬.	현고 : 2.2 저경 : 8.2 굽고 : 1.0	
47-6	69-6	백자편. 회색. 부분부분 붉은색을 띠.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희미한 내저원. 내면 바닥이 고르지 못함.	현고 : 2.2 저경 : 6.4 굽고 : 1.1	
47-7	69-7	백자편. 암록색. 전면 시유. 굽에 모래받침 흔적. 굽둘레 정도의 내저원. 태토 양호.	현고 : 2.7 저경 : 5.6 굽고 : 1.0	건물지 (3) 앞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47-8	69-8	백자편. 암회색. 전면 시유. 넓은 내저원.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태토양호. 내면바닥에 기포 형성.	현고 : 2.0 저경 : 5.2 굽고 : 0.5	NS Tr. (1) 서편
47-9	69-9	백자편. 회색. 뚜렷한 내저원.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태토 양호.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2.6 저경 : 5.2 굽고 : 1.1	
47-10	69-10	백자편 푸른빛이 약간 도는 백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2.4 저경 : 5.6 굽고 : 1.1	
47-1	69-11	백자편. 회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유약의 두께가 고르지 않음.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 양호.	현고 : 1.4 저경 : 6.3 굽고 : 0.7	
47-12	69-12	백자편. 회색. 내면바닥과 굽에 각각 5군데의 번조받침 흔적. 표면에 물레자국. 유약의 두께가 고르지 않음.	현고 : 1.3 지경 : 5.3 굽고 : 0.5	
48-1	70-1	백자편. 회백색. 전면 시유. 굽에 5군데의 번조받침 흔적. 두께가 고르지 않음.	현고 : 3.0 저경 : 5.2 굽고 : 1.0	건물지 (3) 앞
48-2	70-2	백자편. 회백색. 내면바닥에 번조받침 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에 기포 형성. 유약의 두께가 고르지 못함.	현고 : 2.0 저경 : 5.2 굽고 : 0.7	NS Tr. (1) 서편
48-3	70-3	백자편. 회색. 뚜렷한 내저원.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 양호.	현고 : 2.1 저경 : 5.2 굽고 : 0.8	건물지 (3) 앞
48-4	70-4	백자편. 암회색. 가는 빙결.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표면에 불순물 붙음. 접지면이 고르지 못함.	현고 : 1.6 저경 : 5.6 굽고 : 0.8	
48-5	70-5	백자편. 회백색. 내면바닥에 뚜렷한 번조받침 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2.0 저경 : 5.4	
48-6	70-6	백자편. 회백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전면 시유. 접지면이 고름.	현고 : 1.6 저경 : 5.8 굽고 : 0.6	NS Tr. (1)
48-7	70-7	백자편. 청색. 전면 시유. 가는 빙결. 태토에 모래알갱이 섞임. 내저원.	현고 : 1.4 저경 : 5.4 굽고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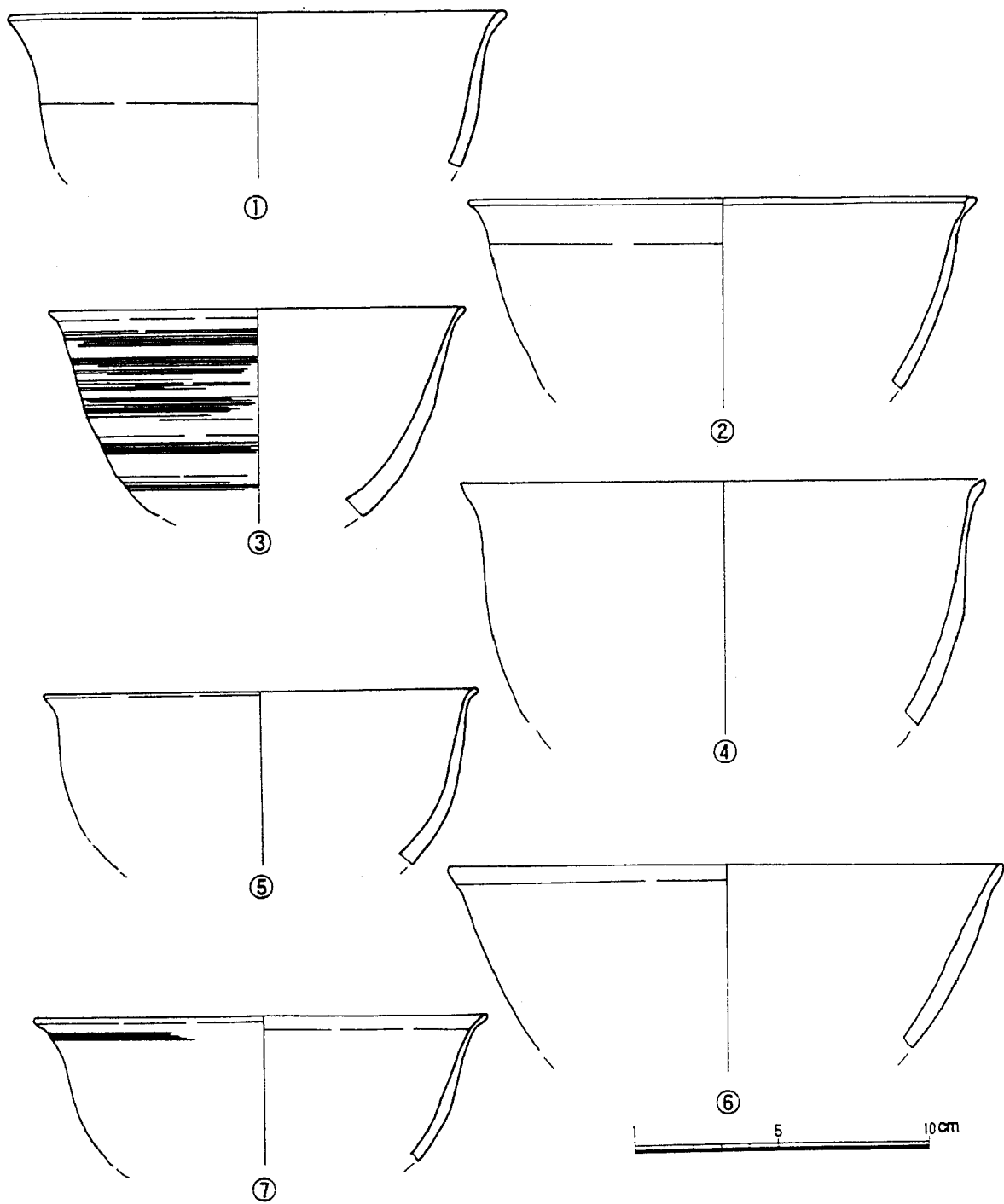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48-8	70-8	백자편. 암회색. 전면 시유. 굽에 번조받침 흔적. 태토 양호. 굽정리 잘됨.	현고 : 1.9 저경 : 4.9 굽고 : 0.7	건물지 (3) 앞
48-9	70-9	백자편. 암회색. 내면바닥에 희미한 음각원과 번조 받침 흔적.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외면에 물레자국.	현고 : 3.1 저경 : 5.0 굽고 : 0.5	NS Tr. (1)
48-10	70-10	백자편. 황백색. 내면에 희미한 음각원과 번조받침 흔적. 굽언저리에 기포 형성. 굽에는 시유 되지 않음. 태토는 황색을 띰.	현고 : 2.5 저경 : 7.0 굽고 : 0.9	
48-11	70-11	백자편. 회백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태토에 기포 형성.	현고 : 1.1 저경 : 5.7 굽고 : 0.7	건물지 (1)
48-12	70-12	백자편. 회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성긴 빙렬.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1.5 저경 : 4.9 굽고 : 0.6	
49-1	71-1	백자편. 황갈색. 전면 시유. 가는 빙렬. 뚜렷한 내 저원. 내면에 번조받침 흔적. 접지면이 일 정하고 굽정리가 잘됨. 태토는 황색을 띰.	현고 : 2.1 저경 : 6.3 굽고 : 0.9	건물지 (3) 서편
49-2	71-2	백자편.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높은 굽. 태토는 황갈색을 띰. 가는 빙렬.	현고 : 2.1 저경 : 6.0 굽고 : 1.3	
49-3	71-3	백자편. 녹회색. 전면 시유.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 받침 흔적. 가는 빙렬. 굽언저리에 기포 형 성.	현고 : 2.7 저경 : 6.3 굽고 : 0.8	건물지 (3) 동편
49-4	71-4	백자편. 녹회색.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물레자국. 표면에 기포 형성.	현고 : 2.4 저경 : 6.2 굽고 : 0.7	NS T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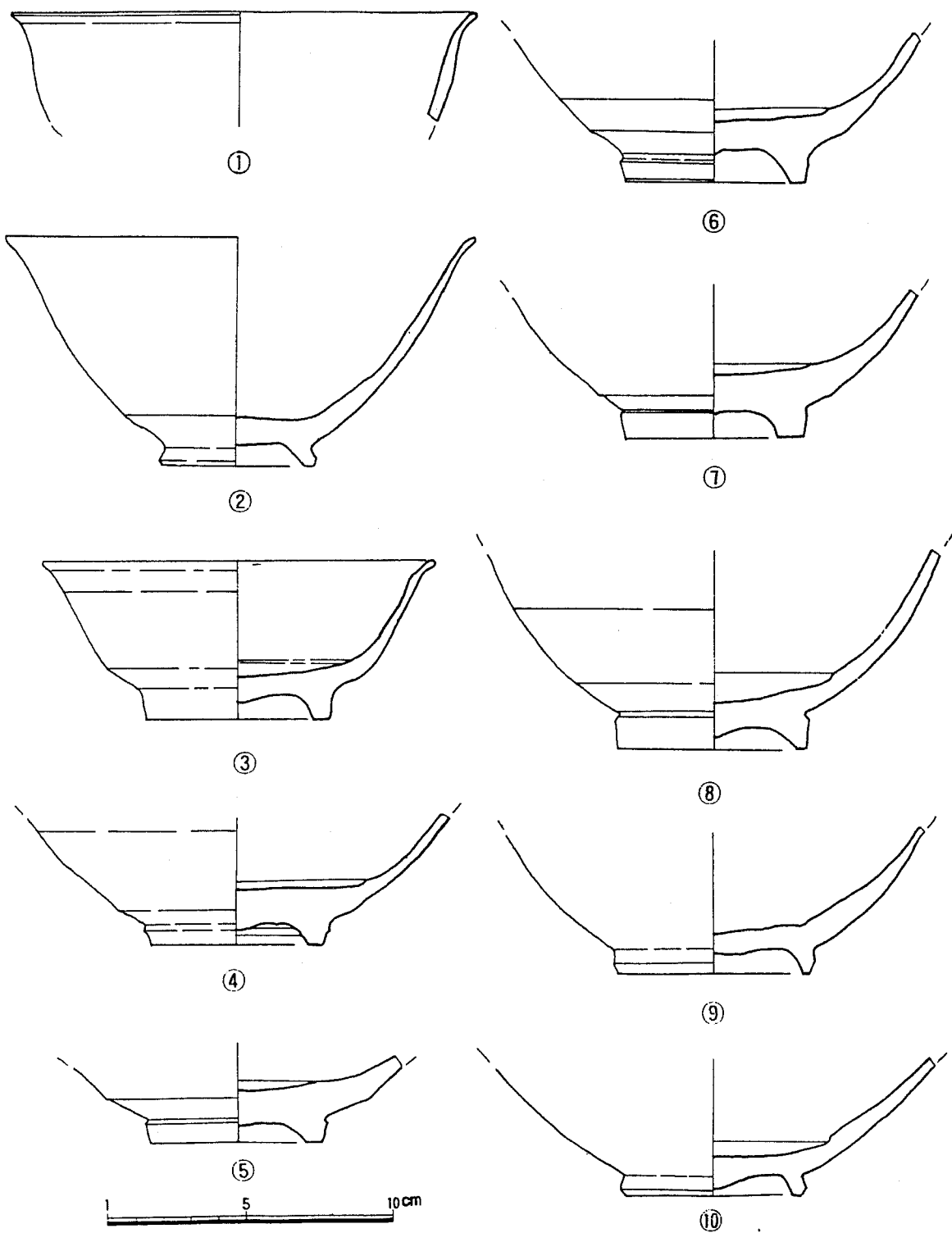
圖面 39 尊者庵址 출토 백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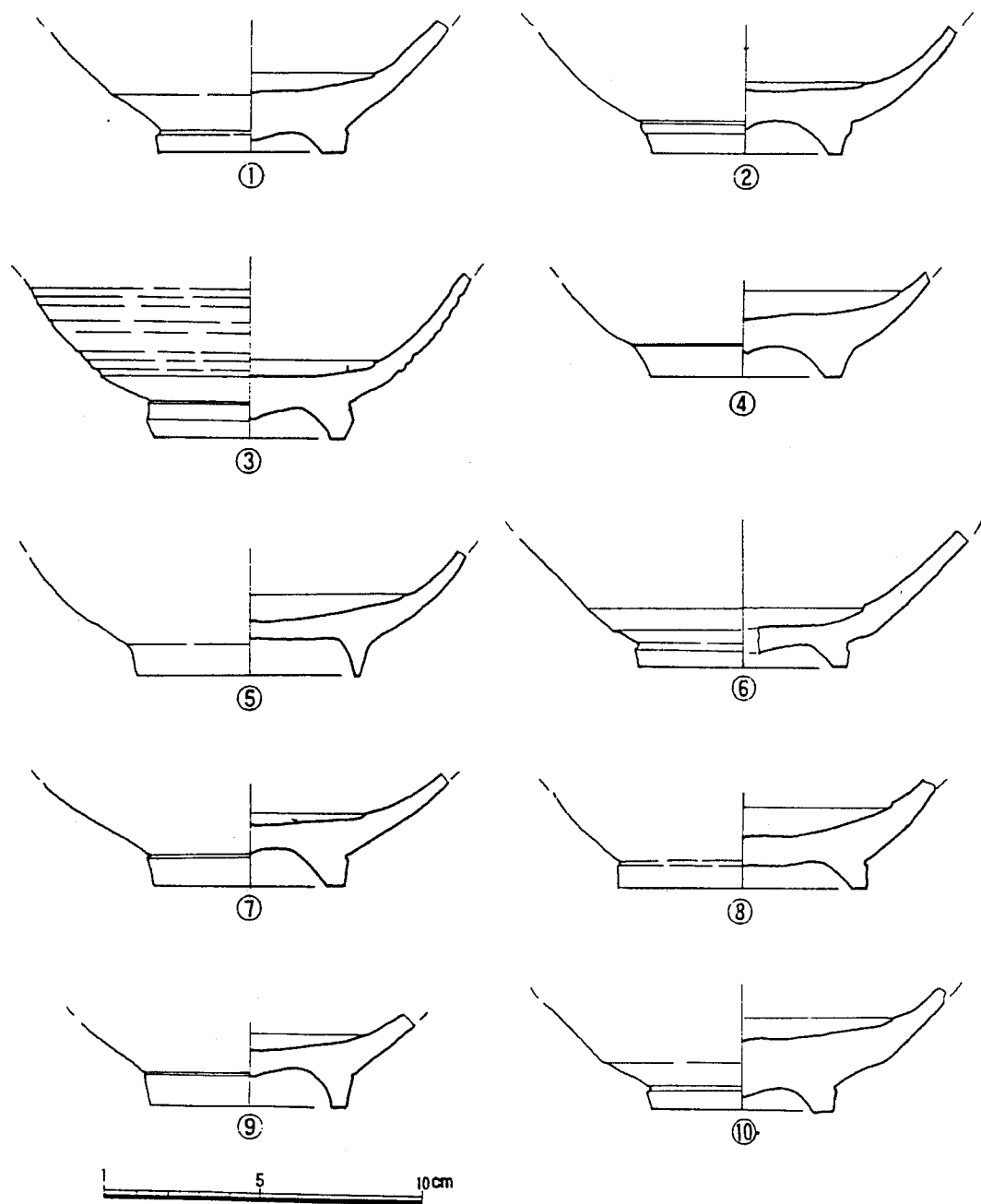
圖面 40 尊者庵址 출토 백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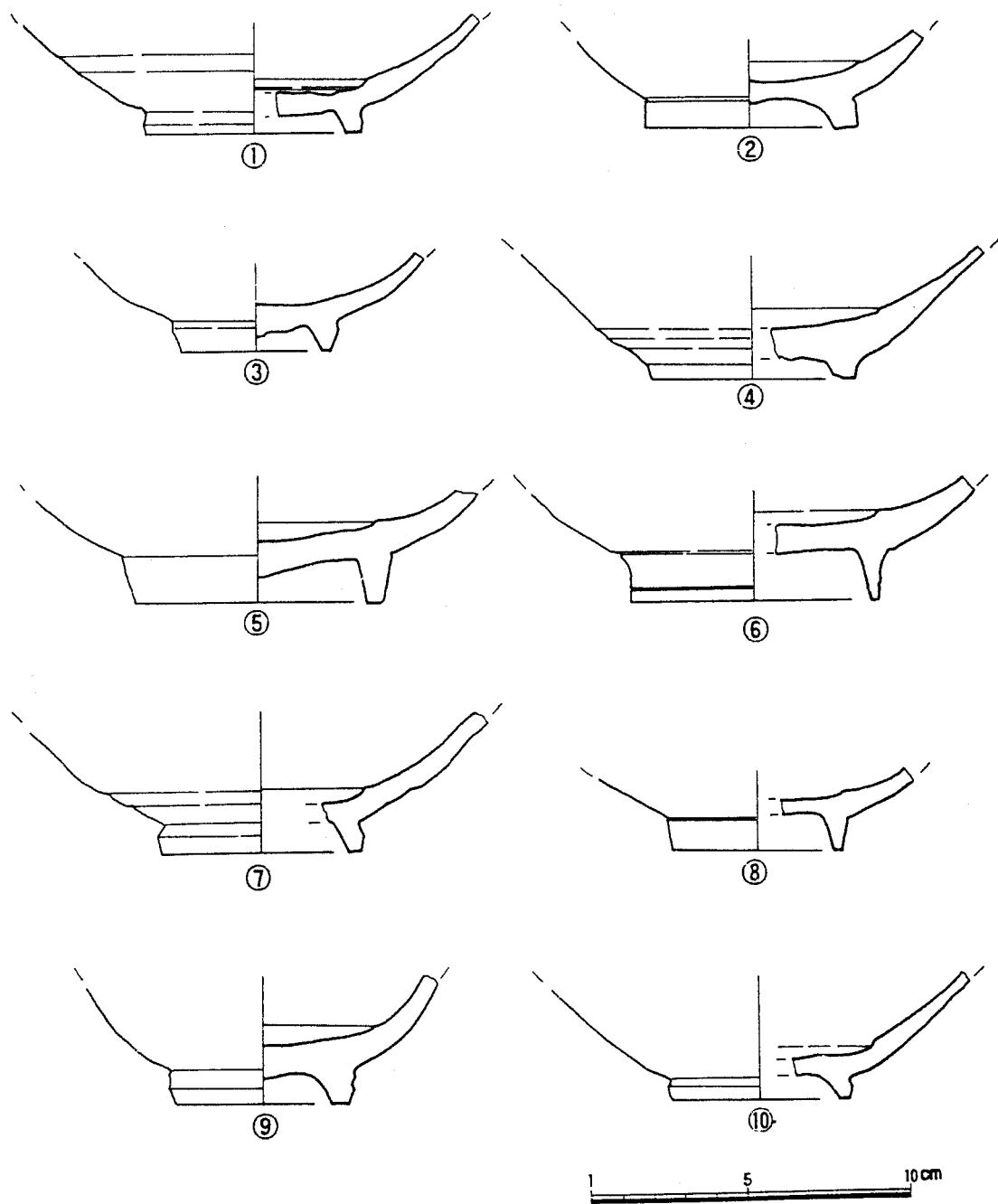
圖面 41 尊者庵址 출토 백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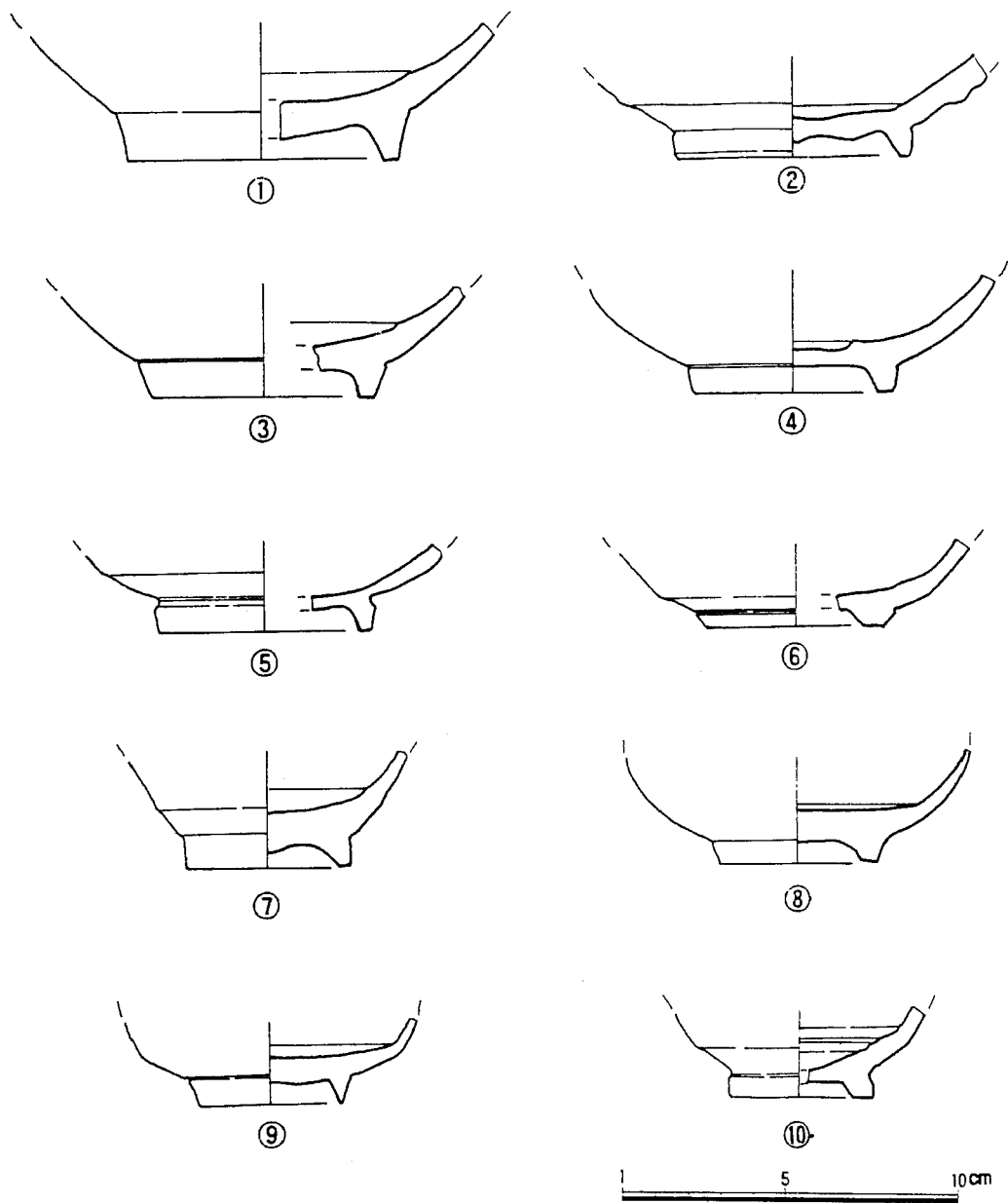
圖面 42 尊者庵址 출토 백자(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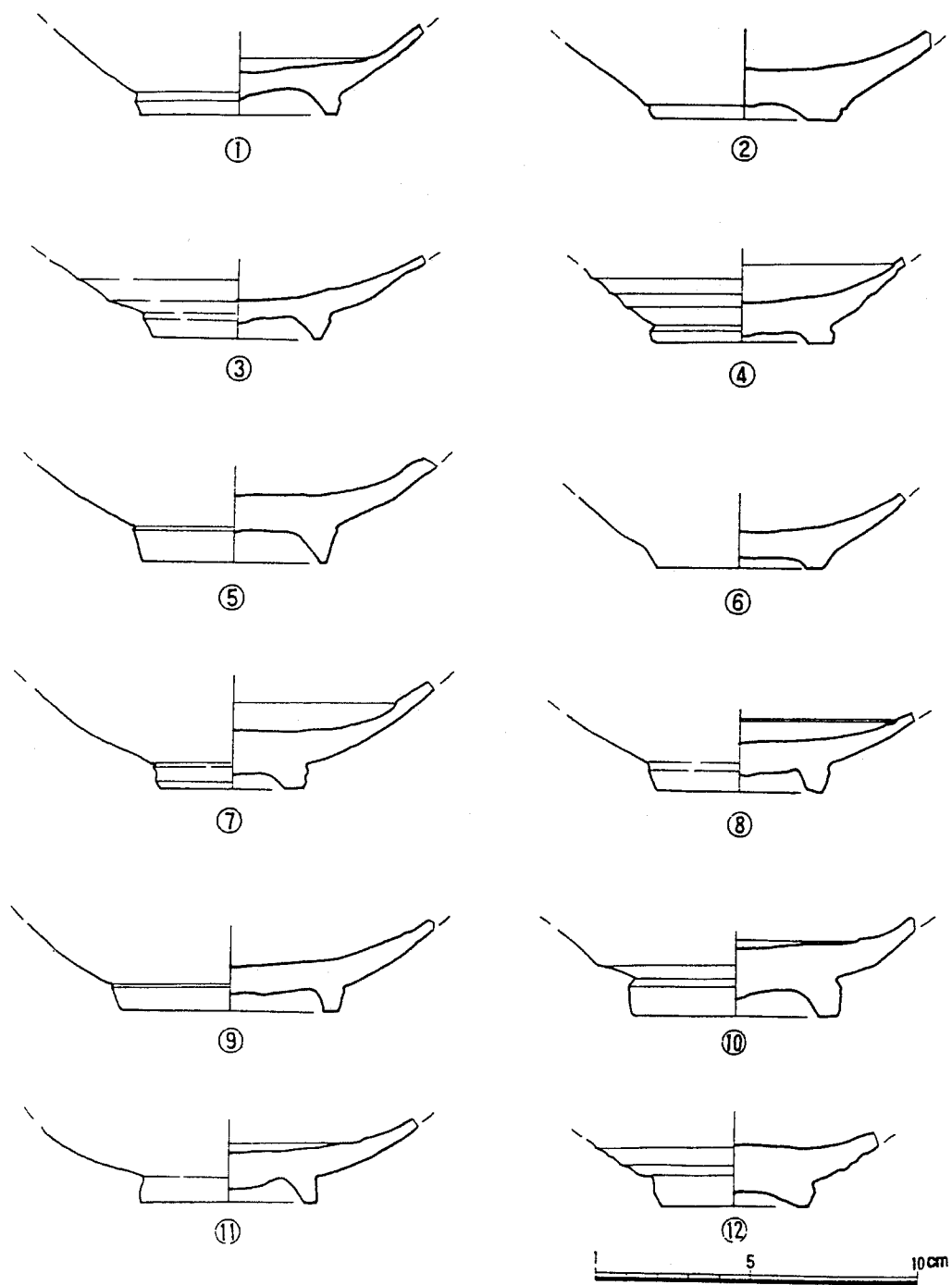
圖面 43 尊者庵址 출토 백자(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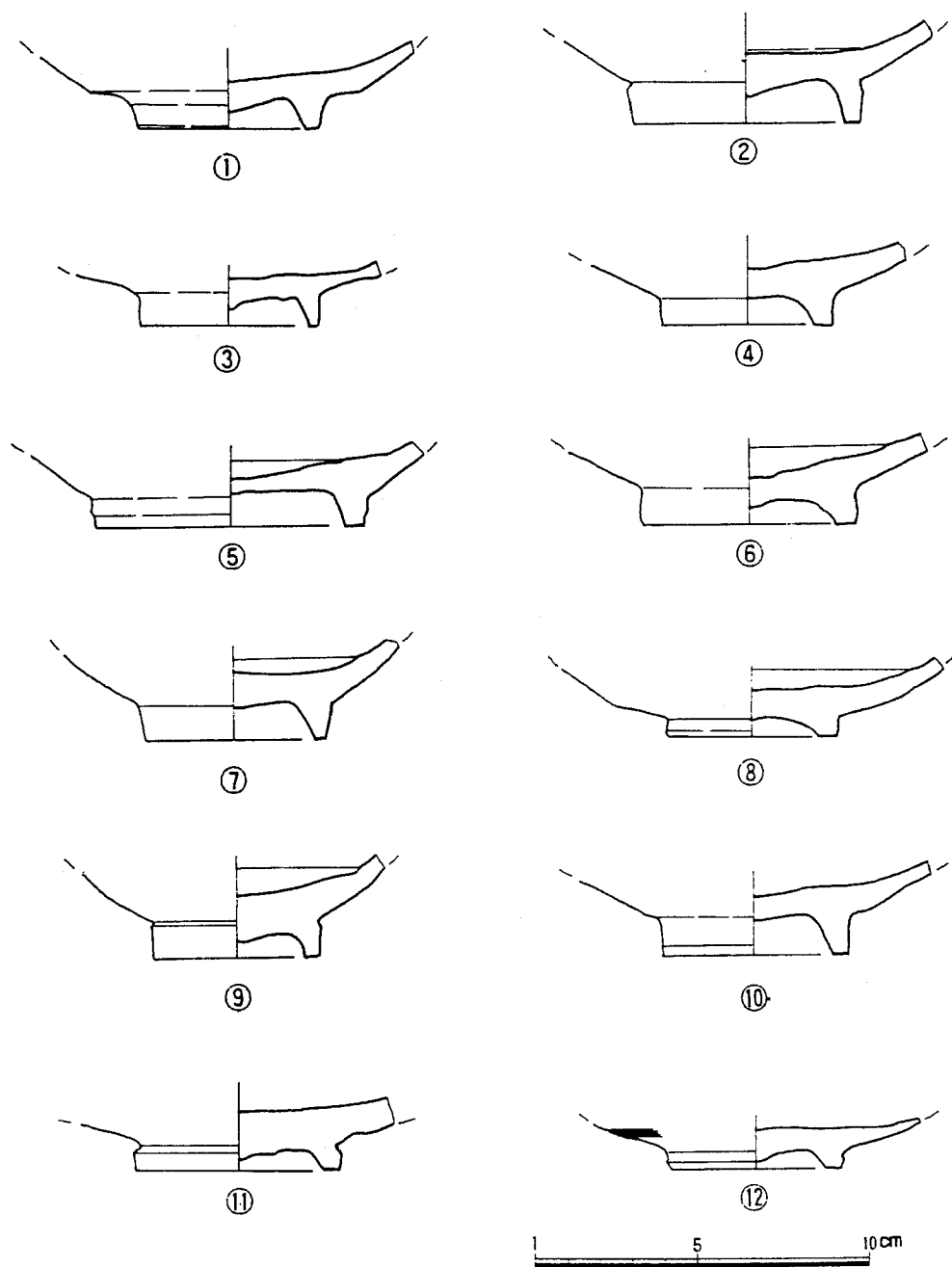
圖面 44 尊者庵址 출토 백자(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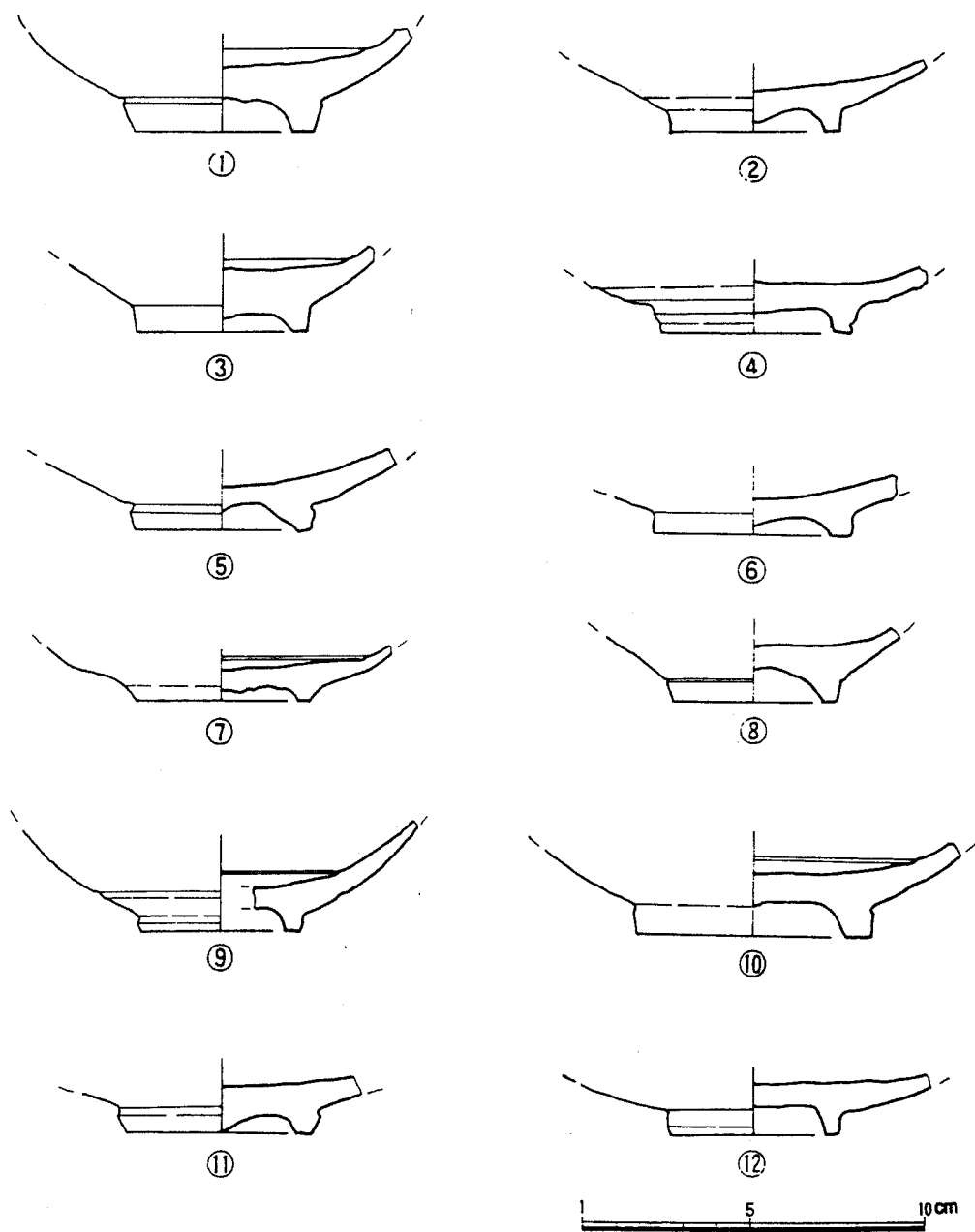
圖面 45 尊者庵址 출토 백자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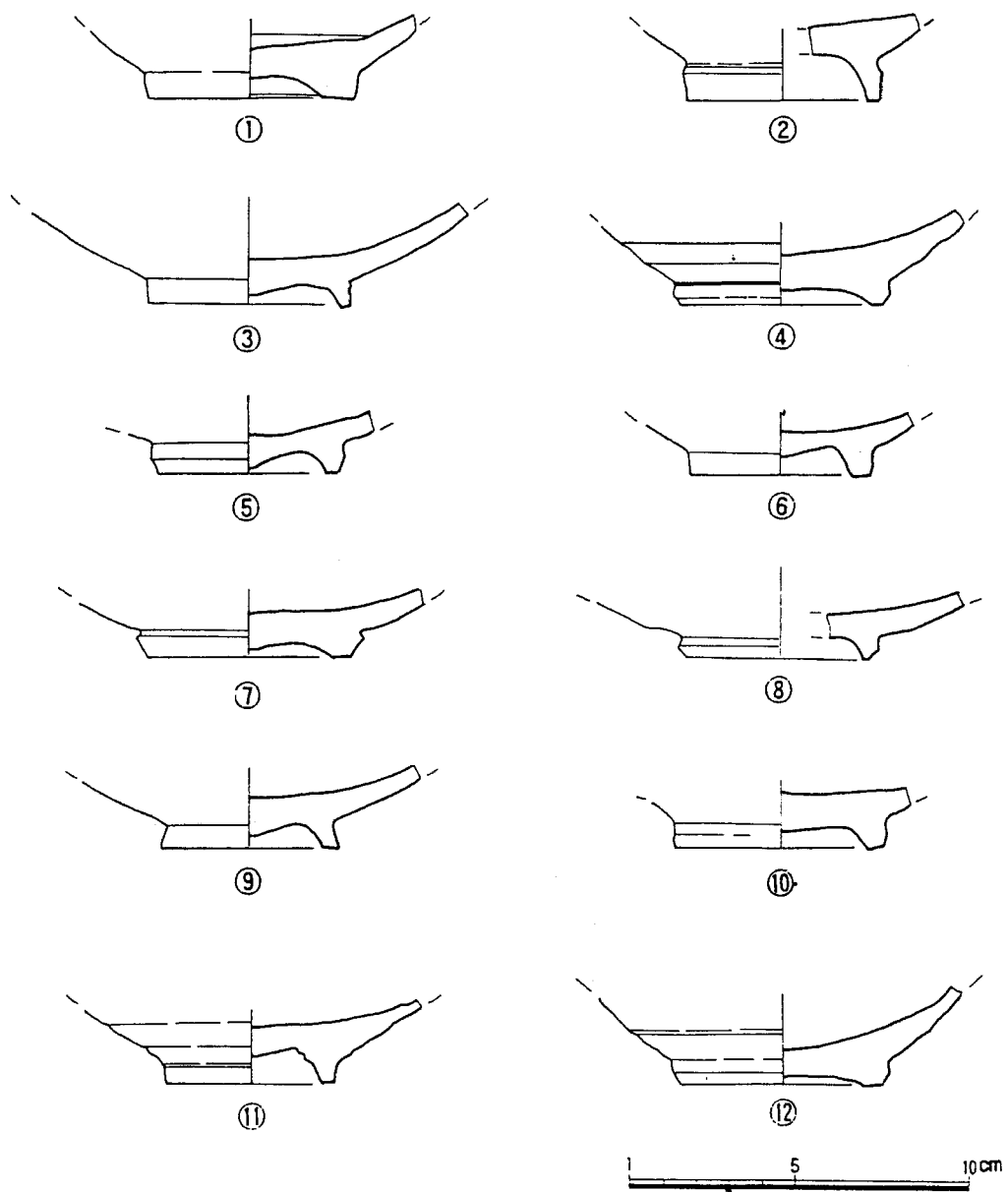
圖面 46 尊者庵址 출토 백자(8)



圖面 47 尊者庵址 출토 백자(9)



圖面 48 尊者庵址 출토 백자(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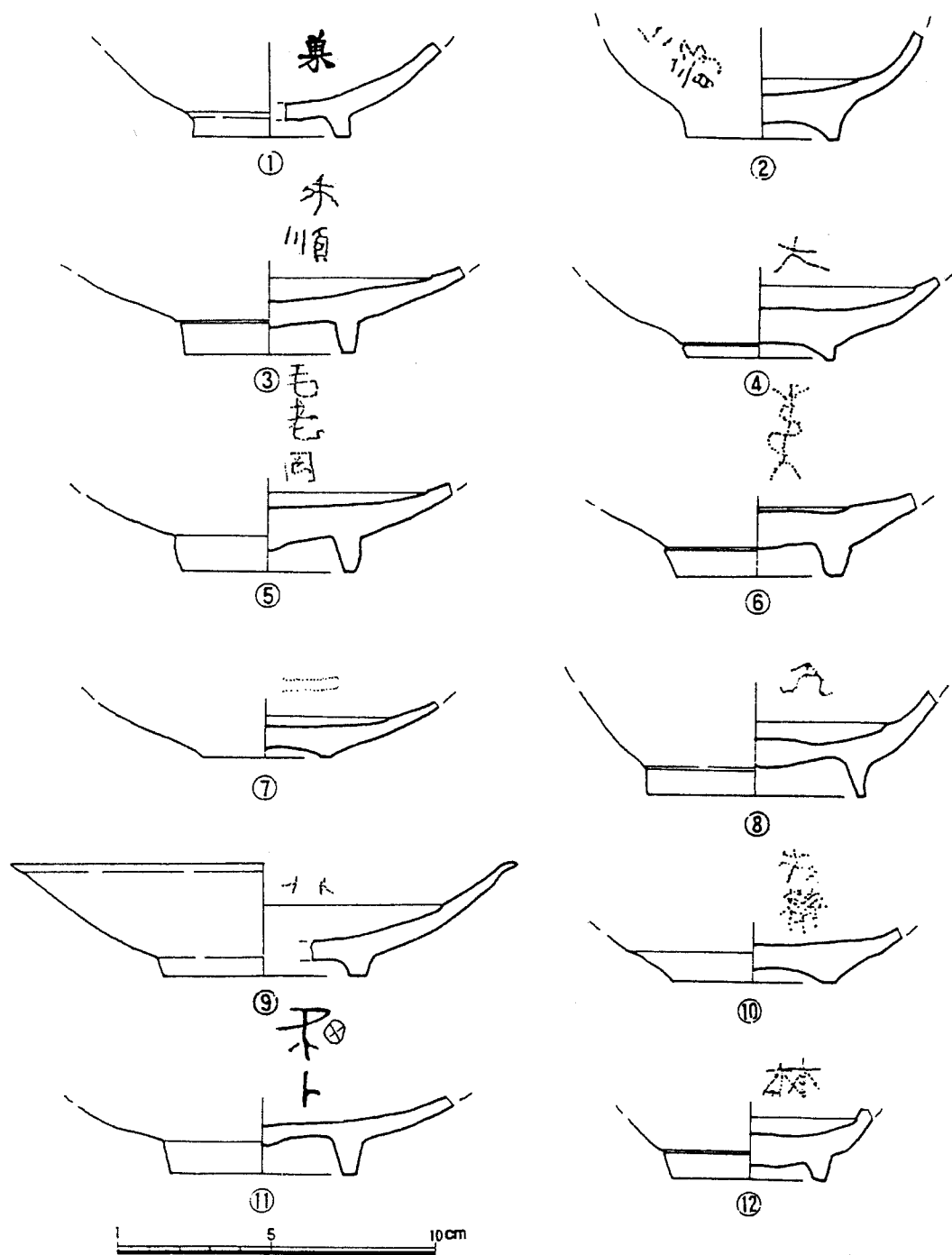
圖面 49 尊者庵址 출토 백자(11)

4. 명문 백자(圖面50, 51, 圖版72, 73)

두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송곳같은 도구로 쪼아서 새긴 것들이다. 명문 백자편 중에 「大靜」, 「大」, 「和順」명 등 지방명이 보이며, 새김방법상의 문제로 인해 글씨가 뚜렷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50-1	72-1	「果」명 백자편. 내면 동체부에 「果」명이 정교하게 압인됨. 표면은 녹회색. 가는 빙렬. 굽은 잘 깎여지고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태토 양호.	현고 : 2.8 저경 : 5.2 굽고 : 0.7	NS Tr. (1)
50-2	72-2	「大靜」명 백자편. 외면 동체부에 「大靜」명이 송곳같은 도구로 쪼아서 새겨짐. 표면은 유백색. 선명한 빙렬. 전면시유. 희미한 내저원.	현고 : 3.3 저경 : 5.0 굽고 : 0.5	NS Tr. (1)
50-3	72-3	「和順」명 백자편. 내면바닥에 「和順」명이 쪼아서 새겨짐. 넓은 내저원. 전면 시유. 굽에 모래받침 흔적. 태토 양호.	현고 : 2.4 저경 : 5.8 굽고 : 1.1	제1단석축 계단지(1)
50-4	72-4	「大」명 백자편. 내면바닥에 「大」명이 쪼아서 새겨짐. 넓은 내저원. 전면 시유. 내면바닥과 굽에 각각 5군데의 번조받침 흔적.	현고 : 2.4 저경 : 5.8 굽고 : 1.1	NS Tr. (1)
50-5	72-5	「毛老園」명 백자편 내면바닥에 「毛老園」명이 쪼아서 새겨짐. 넓은 내저원. 가는 빙렬. 태토 양호.	현고 : 2.4 저경 : 5.8 굽고 : 1.1	NS Tr. (1)
50-6	72-6	「弟」명 백자편. 내면바닥에 「弟」명이 쪼아서 새겨짐. 굽둘레 정도의 내저원. 내면바닥에 네군데에 번조받침 흔적. 전면 시유. 표면은 회백색.	현고 : 2.2 저경 : 5.4 굽고 : 1.0	계단지
50-7	72-7	「二」명 백자편 내면 중앙에 「二」명이 쪼아서 새겨짐. 넓은 내저원. 미세한 빙렬.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낮은 굽.	현고 : 1.7 저경 : 4.1 굽고 : 0.1	
50-8	72-8	「ㄱ」명 백자편. 내면바닥과 굽언저리에 각각 「ㄱ」, 「ㅌ」명이 쪼아서 새겨짐. 전면 시유. 회백색. 희미한 내저원. 태토 양호.	현고 : 3.1 저경 : 7.0 굽고 : 1.0	건물지(1)
50-9	72-9	「ㅌ」명 백자편. 내면바닥에 「ㅌ」명이 쪼아서 새겨짐. 넓은 내저원. 외반구연. 굽언저리에 기포 형성. 전면 시유.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태토 양호.	고 : 3.6 구경 : 16.6 저경 : 6.6 굽고 : 0.5	계단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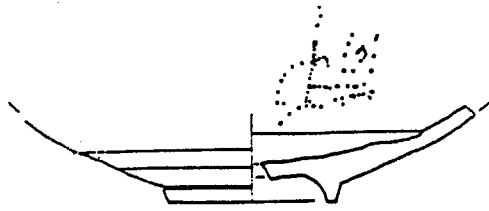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 (cm)	출토위치
50-10	72-10	「  」명 백자편. 내면바닥에 「  」명이 쏘아서 새겨짐. 회색. 전면 시유. 내면바닥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동체와 굽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희미한 내저원.	현고 : 1.4 저경 : 5.3	NS Tr. (1)
50-11	72-11	「  」명 백자편. 내면바닥에 「  」명이 쏘아서 새겨짐. 전면 시유. 드문드문 기포 형성. 굽정리 잘	현고 : 2.3 저경 : 6.0 굽고 : 1.1	제1단 석축 계단지 (1)
50-12	72-12	「  」명 백자편. 내면바닥에 「  」명이 쏘아서 새겨짐. 회색. 전면 시유. 굽속은 탈유됨.	현고 : 1.9 저경 : 4.9 굽고 : 0.9	NS Tr. (1)
51-1	73-1	「  」명 백자편. 내면바닥에 「  」명이 쏘아서 새겨짐. 넓은 내저원.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굽언저리의 유약의 두께가 일정치 않음.	현고 : 1.9 저경 : 6.4 굽고 : 0.4	
51-2	73-2	「  」명 백자편. 굽안에 「  」명이 음각되었고 내면바닥에 「  」명이 쏘아서 새겨짐. 회색. 전면시유. 넓은 내저원. 굽에 가는 모래받침 흔적. 태토 양호.	현고 : 1.2 저경 : 9.0 굽고 : 0.8	건물지 (3) 동편
51-3	73-3	「  」명 백자편. 내면바닥에 「  」명이 쏘아서 새겨짐. 넓고 뚜렷한 내저원.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전면 시유. 시유상태 양호.	현고 : 2.3 저경 : 5.2 굽고 : 0.5	
51-4	73-4	「  」명 백자편. 굽속에 「  」명이 쏘아서 새겨짐. 내면바닥에 네군데의 번조받침 흔적. 시유상태 양호.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2.7 저경 : 5.4 굽고 : 0.9	NS Tr. (1) 서편
51-5	73-5	음각문백자편. 회청색. 내면바닥에 추상화된 구름무늬가 음각됨. 내면바닥에 번조받침 흔적과 희미한 음각원. 굽에는 시유되지 않음.	현고 : 2.5 저경 : 5.9 굽고 :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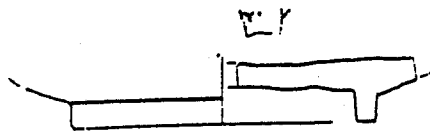
圖面 50 尊者庵址 출토 명문백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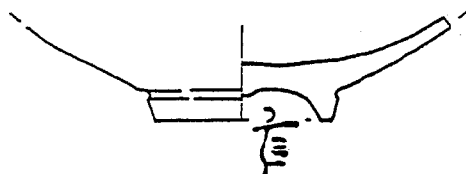
①



② 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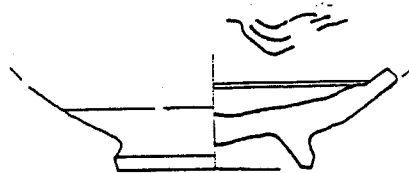


③



④

1 5 1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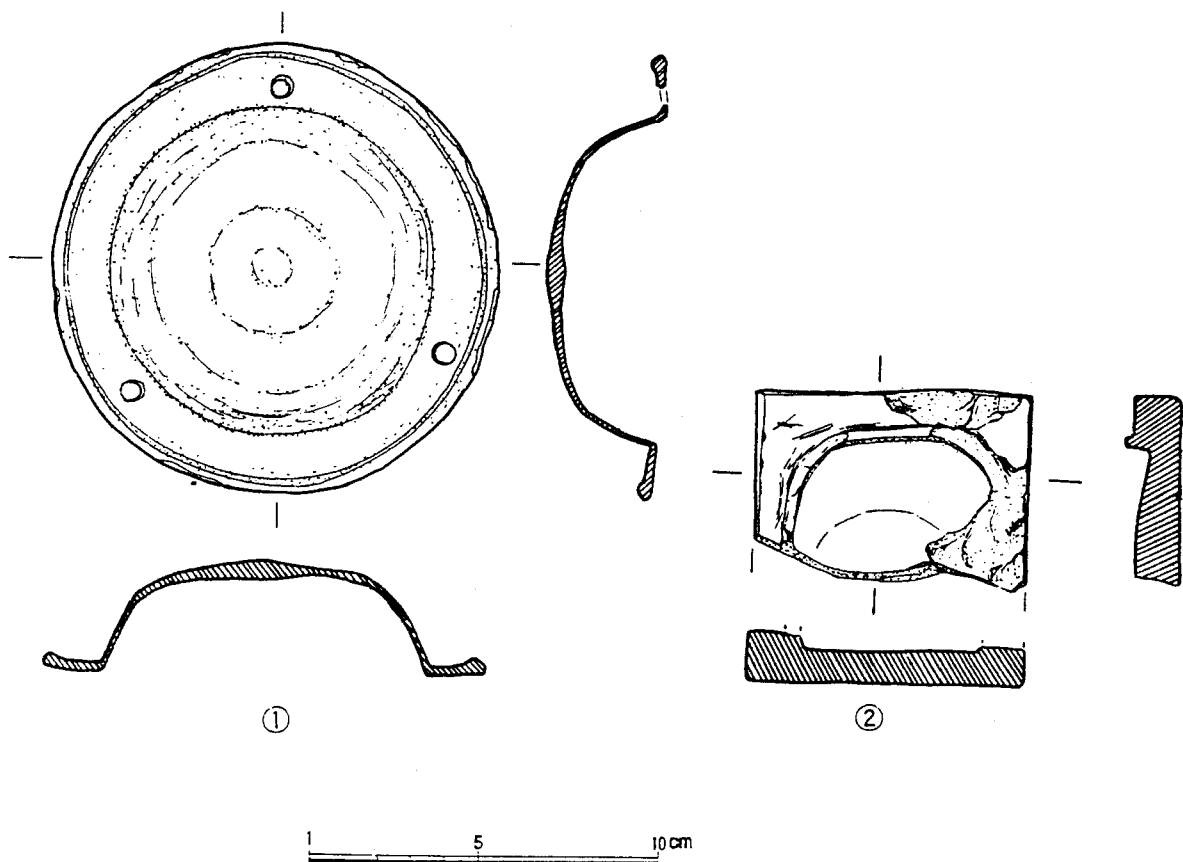


⑤

圖面 51 尊者庵址 출토 명문백자(2)

5. 기타유물 (圖面52, 圖版74)

도 면	도 판	특 징	규격(cm)	출토위치
52-1	74-1	靑銅蓋. 원형의 주연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지름 0.7mm의 구멍을 뚫어 밑부분의 盒과 고정되도록 하였고 구멍 안으로 주상부를 3cm가량 돌출시켰다. 전체적인 형태는 상모형태이다.	지름 : 13.2cm	NS Tr. (2)
52-2	74-2	벼루. 직사각형의 틀 안에 장타원형의 墨池를 두었다. 현재 반파상태이다. 복원길이 12.0cm.	두께 : 1.2cm 길이 : 8.0cm	건물지 (3)



圖面 52 尊者庵址 출토 靑銅蓋·벼루

第5章 考 察

1. 遺 構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尊者庵寺址는 크게 4개의 壇(築臺)으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 밀집되어 시설물이 들어섰던 것으로 판단된다. 各壇에 배치된 시설물은 시기적으로 두번에 걸쳐 존속했던 건물지와 부속시설지 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시설물의 축조수법과 중복관계, 층위분석을 통해 이곳의 유구는 크게 두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전기와 그 이전의 경우는 판석을 위주로 한 건물지가 확인되며, 이들 유구에서 발견되는 유물도 인화분청과 일부의 청자편, 명문기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선전기이후에 만들어진 건물지 및 시설물은 자연석을 대충 치석한 할석을 위주로 쓰여 졌으며 백자와 무문기와 편이 주변에서 출토된다.

各壇(築臺)에 배치된 시설물의 내용과 시기별 건물지와 부속시설물 群을 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時期區分	所屬時期	第1壇(築臺)	第2壇(築臺)	第3壇(築臺)	第4壇(築臺)
1次時期 施設物	麗末-朝鮮前期 (13~15世紀)	建物址(1), N-S Tr. (1)-(3) 内部 積石施設物, 東便積石施設	建物址(4), 建物址(5)	碑閣址동편 石列(?)	浮屠址
2次時期 施設物	朝鮮中期 (16~17世紀)	建物址(2)	建物址(3), 敷石施設	碑閣址	浮屠址

2. 遺 物

금번 1차 調査時, 尊者庵寺址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瓦類와 陶磁器類로 나누어 볼 수 있고 多孔質玄武岩製 燈臺, 石碯, 靑銅蓋, 점판암제 硯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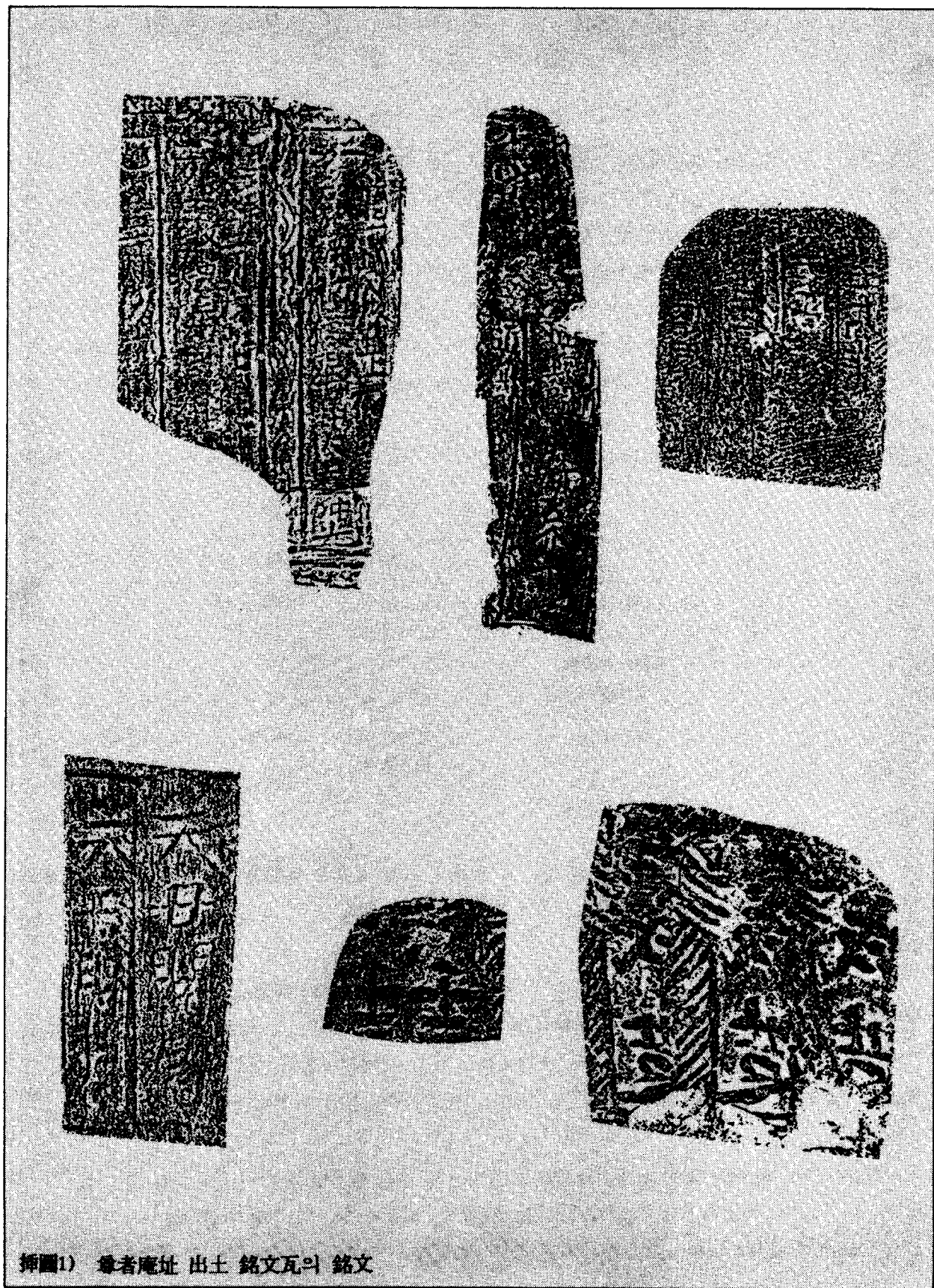
1. 기와

기와는 모두 평기와편만이 출토되었고 막새류는 단 한편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기와는 조선전기의 어골문계통의 有文平瓦와 조선중기 것으로 여겨지는 경질의 無文平瓦로 크게 나누어 지며, 銘文瓦는 모두 조선초기의 것으로 명문내용은 「萬戶夫承碩」, 「無閑修正呂介」, 「沖光」, 「萬戶兼牧使」, 「千戶」, 「主高」, 「天母開啓」 등이 확인된다.

2. 도자기

도자기는 주로 백자편과 분청사기편이며 청자편은 소수 출토되었다. 건물지 (1), (4), NS Tr. (1), (2), (3) 주변에서 주로 분청사기가 출토되었고, 건물지 (2), (3) 주변과 碑閣址 주변에서는 백자편이 주로 출토되었다. 출토된 백자편 중에 「毛老園」, 「大靜」, 「禾順」銘등 옛 大靜縣의 마을명칭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挿圖1) 尊者庵址 出土 銘文瓦の 銘文



挿圖2) 尊者庵址 出土 粉青沙器の 文様



挿圖4) 尊者庵址 出土 白磁斗 銘文 寫真細部

제6장 맺 음 말*

1. 존자암사지의 건물지 및 부속시설은 모두 크게 4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석축평탄대지위에 자리하고 있다. 제1,2단은 존자암의 1차시기 건물지 및 부속시설물 신축과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중 創建 혹은 重創佛寺와 관련된 스님의 사리가 제4단의 부도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2차시기에는 제1단에서 4단까지 모든 시설물이 자리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전대의 존속된 시설물 외에 다른 시설물을 증건하였는데 대략 건물지 제1단과 2단 중앙에 각 1동의 건물과 제3단에 비각형태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재 노출된 상층의 건물지중, 건물지(1)은 현재 정면기단석렬만이 노출되고 주춧돌 혹은 심초석이 확인되지 않아 건물지가 아니고 건물지(2)의 앞마당일 가능성이 있다. 건물지(2)는 현 가람의 가장 낮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지내부의 주춧돌의 배치상태로 보아 앞과 뒤로 뒷마루를 둔 선방지(法堂址)일 가능성이 있다. 건물지(3)은 가람의 중심에 있고 높게 쌓아 올린 축석시설 위에 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3회 이상 중창된 사실로 보아 金堂址일 가능성도 있다. 건물지(3)의 높은 북쪽단에서 확인된 閣建物址는 가람의 끝에 있고 각의 내부에 비석자리가 확인되므로 文獻에 전하는 國聖祭를 행하던 비각건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건물지 주변의 부속시설물은 탐지추정지와 부도지가 대표된다. 탐지추정지는 건물지(2)의 동편, 비교적 평탄한 공간에 자리잡고 있고 본문의 N-S Trench(1), (2) 부분에서 목탑의 중심주초석이라 생각되는 주초석 1기가 확인되었으나, 주초석의 크기가 작고 주변 주초석이 확인되지 않아 목탑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浮屠는 대체로 형식상 고려말까지 올라가는 도내 유일의 부도로서, 팔각대석과 사리공 시설이 보기도문 예이다.

4. 금번 조사를 통해서 존자암 전체 중요시설물에 대한 기본 가람배치와 그 규모, 범위는 확인되었으나, 이번 기간중 조사되었던 유구는 상층에 해당하는 조선중기(17~17세기)경의 제2차시기 시설물에 한정된 것이다. 또한 고려말-조선초(13~15세기경)의 제1차 시기의 사찰시설물은 전체를 노출시킨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노출하는 데 그쳐, 이들 이른 시기의 건물지와 주변 부속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절대 필요하다.

5. 존자암지는 우리나라 최남단 最高에 위치하고 있고, 고대 탐라와 관련된 기록이 전하는 유적으로서, 부도와 탐 등을 포함한 가람시설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고려말-조선초 사찰유적으로서의 학술적·문화재적인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보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충분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금번 1차 발굴을 마무리하면서 존자암지 발굴조사자의 의견과 지도위원회(1993. 8. 30)에서 제시된 의견을 묶어 이 글을 정리하였다.

尊者庵記

金 奉 玉

(濟州道文化財委員)

1993년도에 尊者庵址를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대체로 尊者庵이란 어떠한 곳인가. 또 발굴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하여 文獻上에 기록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1. 東國輿地勝覽

1486년(成宗 17)에 慮思愼 梁誠之 姜希孟 등에 의하여 간행된 이 문헌 중 濟州牧 佛字條 첫 머리에

「尊者庵은 한라산 西嶺에 있는데 그 洞에는 돌이 있어 僧이 行道하는 모양과 같으므로 俗傳하기를 修行洞이라 한다」

하였다.

2. 南溪小乘

1577년(宣祖 10) 白湖 林佛가 제주목사로 재직 중인 부친 林晉목사를 뵈기 위하여 와서 당시 제주의 풍물을 적은 기행문이다. 그 중에 선조 11년 2월에 한라산에 등산하였는데 우천 관계로 尊者庵에서 3일간 묵으면서 암자의 형편을 적었다. 그 때 등산 경로는 外都에서 無愁川을 따라 오르고 산길에 들어 尊者庵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암자에 머물면서 날씨가 개인틈에 5, 6리를 가서 靈室을 구경하고 다시 尊者庵으로 돌아와서 날씨가 쾌청함을 기다려 尊者庵 住持 淸淳의 안내로 정상에 올라 구경하였다. 따라서 尊者庵은 佛來岳(속칭 불래오름) 중턱에 있고 靈室하고는 별개임을 알 수 있다.

3. 南槎叢

1601년(宣祖 34) 제주에서 善山人 吉云節과 益山人 蘇德裕가 入島하여 逆謀하다가 탄로되었으므로 조정에서는 弘文館 校理 金尚憲(호 淸陰)을 안무어사로 보내왔는데 그 때 그가 제주에서의 견문을 수록한 기행문이다.

그 중 尊者庵條에 沖庵記(1519년 中宗己卯土禍 때 제주로 유배되어 1521년 이곳에서 賜死된 沖庵 金淨先生의 尊者庵記)를 인용하여 이르기

「尊者庵이 된 것은 三姓(高良夫)이 처음 일어난 때 만들어져서 三邑(濟州 旌義 大靜)이 정립

된 후까지 오래 전하여 왔다. 또 암자의 面勢는 相地書에 많이 들어 맞는다고 그 터를 말한다. 곧 主峯이 하나로 합쳐 올라가면서 등글고 높아 가파른가하면 점점 낮아 황홀함이 鸞鳳이 날다가 내려앉아 그 새끼를 돌보는 것 같음이 玄武의 奇요, 寒泉의 根源 깊이 졸졸 쏟아져 맑고 향기마저 차갑다. 이른바 月德의 방향으로 가물어도 마르지 않으니 朱雀의 異다. 든든히 이어지고 뻗어나간 허리를 왼팔이 그 끈을 풀려고 하는 것 같으니 靑龍의 勝이다. 꼬리를 끌어 復行하는 머리를 오른손이 그 무릎을 만지려는 것 같으니 白虎의 美다. 이것이 地理의 備다. 이는 곧 列子禦寇書(禦寇는 列子の 名)의 圓矯의 山이요, 東方曼倩記(曼倩은 東方朔의 名)의 瀛洲의 地다.

또 말하기를 첫머름달(4월) 길일을 점치어 三邑 守令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목욕재계하여 이 암자에게 제사를 지내니 이를 國聖齊라 하였는데 지금은 폐한지 겨우 8, 9년이라 하였다. 암자의 집은 9間인데 지붕과 벽이 모두 판자로 기와와 흙을 대신하였다. 이를 僧에게 물으니 山中의 흙은 粘液이 없고 沙石이 많아서 흙을 바르는데 알맞지 아니하고 기와는 반드시 육에서 사오기 때문에 힘써도 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중간에 누차 興廢를 격었는데 癸巳年 사이에 康津에 사는 僧이 부친을 대신하여 防番 온 자가 있었는데 防番이 끝나자 이어 재물을 내놓아 重條하였다고 하였다.」

이 문헌은 尊者庵의 성립시기·지형·암자의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尊者庵 연구에 중요한 문헌이다. 그리고 말미에 淸陰先生 스스로 尊者庵에 대한 詩를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원악은 높이 솟아 형세가 저절로 웅장한데
작은 암자는 높다랗게 흰 구름속에 있네
길은 황죽에 피어 구비구비 일천이나 서리고
창은 남쪽 바다를 놀려 만리에 통하였네
암자 경영의 시초는 멀리 三姓의 태어난 날에 따랐고
폐하면 일으키는 중수의 비용은 몇해의 공력인가
僧은 사는데 오는 사람이 적으니 적막하고
문에는 푸른 이끼에 덮이고 낙엽은 붉구나

4. 李元鎮 耽羅志

南槎錄 보다 52년 후인 1653년(孝宗 4)에 저작된 邑志이다. 이는 1434년(世宗 16)관부가 실화로 소실되면서 옛 기록들이 회진된 이래 처음 만든 邑志이다. 그 佛宇條 첫 머리에

「尊者庵은 예전에 한라산 영실에 있었는데 그 洞에 돌이 있어 僧이 行道하는 모양과 같으므로 俗傳하기를 條行洞이라 하였다. 지금은 서쪽 山麓 10리쯤 밖으로 옮겼는데 곧 대정 지경이다.」

이어서 1651년(孝宗 2)에 안핵어사로 왔던 李慶億 어사의 尊者庵에 대한 詩와 자신의 詩를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李慶億詩

존자암은 名寺로 알려졌는데
황량한 반조각의 옛터로구나
천년 묵은 외로운 탑이 있는데
한 방은 몇 개의 석가래만 남아 있네
해객이 지나가는 일이 적으니

미개한 승은 예법도 소홀하네
가을 밤에 남쪽끝을 바라보니
속세의 걱정은 이미 말끔히 사라졌네

李元鎮詩

땅은 蒼龍이 언덕되어 들판이고
하늘은 赤雀이 큰 두덕에 이어졌네
해도는 삼신산으로 경승이니
풍월은 九韓 것이 남아있네
광활한 조망에 마음은 넓고 젊어지니
정신도 맑아 꿈도 저절로 성기네
움조림에 빠져 이틀이나 묵었으니
시귀를 즐기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네

이 문헌에서 옛 尊者庵을 대정현 鹿下旨로 옮기었음을 알 수 있고, 또 李慶億詩에서 千年의 孤塔이 있었는데 석가래 몇 개만 남아 있다고 하였으니 당시까지도 木塔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 南宮博物

1702년(肅宗 28)제주목사로 李衡祥이 1704년 저작한 邑誌이다. 그는 부임하여 곧 4월에 한라산에 올랐는데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일정으로 북면으로 직행하여 정상에 오르고 그날 저녁에 하산하였다. 그 중 尊者庵에 대한 기록은

「한 구렁(壑) 곁에 塙吉壇이 있는데 단 위에는 복숭아를 심었고 叢竹 사이에 홀로 서 있다. 남쪽 산기슭에는 나무가 있는데 칙백도 아니고 삼나무도 아니고 박달나무도 아니고 전나무도 아닌데 은은히 장목같다. 대개 전하기를 계수나무라고 하였다. 위에 수행동이 있는데 洞에는 七星台가 있어 坐禪巖이라 하였다. 이는 옛날 僧이 八定之墟로 이를 尊者庵이라 하였다. 冲庵記에 이르기를 尊者庵이 된 것은 三姓이 처음 일어난 때 만들어져서 三邑이 정립된 후까지 오래 전하여 왔다. (남사록과 같으므로 생략함).

지금 尊者庵 터에는 八角으로 楚石이 모여지고 그 위에 둥근 舍利孔 基台石이 있고 石鍾과 石筍이 있는데 이 문헌에 八定之려는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6. 大藏經 法住記

이 문헌은 佛滅 8백년 후에 大阿羅難提蜜多羅(중국말로 慶友)가 佛法이 세계 각처에 살게 된 경유를 밝힌 문헌이다. 이를 唐의 玄奘(600-664)에 의하여 漢譯되었고 우리 고려대장경도 이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전략) 여러 苾芻들이 비록 告示는 받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욱 목매어 눈물 흘리며 한참 있다가 곧 묻기를 “우리들은 석가모니세존께서 無上의 正法이 어느때 살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니 존자가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如來께서는 먼저 法住經을 말씀하였지

만 이제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간략하게 다시 말하리라. 석가세존께서 열반하실 때 無上의 法을 16대아라한과 그 권속들에게 부탁하여 그를 護持하여 滅沒하지 않도록하여 勅하여 그 몸과 諸施主와 더불어 참된 福田을 만들면 그 布施者로 하여금 大果報를 얻으리라 하셨다.”하니 이 때 여러 대중이 이 말을 듣고 이미 걱정과 슬픔은 조금 풀리어 거듭 다시 청하여 말하기를 “설교하신 바 16대아라함을 저희들은 그 이름을 하등 알지 못 합니다.”하니 慶友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1존자의 이름은 빈도로발라도아(賓度羅跋羅脩閭)이고 제4존자의 이름은 소빈타(蘇頻陀)이고 제5존자의 이름은 낙구라(諾距羅)이고 제6존자의 이름은 발타라(跋陀羅)이고 (中略)” 이 때 필다필다니(苾芻苾芻尼)등이 다시 거듭 청하여 말하기를 “저희들은 16존자가 어디에 많이 살면서 正法을 護持하며 더욱 뜻을 뿔었는지 알지 못합니다.”하니 慶友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1존자는 자기 권속, 천의 아라한과 더불어 서구타니주(西瞿陀尼洲)에 많이 나누어 살았고, 제2존자는 자기 권속 5백 아라한과 더불어 북방가십미리국(北方迦濕彌羅國)에 많이 나누어 살았고, 제3존자는 자기 권속 6백 아라한과 더불어 동승신주(東勝神洲)에서 많이 나누어 살았고, 제4존자는 자기 권속 7백 아라한과 더불어 북구로주(北俱盧洲)에서 많이 나누어 살았고, 제5존자는 자기 권속 8백 아라한과 더불어 남섬부주(南瞻部洲)에 많이 나누어 살았고(後略)”」

이와 같이 16尊者가 나가 살면서 佛法을 전파한 것을 적었다. 이 중에 제6尊者 跋陀羅가 耽沒羅洲에 많이 나누어 살았다 하였으니 耽沒羅洲는 과연 어디인가 高大 民族文化研究所에서 刊行한 <韓國古地名辭典>에 의하면 耽羅·食羅·耽半羅·耽沒羅·耽牟羅·儋羅·度羅 등은 모두 제주의 古名이라 하였다.

7.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1918년에 간행 위 문헌 중 耽沒羅洲尊者道場條에

「法主記에 이르기를 16羅漢이 각각 主處가 있었는데 여섯번째 발타라존자는 梵語로는 跋陀羅, 중국말로 好賢인데 이 尊者가 9백 아라한과 더불어 탐몰라주에서 많이 나누어 살았다고 하였다. 서로 전하기를 탐몰라주는 곧 탐라를 말한 것으로 지금의 濟州이다. 제주 섬 중에 한 座山이 있는데 이를 漢拏라 말하고, 산 정상에는 白鹿潭이 있는데 깊이는 밑이 없으니 곧 오랜 옛날의 분화구이다. 대개 長白山 정상에 天地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라산은 남쪽 깊숙히 바다에 임하여 한 맑은 못이 있고 白石이 평평하게 깔리고 紅花가 찬란히 비추니 참으로 별천지가 있는 것이다. (중략)

동국여지승람을 살펴건대 제주 尊者庵은 한라산 西嶺에 있는데 그 洞에는 僧이 行道하는 모양의 돌이 있으므로 俗傳하기를 修行洞이라 운운하였는데 尊者庵은 곧 跋陀羅尊者의 이름에서 온 것이라함은 그럴듯하다. 그 이른바 5백장군석 역시 5백라한석이 訛稱된 것이라함도 그럴듯하다. 세상에 전하기를 탐라는 곧 三聖이 入寂한 땅이라 운운하였는데 옛날 普雨大師 및 喚醒標師가 모두 이곳에 유배되었는데 역시 모두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이미 三聖은 중험하였다고 하였다.」

이상은 尊者庵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다. 제주에는 예로부터 전하는 말에 당(神堂) 5백, 절(寺刹) 5백이라 하였는데 당 5백은 巫俗에서 유래된 것 같으나 절 5백은 대장경 法主記에서 跋陀羅尊者의 眷屬이 많이 나누어 살았다는 대목에서 비로소 수궁이 된다. 또 冲庵記에 尊者庵은 三姓의 초에 된 것이라 하였으니 耽羅國시대에는 佛教가 성행하였으니 절 5백이란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東國輿地勝覽에도 尊者庵외에 月溪寺·木精寺·妙連寺·文殊庵·海輪寺·萬壽

寺 · 江臨寺 · 寶門寺 · 近川庵 · 小林寺 · 觀音寺 · 安心寺 · 郭支寺 · 元堂寺 · 頓水庵 · 靈川寺 · 成佛庵 · 法華寺 등 많은 절이 도내 일원에 걸쳐 산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고구려는 372년(小獸林王 2) 前奏에서 전래되었고, 백제는 384년(枕流王 1) 淸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교과서 등에 기록되고 있지만 이보다 앞서 탐라국이나 가야국에는 불교가 전래되고 있었다는게 중론이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한국 불교의 기원도 재정립할 필요를 느낀다.

橋 在咸德浦長一百一十步橋北海岸壁立高峻

佛宇 **尊者庵** 在漢擊山西嶺其洞有石月溪寺如僧行遺狀傳修有洞

水精寺 在都近川西岸○李齊賢解歌詩在都近川西岸○李齊賢解歌詩

妙蓮寺 荒天氣喜頻陰與夕新晴洗客心寺古事妙蓮寺

文殊庵 在州西南○一名西寶福在萬閣斜影沉沉竹屋深賞到夜闌清入思不禁顛側動

海輪寺 在州西○一名西寶福在萬閣斜影沉沉竹屋深賞到夜闌清入思不禁顛側動

壽寺 一名東寶福在江臨寺在州東○晉門寺在巨口里岳北○僧慧日詩寺僻依荒微泉甘得夢

東寶福 在江臨寺在州東○晉門寺在巨口里岳北○僧慧日詩寺僻依荒微泉甘得夢

逝川庵 在朝貢川上○僧慧日詩速騰叫長空

觀音寺 在朝天名以期迴傳如能高著眼波波皆不還

小林寺 在州

文廟 在州南漢

廣壤堂 在州南漢

社稷壇 在州南漢

胡宗廟 在州南漢

而北風 在州南漢

帶以祭本朝今本邑致祭○按胡宗朝來仕高麗官至起居舍人而卒則來歷溺舟之說恐不可信

遮歸祠 在州西

城外祠 在州西

楚春祠 在州東

城隍祠 在州南十六

瑞山 在州南十六

毛興穴 在州南二里

七星圖 在州

大村 在州

高齡田 在州東一里

東亞小峽 在州東一里

古土城 在州西南三十六

古城 在州西

古長城 在州西

波頭古城 在州西

頭里 在州西

[illegible]

佛字是衡中祥並為徽羅而係

禁刻	頭夜	動處	微佳	吟入	側思	不	文殊庵	二十	七	里	海	輪	一	姿	福在
月氣	七喜	頻陰	今此	迴夕	臨新	渺曉	二烟	竹	凋	劇	影	沉	榮	竹	深
奇詩	裡亦	近發	深頽	和制	此水	古防	妙蓮	寺悅	慧	日	西	南	二	十	里
聒沈	句吟	癖仍	難信	徐宿	月溪	寺在	南麓	水精	寺在	李朝	貞川	西	學	鮮	歌
海山	三	金	藤陰	風	月	九	韓	鎮	過	少	奇	荒	麗	外	洞
一	李	慶	建	詩	尊	者	知	名	移	西	麗	外	洞	有	石
尊者	庵	傳	修	行	沃	今	山	庵	其	洞	有	石	如	行	道

如長嶺圓岳重抱並起紅雲綠霞噴噴白日不遠於百步之外
而陸步碧海青波接藍堆雲紫鳳蒼鵬陂空飛騰未近於一
之內而三飡當其兩齋雲鎖天如新鏡及夫風旨兩聲乾滅盡
洞視萬里天外海邦昭然咫尺辨大塊混沌乃列如鵝鵲之
夕馮翼之搜去矣方外之有金矢不列子禦寇書圖
於之山也東之趣味則盡矣今無居僧但有樊數間亦各有殊
鋪張之言而趣味則盡矣今無居僧但有樊數間亦各有殊
賄小乘所謂行仙趣步奇觀者真記實也西望天際有白
色如沙汀乃滌海錄所稱白海也以向襄之艱能脫過萬里之
海程其亦幸也傍有老吏嘗自安南漂還手持過海日記向余
膝行而前曰彼為馬島也江戶也玉球島也一岐島也女人國
也琉球國也安南國也暹羅國也占城也滿刺加也寧波府也
蘇杭州也揚州也山東也青州也
李日記中備載風土物產蓋一

而即今島中有佛無僧尼寺剎亦皆撤罷中城東有萬壽寺西有
海輪寺各禮佛而巳草屋數間不可長即毀兩寺移建公廨大靜
名曰相聚者菴只余漸不無居僧但於別星上廨時宿
境惟一尊者菴只余漸不無居僧但於別星上廨時宿
息像已舉一島五百里幅員今無寺剎尚溪祀乃州記山俗尚溪祀
佛像僧尼亦無念佛者可謂負今道之尼尚溪祀乃州記山俗尚溪祀
丘陵墳行木石俱設神祀每歲閭閻官立以下現共擎神蠹作
儼戲錚鼓旗幟槍劍前導出金寧等處帛作躍馬戲以迎神以祭
以祭之月者得二月初三日馬頭金歸寧等處帛作躍馬戲以迎神以祭
之居涯月者得二月初三日馬頭金歸寧等處帛作躍馬戲以迎神以祭
登日乃罷謂之燃燈是月禁乘舡又於春秋男女群聚於廣壤
堂遮歸堂具酒食祭神又地多蛇虺呼蛇若見灰色歸風土錄曰
之神禁不殺男巫甚謂多歸人方音甚訛如蛇若見灰色歸風土錄曰
酷曰祀鬼男巫甚謂多歸人方音甚訛如蛇若見灰色歸風土錄曰
又曰祀鬼男巫甚謂多歸人方音甚訛如蛇若見灰色歸風土錄曰
聽於神疾鄰而癡服藥謂鬼好殺至凡有所禱禳疾厄淨奉福一
見則呪酒不敢馳殺南糴錄曰俗以二月為燃燈節諸傳大入唐
商人船敗漂沒者四體分解頭骨入於濟之東於燈節諸傳大入唐
於濟之西村中高內涯二月初五日為祭燃燈神每年正月二月時有
日化米村中至二月初五日為祭燃燈神每年正月二月時有

貴人賤畜之義分觀之則殘害抄倫者固為大習而妻不為
 者尤是大畜之義分觀之則殘害抄倫者固為大習而妻不為
 雀當身十九名賣同生二十著者乎年限十本成名以堂送禮備
 之邦既已現葬則所當自官優恤所以不為朝家特令常平倉以
 營慶通則已怨歸於國當自官優恤所以不為朝家特令常平倉以
 本州不穀叅酌上料以馬植倫紀而此既生下萬古所無之
 俗也其不可不嚴立禁令使不少得買賣牛骨肉何如半徵馬則
 所謂欲其入而閉禁其戶也少得買賣牛骨肉何如半徵馬則
 而民或欲其入而閉禁其戶也少得買賣牛骨肉何如半徵馬則
 其已責者又立禁條民買者歡忻鼓舞有其罪照里戲月地志每
 諭以聚歌舞分鞭作及左捕右隊戲大索則端以鞣決勝負為之
 又共是日歌舞分鞭作及左捕右隊戲大索則端以鞣決勝負為之
 復有田頭起墳地誌治喪俗不用而除畧攝田頭不以起墳間或
 捕鷄田頭起墳地誌治喪俗不用而除畧攝田頭不以起墳間或
 今則三年喪人皆行之年治喪俗不用而除畧攝田頭不以起墳間或
 出庵布二死會錄於常平地廳所謂築或有指地每年街必是耽羅
 例而田頭起無寺無僧無危誌風土基址之蓋在錄於三邑者甚多
 墳今猶古矣無寺無僧無危誌風土基址之蓋在錄於三邑者甚多

拖並起紅雲綠霧噴白日不遠於百里之
外而跬步碧海素波按藍堆雪索鳳蒼鷗散
空飛騰未近於一置之內而三殮當其雨霽
雲銷天如新鏡野馬風掃纖埃滅盡洞視萬
里天外海邦昭然如基子之散及夫風盲雨
聖乾暮坤又馮馮翼翼睢睢肝胆咫尺未辨
大塊混沌濛濛然如鵝卵之中於是塵寰之擾
擾去矣方外之玄玄矣茲乃列子禦寇嘗
圓囑之山也東方曼倩記瀛洲之北也
又云首夏之月卜得吉日差三邑越頭中一
首齋涼行祀於是庵謂之國聖齋今其後也
纔八年庵記
庵舍九間墜與壁皆以板代瓦空間之僧輩
山中土脉無粘液且多砂石不宜鑿窟宅則
必買於陸地故力所難致也中間屢經興廢
癸巳年間有康津居舊代父入散坊置此
財重修云

尊者庵

夫葺者之爲庵肇造於三姓初起之時而久
傳於三邑繼時之後又庵之面勢多竊相規
書以言其基也則圭峯磅礴而陡園翠嶺
漸低倪若鸞鳳翺翔而下躡愛觀其雄章
武之奇也寒泉源深而銚注澄淥而沓倒所
謂月德其方而不周於曠旱者崇澤之異也
地臨_{云疏至}可迺適而婉婉如左臂之欲
解其紐者青龍之勝也拖尾而行頭如右
手之將按其膝者白虎之愛也此地理之備
也以言乎其境則奇巖也怪石也雕鐫削
而疊嶂維立礙立歎立竊立如講語如偶語
如相顧追隨而行是化工之殷勤而成之歟
佳木焉異樹焉滋鬱菁卷而森森拔縮青結
攢縮偃縮若爭長若手秀若亂起舞揖而列
戛后塢之畫巖巖而植之歟神仙應真常若
逍遙逡巡於其間怪禽奇獸四時翺翔于
於其中此則景縣之具也至如長嶺圓岳重

尊者庵址





① 尊者庵址 발굴전 상태 (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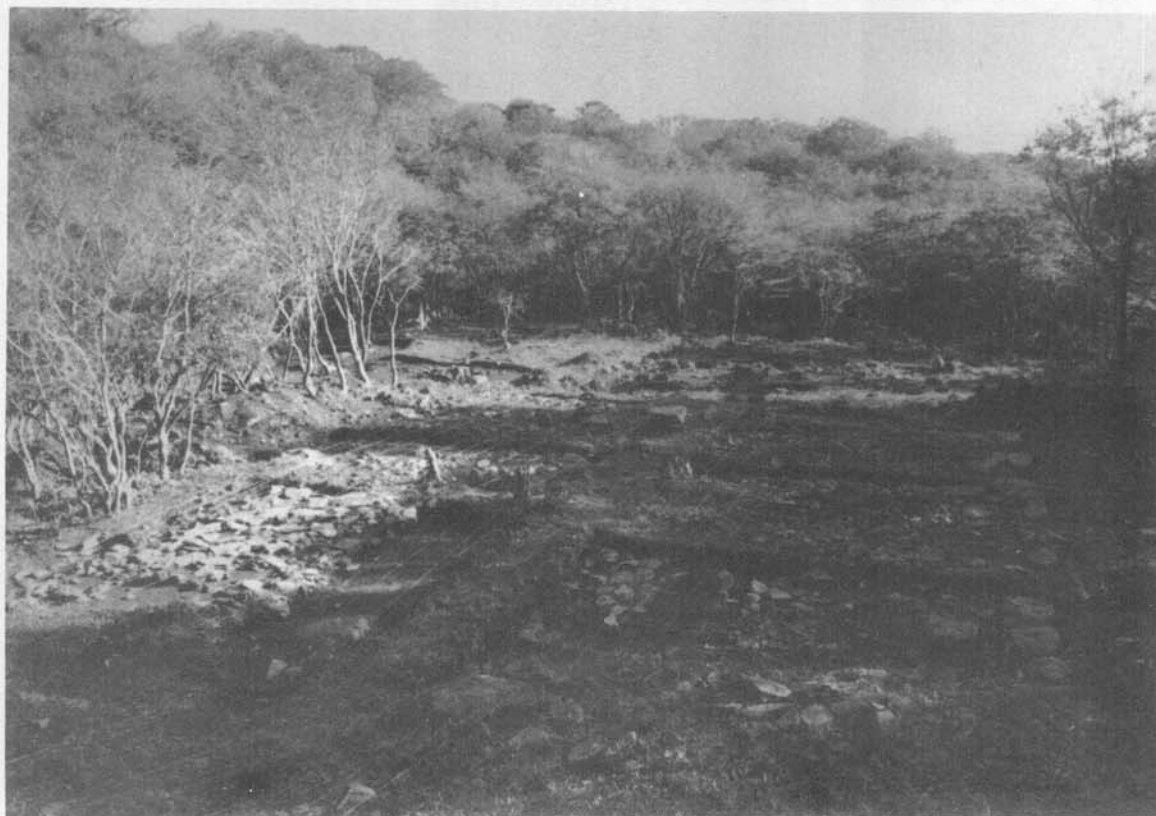


② 발굴상태 (남에서)

圖版 2



①



②

① 유적전경 (남동에서) ② 유적전경 (북에서)



① 건물지 (1) 기단석렬 노출상태 (남동에서)



② 건물지 (1) 기단석렬 노출상태 (동에서)

圖版 4



① 건물지(1) 기반석렬 노출상태 (남에서)



② 건물지(1) 기반석렬 노출상태 (서에서)



① 건물지 (1) 기단석렬 노출상태 (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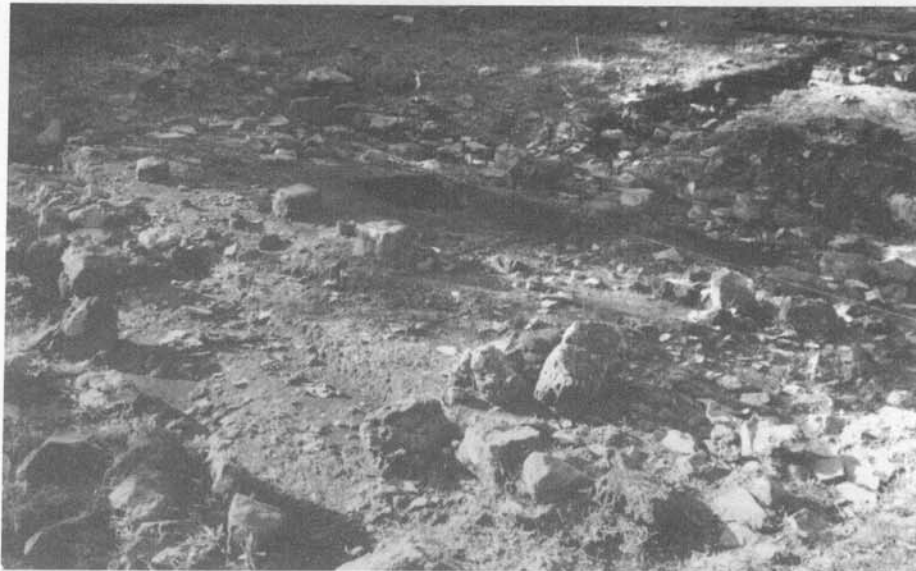
② 건물지 (1) 기단석렬 노출상태 (서에서)



圖版 6



① 건물지 (2) 노출상태
(원경, 남에서)



② 건물지 (2) 노출상태
(근경, 동에서)



③ 건물지 (2) 북편 노출상태 (서에서)



④ 건물지 (2) 내부 테스트뿔트 노출상태

圖版 7



①



②



③

① 건물지 (2) 주초석 노출상태 (동에서)
③ 건물지 (2) 주초석 노출상태 (서에서)

② 건물지 (2) 내부 노출상태 (서에서)

圖版 8



① 건물지 (2) 기단석렬 노출상태 (서에서)



② 건물지 (2) 주춧돌 노출상태 (서에서)

① 건물지 (2) 내부
적석시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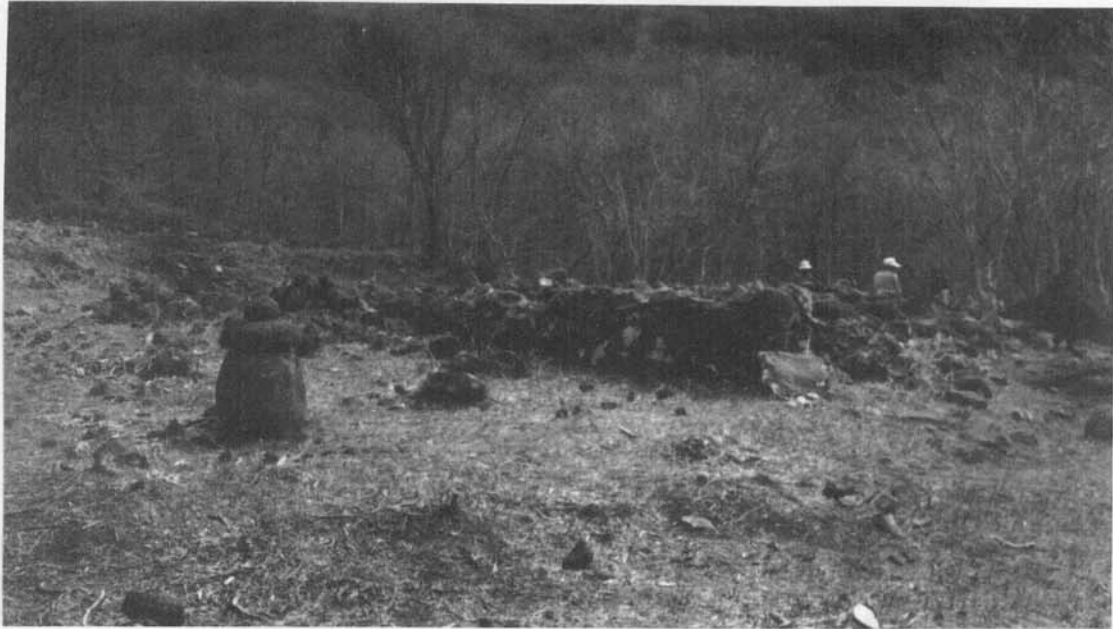
② 건물지 (2) 내부
적석시설 (2)



③ 건물지 (2) 내부
적석시설내
유물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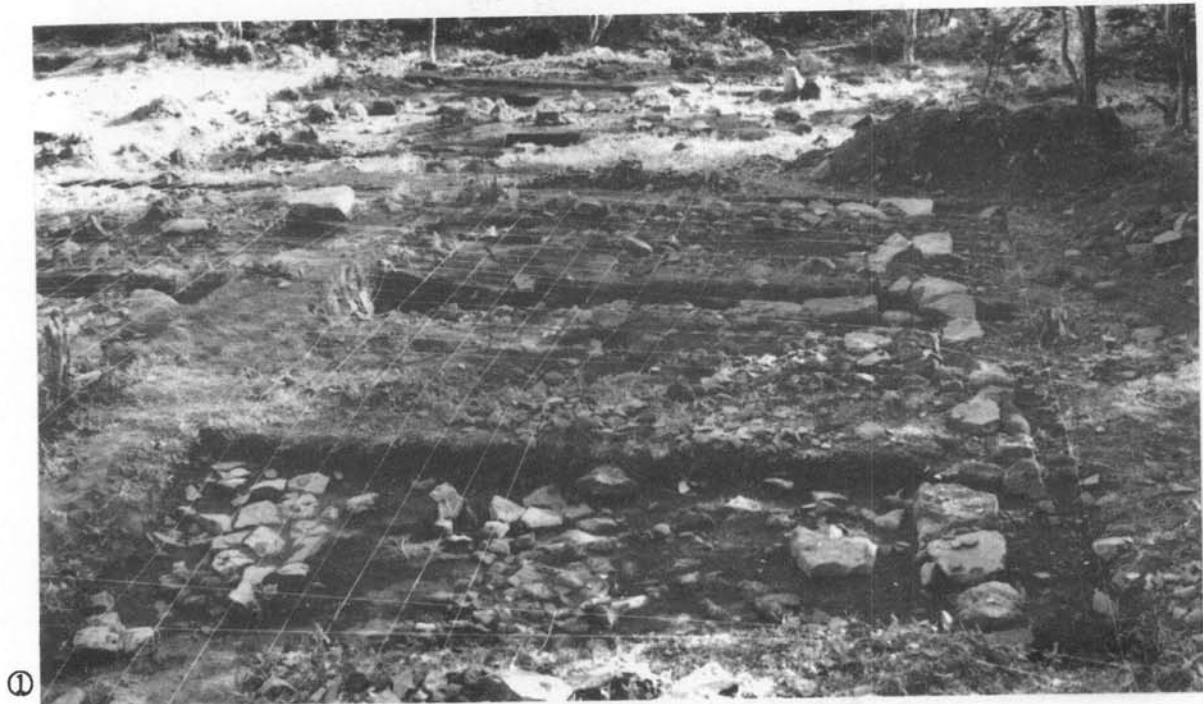
圖版 10



① 건물지 (3) 발굴전상태 (묘역담, 원경)



② 건물지 (3) 발굴전상태



① 제2단(축대)내 건물지(3) 노출상태(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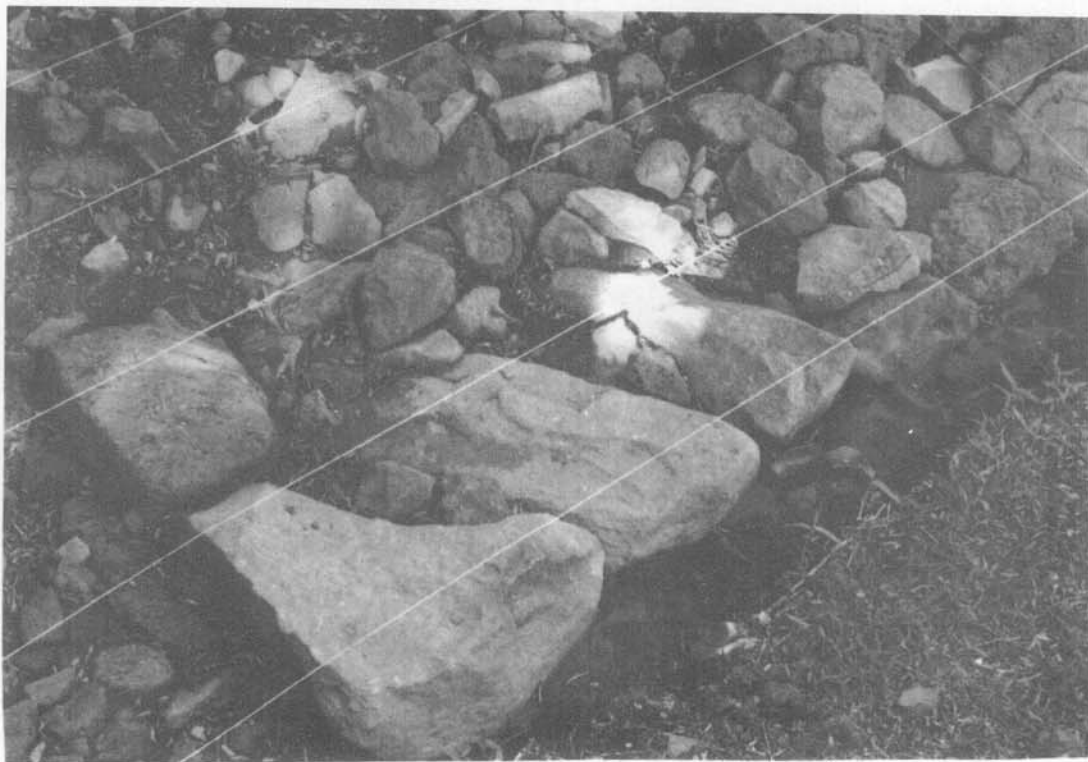


② 건물지(3) 기단석렬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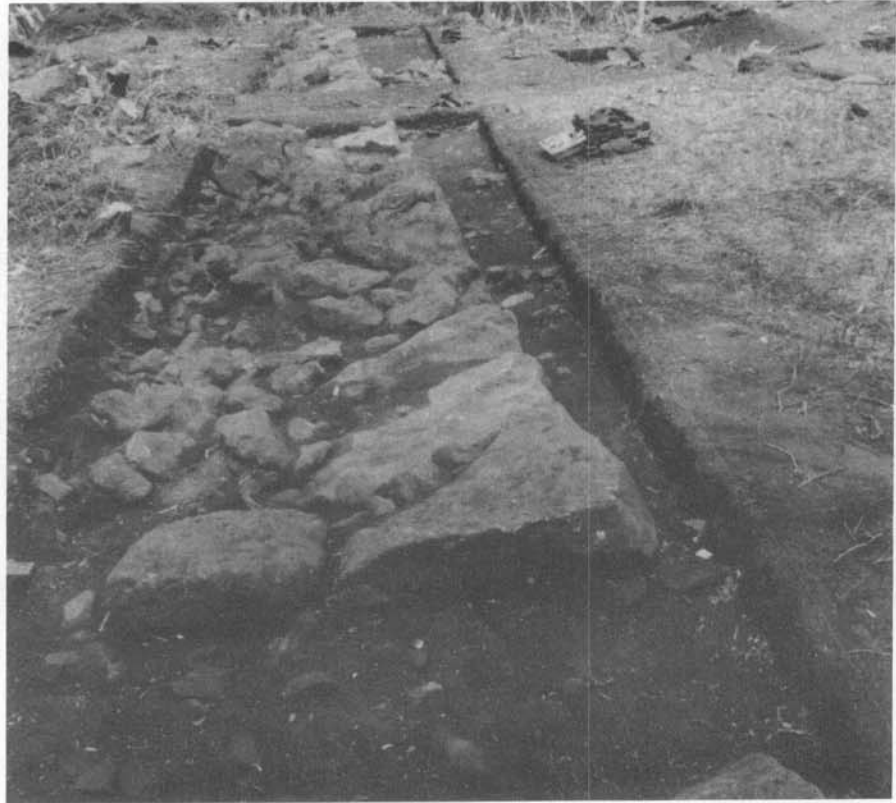
圖版 12



① 건물지 (3) 기단석렬 노출상태



② 기단석렬과 내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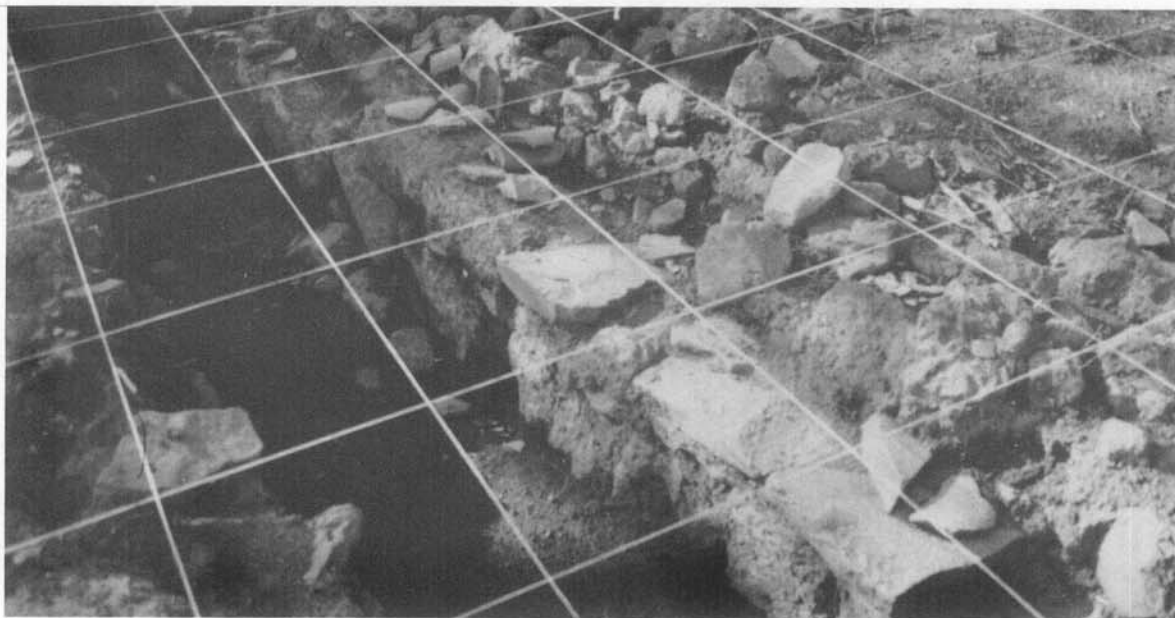


① 건물지(3) 기단석렬 노출상태(동에서)

② 건물지(3) 서편 테스트핏트내부 적석상태



圖版 14



①



②

① 건물지 (4) 기단석렬 노출상태 (남동에서) ② 건물지 (4) 기단석렬 노출상태 (남에서)



① 건물지 (4) 남쪽 기단석렬 축조상태



② 건물지 (4) 기단석렬의 상면 상태



① 건물지(4) 내부 및
중복유구 조사광경



② 건물지(4) 동쪽 측면석렬과 계단시설(2) (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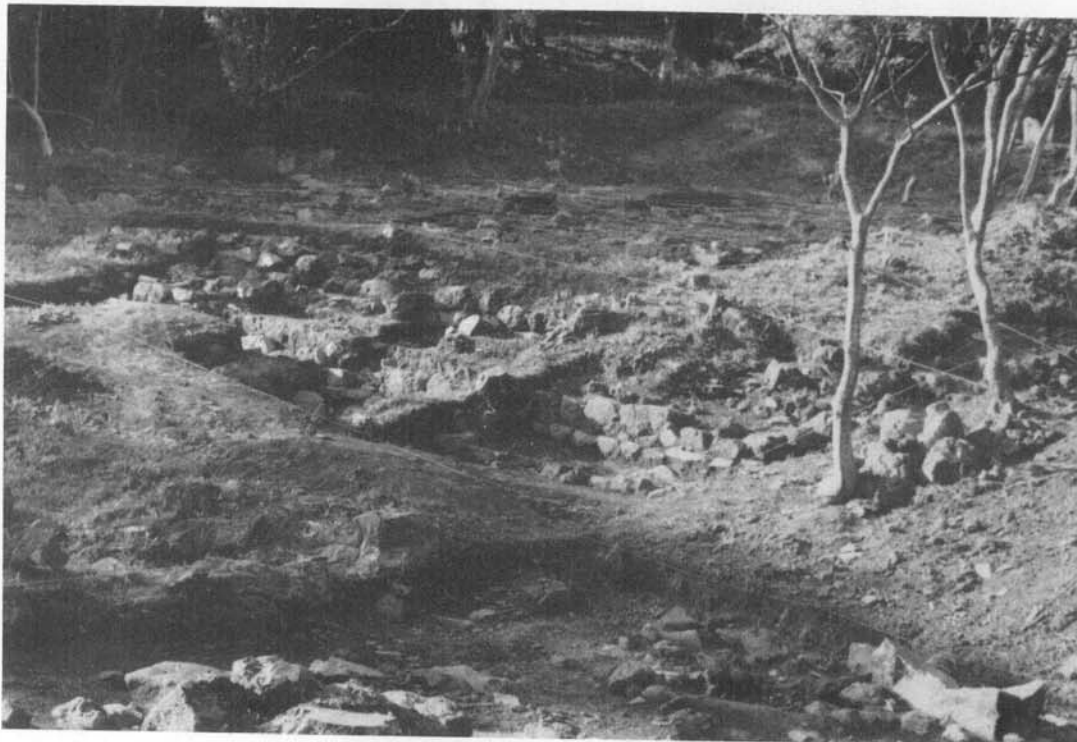


① 건물지(5) 기단석렬 일부



② 건물지(4)와 건물지(5)의 기단석렬 중복상태

圖版 18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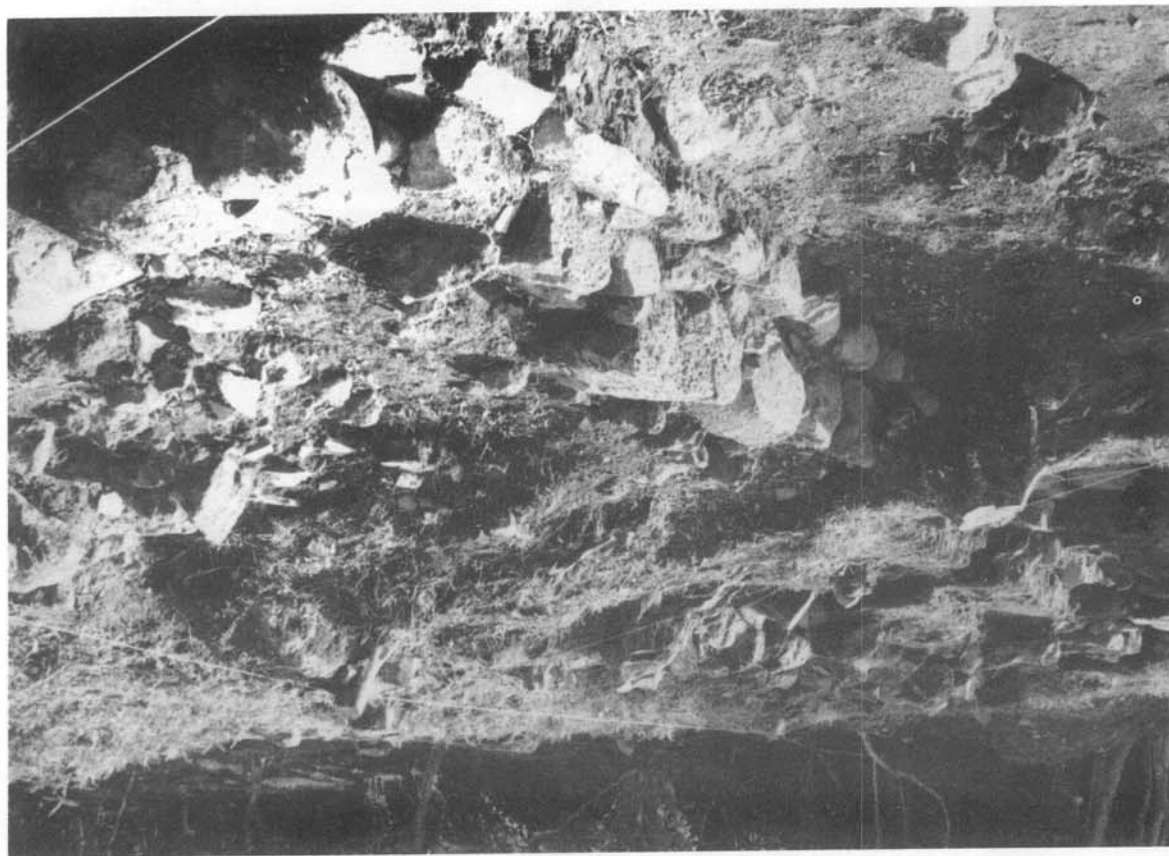


②

① 제2단(축대) 노출상태 (원경, 남동에서)

② 제2단(축대)와 계단시설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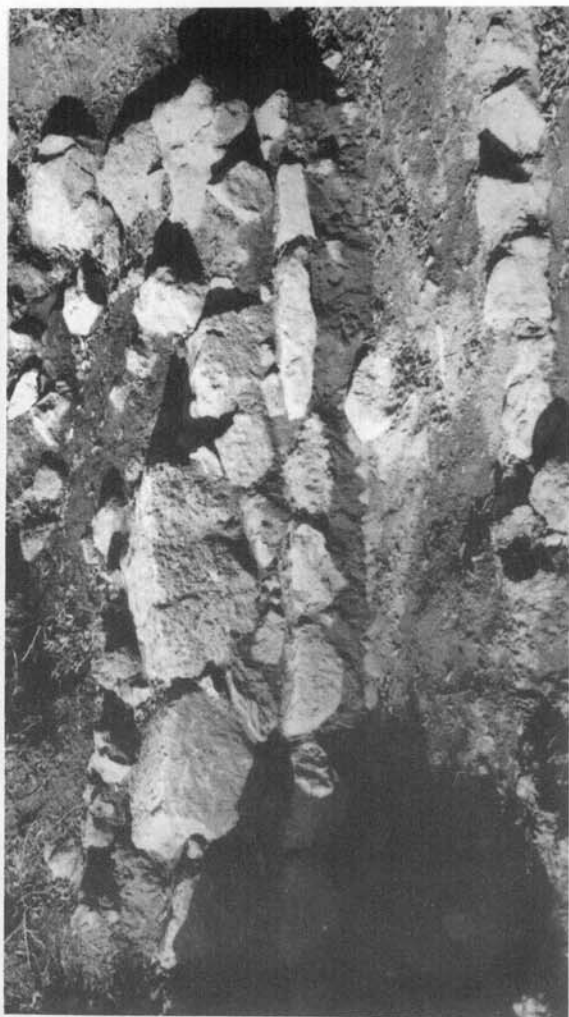
① 제2단(축대) 축조상태
(남동에서)



② 제2단(축대)와 주변유구 노출상태 (남에서)



② 제2단 (축대)
축조상태 (2)



③ 제2단 (축대) 축조상태 (3)



① 제2단 (축대) 축조상태 (1)

① 계단시설 (1) 노출상태
(남동에서)



② 계단시설 (1) 축조상태
세부



圖版 22



① 계단시설 (1)의 아랫부분
평면토층



② 계단시설 (1)의 1단과 디딤돌



① 계단시설 (3) 노출상태



② 歩道 敷石施設 노출상태

圖版 24



① 비각지 발굴전 상태 (현대 제사장소와 제단, 남에서)



② 비각지 발굴과정 (數石遺構)



①



②

① 비각지 발굴과정 (敷石遺構 노출상태)
② 비각지 발굴과정 (敷石遺構 세부)

圖版 26



①



②

- ① 비각지 노출상태 (위에서)
② 비각지 노출상태 (동에서)



① 비각지 정면 주춧돌
배치상태 (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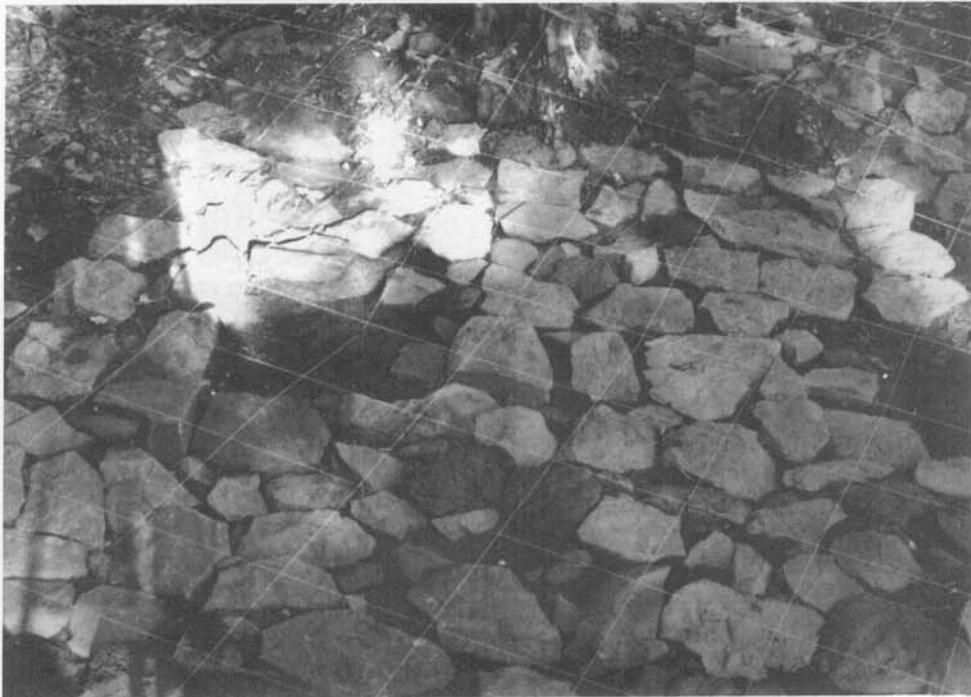


② 비각지 노출상태

圖版 28



① 비각지내부 부석시설 노출상태



② 부석시설내부 碑下部자리

① 건물지(3) 동북편
敷石施設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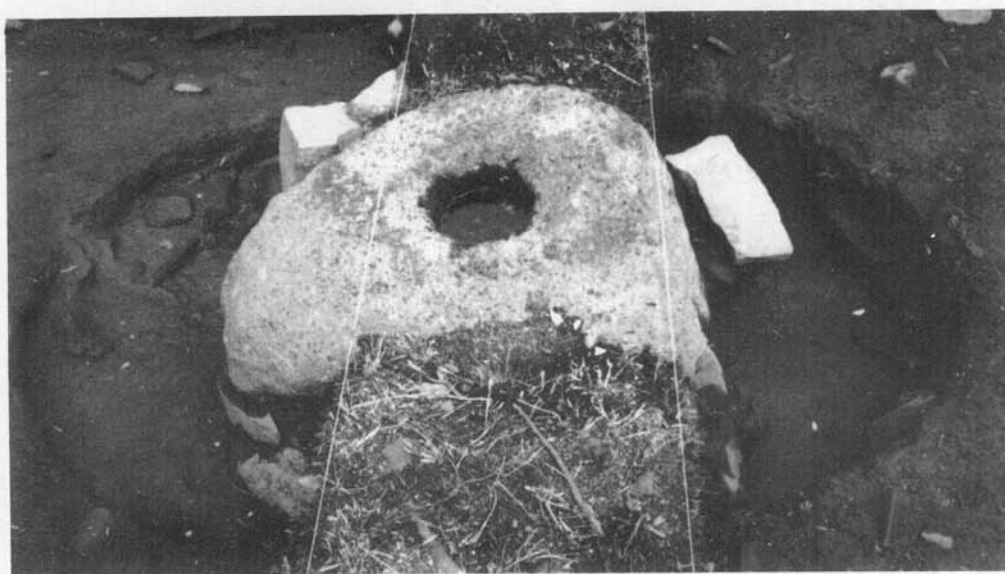


② 敷石施設
노출상태





① 남북트렌치 (1), (2) 조사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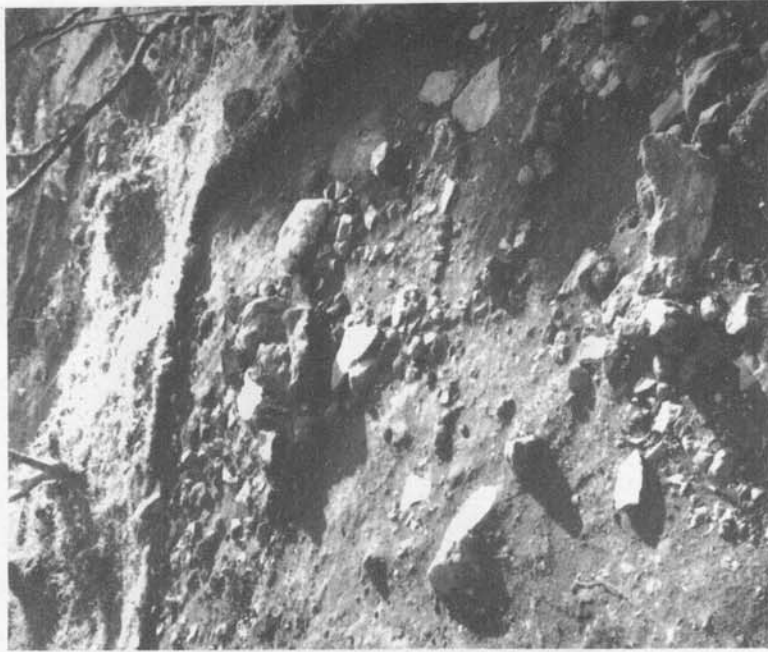
② 추정柱孔石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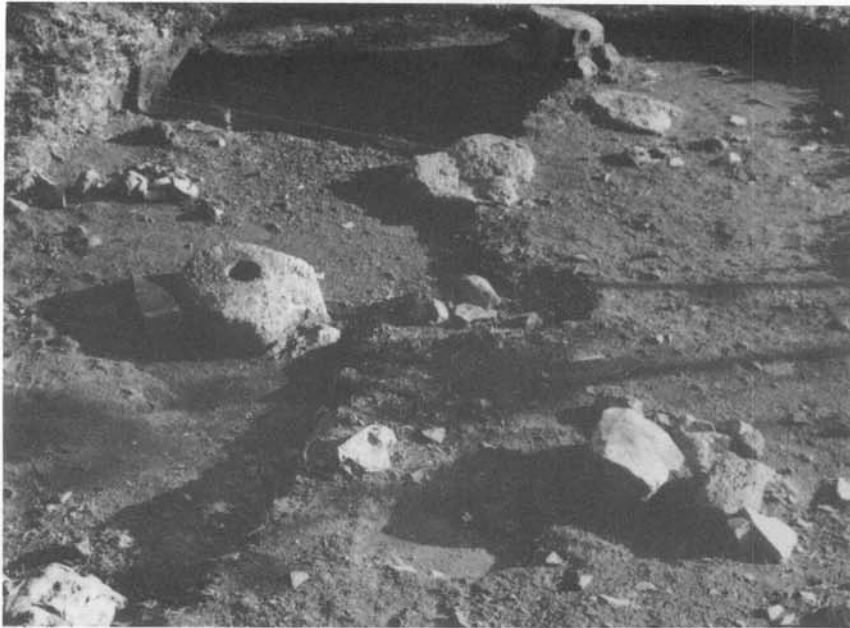
① 추정柱孔石하부 축조상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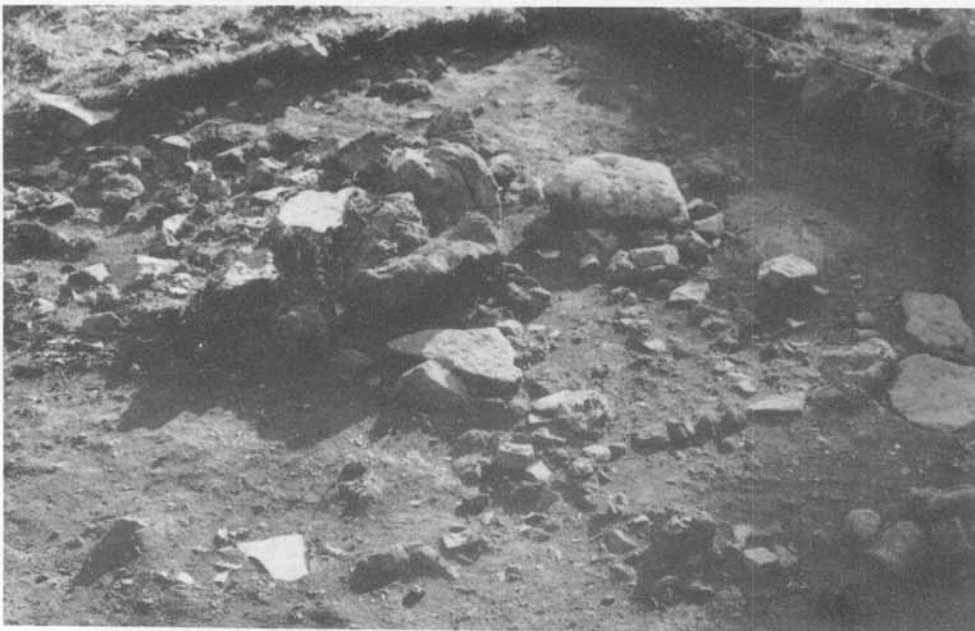
② 추정柱孔石하부 축조상태 (2)



① 남북트렌치(1)-(3) 부분 확장 조사
-中心柱孔石 주변유구와 적석시설, 주춧돌군 노출상태



①



②

- ① 추정柱孔石 주변유구 노출상태
② 주춧돌군과 적석시설 노출상태



① 남북트렌치 (1) 내부
층위상태 (1)



② 남북트렌치 (1) 내부
층위상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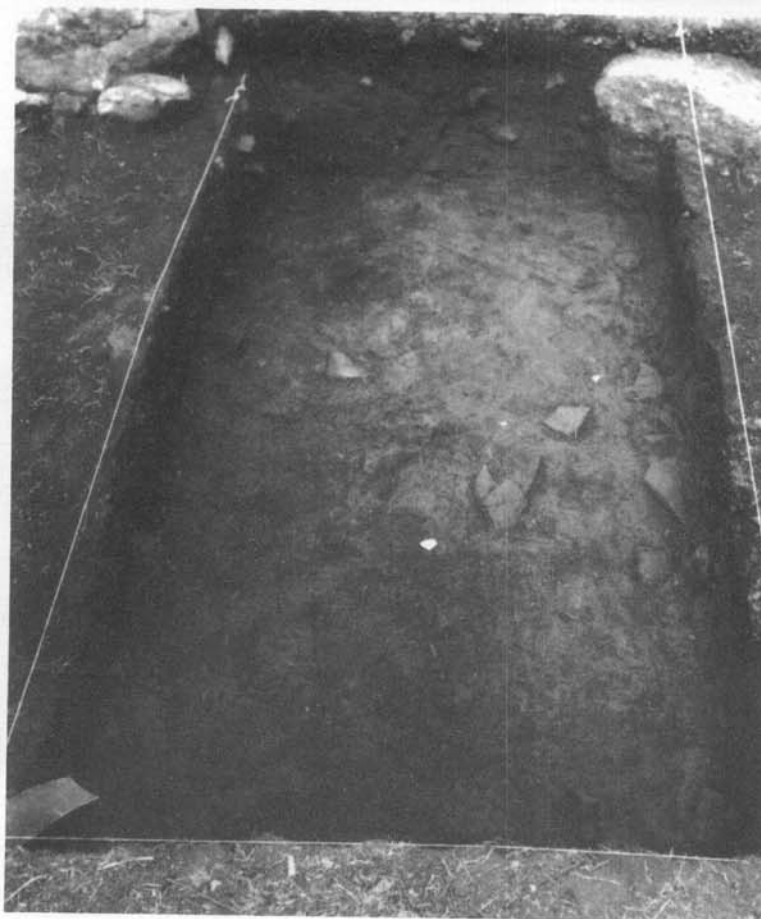


③ 남북트렌치 (1) 내부
층위상태 (3)

① 남북트렌치 (3) 내부 상태



② 남북트렌치 (3) 내부 층위상태





① 제4단(축대)내 부도지 원경 (북서에서)



② 부도지 근경



① 石鍾形浮屠의 身部



釜石과 中臺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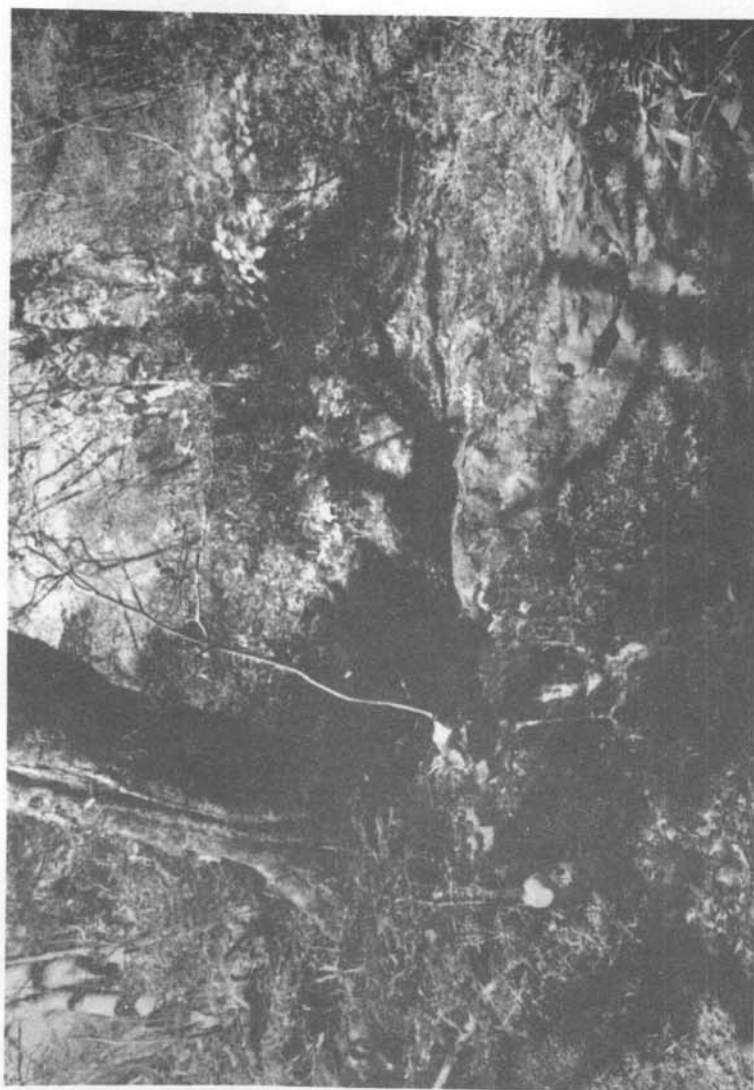


①



②

- ① 동서트렌치 (1) 내부 제1단 적석시설 노출상태
② 유적 동남편의 小川과 貯水施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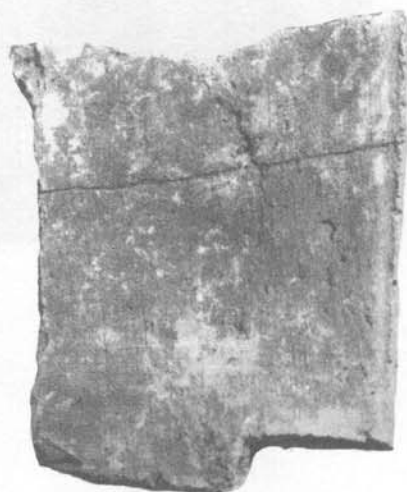
① 小川町 小澤布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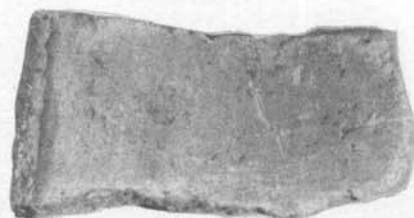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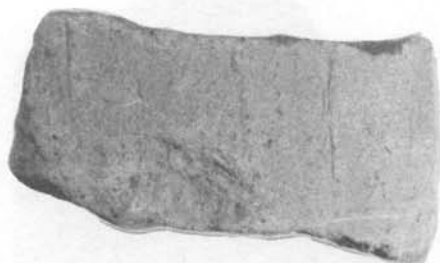


③

尊者庵址 출토 명문암기와(1)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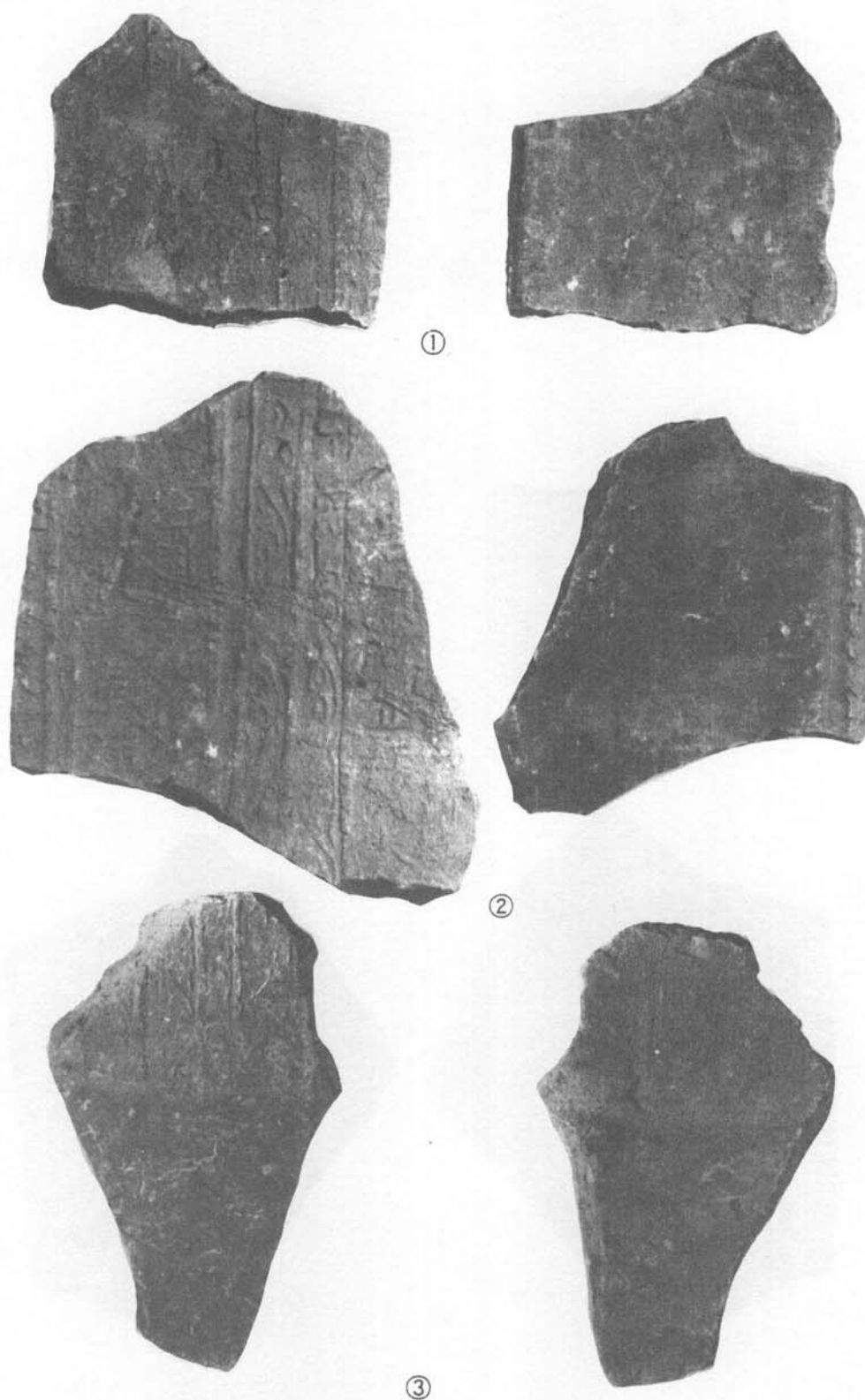
②



③

尊者庵址 출토 명문암기와(2)

圖版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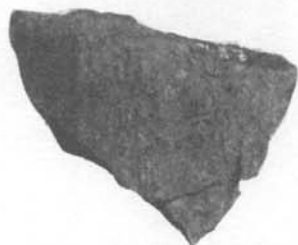
尊者庵址 출토 명문암기와(3)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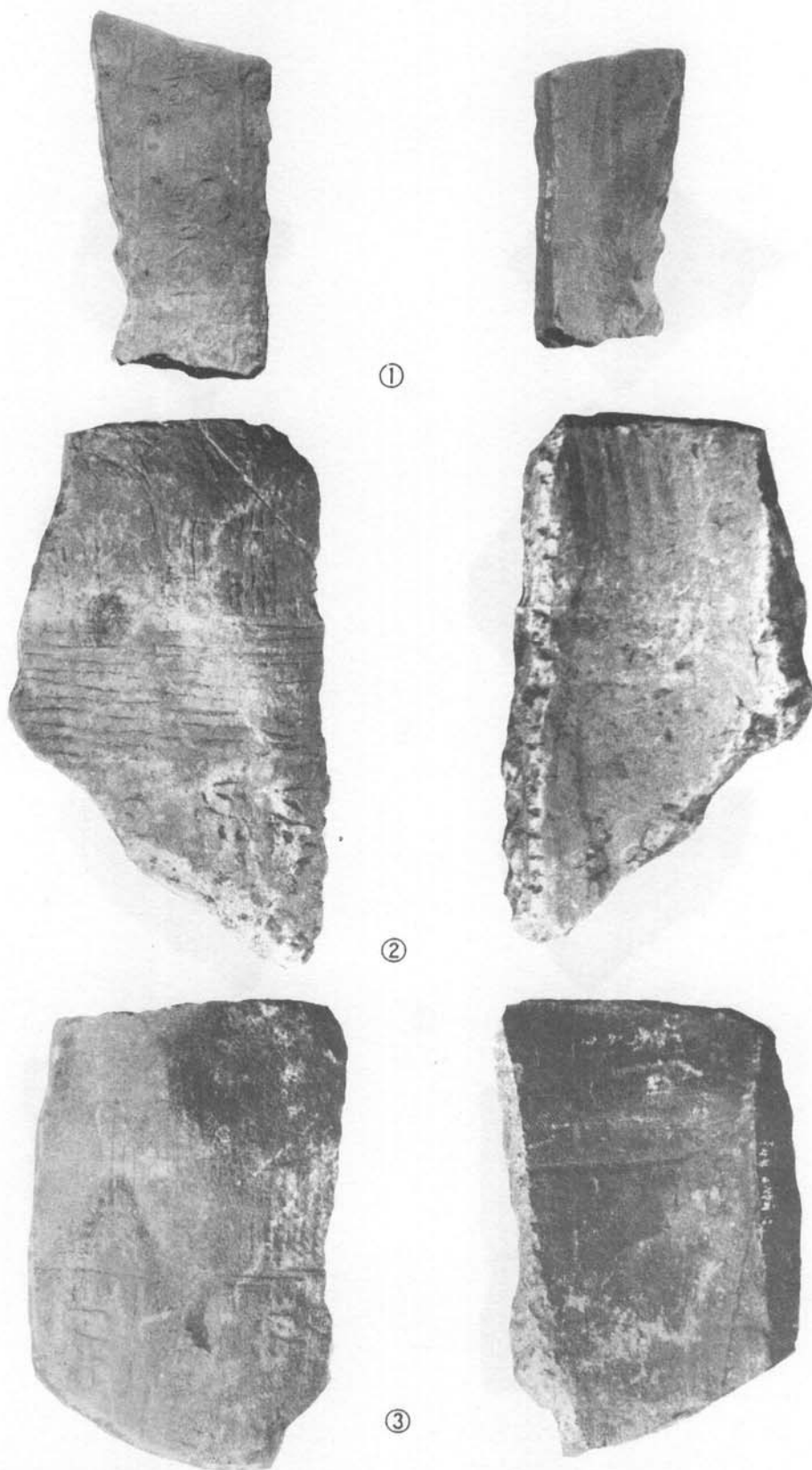
③



④

尊者庵址 출토 숫기와(1)

圖版 44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2)



①



②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3)

圖版 46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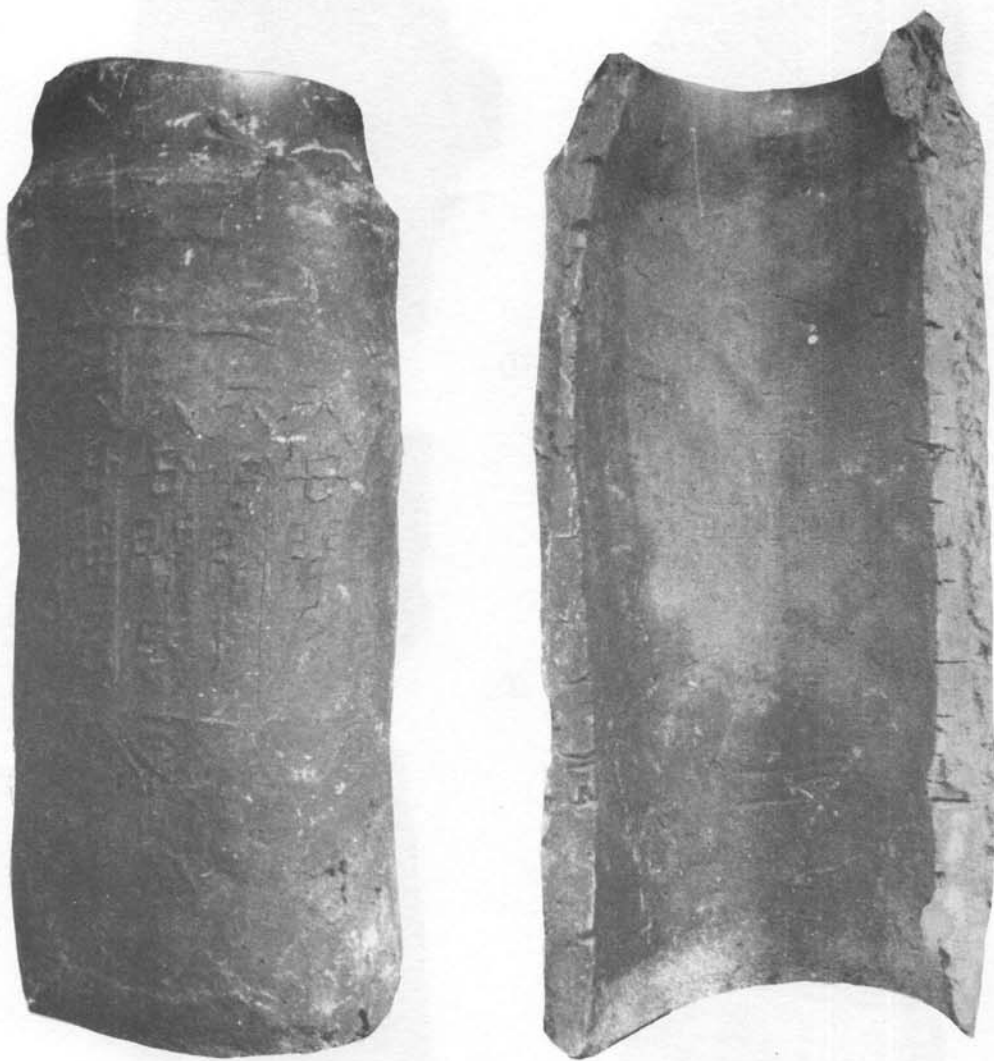


②



③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4)



①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5)



①



②



③

尊者庵址 출토 명문숫기와(6)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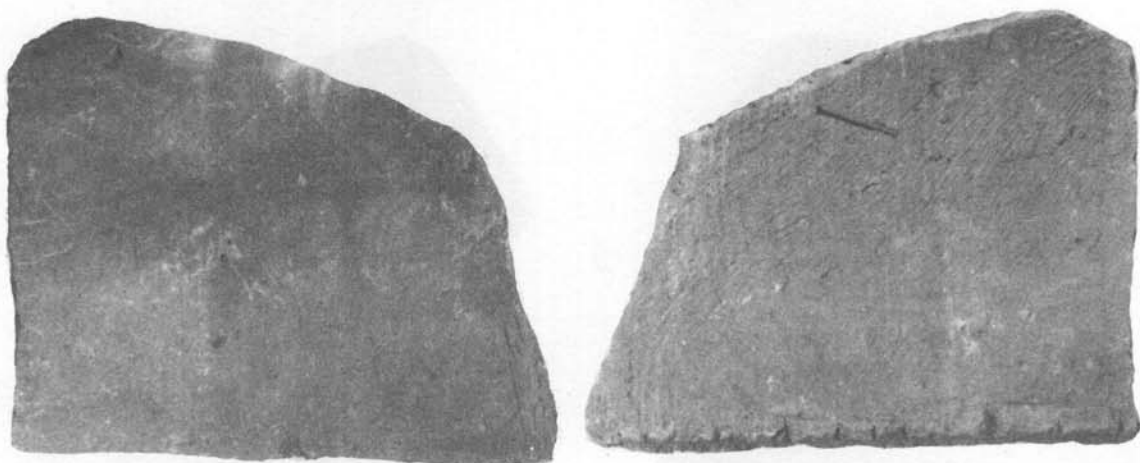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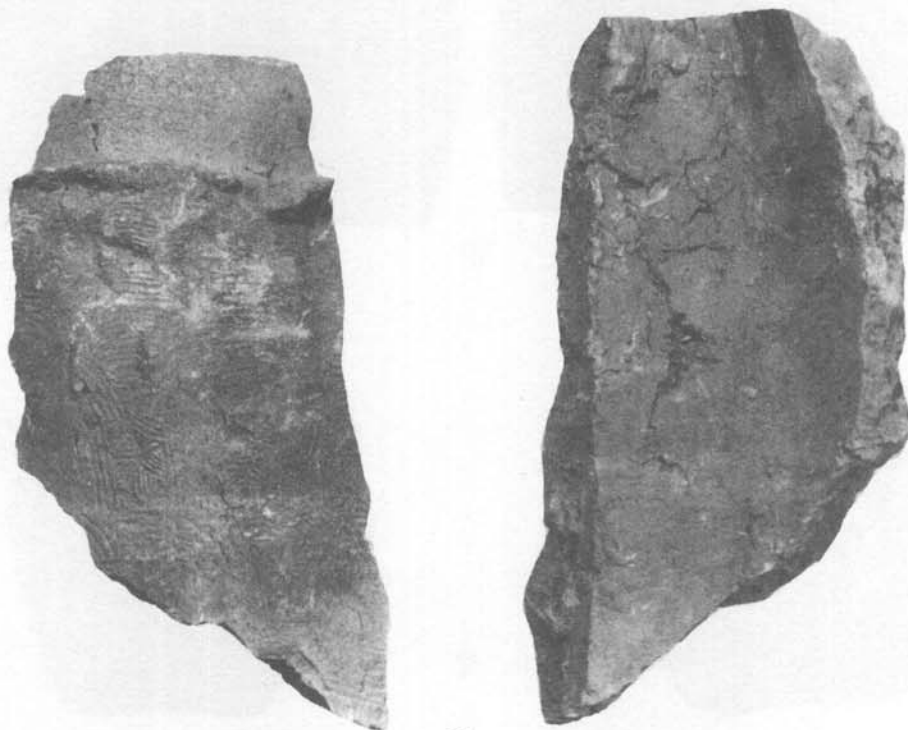
③



尊者庵址 출토 암기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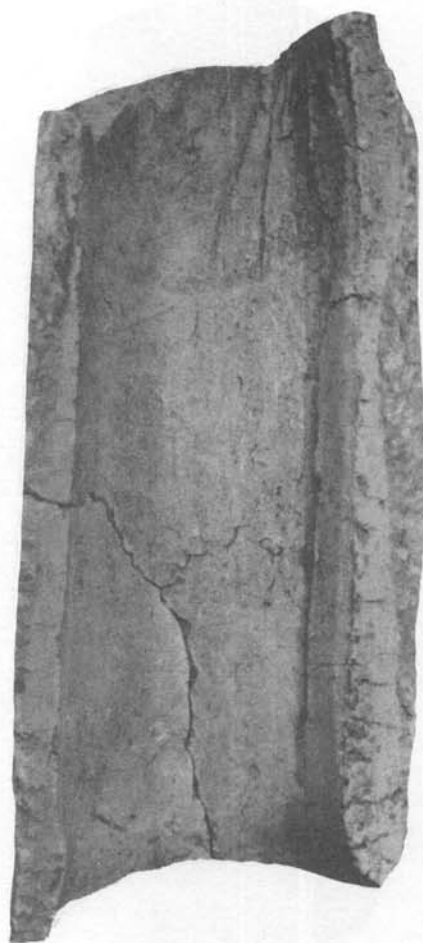


①



②

尊者庵址 출토 암기와(2)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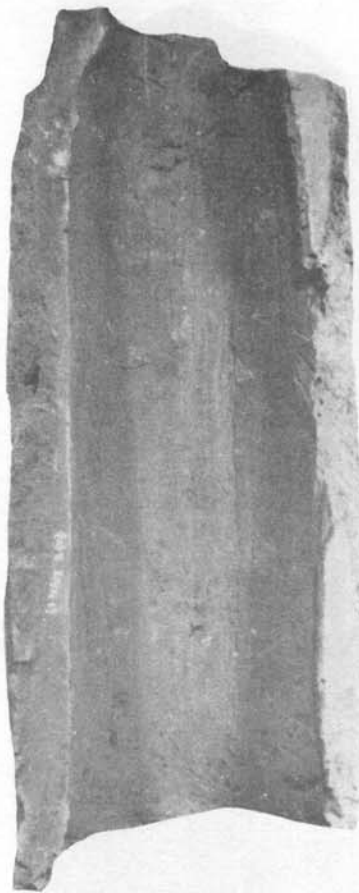


②

尊者庵址 출토 숫기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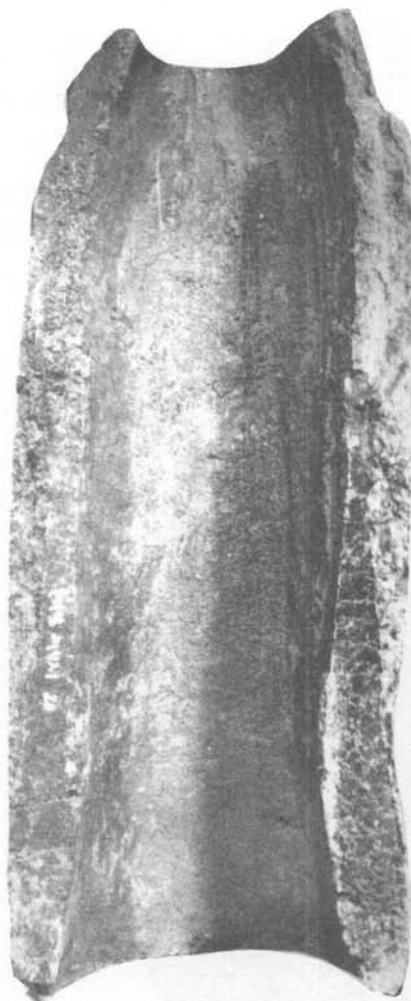
①



②



尊者庵址 출토 솥기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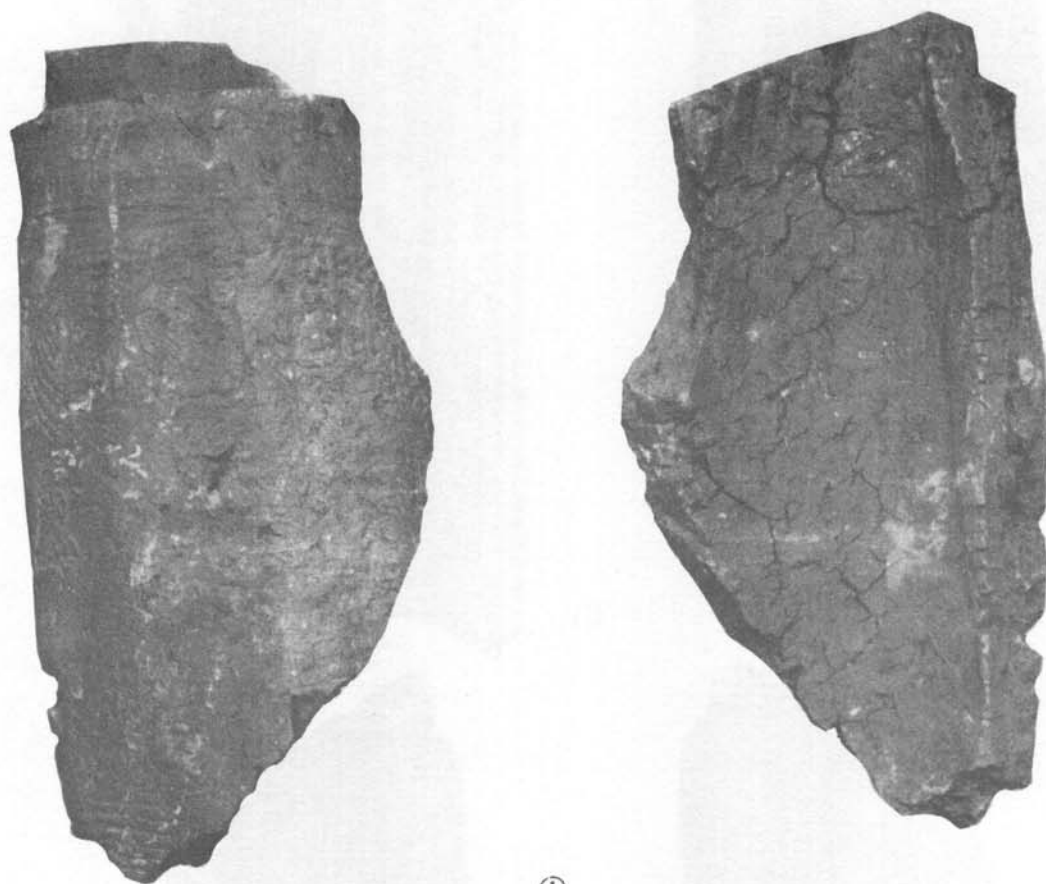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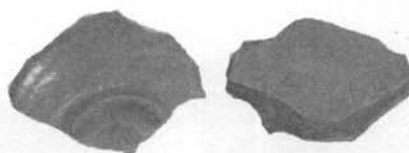
尊者庵址 출토 숫기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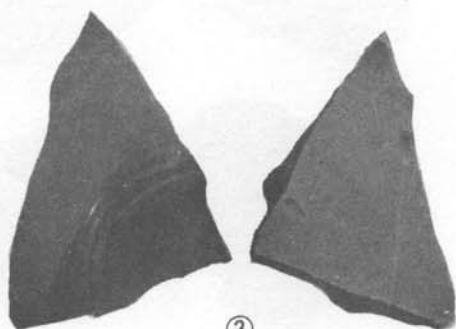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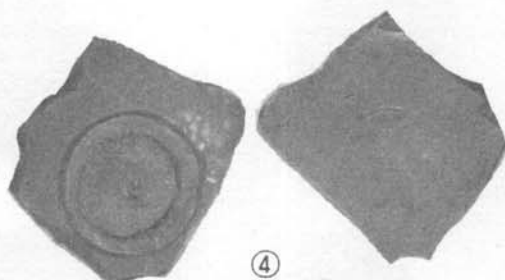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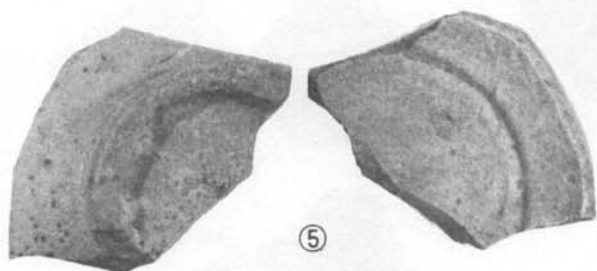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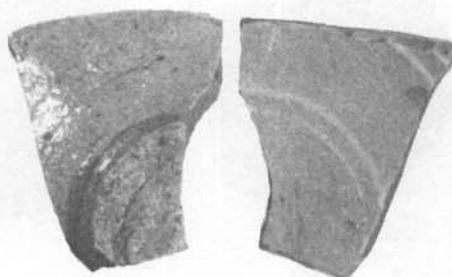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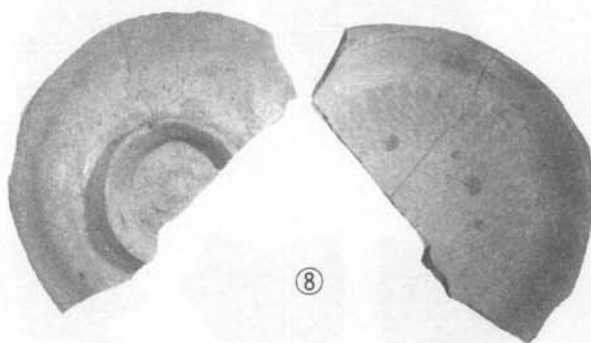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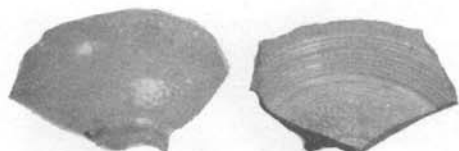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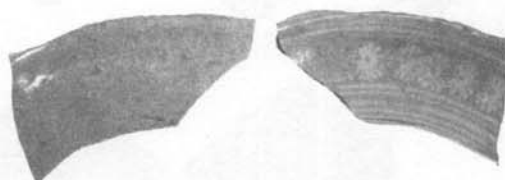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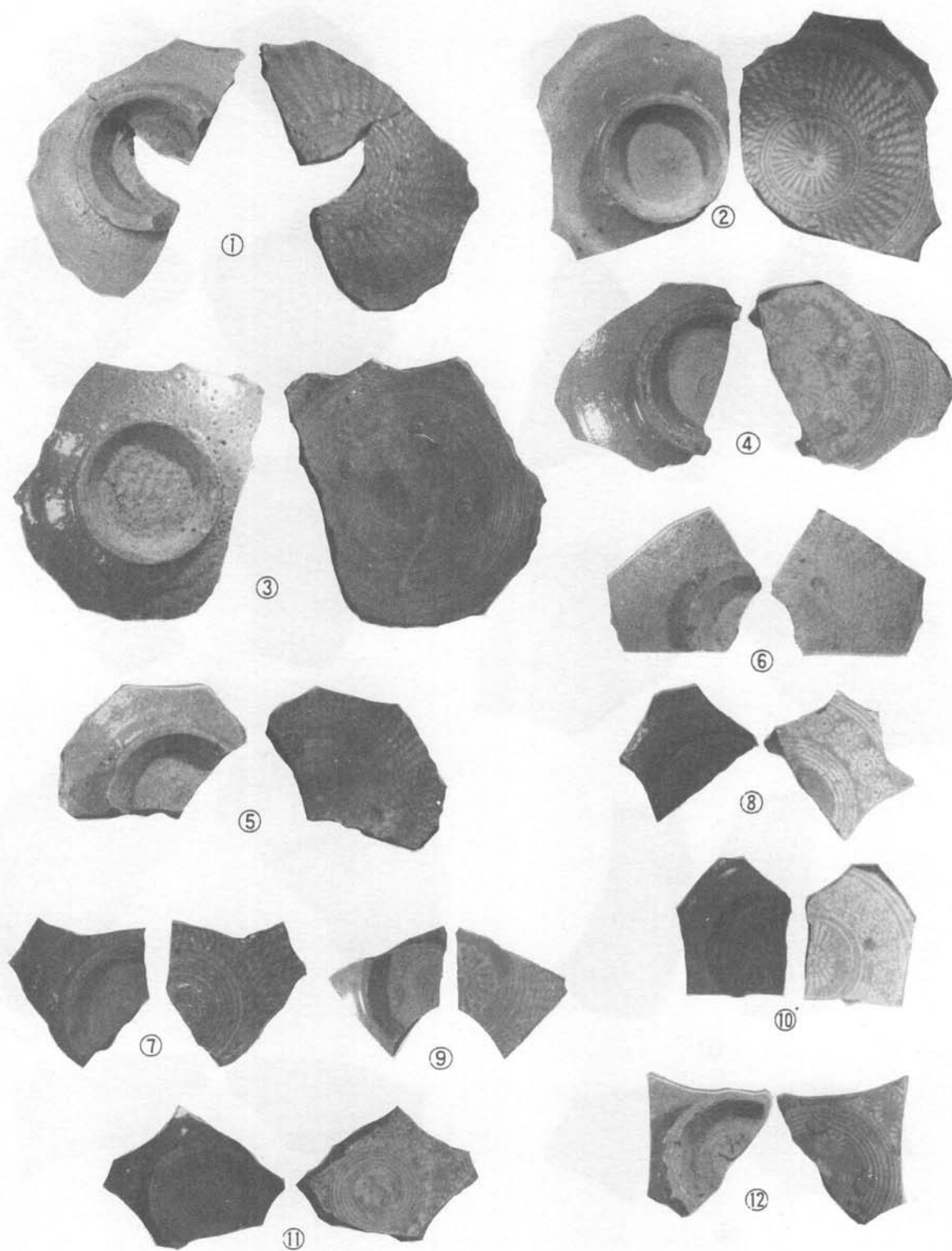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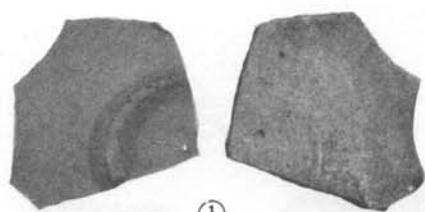


⑩

尊者庵址 출토 고려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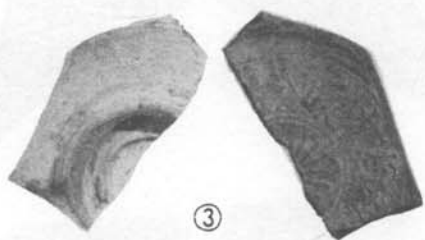
尊者庵址 출토 인화분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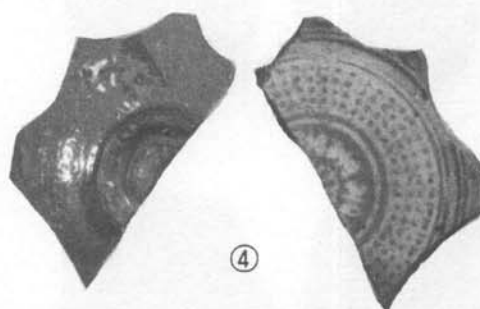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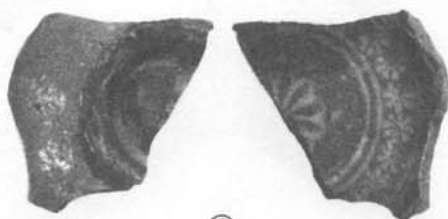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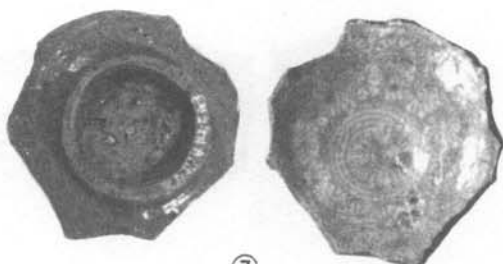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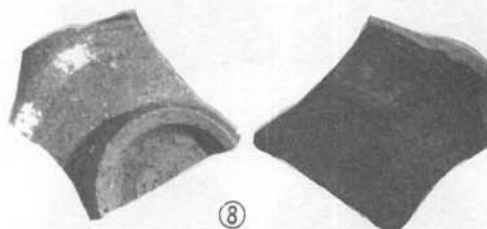
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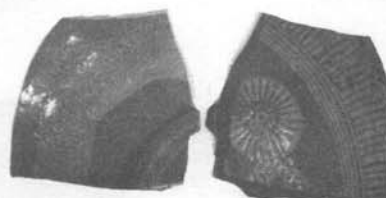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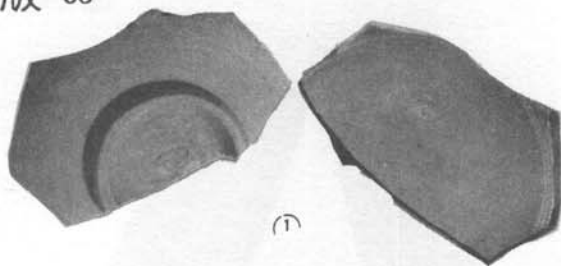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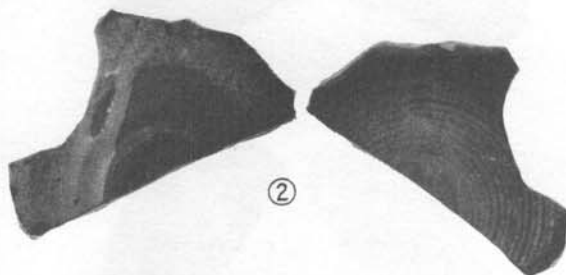
⑩

尊者庵址 출토 인화분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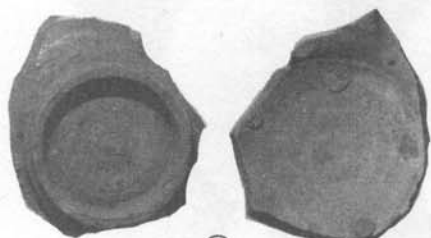
圖版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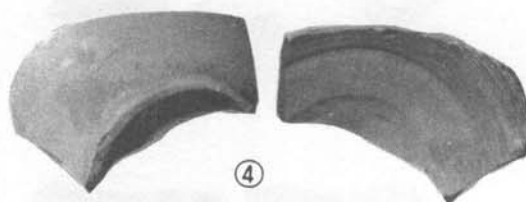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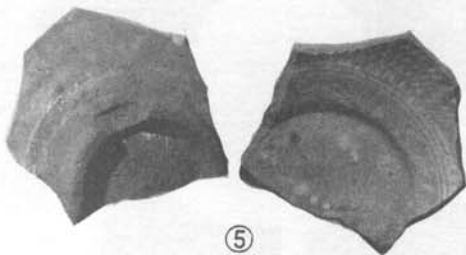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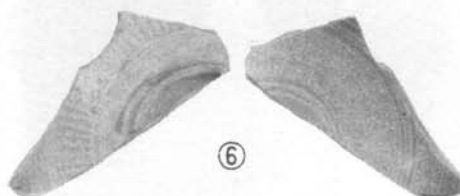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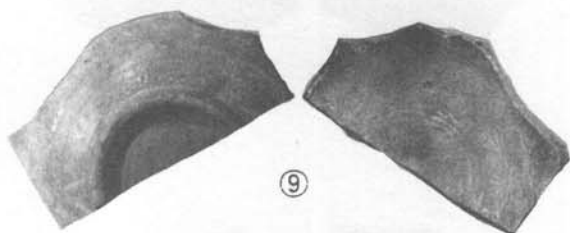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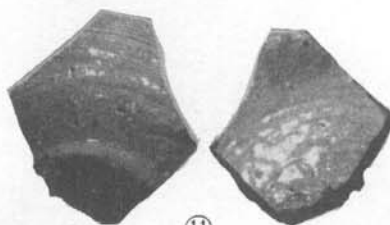
⑦



⑧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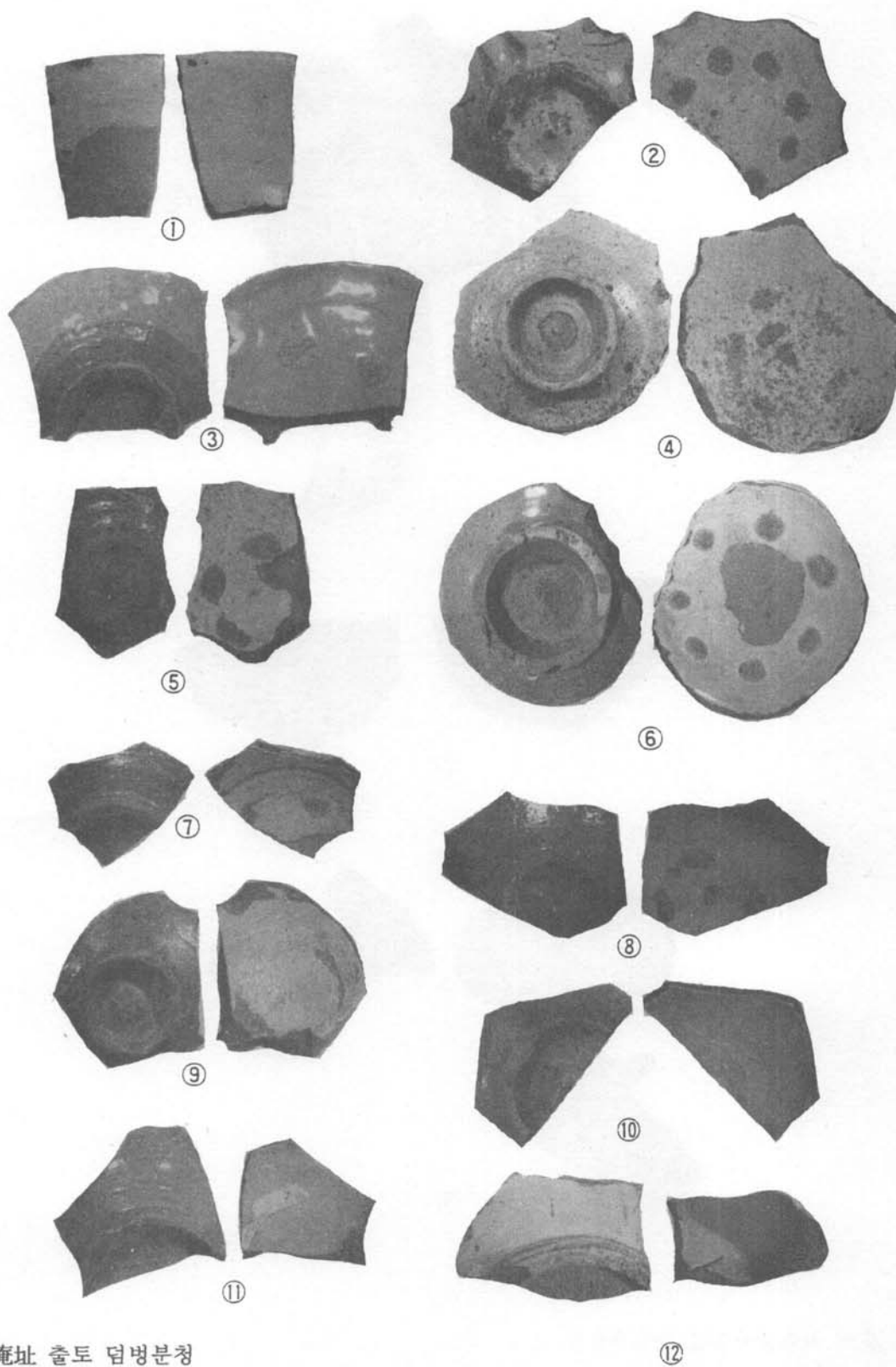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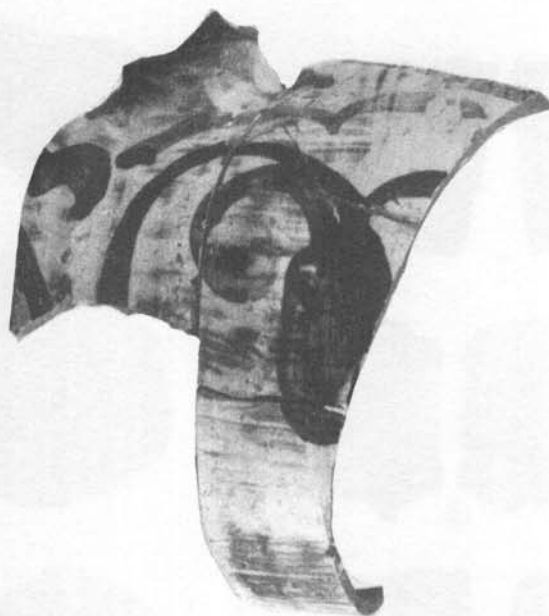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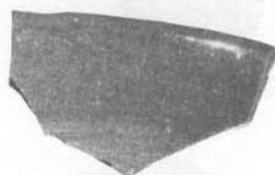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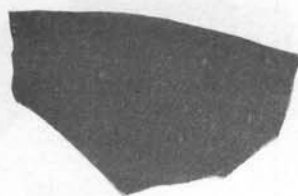
尊者庵址 출토 인화분청 (3) · 귀얄분청



尊者庵址 출토 덧병분청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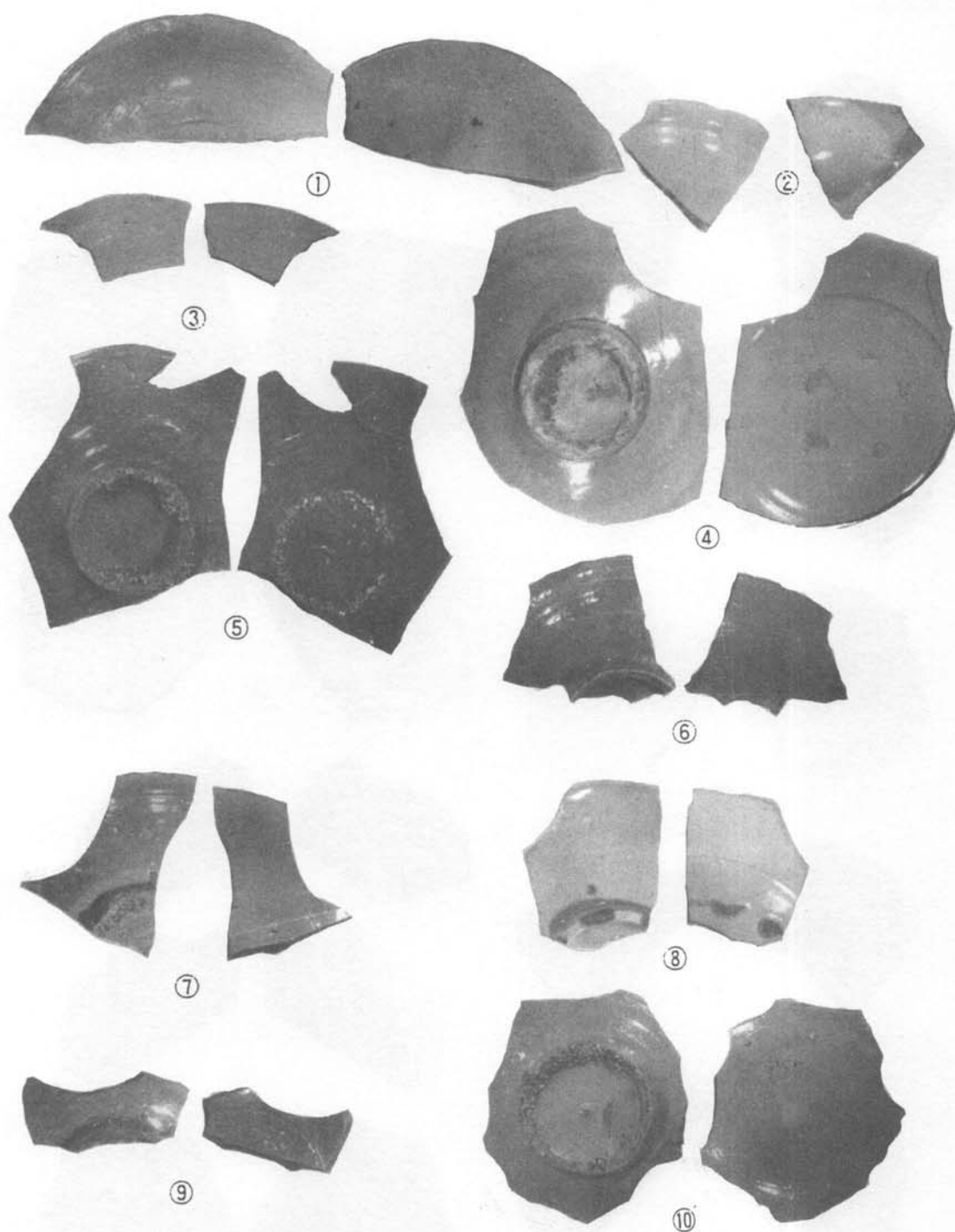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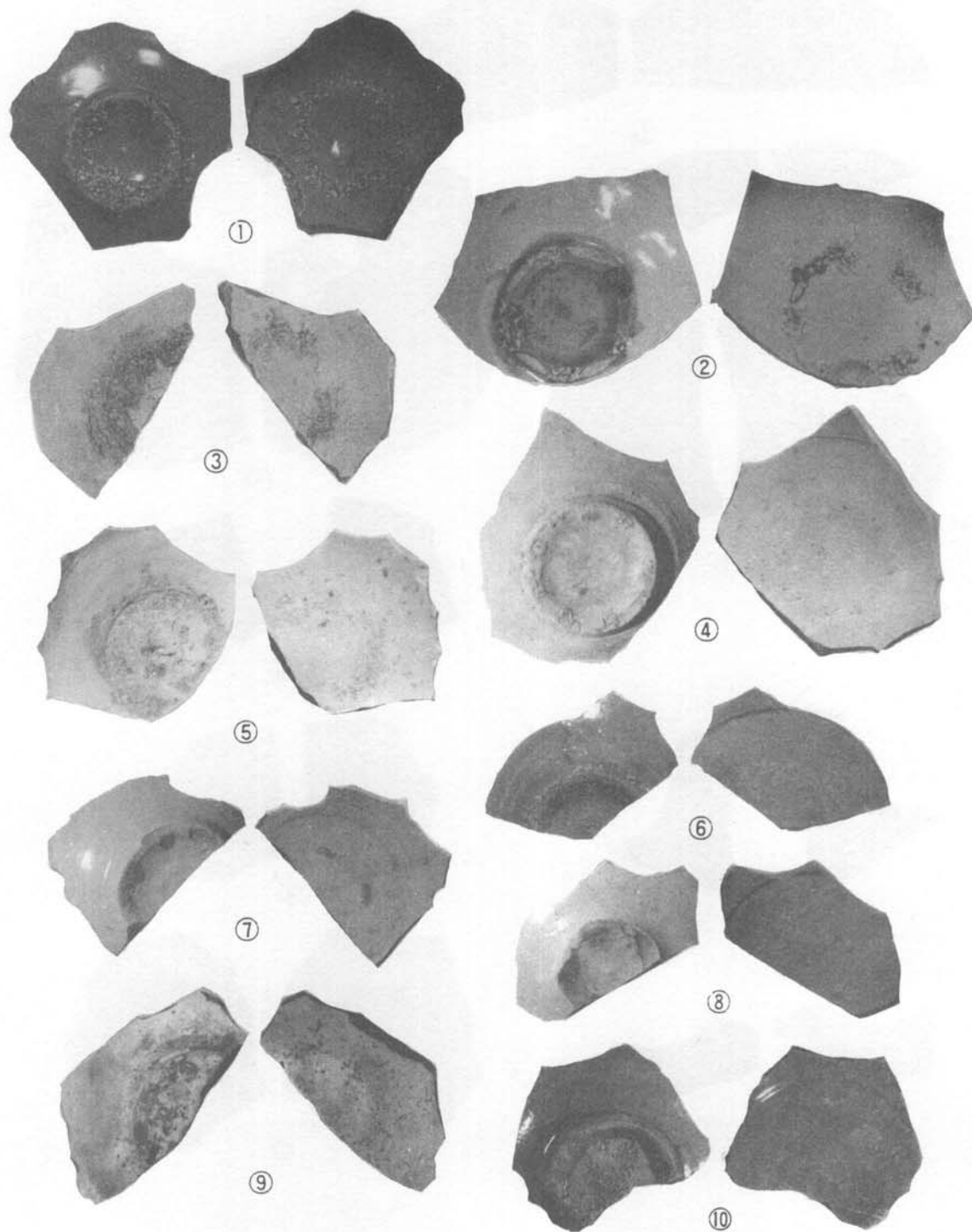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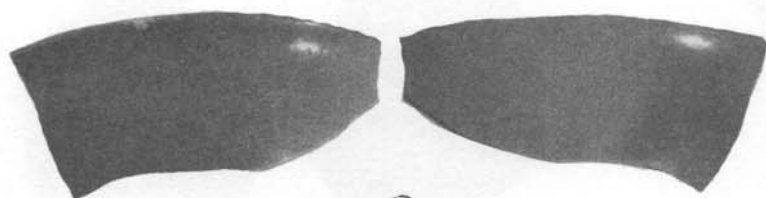
尊者庵址 출토 철화분청장군. 분청주전자



尊者庵址 출토 백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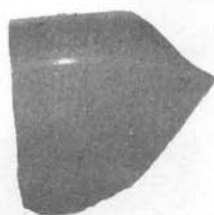
尊者庵址 출토 백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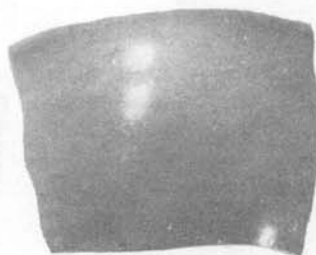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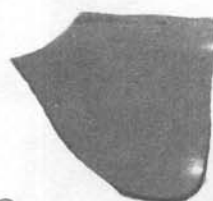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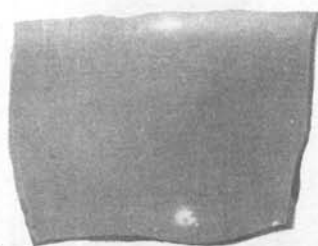
③



②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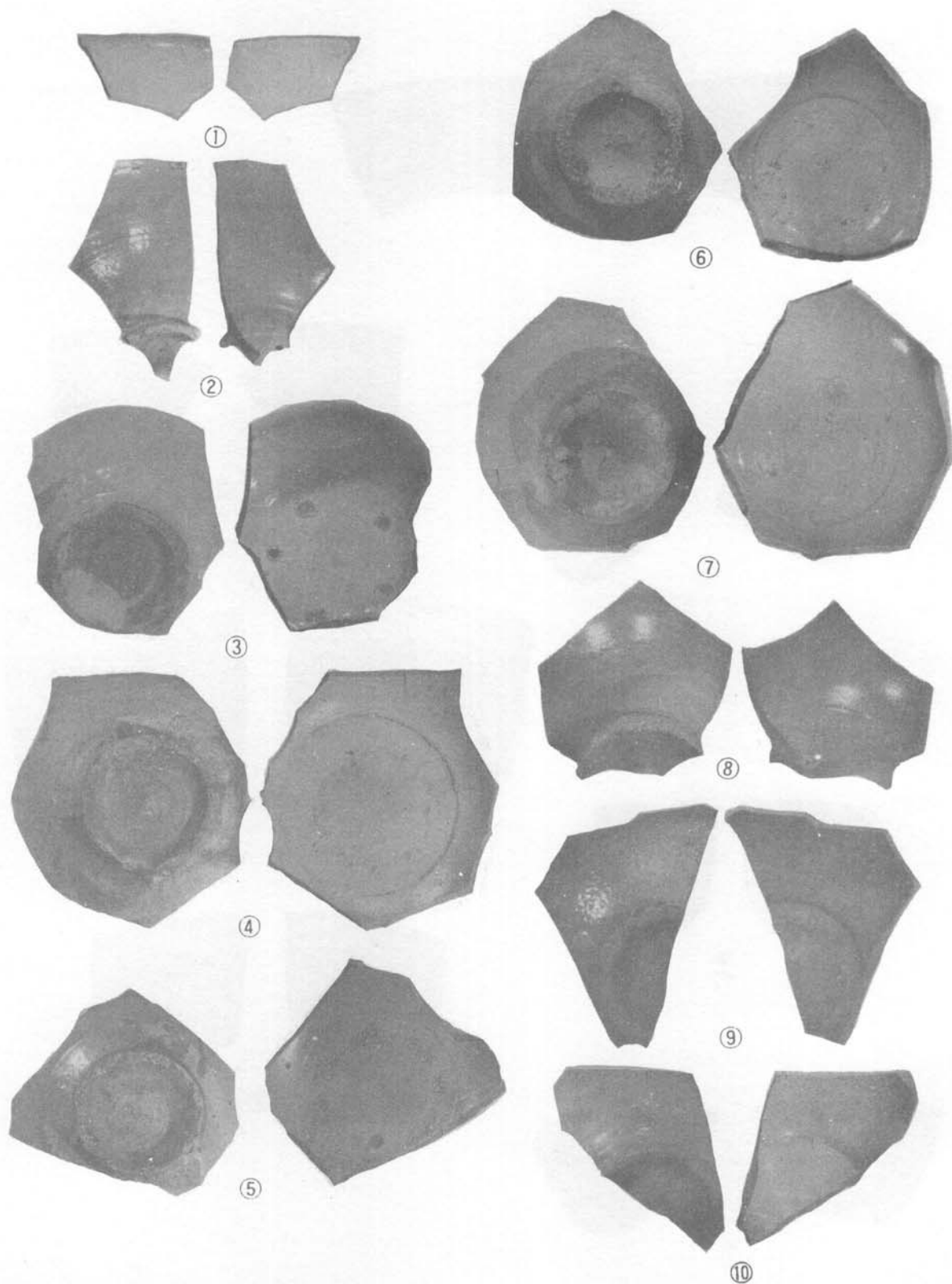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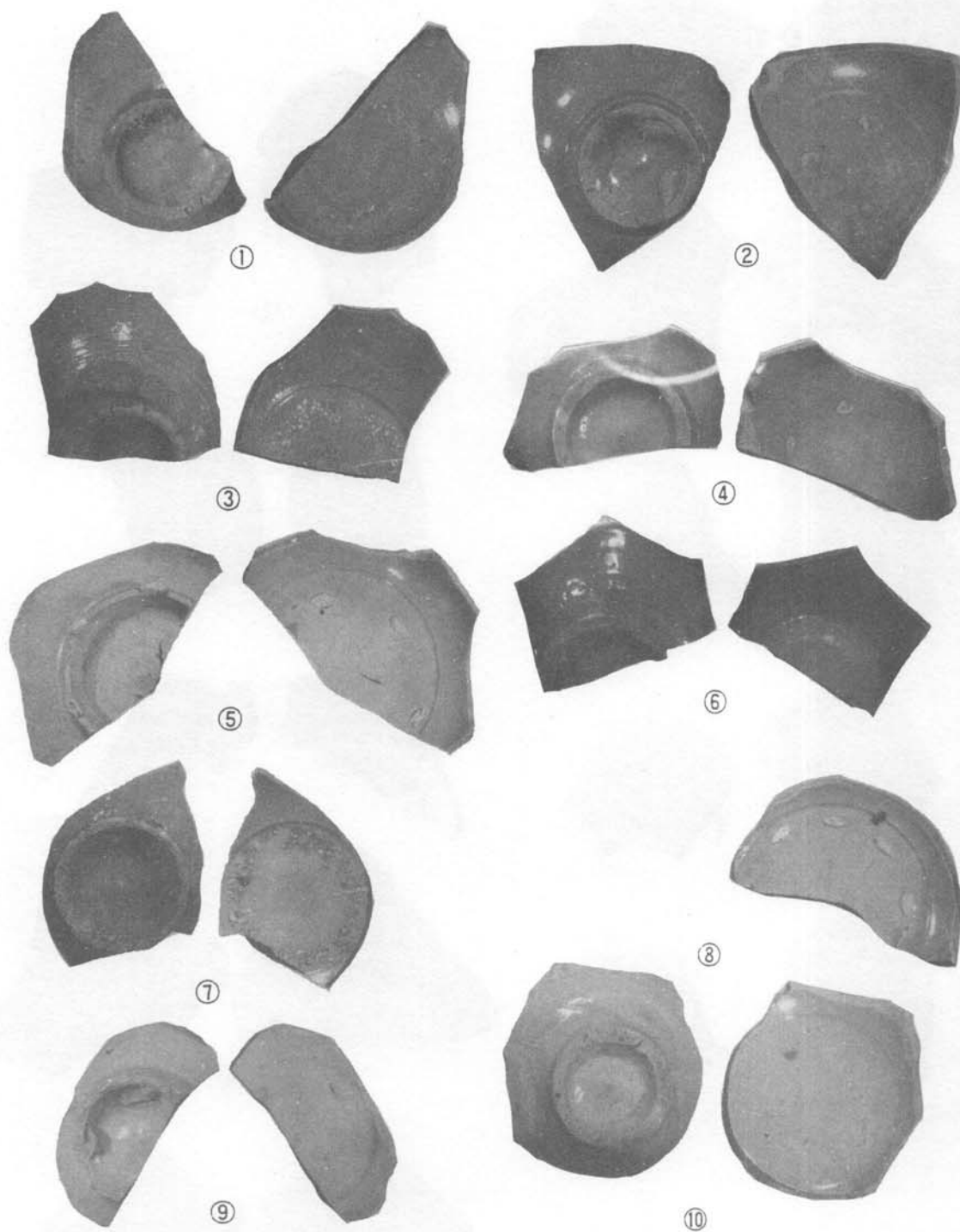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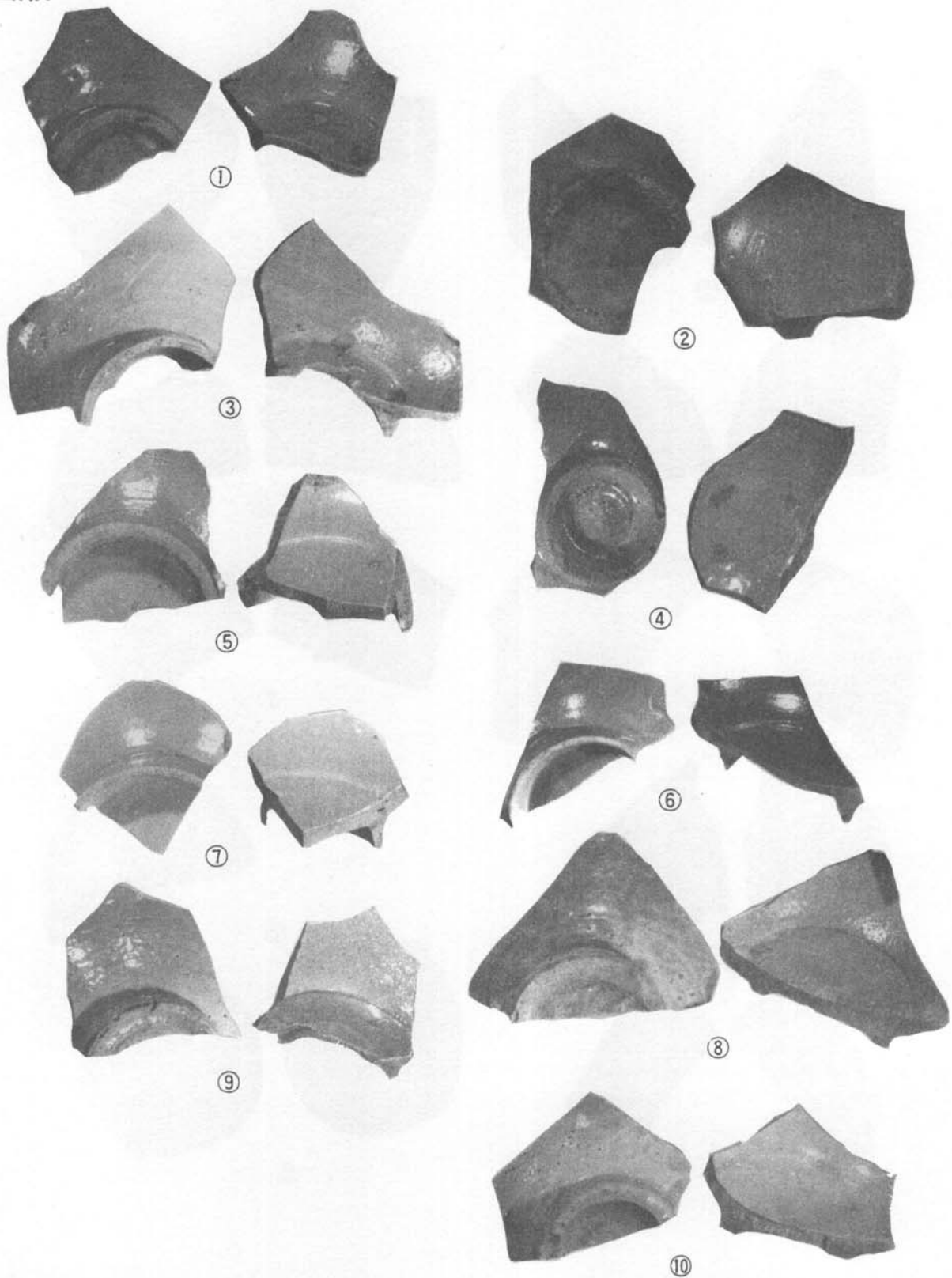
尊者庵址 출토 백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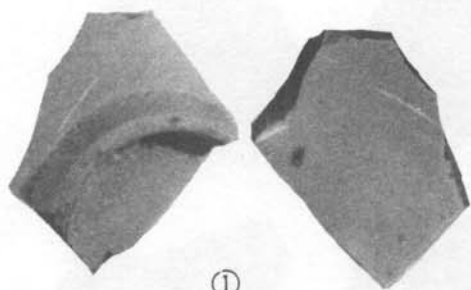
尊者庵址 출토 백자(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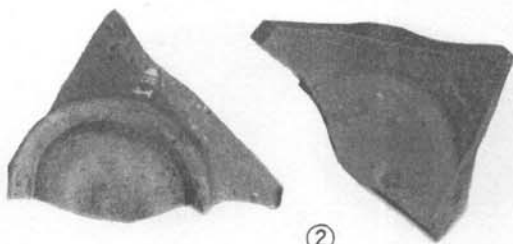
尊者庵址 출토 백자(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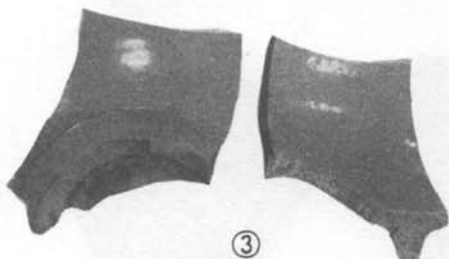
尊者庵址 출토 백자(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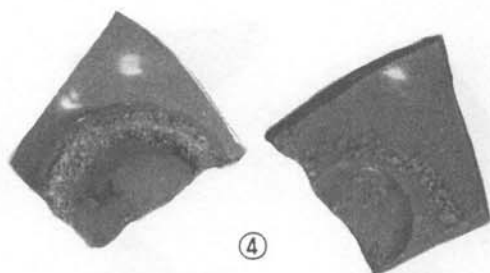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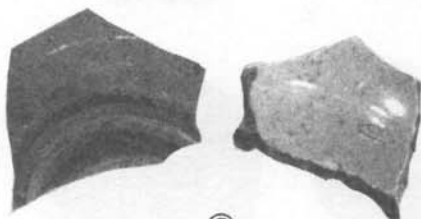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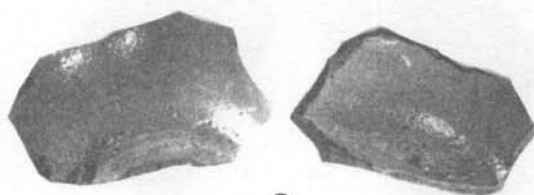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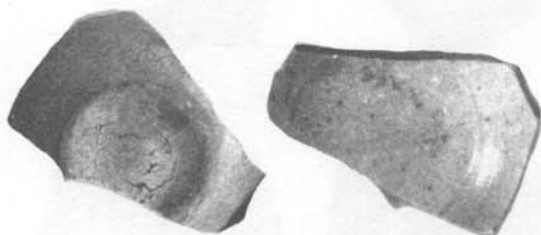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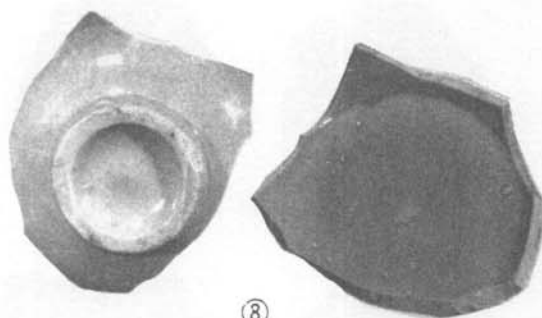
⑤



⑥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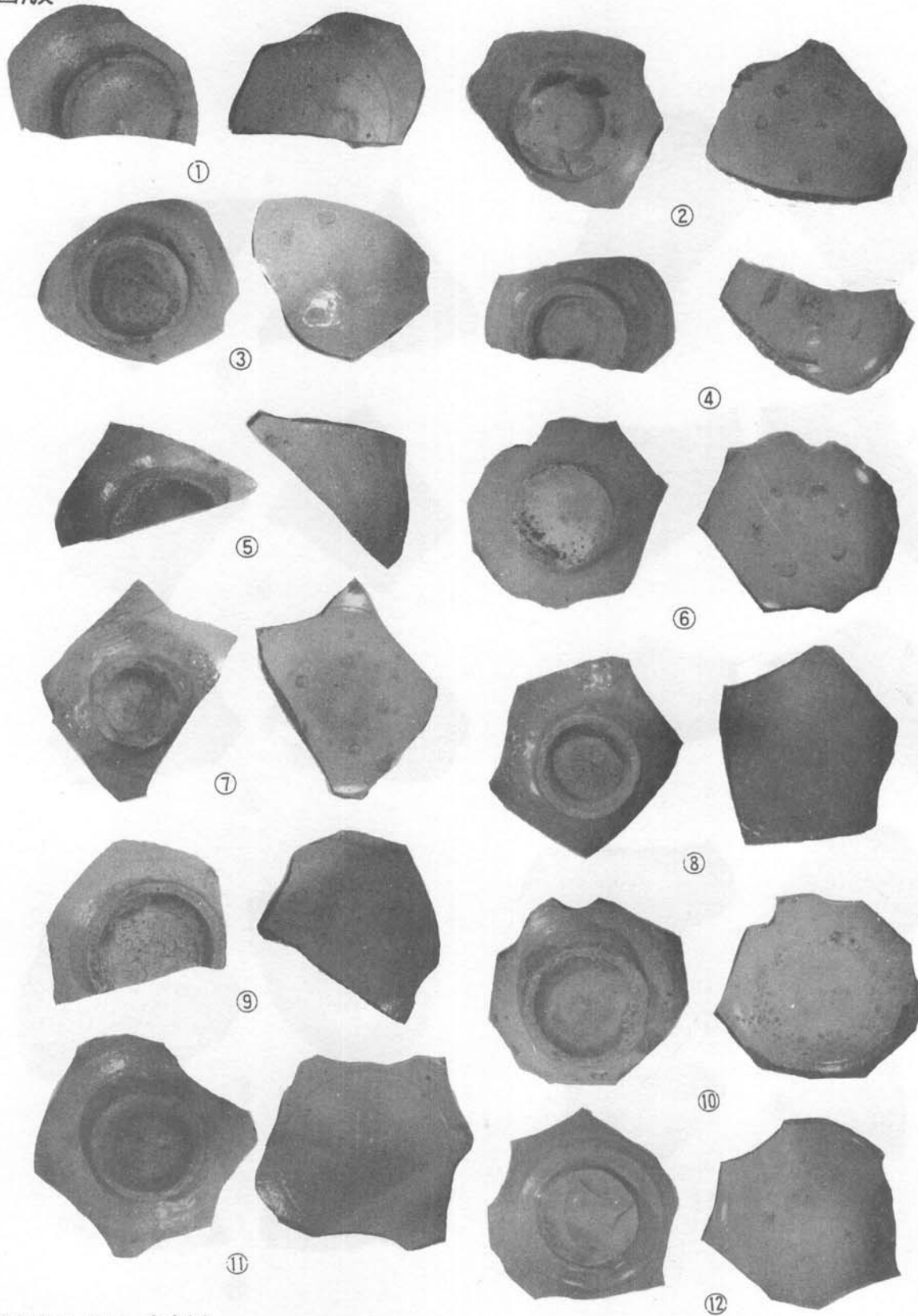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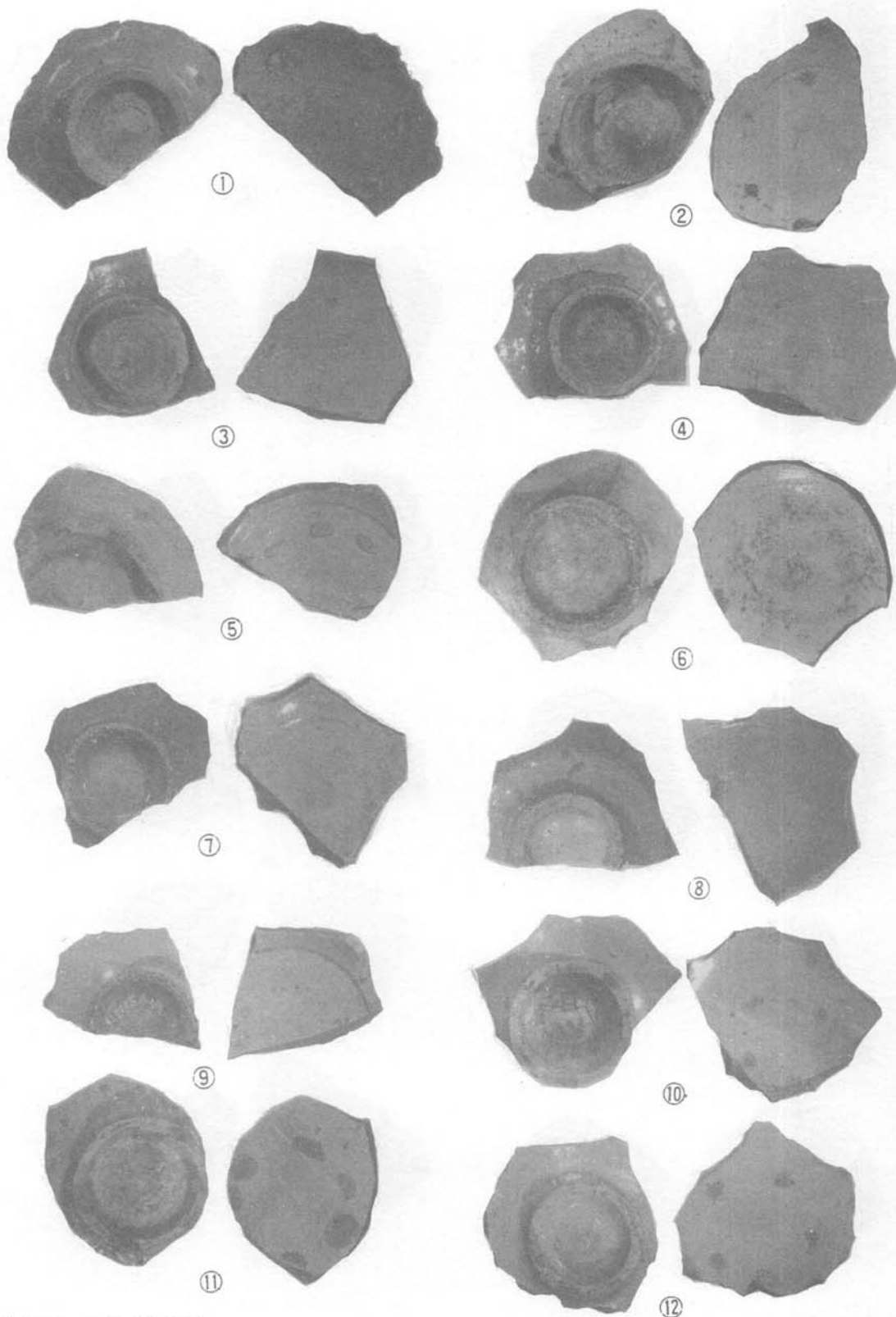
⑩

尊者庵址 출토 백자(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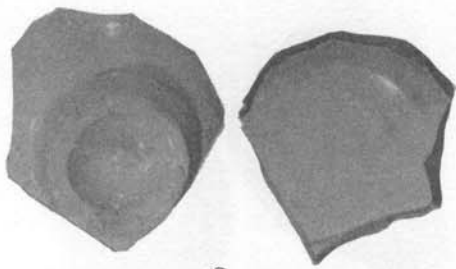
圖版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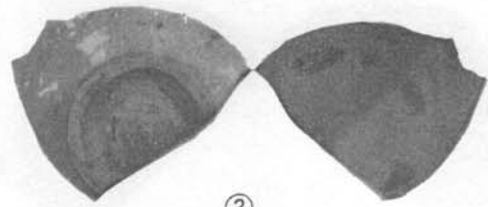
尊者庵址 출토 백자(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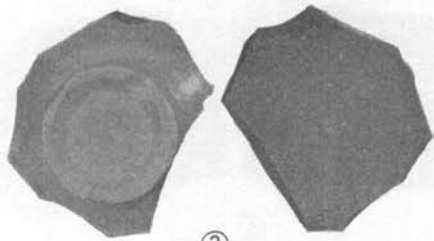
尊者庵址 출토 백자(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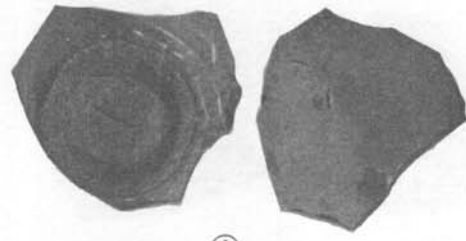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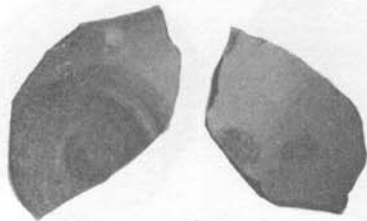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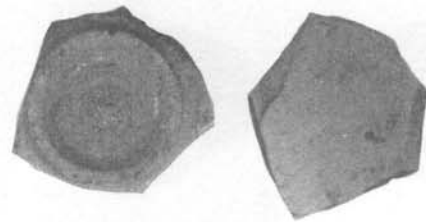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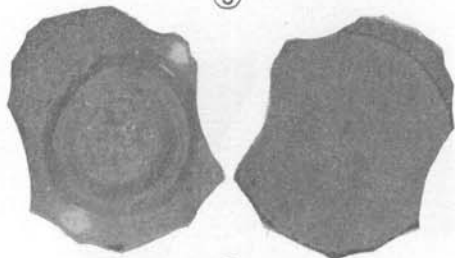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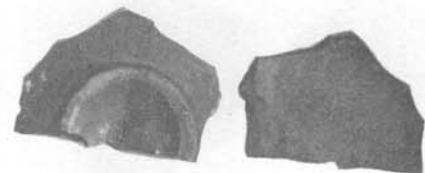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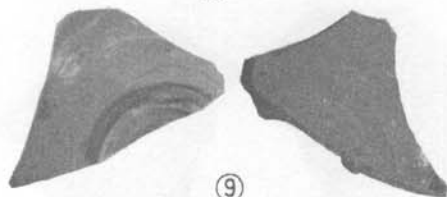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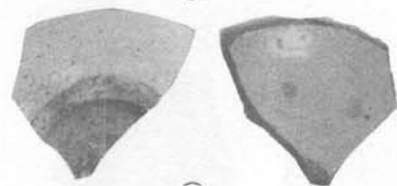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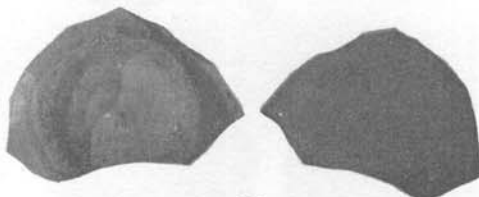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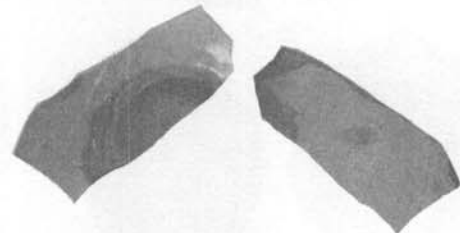
⑨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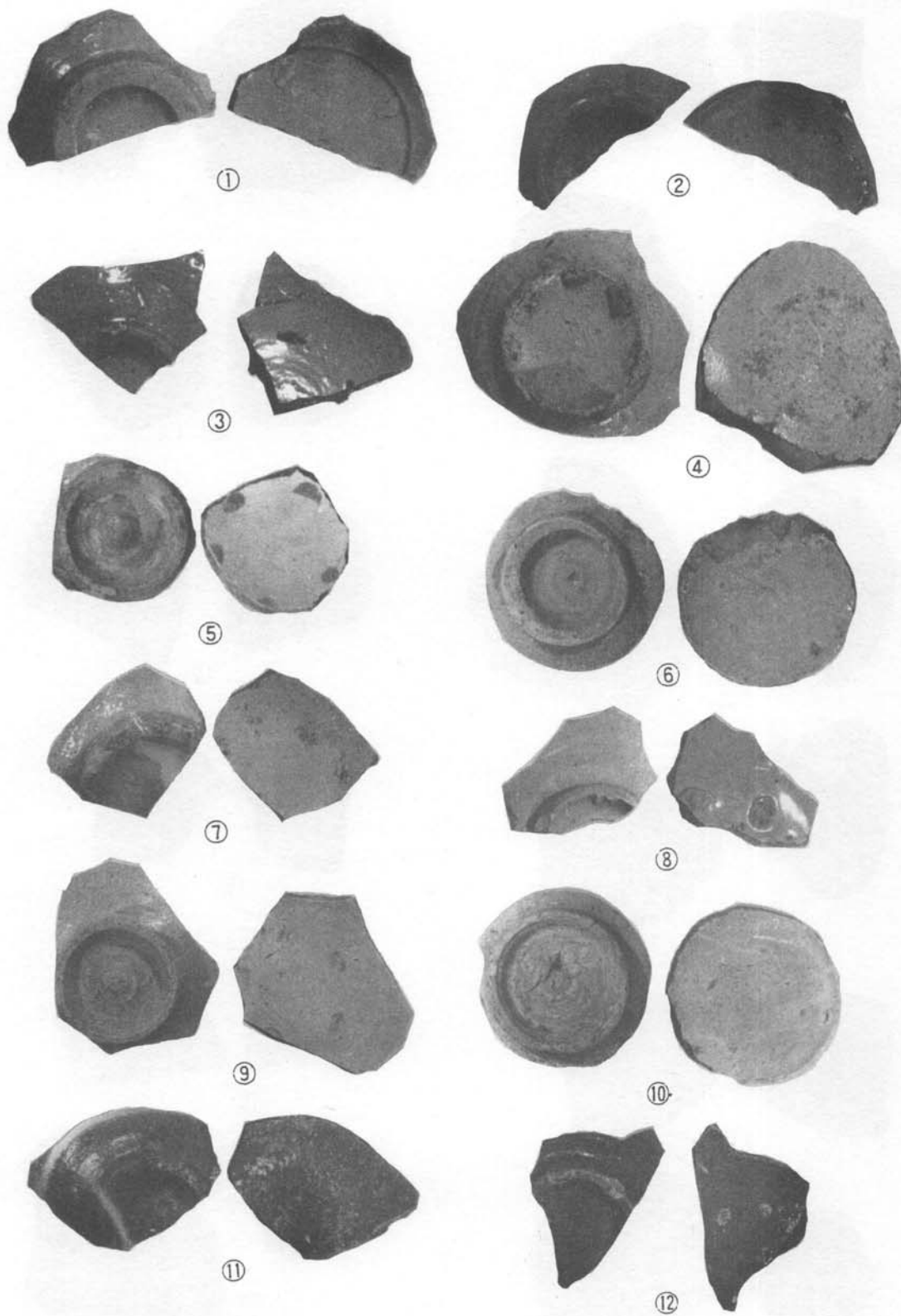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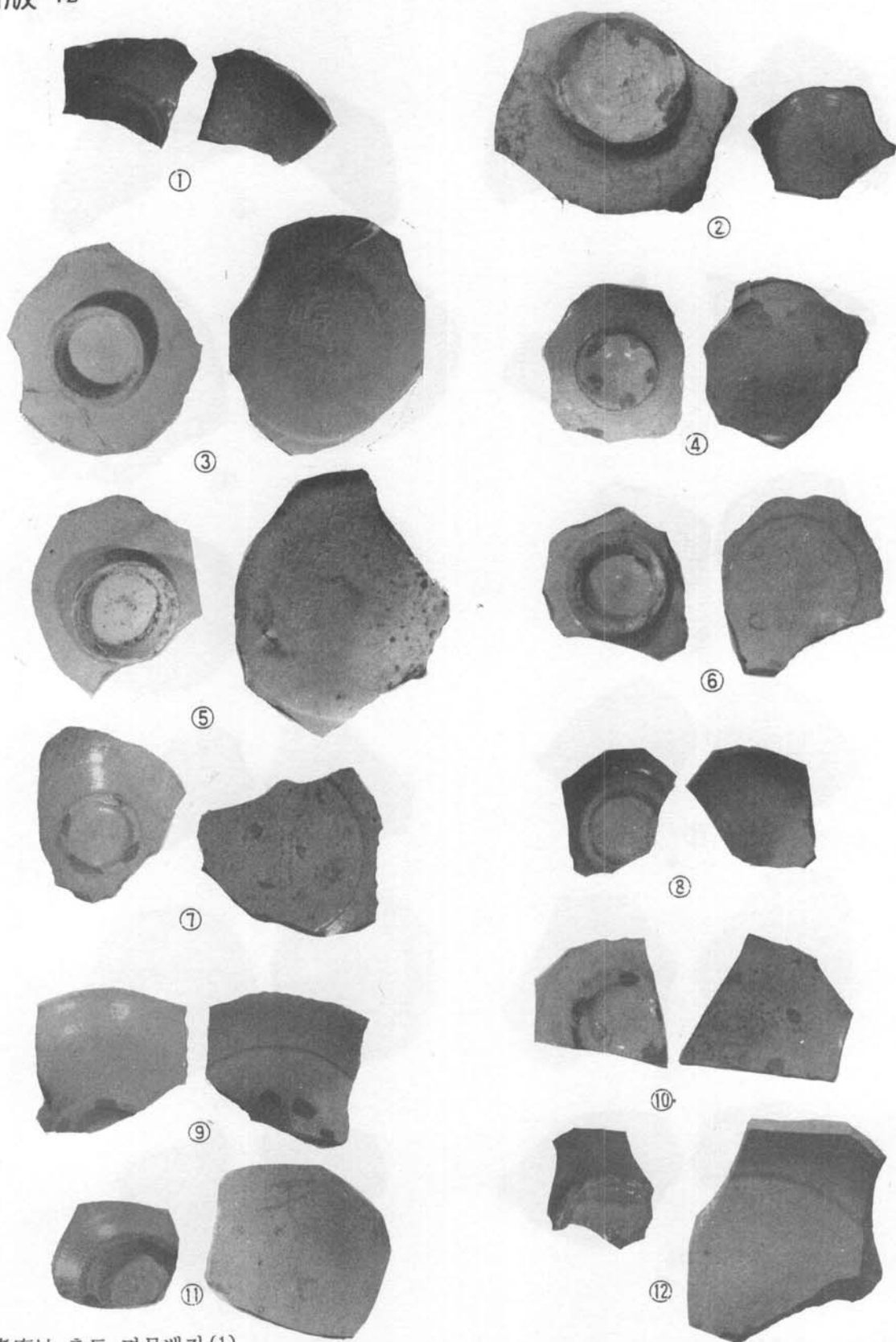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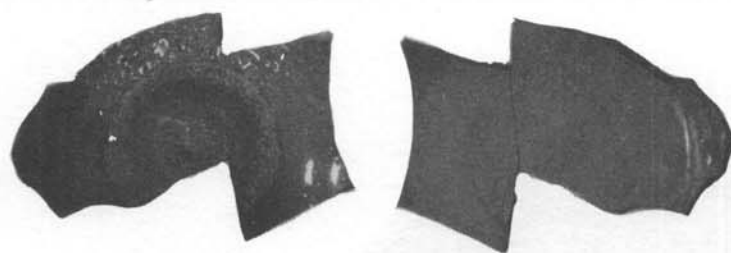
尊者庵址 출토 백자(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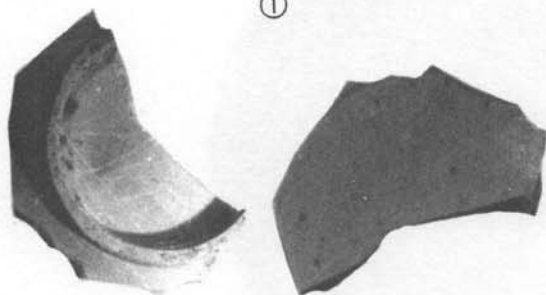
尊者庵址 출토 백자(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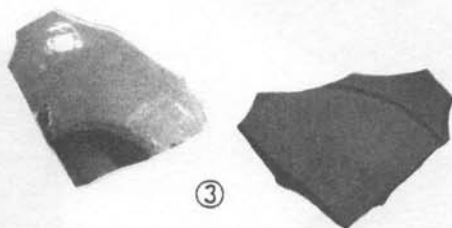
尊者庵址 출토 명문백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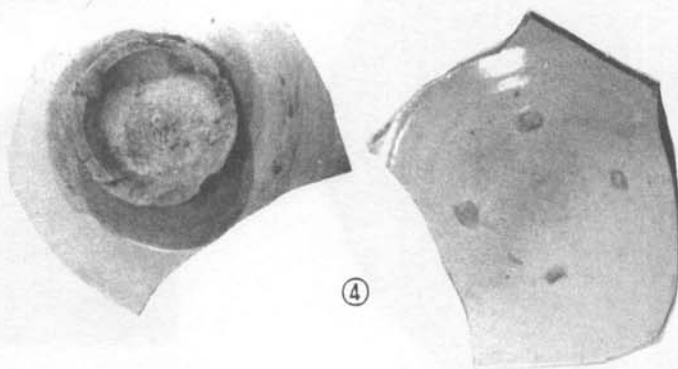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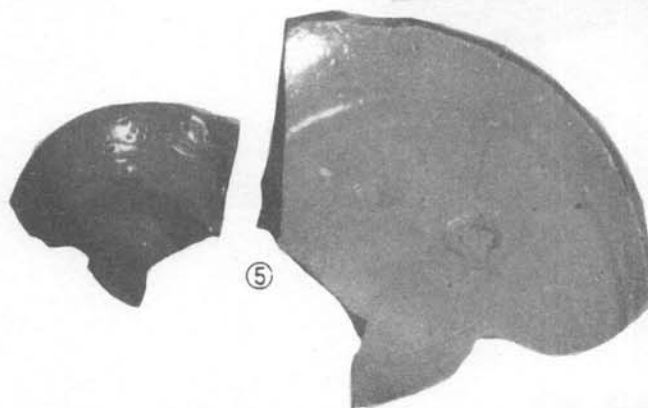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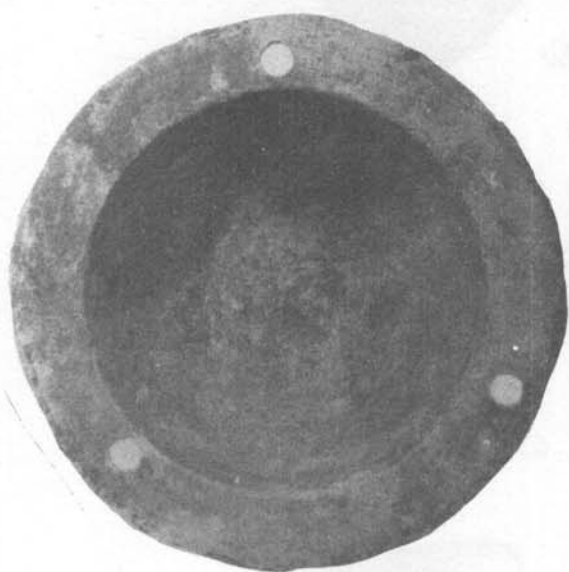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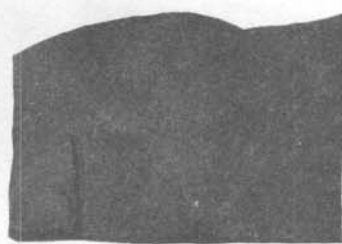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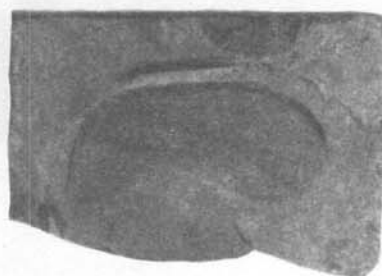


⑤

尊者庵址 출토 명문백자(2)



①



②

尊者庵址 출토 靑銅蓋. 버루